《체호브작품선》(1)에 대하여

《체호브작품선》(1)에는 19세기말 로씨야의 이름있는 비판적사실주의작가였던 체호브의 주요한 단, 중편소설들이 수록되여있다.

안똔 빠블로비치 체호브(1860－1904년)는 흑해연안에 있는 소도시 따간로그시의 소상인가정에서 태여났다. 체호브의 할아버지는 농노였으며 아버지는 자그마한 가게방을 차리고 장사를 하였으나 살림은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는 1868년부터 1879년까지 따간로그시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1876년에 가족이 모스크바로 이사간 다음에도 혼자 그곳에 남아 고학을 하면서 학업을 계속하였다. 1879년에 중학교를 졸업한 체호브는 가족들이 있는 모스크바로 자리를 옮겨 모스크바종합대학 의학부에서 5년동안 공부하였다.

일찍부터 문학창작에 취미를 가지고 중학생시절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체호브는 대학생시절에 중앙의 잡지들에 단편소설들을 발표하였으며 1884년에는 첫 단편소설집을 출판하는데 이르렀다.

체호브는 바로 그해에 의사자격을 얻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자 모스크바부근 워스크레쎈스크(지금의 이스뜨라)시 자치회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1886년에 두번째 단편소설집을 출판하고 1887년에는 희곡 《이와노브》를 모스크바의 극장무대에 올렸다. 그리하여 벌써 이 시기에 와서는 재능있는 작가로 평가되여 중앙의 신문, 잡지들에 그의 작품들이 련속 실리게 되였다.

체호브는 1890년에 싸할린으로 려행하였는데 그 과정에 인민생활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제정로씨야사회제도의 모순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이것은 그의 창작발전에 강한 영향을 주었다.

체호브는 1892년에 모스크바 남쪽의 멜리호보마을(지금의 모스크바주 체호브시)에 자리를 잡고 병치료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면서 여전히 긴장된 창작활동을 벌렸다. 이 시기 그는 빈민구제사업에도 참

가하고 전염병치료사업에도 관여하였으며 농민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 건설사업도 지원하였다.

그동안 병치료를 위해 몇번 외국려행을 했던 체호브는 1899년에 의사들의 권고로 기후가 따뜻한 남부 크림반도의 항구도시 얄따로 이사하여 그곳 별장에서 지내면서 창작을 계속하였으며 고리끼와도 련계를 가지게 되였다.

이 시기 온 로씨야에 알려진 이름난 작가로 되였던 체호브는 1889년에 로씨야문학애호가협회 정회원으로 선거된데 이어 1890년에 과학원 명예원사로 선거되였다. 그러나 그는 1902년에 고리끼가 황제의 지시로 과학원 명예원사로부터 제명당하자 그에 항의하여 명예원사로 되기를 거절하였다.

그때까지 독신으로 있던 체호브는 1901년에야 모스크바예술극장의 녀배우와 결혼하였으나 결혼후 3년만에 건강이 악화되여 도이췰란드에 료양하러 갔다가 1904년 7월 2일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체호브가 창작활동을 벌린 시기는 제정로씨야의 부패상이 더욱 드러나고 프로레타리아혁명운동이 대두하고있던 19세기 80년대부터 1905년 혁명전야까지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체호브는 진보적인 평민민주주의인테리의 립장에 서서 지주,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로씨야전제제도에 비판적으로 대하고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에 깊은 동정을 기울였으며 온갖 반동적인 사상조류들을 반대해나섰다.

그러나 그는 맑스주의를 리해하지 못하고 로동계급과 자기 운명을 결부시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참된 해방의 길을 밝히지 못하였다.

체호브는 결국 부르죠아민주주의사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자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였기때문에 인민의 지향을 일정하게 반영한 진보적인 작품들을 쓸수 있었다.

체호브는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손꼽히우는 단편소설가였다.

그러나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이 그 사상예술적질에 있어서 동일한것은 아니였다. 그의 작품들은 작가로서, 사상가로서의 체호브자신의 발전과정에 따라 점차적으로 심화되고있으며 그 수준이 높아지고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수록된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을 발전의 견지에서 고

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은 시대와 사회제도를 반영해야 하며 또 그것을 옳게 반영한 것이라야 가치가 있는것입니다.》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은 그 어느 시기에 창작된것이건 무엇보다도 당시 제정로씨야의 시대상과 사회생활을 옳게 반영하고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이 강한것이 특징적이였다.

그것은 그의 초기작품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1880년대에 창작한 체호브의 초기단편소설들가운데서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지주의 무지몽매와 횡포성, 고위관리들의 부화방탕과 비인간성 등을 비판한 작품들이다.

편지형식의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주계급의 무지몽매와 횡포성을 내놓고 비판한 《박식한 이웃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고위관리들의 오만무례와 이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며 아부아첨하는 하급관리들을 폭로한 《승리자의 개선》, 관료들의 란잡한 품행을 폭로한 《산 년대기》, 부하들과 백성들에게는 횡포무도하면서도 제 녀편네나 녀성들에게는 비굴하게 굽신거리는 상층관료배를 비웃은 《녀자의 행복》, 관료들의 부화방탕과 무능을 비판한 《부대속에 든 송곳》, 관리들의 무위도식을 풍자한 《트럼프》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이를 통하여 작가는 상층관료배들이 권세와 재물의 힘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보다도 나이많은 사람까지 꺼리낌없이 희롱하는데서 기쁨을 느끼는 그들의 비인간성을 비판하고있으며 동시에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서기보》라는 낮은 벼슬을 얻기 위하여 상층관료배의 횡포에 그대로 순응해나서는 하급관리들도 풍자하고있다.

체호브의 초기단편소설들은 상층관료배들뿐아니라 하급관리들과 소부르죠아들의 상부에 대한 아부아첨과 속물근성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풍자하고있으며 이 주제에 바쳐진 작품들이 량적으로도 가장 많다. 체호브가 이 주제에 큰 관심을 돌린것은 19세기말 제정로씨야에서 자본주의적발전의 영향밑에 소부르죠아들이 많이 자라났으며 그들의 속물근성이 눈에 뜨이게 드러났기때문이였다.

한 최하급관리가 자기가 술에 취하여 마차에 치워 병원에 들어간 교통사고가 신문에 난것을 보고 이웃들에 들고다니면서 자랑하는 허영

심을 풍자한 《기쁨》, 극장에서 무심코 재채기를 하다가 다른 국의 장관의 덜미에 침이 튄것을 근심하던 나머지 불안이 공포가 되고 공포가 병이 되여 죽고만 하급관리의 소심성을 풍자한 《관리의 죽음》, 오랜 중학동창인 옛친구와 롱담도 섞어가면서 반가이 이야기를 나누던 말라깽이가 상대방이 3등문관의 높은 자리에 있다는것을 알자 갑자기 말투를 고쳐 각하를 붙이고 경어를 쓰며 얼굴에는 비굴하고 경건한 존경의 빛을 띄우는 비굴성을 비웃은 《뚱뚱보와 말라깽이》등은 하급관리를 비판한 단편소설들이다.

그리고 하찮은 일로 앙심을 품고있다가 기회가 조성되자 어린 소년의 귀를 잡아당겨 보복하는 젊은 남녀의 속물근성을 풍자한 《나쁜 사내아이》, 장마당에서 생물들을 가두어놓고 괴롭히면서 이를 즐기는 장사군들의 악취미를 사회적압박 및 부자유와 결부시켜 비판한 《모스크바 뜨루브나야광장에서》, 하찮은 일에 너도나도 관심이 쏠려 일대 소동을 벌리는 속물들의 군중심리를 풍자한 《민심의 동요》, 이 하나 뽑지 못하면서 대담성을 부리다가 앓는 이를 부러뜨리고마는 서투른 의사의 무모성을 비판한 《외과수술》, 좀 색다른 사람을 보자 《사상가》로 속단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리발사의 속물근성을 비판한 《목욕탕에서》, 잡았던 가물치도 놓쳐버리는 부주의와 우둔성을 비웃은 《가물치》, 바쁜 일을 앞에 놓고 그와 관련된 다른 일을 해결하려다가 그것을 제때에 해결하지 못한 결과에 그 바쁜 일마저 망쳐버리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말에서 온 성》, 하급순사의 단속관습죄를 비판한 《쁘리쉬베예브하사》, 딸이 녀배우로 되는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낡은 견해를 풍자한 《공양》, 사랑의 심정과 운명은 뜻대로 안된다는것을 이야기한 《롱담》, 소부르죠아의 기만성과 속물근성을 풍자한 《합창단녀자》, 허황한 공상속에 살아가는 속물근성을 비웃은 《채권》 등은 소부르죠아의 속물근성을 폭로한 단편소설들이다.

이 주제의 단편소설들가운데서 《카멜레온》(1884년)과 《쁘리쉬베예브하사》(1885년)는 체호브의 초기창작에서 대표적인 성과작에 속한다. 이 작품들에는 제정로씨야사회제도의 불합리성과 그것이 인간개성에 미치는 해독성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카멜레온》의 주인공인 경찰서장 오츄멜로브는 개가 한 시민을 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카멜레온(몸색이 사는 환경에 따라 자주 변하는 파충류)과 같은 자기의 표리부동성을 여지없이 드러내놓는다. 그는 처음 개에게 손을 물린 시민을 옹호해나서며 개를 방임한 개임자를 나무란다. 그러나 그 개가 어느 장군의것이라는 말을 듣자 당장 쳐죽이라고 했던 자기 말을 취소하고 오히려 개에게 물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추궁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그 개가 장군의 개는 아니지만 장군의 동생의 개라는것을 알게 된 서장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개가 잘생겼다고 칭찬하고 어서 데려가라고 한다.

이리하여 경찰서장은 자기가 결국 법의 공정한 집행자인것이 아니라 권세있는자들, 돈많은자들의 사환군이라는것을 자체폭로한다. 이를 통하여 체호브는 법과 법의 집행자가 이러할진대 정의는 어디에 있으며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고 사회의 질서는 무엇으로 유지될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체호브의 초기단편소설들가운데서 실존자명단과 사망자명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량자를 뒤섞어서 혼란을 조성하는 교회지기를 풍자한 《콩팔칠팔》, 봉건사회의 강제결혼제도를 비판한 《예게르》, 짜리사회의 법률제도의 가혹성을 비판한 《배짱꺼먼 사람》, 개인리기주의로 가득찬 짜리사회를 비판한 《애수》, 당대 사회에서는 행복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준 《행복》, 미국 캘리포니아에로의 도주계획을 내용으로 한 《소년들》, 주인을 잃어버리고 곡마단에 끌려다니며 고생하는 개의 신세를 통하여 로씨야사회의 혼란상을 보여준 《까슈딴까》, 어린이들을 교양하지 않고 내버려두는데 대하여 비판한 《아이들》등은 제정로씨야의 사회적혼란상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체호브의 단편소설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은 근로인민의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그러한 작품들로서 식모살이의 비참한 운명을 동정한 《식모가 장가간다》, 저녁조차 얻어먹지 못해 남의 집 헛간 건초우에서 잠드는 어린 고아들의 가련한 신세와 그들에게 빵을 가져다주는 구두쟁이의 인간성을 보여준 《교외의 하루》, 가난속에서도 기르던 가축에 대한 인정으로 하여 차마 도살장에 보내지 못하는 한 로인의 가난과 인정세태를 보여준 《식객들》, 무고하게 살인죄의 루명을 썼으나 강제로

동이 아니라 씨비리에 류형살이를 가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준 《공상》, 자신은 지주집머슴으로 들어가고 아홉살 먹은 손자는 구두쟁이집 견습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로씨야농민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준 《완까》등이 있다.

특히 단편소설 《자고싶어》(1888년)는 아이보개를 하는 고아 와리까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과 학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보여주고있다. 아침일찍 남먼저 일어나 뻬치까에 불을 지피고 빨래를 하며 저녁에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술상을 차리고 밤에는 아이를 보아야 하는 와리까는 자기의 잠을 앗아가는 원쑤가 누구인가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그것이 우는 아이라는 환각에 빠져 요람에 다가가 어린 아이의 목을 눌러죽이고 마루바닥에 누워 잘수 있다는것이 너무 기뻐 빙그레 웃다가 깊은 잠에 빠진다.

소설은 이러한 조그마한 사건과 세상에서 버림받다싶이 되여 온갖 멸시와 구박을 다 받는 아이보개머슴의 형상에서 당시 로씨야에서 말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던 하층인민들, 학대받는 사람들의 참상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자본주의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하여 비판하고있다.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은 크지 않는 정황과 몇가지 특징적인 세부를 가진 간단한 줄거리, 몇명의 등장인물과 단일하고 명확한 구성속에서 그 당시의 사회생활의 특징을 일반화하고있으며 매우 간결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점에서 두드러져있다.

그러나 체호브의 초기단편소설들가운데는 내용이 빈약하고 사실주의가 뚜렷이 반영되지 못한 작품들도 있다. 《고전중학생의 사건》, 《공양》, 《롱담》, 《소년들》을 비롯한 일련의 단편소설들은 주제사상이 명백치 않으며 생활의 본질적측면들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하고있으며 따라서 무의미한 생활세태의 반영에 머물고있다.

또한 이 시기 작품들에서는 작가가 보여주자고 한 사회적모순들에 대한 비판이 가벼운 해학적웃음에 가리워지고 심각하지 못하다. 체호브의 초기작품들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약점은 다음단계의 작품들에 가서 현저하게 극복되고있다.

이 소설집에 수록되여있는 19세기 80년대말—90년대의 작품들은 그 이전 시기의 작품들에 비하여 그 사상예술적수준이 훨씬 높아

지고있다.

이 작품들은 제정로씨야의 부패상을 보다 강하게 폭로하고 자유와 새생활을 념원하는 인민들의 지향을 일정하게 반영해나서고있다.

중편소설 《초원》(1888년)과 《6호병실》(1892년)은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있는 체호브의 성과작이다.

《초원》은 한 나어린 소년의 동심세계를 통하여 황금만능의 제정로씨야 자본주의사회현실의 부패상을 비판한 작품이다.

작품은 9살난 소년 예고루쉬까의 초원려행기형식으로 되고있다.

마차에는 소년의 외삼촌인 상인, 신부, 마부 해서 모두 4명이 타고있다. 상인과 신부는 항구도시로 양털을 팔러 간다. 하급관리였던 소년의 아버지는 죽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의 신세를 지고있다. 그의 어머니는 오빠에게 부탁하여 자기 아들을 항구도시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예고루쉬까는 려행을 하게 된것이다.

양털을 실은 짐마차는 앞서 떠났다. 무더운 여름철 끝없는 초원을 하루종일 달린다. 작품에서는 나무밑에서 점심을 먹고 쉬는 장면, 저녁에 외딴집 주막에 들었다가 잠간 차를 마시고 짐마차를 따라가는 이야기, 유태인객주집에서 손님에게 아첨하는 주인의 비굴한 모습, 초원의 백만장자 와를라모브에 대한 이야기, 드라니쯔까야백작부인과의 상봉, 초원에서의 저녁과 밤, 물고기잡이와 어죽, 화토불, 마차군들이 하는 강도들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 소낙비를 만난 이야기 등 며칠간 초원을 려행하는 과정에 겪은 이야기를 생동하게 펼쳐놓았다.

작가는 이 이야기의 갈피마다에 무한히 넓은 초원의 지배자, 모든 인간의 관심사는 돈이라는 사상을 담고있으며 제정로씨야는 친척관계, 친우관계, 사회적지위 할것없이 사회의 모든 관계의 바탕에 돈이 놓여있으며 돈에 의하여 사람들이 움직이는 썩어빠진 사회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체호브는 작품에서 자본주의사회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나날이 령락되여가는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반영하였으나 그러한 사회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그러한 현실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19세기 90년대 전반기에 창작된 작품들인 《발작》, 《들뜬 녀자》, 《로뜨실드의 바이올린》, 《문학선생》, 《목에 걸린 안나》, 《다락집》 등 단편소설들 역시 제정로씨야의 부패상을 여러가지 각

도로 비판한 작품들이다.

《발작》에서는 처음으로 유곽거리에 갔다가 륜락녀성들의 처지를 깊이 동정하게 되여 그들을 건져낼 방도를 골똘히 생각했으나 도저히 풀 도리가 없어 발작을 일으키는 량심적인 법과대학생의 형상을 통하여, 《들뜬 녀자》에서는 허영심에 들뜬 한 녀인의 형상과 그를 둘러싼 사회환경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로뜨실드의 바이올린》에서는 소도시에서 관을 만들어 팔면서 일생동안 가난에 쪼들려오다가 죽게 된 순간에 당대 사회제도에 대한 의문을 품는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제정로씨야의 부패상, 당시의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고있다.

《문학선생》에서는 중학교 문학선생으로 있으면서 문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방귀족의 딸에게 장가드는데만 열중하며 결혼후에도 아무런 리상도 없이 허송세월하는 한 인테리를 묘사하면서 생활에서 고상한 목적이 없는 속물적인 인간과 그러한 인간을 낳은 저속한 사회제도를 비판하였으며 《목에 걸린 안나》에서는 부르죠아사회에서의 부패한 도덕관계, 관료들의 추악하고 비굴한 정체, 가난한 사람들의 처참한 운명을 보여주었다.

《다락집》은 한 미술가가 지주의 령지에서 살며 겪은 이야기를 통하여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것이 아니라 자선사업과 같은 눅거리미봉책에 매달리는 인민주의자들을 비판한 작품이다.

체호브는 1890년대 후반기에 창작한 작품들에서도 제정로씨야의 부패상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면서 지주, 자본가계급이 판을 치는 착취사회에서의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반영하는 한편 어두운 당시현실은 물러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표현하였다.

단편소설 《갑속에 든 사나이》(1898년)는 19세기말 제정로씨야의 반동적현실을 반영하면서 자기의 사상도 옷차림도 언행도 모든것을 갑속에 넣고 사는 인물인 벨리꼬브의 형상을 통하여 반동적현실과 타협하고 노예살이에 만족하던 시정배들을 풍자비판한 체호브의 성과작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중학교 그리스어교원 벨리꼬브는 짜리경찰의 앞잡이로서 동료들인 교원들의 생활을 감시하며 시내생활의 모든것을 감

시한다. 그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이다. 거리에 식당이 하나 생기거나 도서관이 하나 나와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가》 하고 우려한다.

그자신은 갑속에 든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여름에도 털외투를 입고 깃을 세우고 모자를 깊숙이 내려쓰며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한다. 게다가 덧신을 신고 우산을 가지며 장갑을 끼고 다닌다. 시계도 갑에 들어있고 우산도 씌우개속에 넣어있다. 집에는 덧문을 닫고 창가림을 치고 침대앞에 휘장을 쳤다. 침대도 관처럼 깊숙하게 되여있다. 그는 감시와 근심속에서 마침내 죽고만다.

소설에서 현실생활에서의 새것, 온갖 전진운동을 두려워하고 갑속에 숨는 벨리꼬브의 형상은 짜리반동통치가 침묵과 순종을 강요하던 19세기 80～90년대 제정로씨야의 사회생활을 반영한 전형적형상이였다. 벨리꼬브의 형상을 통하여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작가는 《더는 이렇게 살수 없다》는 한 등장인물의 부르짖음속에 자기의 진보적사상을 담았다.

이 소설은 반동적현실에 대한 항거의 정신을 제기하고 《이대로 노예살이를 계속할수 없다.》는 호소를 내놓은 점에서 특징적이다.

단편소설 《귀여운 녀자》는 남편이 달라지는데 따라 계속 자기의 견해를 바꾸는 올가라는 녀성의 형상을 통하여 자기 견해가 없이 남의 의견에만 추종하는 인간들을 비판한 작품이며 단편소설 《직무관계로》는 제정로씨야통치배들과 관리들의 반인민성을 비판한 작품이다.

단편소설 《이오늬치》와 《왕진에서 있은 일》, 중편소설 《나의 생활》은 각이한 형의 인테리들을 묘사한 작품들이다.

《이오늬치》에는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풍조에 물젖어 점차 타락해가는 인테리가 등장하고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의사로 취직한 이오늬치는 도소재지에 있는 뚜르낀의 가정에 출입하면서 그 집 딸을 사랑하게 된다. 처녀는 음악가가 되려는 리상을 가지고 그 촌의사의 청혼을 거절한다. 그러나 몇해후 자기에게 재능이 없다는것과 청혼하던 촌의사가 적당하다는것을 깨닫고 이오늬치의 사랑을 소생시키려고 한다. 그때 이오늬치는 이미 녀자에 대한 사랑에서 환멸을 느꼈을뿐아니라 이른바 교양있는 사회층

의 무위도식생활에 환멸을 느끼고있었으므로 그 녀자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린다. 그는 오직 돈을 모으는데서만 생활의 취미를 느낀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열정을 가졌던 청년의사가 속물적인 사회환경속에서 사회적진보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자신이 저속한 인간으로 되며 부르죠아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제정로씨야의 부패상을 비판하였다.

《왕진에서 있은 일》에는 《이오늬치》와 달리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해부하려는 진보적인 인테리가 등장한다.

의사 끄롤레브는 과부인 대공장주 로물리끄바의 외딸 리자의 병을 보러 간다. 의사는 그것이 어떤 육체적병이 아니라 백만장자의 상속자가 자기 처지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데서 오는 일종의 정신적인 병이라는것을 판단하고 처녀에게 자본가의 생활이 불합리하다는것, 대략 50년후에는 합리적인 좋은 세상이 올것이라는것을 설명하고 이 환경을 버리고 떠나라고 권고한다.

여기서 작가는 수많은 로동자들의 로력의 열매를 한사람의 공장주가 독점하게 하고 로동자들을 생활난에 몰아넣는 공장을 《악마》라고 표현하고 자본가의 가정내부생활의 무의미성, 건전한 리성을 가진 자본가의 새 세대는 자기의 처지에 불만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제도의 불합리성과 그 멸망의 내적원인을 밝히려고 하였다.

중편소설 《나의 생활》에서도 진보적인테리의 생활이 묘사되고 있다.

주인공 《나》는 대학을 나온 후 관리로 취직하였으나 불합리한 현실과 충돌하고 뼁끼쟁이로동자로 된다. 그는 로동과정에 육체적시련과 경제적곤난을 겪지만 자기의 로동으로 살아가는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며 그 과정에 돈있는자들의 전횡과 로동하는 근로자들의 무권리한 처지를 더욱 절실히 체험한다. 소설에서는 그가 그후에 체험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있다. 이를 통하여 체호브는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압박, 그들의 무권리와 빈궁을 보여주고 지배계급의 략탈적본성과 도덕적타락, 사회적모순과 불합리를 비판하였다.

단편소설 《농군들》과 중편소설 《골짜기에서》는 제정로씨야의 농촌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농군들》에는 모스크바의 한 려관 사환군가족이 살길을 찾아 고향인 농촌으로 갔다가 체험한 이야기를 통하여 제정로씨야 농민들의 비참한 처지가 반영되였다.

중편소설 《골짜기에서》(1900년)는 한 시골부락에서 식료상점을 차리고있는 장사군가정의 생활을 묘사하고있다.

상점주인인 찌부낀은 식료품과 여러가지 잡화들을 팔면서 술에 물을 타고 변질된 식료품을 비싸게 팔며 농민들의 곡식, 집짐승 등을 헐값으로 사서 도시로 넘김으로써 부자가 된다. 그의 맏아들 아니씸은 형사노릇을 하고 둘째는 병신이다. 사납고 욕심많은 녀자인 둘째며느리는 장사에서 모든 부정행위를 도맡아한다. 찌부낀은 맏아들이 화폐를 위조하다가 잡혀간 후 맏며느리 리빠와 그의 어린 아들애에게 재산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둘째며느리 악씨니야와 대판싸움을 벌린다. 악의에 차서 리빠의 아들애에게 끓는 물을 퍼부어 죽이고 리빠를 집에서 쫓아낸 악씨니야가 집안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하게 되며 찌부낀령감은 며느리의 괄시를 받으며 음식조차 얻어먹지 못하고 거지가 된다.

작품에서는 찌부낀의 가정내부생활, 특히 악씨니야의 형상을 통하여 온갖 사기와 협잡, 허위와 기만을 일삼으면서 살쪄가는 착취자들의 략탈적본성과 그 부패성을 신랄히 비판하였다.

체호브의 마지막단편소설 《약혼녀》(1903년)는 새생활을 지향하는 당대의 시대상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한 지방도시의 유족한 가정의 외딸인 나쟈는 신부의 아들 안드레이와 약혼하여 결혼날을 기다리고있다. 이러한 나쟈에게 그의 먼 친척벌이 되는 미술가 싸샤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안일하게 살아가는것은 추악한 생활이며 이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말고 수도에 가서 광명한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해야 한다고 타이른다. 이 말을 여러번 듣고 처음에는 리해하지 못했던 나쟈는 차츰 현재의 무위도식적인 생활과 목적없는 미래에 대한 의혹을 품게 되며 마침내 결혼날 며칠전에 집을 도망하여 뻬쩨르부르그에 가서 학교에 다닌다. 그리하여 나쟈는 놀고먹던 라태하고 무의미한 과거생활을 버리고 새생활을 향하여 희망에 차서 고향을 영원히 떠난다.

소설에서 체호브는 유산자들의 무위도식생활을 비판하고 불합리

한 현존생활을 개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교양을 받고 숭고한 리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새생활이 빨리 올것이며 그런 광명한 시대는 반드시 올것이라는 믿음을 표시하였다.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은 그 진보적인 내용과 함께 구성과 묘사기교, 언어구사 등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의 구성상특징은 등장인물이 극히 적으며 사건은 시초부터가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되며 주인공들이 즉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건의 발단이나 발전으로 될수도 있으며 환경전개로도 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될수도 있다.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은 그 제목만 보아서는 주제사상적내용을 짐작하기 어려우며 마지막까지 다 읽고서야 그것을 깨달을수 있게 하고있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체호브의 단편소설들의 묘사기교에서 특징적인것은 간결성, 객관성, 정확성, 생동성이다. 작가는 가장 특징적인 세부를 골라 거기에 초점을 두며 동적이며 집체적인 묘사를 보장함으로써 간결하고 생동하며 정확하고 진실한 화폭을 제시하고있다. 인물묘사에서는 초상묘사를 상세히 하지 않고 경력소개를 따로 하지 않으면서 성격의 반영인 언어, 행동, 태도를 보여주는데 주력함으로써 성격을 조형적으로 잘 밝혀내고있다.

체호브의 단편소설은 그 언어가 극히 간결한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후보원사, 교수, 박사 김왕섭

차 례

관리의 죽음

어느 훌륭한 저녁에 그보다 못지 않게 훌륭한 회계관인 이완 드미뜨리치 체르뱌꼬브는 보통석으로 된 극장의 둘째 줄에 앉아 극장용쌍안경으로 《꼬르네윌의 종들》을 관람하고있었다. 그는 무대를 보면서 자기가 더할나위없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갑자기… 단편소설들에서는 이 《그러나 갑자기》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물론 작가들은 옳다. 생활에는 이런 돌발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갑자기 그의 얼굴은 찡그려지고 눈이 뒤집히고 숨은 딱 막혀버렸다. … 그는 눈에서 쌍안경을 떼고 등을 굽힌 다음… 에취! 보는바와 같이 재채기를 하였다. 재채기를 하는것은 그 누구나 그 어디서도 금지되여있지 않다. 농군들도 시경찰서장들도 때로는 3등문관들조차도 재채기를 한다.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기마련이다. 체르뱌꼬브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입술을 문지른 다음 례절바르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혹시 재채기로 그 누구를 방해나 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러나 그는 인차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자기 앞줄에 앉아있던 체소한 로인이 장갑으로 자기의 대머리와 목을 열심히 문지르며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는것을 보았다. 체르뱌꼬브는 그 로인이 교통성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문관이며 장군인 브리즈쟐로브라는것을 알았다.

(침방울이 튀였구나!) 체르뱌꼬브는 생각하였다. (우리 상관이 아니라 남의 상관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실례하였으니 사죄해야지.)

체르뱌꼬브는 기침을 한번 깇고 몸을 굽히고 장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미안합니다, 각하. 제가 각하에게 침이 튀게 하였습니다. … 저는 뜻밖에…》

《괜찮소, 괜찮아. …》

《제발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사실… 저는 우정 그런게 아닙니다.》
《하, 어서 앉으시오! 좀 들어야겠소!》
체르뱌꼬브는 당황하여 게면쩍게 웃고나서 무대를 보기 시작하였다. 그는 공연을 계속 보기는 하였으나 이미 지극한 행복은 느끼지 못하였다. 그는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막간휴식시간에 브리즈잘로브에게 다가가서 그의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거북한것을 무릅쓰고 중얼거렸다.
《제가 당신에게 침방울이 튀게 하였습니다, 각하… 용서하십시오. … 저도 사실… 우정 그렇게 한것은 아니…》
《허, 이젠 됐소. … 난 이미 잊었소. 그런데 당신은 뭘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러오!》
장군은 이렇게 말하였으나 아래입술은 참을수 없는지 떨렸다.
(잊었다구? 그러나 저분 눈에는 노기가 차있지 않는가.) 체르뱌꼬브는 장군을 의심쩍게 쳐다보면서 생각하였다. (이젠 말도 하고싶지 않아하누나. 그러나 저분에게 내가 우정 그러지 않았다는것과 재채기는 인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것을 설명해야겠다. …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정 침을 뱉았다고 생각할지 몰라. 혹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후에는 꼭 그렇게 생각할거야.)
체르뱌꼬브는 집에 돌아오기 바쁘게 자기의 무례한 행동을 안해에게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안해는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안해는 약간 놀라기는 하였으나 브리즈잘로브가 남의 상관이라는것을 알고는 안심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을 찾아가서 사죄하세요.》 그 녀자는 말하였다. 《당신이 공중장소에서 처신을 할줄 모른다고 생각할거예요!》
《글쎄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요! 나는 사죄를 했지만 그분은 이상하게도… 리해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던. 그래서 더 이야기도 못하고말았소.》
다음날 브리즈잘로브에게 변명하려고 찾아갔다. …
그는 장군의 응접실에 들어서자 많은 청원자들이 와있는것을 보았다.
장군자신도 청원자들속에 앉아 청원을 접수하고있었다. 장군은 청원자들을 만나고나서 체르뱌꼬브한테도 눈길을 돌렸다.

《어제 아르까지에서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각하.》 하고 회계관은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제가 재채기를 해서 각하께 침방울이 튀게 하였습니다. … 미안…》

《뭘 그따위 시시한걸 가지고… 하느님맙소사… 그래, 대체 어쩌라는거요?》 장군은 다음청원자한테로 눈길을 돌렸다.

(말도 하기 싫어하는구나!)

체르뱌꼬브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생각하였다.

(성이 났구나. … 아니다, 이대로 지나칠 일이 아니야. 내가 설명을 해야지.)

담화를 끝내고나서 장군이 마지막청원자와 화려한 내실로 향하였을 때 체르뱌꼬브는 그의 뒤를 바싹 따라가 떠듬떠듬 말을 꺼냈다.

《각하! 제가 이렇게 각하에게 감히 시끄러움을 끼치게 되는것은 오직 참회의 감정때문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싶이 제가 일부러 그런것은 아니였습니다!》

장군은 울상을 하고 손을 홱 내저었다.

《그래, 당신은 정말 날 조롱할 작정이요, 나리!》 그는 인차 내실로 사라져버렸다.

(그게 무슨 조롱이라고?) 체르뱌꼬브는 생각하였다. (내가 감히 조롱하다니! 장군이긴 하지만 글쎄 리해할줄은 모르거던! 그렇다면 나도 이 거만한 사람에게 더 사죄할 필요는 없다! 제길, 편지나 쓰고 찾아다니지는 말아야지. 흥, 다닐것까지야 없지!)

체르뱌꼬브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는 장군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였으나 아무리해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다음날 다시 설명하려고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저는 어제 각하에게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그는 장군이 의아한 눈으로 자기를 보자 머뭇머뭇 말을 꺼냈다.

《전 당신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조롱하려고 왔던것은 아니였습니다. 저는 재채기를 하여 각하께 침이 튀게 한것을 사죄하려고 하였지 조롱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가 감히 조롱할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누구든지 조롱하기 시작한다면 례의는 없어지고말것입니다. 아무러믄요. …》

《썩 나갓!》 갑자기 성이 치밀어 몸까지 떤 장군이 꽥 소리쳤다.

《왜 그러십니까?》 체르뱌꼬브는 겁에 질려 나직이 물었다.
《썩 나갓!》 장군은 발을 구르고 다시 고함쳤다.
체르뱌꼬브는 배안에서 무엇인가 마구 쥐여뜯는것 같았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채 뒤걸음질로 문밖으로 나가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오자 관복을 입은채로 쏘파에 누웠다. 그리고는… 죽었다.

—1883년—

뚱뚱보와 말라깽이

니꼴라옙쓰까야철도정거장에서 두 친구가 서로 마주쳤다. 한사람은 뚱뚱보이고 다른 한사람은 말라깽이였다. 뚱뚱보는 방금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라 기름이 번지르르한 그의 입술은 다 익은 버찌처럼 번들거렸다. 그에게서는 세리술(에스빠냐 흰포도술의 한 종류)과 흰 오렌지꽃을 넣은 술냄새가 풍겼다. 말라깽이로 말하면 방금 렬차에서 내려 트렁크와 보따리들, 지함 같은것들을 잔뜩 끼고 들고있었다. 그에게서는 햄과 커피찌끼냄새가 났다. 말라깽이의 등뒤에는 여윈데다가 주걱턱인 그의 안해와 눈이 가늘고 키가 큰 중학생인 그의 아들이 서서 두리번거렸다.

《뽀르피리!》뚱뚱보가 말라깽이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이 친구야! 이게 대체 몇해만이야!》

《아유!》 말라깽이도 그만 깜짝 놀랐다. 《미샤! 어릴 때 친구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나?》

두 친구는 세번이나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들은 모두 눈물이 글썽하여 서로 마주보았다.

《이 사람아!》 서로 입을 맞춘 다음 말라깽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만나다니 생각도 못한 일일세! 이거야말루 정말 뜻밖인걸! 여보게, 날 좀 똑바루 보게나! 자넨 여전히 미남자네그려! 참 그럴듯한걸, 멋쟁일세! 오, 참 여보게! 그런데 말야, 어떻게 지내나? 부잔가? 장가두 들구? 나야 이미 장가를 들었지. 자네가 보는바와 같네. … 이 사람이 바로 내 안해 루이자일세. 완쩬바흐가문태생이라네. … 신교도지. … 그리구 이 앤 내 아들 나파나일일세. 3학년이야. 얘, 나파나일, 이분은 내가 어렸을 때의 친구다! 중학교동창생이란다!》

나파나일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자를 벗었다.

《중학교동창생이지.》 말라깽이는 말을 이었다.

《자네 생각나나? 왜 자넬 마구 놀리지 않았나. 자네가 책을 담배불로 태워서 구멍을 냈다구 말이야. 자넬 헤로스트라토스(B.C. 356년에 세계7대기적중의 하나인 아르테미스신전을 불태워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한 고대그리스사람.)라구 놀려댔지. 그리구 난 험담군이라구, 에피알리트라구 놀리구, 하하.… 아이들때였으니까! 뭘 그리 겁내냐, 나파나일! 이분한테 가까이 오래두… 그런데 이 사람이 내 마누라네. 완쩬바흐가문태생일세.… 신교도야.》

나파나일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버지의 등뒤에 숨어버렸다.

《그래 이 친구야, 지금 어떻게 사나?》 뚱뚱보가 기쁨에 넘쳐 친구를 쳐다보며 물었다. 《어데서 근무하나? 아니면 퇴직했나?》

《여보게, 지금도 근무하고있다네! 꼴레스끼재판소 배심판사로 벌써 2년째 일한다네. 쓰따니슬라브훈장을 탔지. 봉급은 작다네.… 뭐 괜찮아! 마누라가 음악개인교수를 하고 나는 나무로 담배갑을 만드니까. 훌륭한 담배갑이라네! 한개에 일루블씩 받구 팔지. 그렇지만 열개이상 사는 사람에겐 말야, 자네 알겠나, 좀 에누리가 있거던. 그래서 구차한대루 그럭저럭 지내네. 난 국에 있다가 지금은 그 산하기관의 과장이 되여 이곳으루 전근됐네. 국가기관 말일세. 여기서 근무하게 되지. 자넨 어떤가? 아마 5등문관쯤은 됐겠지? 그렇지?》

《아니 이 친구, 좀 더 높이 생각해보게.》 뚱뚱보가 말했다. 《난 벌써 3등문관년한도 다 채웠네. 금별도 두개나 타구.》

말라깽이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굳어졌다.

그러나 곧 입을 헤 벌리고 웃는 바람에 그의 얼굴은 더 이그러졌다. 그의 얼굴과 눈은 빨개졌다. 그자신은 움츠러들고 굽혀지고 졸아드는듯 하였다. 그는 손을 량옆에 붙인 다음 굳어졌다. 그의 트렁크들과 보따리며 지함들도 졸아드는듯 하였다.… 안해의 주걱턱은 더 길죽해지고 나파나일은 차렷자세로 교복의 단추들을 죄다 채웠다.…

《전, 저 각하… 매우 기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의 벗이 갑자기 그렇게 높이 출세하셨으니 말입니다, 헤헤.》

《됐네, 됐어.》 뚱뚱보는 얼굴을 찌프렸다. 《그게 무슨 말툰가? 자네와 나야 어릴적 친구가 아닌가. 그런데 무엇때문에 격식이 필요한가!》

《원, 당치 않은 말씀이올시다.… 당신께서야…》

말라깽이는 더욱 몸을 새우처럼 움츠리면서 히히 하고 웃었다.
《각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주시니 저는 사기가 납니다. 각하, 이게 바루 제 자식 나파나일이옵고… 저 사람은 저의 안해 루이자이온데 신교도이지요. 좀 뭣하온데…》

뚱뚱보는 무어라고 면박을 주고싶었으나 말라깽이의 얼굴에 얼마나 경건하고 은근하고 신물이 돌도록 존경심이 어려있었던지 그만 3등문관은 구역질이 났다. 그는 말라깽이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작별인사로 손을 내밀었다. 말라깽이는 황송하여 그의 손가락 셋을 쥐고 허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나서 중국사람처럼《히히.》하고 웃었다.

안해도 따라 방실 웃었다. 나파나일은 발뒤축을 모으며 경례를 하느라고 모자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들 세사람은 모두 너무 흡족하여 여전히 어리둥절한채로 서 있었다.

—1883년—

카 멜 레 온

경관외투를 입은 오츄멜로브경찰관은 손에 보자기를 든채 장마당을 지나가고있었다. 그의 뒤로는 몰수한 까치밥나무열매가 가득찬 채를 든 빨강머리순사가 따라갔다. 주위는 조용하였다. 길거리에는 사람 하나 없었다.… 가게들과 술집들의 열린 문들이 굶주린 합정처럼 서글프게 바깥세상을 내다보고있는데 그 가까이에는 거지조차 없었다.

《이 빌어먹을 개, 너 무누나!》 오츄멜로브는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들었다. 《얘들아, 그놈의 개를 놓치지 말아. 지금은 개가 물지 못하게 되여있단 말이야! 붙잡아라. 오… 옳지!》

깽 하는 개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오츄멜로브가 그쪽을 바라보니 개 한마리가 삐츄긴의 장작창고로부터 빠져나와 한다리를 절면서 연신 뒤를 돌아보며 달아나고있었다. 풀먹인 루바하에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지 않은 한 사나이가 그뒤를 쫓아갔다. 그는 개뒤를 다우쳐 따라가다가 웃몸을 앞으로 던지면서 넘어져 개 뒤다리를 잡았다. 다시금 깽 하는 개의 신음소리와 함께 《놔주지 말라!》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가게들에는 반쯤 잠에 취한 얼굴들이 나타나고 장작창고둘레에는 어느덧 땅에서 솟아난듯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통 질서가 없단 말입니다, 경찰관님…》 순사가 말하였다.

오츄멜로브는 왼쪽으로 반쯤 돌아서더니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장작창고문곁에 조끼를 입고 단추를 채우지 않은 바로 그 사나이가 바른팔을 높이 쳐들고 피묻은 손가락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있었다. 술이 얼근한 그의 얼굴에는 마치 (이제 네놈의 살두 뜯어주마, 이 빌어먹을 놈의 개!)라고 씌여있는듯싶었다. 게다가 쳐든 손가락은 마치 승리라는 표시같았다.

오츄멜로브는 그가 금세공사 흐류낀이라는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둘러선 한복판에 앞발을 벌리고 온 몸뚱이를 떨면서 소동의 장본인인

주둥이가 뾰족하고 잔등에 누런 반점이 있는 보르조이종의 흰 강아지가 앉아있었다. 눈물이 어린 그 개의 눈에는 서글프고 겁먹은 표정이 어려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오츄멜로브는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면서 물었다.

《왜들 모였어? 자네 손가락은 왜 그렇게 됐나?… 소리를 지른게 누구야?》

《전 걸어가구있었는뎁쇼. 나으리, 전 누구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 흐류낀은 주먹을 입에 대고 기침을 하고나서 말을 꺼냈다. 《미뜨리 미뜨리치와 장작얘길 하고있던 참인데 별안간 이놈이 달려들어 다짜고짜루 손가락을… 나리,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야 그저 일밖에 모르는 놈이지요. … 제가 하는 일이야 세세한걸루 이 손가락을 놀려야 하는건뎁쇼. 돈으로 변상받게 해주십시오. 손가락이 이렇게 되였으니 아마 한주일은 놀리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짐승을 그냥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개마다 물어뜯게 된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편이 편하겠습니다요.》

《흠… 좋아…》 오츄멜로브는 기침을 하고 눈섭을 찡그리면서 엄하게 말하였다. 《좋아… 누구네 개야? 나는 이걸 가만두지 않을테다! 개를 놔기르면 어떻게 되는지 내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소! 지금은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신사들에게 주의를 돌려야 할 때요! 그런자들에게 벌금을 물려야지. 더러운 자식들, 개나 짐승들을 놔기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테다! 엘듸린.》 경찰관은 순사를 돌아보았다. 《이 개가 누구네건지 알아보구 조서를 꾸미게! 이런 개는 쳐죽여야 해, 당장! 틀림없이 미친개일테니까. … 누구네 개냐 말이야?》

《아아, 쥐갈로브장군네 개 같습니다!》 사람들속에서 누군가가 말하였다.

《쥐갈로브장군? 흥!… 엘듸린, 외투를 벗겨주게. … 경치게 더운걸! 비가 올것 같군그래. … 한가지 잘 모를건— 어떻게 돼서 저 개가 자네를 물수 있었겠는가 하는거야.》 오츄멜로브는 흐류낀에게 얼굴을 돌렸다. 《어떻게 이 개가 임자의 손가락에 가닿을수 있었겠나? 이 개는 이렇게 작구 자네는 이렇게 크지 않나? 자네는 필경 못에 손가락을 찔리군 이 개한테 넘겨씌울 궁리가 떠올랐겠지. 자넨 정말

이지… 소문이 난 작자니까. 난 널 안다, 마귀같으니.》

《저 사람이 말이지요. 나으리, 사람들을 웃기느라구 개주둥이에 마라초를 갖다댔지요. 개두 바보는 아니니께 덥석 물었지요. … 한심한 사람이지요, 나으리!》

《거짓말말아, 병신같은 자식! 보지두 못하구서 무슨 거짓말이야? 점잖은분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량심대루 말하는지 하느님 앞에 선것처럼 다 알구계셔. …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치안판사한테 가서 따져보자. 그분한테 가면 법률에 다 적혀있어. … 지금세상은 모두 평등이야. … 나한테두 헌병을 하는 형이 있단 말이다. … 알구싶거들랑…》

《따질것 없어!》

《아니, 장군네 개가 아니야. …》 순사가 곰곰히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장군댁에는 이런 개가 없어. 그 댁에서는 늘 레가브이종만 기르니까. …》

《자네는 그걸 똑똑히 아나?》

《예, 경찰관님. …》

《나두 알구있어. 장군댁에서는 값비싼 순종들만 길러. 그런데 이건 어디서 빌어먹던 개야! 털루 보나 생김새로 보나… 더러운 개야… 이런 개를 기를 사람이 어디 있어?! 임자들은 돌았어! 이런 개가 뻬쩨르부르그나 모스크바에서 어정거려보게. 어떻게 되겠나? 거기선 법두 고려하지 않아. 당장 그 자리에서 쳐죽이고말아. 흐류낀, 임자가 고통을 받았으니 가만있지 말라구. 버릇을 단단히 가르쳐주란 말이야. 지금은 그래야 할 때이니까. …》

《혹시 장군댁것일지두 몰라…》 순사는 자기 생각을 입밖에 내여 중얼거렸다. 《개상판대기에 씌여있는건 아니니까. … 요새 그 댁에서 이런 갤 봤어.》

《암, 장군댁것이 맞습니다!》 군중속에서 누가 말하였다.

《흠… 엘디린, 내게 외투를 입혀주게. … 바람이 심하군. … 으스스한걸. … 자네는 개를 장군댁에 끌구가서 물어보게. 내가 찾아서 보내더라구 하게. … 그리구 다시는 거리루 내보내지 말라구 하게. … 이 개두 어쩌면 값비싼것일지두 모르겠네. 그래 더러운 놈들이 이 개의 코에다 담배불을 들이댄다면 개 한마리쯤 버려놓기야 쉽지. 개란건 온

순한 짐승인데… 이 바보같은 놈아, 팔을 내려! 네 그 병신같은 손가락을 내보일건 없어! 다 제탓이지.》

《아, 저기 장군댁 료리사가 오는군. 물어보지요. … 어이, 쁘로호르! 잠간만. 여보게, 이리루 오게! 이 개를 보란 말이여. … 자네네 건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 이따위 개는 우리에게 생전 있어본적이 없어!》

《길게 물어볼게 없어.》 오츄멜로브가 말하였다. 《이건 주인없는 강아지야! 길게 떠벌일게 없다니까. … 주인없는 개라면 들개가 틀림없지. … 때려죽이면 그만이야.》

《이건 저희네것이 아닙니다.》 쁘로호르는 계속하였다. 《이건 요즈음 오신 장군의 아우님네겁니다. 저의 주인나으리께서는 보르조이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아우님께서는 이런걸 좋아하지요.》

《그래, 장군의 아우님이 오셨다구? 울라지미르 이와늬치가?》 오츄멜로브가 이렇게 묻는데 그의 얼굴은 온통 감격의 빛으로 물들었다. 《그래, 그렇군. 난 전혀 몰랐는걸! 다니러 오셨겠지?》

《네, 다니러 오셨습니다.》

《그래, 흐음… 형제분이 얼마나 그리웠겠나! 난 전혀 몰랐지! 그럼 이건 그분의 강아지겠군? 참 반가워. … 끌구가게나. … 그 강아지 정말 이쁜걸… 꾀가 발발해. … 이 사람의 손가락을 덥석 물었거던, 으하하. … 그래 떨기는 왜? 덜덜덜… 덜덜… 강아지가 성이 난게로군. … 참 멋쟁이야, 강아지두…》

쁘로호르는 개를 불러가지고 장작창고곁에서 떠나갔다. … 군중은 흐류낀을 보고 웃어댔다.

《너 두구보자!》 오츄멜로브는 그를 위협하고 외투자락을 여미면서 장마당을 지나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갔다.

－1884년－

쁘리쉬베예브하사

《하사관 쁘리쉬베예브! 당신은 금년 9월 3일 마을순사 쥐긴, 면장 알랴뽀브, 백인장 예피모브, 증인들인 이와노브와 가브릴로브 및 여섯명의 농군들을 모욕하였다. 그들중 처음 세사람에게는 직무상 임무수행중에 모욕을 가하였기때문에 당신은 기소되였다. 당신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가?》

험상궂게 생긴 얼굴에 주름이 잡힌 쁘리쉬베예브하사관은 바지 량옆에 두팔을 딱 붙이고 목쉰 소리로 마치 구령을 치듯이 말마디들을 강조하면서 대답하였다.

《존경하는 치안판사나리! 그러하온즉 법전의 모든 조항에 따라 모든 사건이 서로 련계가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죄가 있는것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번 사건은 모두 죽은 사람의 송장 하나때문에 일어난것입니다. 저는 9월 3일 제 안해 안피싸와 함께 조용히, 점잖게 길을 걷고있었는데 강기슭에 사람들이 한무리 모여서있는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체 무슨 어엿한 권리로 거기에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때문입니까? 그래, 법전에 사람들이 말떼처럼 밀려다니라고 밝혀져있습니까?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빨리 헤여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흩어져 제집으로 돌아가도록 떠밀었고 백인장에게 그들의 목덜미를 붙잡아 쫓아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잠간, 당신은 마을순사도 아니고 면장도 아닌데 그래 사람들을 헤쳐가게 하는것이 당신의 일인가?》

《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아니지요!》하는 소리가 판사실의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나리님, 저 사람한테서 욕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15년동안을 저 사람때문에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저 사람이 제대된 다음부터 우리들은 마을에서 도망이라도 치고싶을 지경이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나리님, 바로 그렇습니다!》 하고 증인인 면장이 말하였다. 사람들모두가 불평합니다. 저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지낼수가 없습니다! 성상들을 들고갈 때나 결혼식이나 혹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는 큰소리를 지르고 소란스럽게 굴면서 별의별 질서를 다 만들어놓습니다. 아이들의 귀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마치 그 무슨 시아비같이 녀인네들을 은근히 감시하기도 하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것처럼 굽니다. … 요즘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 불을 켜지 말라 하고 명령한답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잠간 기다리오, 당신은 좀 있다가도 증언할수 있으니까.》 치안판사가 말하였다.

《지금은 쁘리쉬베예브하사관이 말을 계속하게 합시다. 쁘리쉬베예브, 계속하오.》

《알았습니다!》 하사관은 목쉰 소리로 말하였다. 《판사나리, 나리는 사람들을 쫓아보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옳습니다. …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질서를 혼란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추태를 부리는것을 그대로 용서할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것이 법의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저는 용서할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그들을 해산시키고 또 독촉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법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나리님, 우리 면에서는 저 하나만이 백성들을 다룰줄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님, 저는 또 모든것을 다 알수 있습니다. 저는 상놈이 아닙니다. 저는 하사관입니다. 저는 퇴역한 후방부 하사관으로서 와르샤와에 있을 때는 참모부에서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리님도 알아주십시오. 저는 제대된 뒤 소방대원으로 있었으며 그 후에는 건강이 좋지 못하여 소방대에서 나와 남자고전중학교의 문지기로 2년동안 근무하였다는것을 말입니다. … 저는 모든 질서를 다 압니다. 하지만 농군들은 우둔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응당 제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리로우니까요. 이번 사건을 실례로 들수도 있습니다. … 저는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강기슭에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송장이 놓

여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체가 왜 그곳에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서도 있는가? 순사는 무엇을 보고 다니는가, 왜 상관에게는 알리지 않는가고 말하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혹시 자살할수도 있고 또는 씨비리류형자 같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형사상의 살인인듯도 합니다. … 그러나 쥐긴순사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고 그저 담배만 피웠습니다. 그자가 〈당신들한테 웬 저런 감독이 있어? 어데서 저런 작자가 갑자기 나타났는가 말이야? 저자가 없다구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모를것 같은가?〉 고 하기에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서서 아무 주의도 돌리지 않으니 모를게 아닌가.〉 그러자 그는 벌써 어제 지방경찰서장한테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경찰서장한테나 알려서는 소용있는가고 하면서 법의 몇조에 그렇게 하게 되여있는가, 물에 빠져죽거나 목을 매여 죽은 사람들, 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야 지방경찰이 해결할수 있는가? 형사상사건이나 민사상사건들은 차라리 예심원과 판사나리들에게 빨리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저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조서를 꾸며서 치안판사한테 보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사는 그저 듣고 웃기만 하였습니다. 또 무지한 농군들도 마찬가지로 모두들 웃어댔습니다. 저는 맹세하건대 그 증거를 보여줄수 있습니다. 글쎄 저 사람도 웃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도 쥐긴도 웃어댔습니다. 나는 〈왜 이발을 드러내는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사는 〈이런 사건은 치안판사가 취급하게 돼있지 않아.〉 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격분하였습니다.》 하사관은 순사한테 얼굴을 돌리며 소리쳤다.

《네가 이렇게 말했지?》

《말했다.》

《네가 우둔한 농군들앞에서 〈이런 사건은 치안판사가 취급하게 돼있지 않아.〉 라고 하는것을 사람들이 모두 들었단 말이다. 다들 네 말을 들었어. 나리님, 저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격분하였습니다. 저는 겁이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순사가 그때 한 말을 다시 반복시키고싶습니다. 그럼 역시 꼭같은 말이 나올것입니다. 저는 그때 순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치안판사나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수가 있는가? 너는 관리이며 순사인데 어떻게 당국을 반대할수 있는가? 만일 치안판사나리께서 하려고 안한다면

네가 그런 말을 한것을 근거로 네 행동이 불성실하다는 리유를 붙여 현헌병대에 넘길수도 있다는걸 아느냐?〉 고 말입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너의 그 정치적언사로 해서 치안판사나리가 얼마든지 너를 쫓아낼수도 있다는것을 아느냐?〉 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면장이 한다는 말이 〈치안판사는 자기 권한을 벗어나는 지시는 내릴수 없게 되여있어. 오직 사소한 사건들만 취급할수 있어.〉 한단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것을 다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은 감히 그렇게 당국을 업수이 여길수 있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하고 롱담은 마오, 내 말을 듣지 않다가는 좋지 못한 일이 생길테니.〉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와르샤와에 있을 때나 남자고전중학교의 문지기로 있을 때 그 무슨 온당치 못한 말을 들으면 혹시 헌병들이 보이지 않는가 하여 거리를 바라보군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헌병이 보이면 〈기마헌병나리, 여기로 좀 오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그에게 제가 들은것을 죄다 보고하군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마을에서야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길가에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고 질서가 없는것을 보고 격분하여 한대 칠 작정으로 손을 쳐들었습니다.… 물론 세게는 아니라 그저 적당히 칠 작정이였는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들이 나리님에 대하여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사가 면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보니 저와 순사가… 그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리님, 저는 격분하였습니다. 글쎄 한대 때리지 않고서는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어리석은 사람을 때리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에 죄를 짓는것입니다. 질서와 사업을 위해서라면 더욱 마땅할것입니다.…》

《가만! 무질서를 감시하는 사람은 따로 있소. 순사, 면장, 백인장들이 그 일을 하게 되여있소.》

《순사가 모든 일을 다 감시할수야 없지 않습니까. 글쎄 순사라는 것이 저만큼도 모르니까 말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이 아니라는걸 모르겠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제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추태를 부리는데 글쎄 그렇게 하는것이 제일이 아니라구요? 그럼 제가 그들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은 제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고 판사나리한테 고소합니다. … 글쎄 노래라는게 뭐가 좋은게 있습니까? 일을 해야겠는데 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면 불을 켜고 앉아있는데 버릇이 되였습니다. 어두우면 응당 누워 자야겠는데 그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웃습니다. 저는 다 적어두었습니다.》

《뭘 적어두었소?》

《누가 불을 켜고 앉아있었는가를 말입니다.》

쁘리쉬베예브는 호주머니에서 기름에 절은 종이장을 끄집어내더니 안경을 쓰고 읽었다.

《불을 켜고 앉아있은 백성들로는 이완 쁘로호로브, 쌉와 미끼포로브, 뾰뜨르 뻬뜨로브, 병사의 녀편네였던 과부 슈스뜨로와는 쎄몬 끼슬로브와 방탕하고 무법한 생활을 하고있다. 이그나뜨 쓰웨르쵸크는 요술을 부리고 그의 안해 마브라는 무당인데 밤마다 나들면서 남의 암소들에게서 젖을 짠다.》

《그만하오!》 판사는 그의 말을 막고 증인들을 심문하기 시작한다.

쁘리쉬베예브하사관은 안경을 이마에 올리고 자기를 편들 사람이 아닌것이 분명한 치안판사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툭 불거진 눈이 번쩍거리고 코가 벌개졌다. 그는 치안판사를 바라보고 증인들을 바라보았지만 무엇때문에 이 치안판사가 그처럼 흥분되였는지 또는 무엇때문에 판사실의 구석구석에서 두덜두덜 불평을 하며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고 키득거리는지 그 까닭을 도무지 알수 없었다. 그에게는 징역 1개월이라는 판결이 리해되지 않았다.

《무엇때문입니까?》 그는 리해할수 없다는듯 두팔을 쩍 벌리며 물었다. 《어느 법에 있습니까?》

그에게는 세상이 달라지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더는 살아갈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암담하고 음울한 생각에 사로잡히고말았다. 그러나 그는 판사실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모여서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있는것을 보자 이미 습관대로 두팔을 바지 량쪽에 대고 몸을 쭉 펴면서 성이 나서 쉰 목소리로 이렇게 웨쳤다.

《모여있지 말구 흩어져. 어서 집으로들 돌아갓!》

—1885년—

완 까

석달전에 구두쟁이 알랴힌한테 일을 배우라고 맡긴 아홉살나는 소년 완까 쥬꼬브는 크리스마스전날이라 자려고 하지 않았다. 주인부부와 직공들이 새벽례배를 보려고 떠나기를 기다린 그는 주인의 책장에서 잉크병과 녹쓴 펜촉을 끼운 펜대를 꺼낸 다음 구겨진 종이장을 자기앞에 펴놓았다. 그는 첫자를 쓰기 전에 겁먹은 눈으로 출입문과 창문들을 몇번이나 살펴본 다음 구두골들을 올려놓은 두장의 널판자우에 있는 어두운 성상을 쳐다보고는 한숨을 몇번 쉬였다. 종이는 긴걸상우에 놓여있었고 완까는 그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꼰스딴찐 마까릐치!》 그는 쓰기 시작하였다. 《할아버지에게 또 편지를 써요. 크리스마스를 맞는 할아버지를 축하해요. 하느님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모든 일을 보살펴주시기를 바래요. 나한테는 아빠두 없구 엄마두 없구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완까는 초불빛에 반사되여 번쩍거리는 어두운 창문을 흘끔 바라보고나서 지와레브령주네 집의 야경군인 할아버지 꼰스딴찐 마까릐치를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그는 체소하고 약하였으나 류달리 민첩하고 활기있었으며 늘 싱글벙글하고 눈에는 취기가 도는 예순대여섯살쯤 되는 늙은이였다. 그는 낮에는 하인들의 부엌에서 자지 않으면 식모들과 시시덕거리다가 밤이 되면 품이 널직한 모피외투를 뒤집어쓰고 저택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딱따기를 두드렸다. 그의 뒤로는 대가리를 늘어뜨린 늙은 까스딴까라고 하는 개와 빛이 검고 몸뚱이가 수달같이 길다고 하여 위윤(뱀장어)이라고 부르는 수개가 따르고있을것이다. 그 위윤은 여간 고분고분하고 다정스럽지 않아서 자기 집사람은 물론 남들도 다같이 귀엽게 쳐다보군 하였지만 신용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 개의 고분고분하고 공손한 태도뒤에는 가장 교활한 악의가 숨어있기때문이였다. 어느새 몰래 다가가서 다리를 할퀴거나 랭장고에 기여들거나 농가의 닭을 물어오는데서는 그놈의 솜씨를 따를 개

가 없었다. 그 개의 뒤다리를 후려갈긴적도 이제는 한두번이 아니였고 두어번은 달아매기까지 하였으며 매 주일마다 반주검이 되도록 두들겨팼지만 그놈은 매번 살아나군 하였다.

지금 할아버지는 분명 대문가에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마을 교회당의 밝고 붉은 창문들을 바라보거나 왈렌끼를 신은 발로 가락맞춰 장단을 치면서 하녀들과 시시덕거리고있을것이다. 할아버지의 딱따기는 허리띠에 매여있다. 할아버지는 손벽을 친다. 그는 추워서 온몸을 움츠리고 늙은이답게 허허 하고 웃으면서 하녀와 식모들을 번갈아 꼬집는다.

《우리 어디 코담배를 말아보지 않겠나?》

할아버지는 아낙네들앞에 쌈지를 내놓으면서 말한다.

아낙네들은 코담배를 말다가 그만 에취— 하고 재채기를 한다. 할아버지는 재미있어 자지러지게 웃어대면서 소리친다.

《떼버려, 얼어붙었어!》

그는 개들도 코담배를 맡으라고 던져준다. 까스딴까는 맡다가 재채기를 하고는 대가리를 돌리고 화가 나서 옆으로 달아난다. 그러나 위윤은 고분고분하기때문에 재채기도 하지 않고 꼬리를 흔든다. 날씨는 무척 좋다. 대기는 고요하고 투명하며 신선하다. 밤은 어둡다. 그러나 지붕들이 훤하게 보이고 굴뚝의 연기가 가늘게 솟는 마을의 집들과 성에가 번뜩이는 나무들과 눈더미들이 모두 뚜렷이 보인다. 하늘에는 즐겁게 깜빡이는 별들이 휘뿌려져있고 은하수는 어찌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지 마치도 명절을 앞두고 눈으로 씻고 닦은것만 같다. …

완까는 한숨을 쉬고나서 잉크를 찍어 계속 써내려갔다.

《어제 난 맬 맞았어요. 내가 요람에 누운 주인집애기를 흔들어주다가 그만 깜빡 잠들었다구 주인은 내 머리칼을 틀어쥐고 마당에까지 끌고나가 가죽띠로 죽어라구 때렸어요. 그리구 또 이번주일에 안주인은 나더러 청어를 깨끗이 씻으라구 했어요. 그래서 내가 꼬리부터 씻기 시작했더니 안주인은 청어대가리루 내 얼굴을 막 찔렀어요. 직공들은 날 놀려대구 술 사오라구 술집으루두 보내요. 들키기만 하면 주인이 닥치는대로 때리는데두 주인집의 오이를 훔쳐오라구 시켜요. 먹을거라군 하나두 없어요. 아침에는 빵을 주구

점심에는 밥을 주구 저녁에는 또 빵을 줘요. 차하구 가두배추국은 주인들이 저희들끼리만 먹어치워요. 그리구 날 현관에서 자라구 해요. 그러다가도 주인집애기가 울면 한잠두 못 자구 요람을 흔들어야 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하느님의 동정을 베풀어 여기서 날 집으루, 마을루 데려가요. 나는 더 못 견디겠어요. … 할아버지의 발에 엎드려 빌어요. 그리구 자주 하느님께 기도하겠어요. 여기서 날 데려가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

완까는 입을 비죽비죽하다가 그 때가 낀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담배를 비벼드리구 하느님께 기도두 할테예요.》 그는 계속하여 썼다. 《혹시 날 사정없이 때려두 좋아요. 내가 할 일이 없다구 생각한다면 난 마름어른한테 가서 가죽장화를 닦아드릴테예요. 제발 시켜달라구 청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믄 페지까 대신에 말을 먹이러 다닐테예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더 참을수 없어요. 더 있다간 죽을수밖에 없어요. 걸어서 마을루 도망치려구 했지만 신이 없어 발이 얼가봐 무서워요. 이제 어른이 되믄 날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잘 모시겠어요. 누구도 괄시하지 못하게 할테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믄 저승에서 행복하라구 기도를 하겠어요. 엄마 뻴라게야를 위해서 기도하는것과 꼭같이 말이예요.

모스크바는 큰 도시예요. 집들은 모두 귀족들의것이구 말들도 많아요. 그런데 양들은 없구 개들은 사납지 않아요. 여기서는 애들이 밤에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리구 애들은 교회당 합창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되구요. 난 한 가게방에서 줄까지 단 낚시들을 창문에다 놓구 파는걸 봤어요. 여러가지 고기들을 잡는 낚시들이 있었어요. 참 굉장했어요. 한뿌드짜리 메기라두 끌어낼 낚시까지두 하나 있었어요. 그리구 여러가지 총들을 파는 가게방두 봤어요. 아주 멋있는 총들이예요. 아마 한자루에 백루블쯤 할거예요. … 육고집에는 쩨쩨레브 (새이름)도 있고 랴베쯔(새이름)도 있고 토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디서 잡아온다는건 점원들이 대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주인집에서 크리스마스전나무를 세우거들랑 금칠을 한 호두알을 하나 파란 곽에다 넣어두었다가 날 주세요. 올리가

이그나찌예브나아가씨에게 부탁하라요. 완까에게 줄거라구 말하믄 돼요.》

완까는 흑흑 느끼고는 또다시 창문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는 주인댁에서 쓸 전나무를 찍으려고 할아버지가 숲속으로 갈 때마다 따라가군 하던 일도 회상했다. 참 즐거운 때였다! 할아버지도 활기에 차고 추위도 그들을 보면서 활기에 찬듯 하였고 완까도 유쾌하였다. 전나무를 찍기 전에 할아버지는 담배대에 담배를 말아피우고 코담배를 맡고서는 추위에 떠는 완까를 보며 놀려주군 하였다. … 성에가 불린 어린 전나무들은 까딱도 않고 서서 자기들중에서 누가 찍힐것인가를 기다리고있었다. 갑자기 눈더미우로 토끼가 쏜살같이 달려갔다. …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잡아라, 잡아… 잡아라! 에키, 약삭바른 토끼놈이!》

할아버지는 찍은 전나무를 주인집으로 끌어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 완까가 좋아하는 올리가 이그나찌예브나아가씨가 누구보다도 분주히 서둘렀다. 아직 완까의 어머니 뻴라게야가 살아 주인집하녀로 일하고있을 때였다. 올리가 이그나찌예브나는 완까에게 얼음사탕을 주었고 심심풀이로 그에게 읽는 법, 쓰는 법, 백까지 세는 법 그리고 까드릴(무용의 일종)을 추는 법까지 배워주었다. 뻴라게야가 죽자 완까를 하녀들의 부엌으로 쫓아내여 할아버지의 손에 맡겼다가 결국 모스크바에 있는 알랴힌한테 넘겼던것이다. …

《어서 오세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완까는 계속 썼다. 《제발 빌어요. 날 여기서 데려가요. 엄마없는 불행한 나를 동정해줘요. 모두들 날 때려요. 배가 몹시 고파요. 또 슬프기만 해요. 난 계속 울기만 해요. 며칠전에는 주인이 구두골루 내 머리를 때려서 쓰러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댔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 생활은 개보다도 못해요. … 알료나와 애꾸눈이 예고르까와 말몰이군에게 내 인사를 전해줘요. 그리구 내 하모니카는 아무에게도 주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손자 이완 쥬꼬브는 이만 붓을 놓겠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 어서 와줘요.》

완까는 빼곡이 쓴 종이를 네겹으로 접어서 어제 저녁에 한꼬뻬이까를 주고 산 봉투에 넣었다. … 그는 잠시 생각하고나서 잉크를 찍어 주소를 썼다. 《마을의 할아버지에게.》

그리고는 머리를 긁적거리다가 생각끝에 《꼰스딴찐 마까릐치에

게》라고 덧붙여 썼다. 아무 방해도 없이 편지를 쓰자 흡족한 그는 모자를 쓰고 반슈바도 걸치지 않은채 웃옷바람으로 거리로 뛰여 나왔다. …

그는 어제 저녁에 육고집 점원들에게서 편지는 우편통에 넣어야 하며 우편통의 편지들은 술에 얼근히 취한 말몰이군들이 모는, 방울이 딸랑거리는 삼두우편마차에 실려 온 나라에 배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완까는 첫 우편통까지 뛰여가서 소중한 편지를 그안에 밀어넣었다. …

달콤한 희망에 혼곤해진 그는 한시간후에 곧 깊은 잠에 들었다. … 그는 꿈에 뻬치까를 보았다. 할아버지가 맨발을 드리우고 뻬치까우에 앉아서 식모들에게 편지를 읽어준다. … 위윤이 뻬치까옆으로 서성거리면서 꼬리를 흔든다. …

—1886년—

자 고 싶 어

밤. 열두서너살쯤 되는 아이보개소녀인 와리까는 애기가 누워있는 요람을 흔들면서 들릴락말락 코소리로 흥얼거린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내 노래를 불러주마
…

성상앞에는 파란 등불이 켜있다. 방안의 한 구석에서 다른 구석으로 기저귀와 커다란 검은 낡은 옷들이 걸려있는 빨래줄이 늘여져있다. 천정에는 등불때문에 생긴 파란 반점이 그려졌고 뻬치까와 요람과 와리까에게는 기저귀와 헌옷들의 길다란 그림자들이 비껴있다. … 등불이 포르르 깜빡일 때면 반점과 그림자들은 활기를 얻어 마치 바람에 나붓기는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무섭다. 가두배추국과 제화용 가죽냄새가 풍긴다.

어린애는 울고있다. 울다울다 그만 목이 쉬고 맥이 풀린지도 벌써 한참 되지만 여전히 보챈다. 언제면 누그러질는지 알수 없다. 하지만 와리까는 졸린다. 눈은 자꾸만 감기여지고 머리는 아래로 수그러지고 목은 뻐근하다. 소녀는 눈시울도 입술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소녀는 자기의 얼굴이 죄다 말라버리고 뻣뻣이 굳어지고 머리는 빈침꼭지갈이 작아졌다고 생각된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소녀는 코소리로 흥얼거린다. 《우유죽을 끓여주마…》

뻬치까에서 귀뚜라미가 운다. 문 저쪽곁방에서는 주인과 직공 아파나씨가 드렁드렁 코를 곤다. … 요람은 애처롭게 삐걱거리고 와리까는 흥얼거린다. 이 모든것은 서로 합쳐져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무척 듣기 좋은 밤의 자장가로 변할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음악은 화만 나

게 하고 괴롭힐따름이다. 그것은 자서는 안되는 소녀를 졸음에 몰아넣기때문이다. 만약 와리까가 잘못하여 그만 잠들기만 하면 소녀는 주인부부한테 죽도록 얻어맞게 된다.

등불은 껌뻑인다. 그럴 때면 파란 반점과 그림자들은 와리까의 반쯤 열린 뻣뻣한 눈에 기여들어 설핀 잠에 취한 그 머리속에서 어렴풋한 꿈장면들과 겹쳐진다. 소녀는 앞을 다투어 하늘로 달려가면서 어린애같이 고함을 지르는 검은구름들을 본다. 그러나 한줄기의 바람이 불어오자 구름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와리까는 다음으로 질벅질벅한 진탕인 넓은 길을 본다. 길에는 짐수레들이 줄을 지어 가고 등에 배낭을 진 사람들이 간신히 걸어가는데 이상한 그림자들이 앞뒤로 바뀌여지면서 따라간다. 량쪽에는 차디차고 매정스런 안개들속으로 숲이 보인다. 배낭을 진채 그림자를 끌고 가던 사람들이 질벅질벅한 길바닥에 쓰러진다. 《왜 이러세요?》 와리까가 묻자 그들은 《자고싶다, 자겠다!》고 대답한다. 그러다가 그들은 곧 깊은 잠에 들기 시작한다. 그들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전선줄에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앉아서 어린애모양 고함을 지르면서 그들을 깨우려고 애쓴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내 노래를 불러주마…》 흥얼거리는 와리까는 어느덧 어둡고 무더운 농가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

마루바닥에서는 그의 돌아간 아버지 예필 스쩨빠노브가 몸을 뒤튼다. 와리까는 그를 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아픔에 못이겨 마루바닥에서 딩굴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다. 아버지가 말하던것처럼 그는 헤르니야증이 발작했다. 아픔이 어찌도 심했던지 그는 말도 할수없어 숨을 들이켰다가는 이발을 북소리처럼 덜덜 떨뿐이다.

《우—우—우—》

어머니 뻴라게야가 아버지가 죽어간다고 알리려고 주인집으로 뛰여갔다. 어머니가 간지도 벌써 한참 된다. 인젠 돌아올 때도 된것 같다. 와리까는 뻬치까우에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아버지의 《우—우—우》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자 누군가 집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린다. 주인이 그 시에서 자기네 집에 놀러온 젊은 의사를 보낸것이다. 의사는 울타리안으로 들어온다. 어두워서 그를 볼수는 없었으나 그가 헛기침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린다.

《불을 켜시오.》 그가 말한다.

《우―우―우…》 예핌이 대답한다.
뻴라게야는 뻬치까쪽으로 달려가서 성냥가치가 들어있는 질그릇쪼각을 찾기 시작한다. 침묵속에 일순간이 지나간다. 의사가 호주머니를 뒤지여 자기 성냥을 켠다.
《잠간만 나으리님,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뻴라게야는 말하고서 집밖으로 뛰여나가더니 잠시후 타다남은 초꽁다리를 얻어가지고 들어온다.
예핌의 량쪽볼은 불깃불깃하고 눈은 윤기가 돌았다. 그의 눈길은 웬까닭인지 류달리 날카로와 그는 마치 집이고 의사이고 다 꿰뚫어보는듯싶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당신 무슨 생각을 하오?》의사는 그에게로 허리를 굽히며 말한다.
《아―니! 당신 이런지 오래 됐소?》
《뭐라구요? 나으리님, 이젠 죽을 때가 됐수다. 전 살지 못하외다.》
《군소린 작작하오. … 깨끗이 고칠수 있소!》
《그야 나리님 마음대루지요. 나으리님, 무척 고맙쇠다만 저희들은 아외다. … 죽음이 찾아오면 그저 그만이라구요.》
의사는 한 십오분동안 예핌을 진찰하느라고 꾸물거리더니 이윽고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말한다.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소. … 당신은 병원으로 가야겠소. 거기서 당신을 수술할거요. 인차 가도록 하오. …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오! 지금은 늦어서 병원에서 모두 잘테지만 괜찮소. 내가 당신에게 글쪽지를 써줄테니, 들었소?》
《나으리님, 간대두 글쎄 뭘 타구 간단 말씀이오이까?》 뻴라게야가 말한다. 《우린 말 한필 없사와요.》
《일없소. 내가 주인량반들께 청을 할테니 그이들이 말을 줄거요.》
의사는 나가버린다. 초불은 꺼진다. 또다시 《우―우―우》 하는 소리가 들린다. …
반시간 지나서 누군가 마차를 타고 집가까이로 온다. 그것은 주인이 병원으로 타고가라고 짐마차를 보내온것이다. 예핌은 차비를 하고 마차에 오른다. …

그러자 마침내 훌륭하고 신선한 아침이 다가온다. 뻴라게야는 집에 없다. 그는 예핌의 일이 어떻게 되여가는가를 알아보려고 병원으로 갔다. 어디선가 어린애가 운다. 그리고 와리까는 누군가가 자기 목소리로 《자장 자장 우리 애기 내 노래를 불러주마…》 하는 노래소리를 듣는다.

어머니가 돌아온다. 어머니는 십자를 긋고 중얼거린다.

《병원에서 밤에 바로잡기는 했지만… 새벽에 그만 하느님께 목숨을 바쳤어. … 하느님맙소사. 길이 안식을 주소서… 이미 때가 늦었다고 하더구만. … 좀 더 일찌기 할걸 그랬지.》

와리까는 수풀속에 가서 운다. 그런데 별안간 누군가가 소녀의 뒤통수를 어찌도 호되게 때리는지 그만 소녀는 봇나무에 이마를 부딪친다. 소녀는 눈을 들어 자기앞에 서있는 구두쟁이주인을 본다.

《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 죽일 년아!》 그는 말한다. 《애가 우는데 넌 자구있어?》

주인은 그의 귀가 빠지도록 쥐여비튼다. 와리까는 머리를 젓고 요람을 흔들면서 노래를 흥얼거린다. 파란 반점과 헌옷들과 기저귀의 그림자들이 흔들거리더니 소녀의 눈에서 언뜻거리고는 다시 곧 그의 머리속을 휩싸고만다. 또다시 소녀는 질벅질벅한 길을 본다. 등에 배낭을 진 사람들과 그림자들은 쓰러진채 깊은 잠에 들었다. 그들을 보는 와리까는 못 견디게 자고싶다. 소녀는 포근히 누울수 있었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걸어가면서 빨리 걸으라고 재촉한다. 그들 둘은 구걸하려고 분주히 걸어간다.

《좀 적선하십시오!》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걸한다. 《인자하신 량반님네들, 하느님같은 선심을 베풀어주십소서!》

《애기를 이리 다오!》 누구인가의 귀익은 목소리가 어머니에게 대답한다. 《애기를 이리 다오!》 바로 그 목소리가 되풀이하였으나 이번에는 성이 난 날카로운 소리다. 《자다니? 이 빌어먹을 년아!》

와리까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어 살펴보고서 어찌된 일인가를 알았다. 길도 어머니도 만났던 사람들도 없고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러 온 안주인만이 방 한복판에 홀로 서있다. 뚱뚱하고 어깨가 벌어진 안주인은 애기에게 젖을 먹이고 달래는 동안 와리까는 어서 끝나기를 기다리고있다. 한편 창밖은 어느덧 푸르스레해진다. 그림자들과 천정의

파란 반점은 훨씬 어렴풋해진다. 곧 아침이 된다.

《옛다!》 샤쯔의 단추를 채워 가슴을 가리우면서 안주인이 말한다. 《우는걸 보니 똑똑히 보지 않았구나!》

와리까는 애기를 받아 요람에 눕히고 다시 흔들기 시작한다. 파란 반점과 그림자들이 차차 사라진다. 이제는 그의 머리속에 파고들어 정신을 흐리게 할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여전히 자고싶다. 무척 자고싶다! 와리까는 잠을 이겨보려고 요람의 가장자리에 머리를 대고 온몸으로 흔든다. 그러나 어쨌든 눈은 맞붙고 머리가 무겁다.

《와리까, 뻬치까에 불을 지펴라!》 문밖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를테면 벌써 일어나서 일을 시작할 때가 된것이다. 와리까는 요람을 놓아두고 장작을 가지러 헛간으로 뛰여간다. 소녀는 기쁘다. 달려다니고 걸으면 앉아있을 때처럼 그다지 졸리지 않기때문이다. 소녀는 장작을 가져다가 뻬치까에 불을 지피자 뻣뻣이 굳어진 제 얼굴이 누그러지고 생각들도 한결 또렷해지는것을 느낀다.

《와리까, 싸모와르를 덥혀라!》 안주인이 소리를 지른다.

와리까는 나무를 잘게 쪼갠다. 싸모와르에 불을 지피자마자 새로운 분부가 떨어진다.

《와리까, 주인께 덧신을 닦아올려라!》

그는 마루바닥에 앉아 덧신을 닦는다. 그러면서 크고 깊숙한 덧신에 머리를 틀어박고 잠간만이라도 잤으면 하고 생각한다. … 그런데 갑자기 덧신이 커지며 부풀어올라 온 방안에 꽉 찬다. 와리까는 구두솔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인차 머리를 흔들고 눈을 부릅뜨면서 눈앞의 물건들이 커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도록 보려고 애쓴다.

《와리까, 층계를 물걸레질해라. 주문하러 오는분들께 부끄럽지 않느냐!》

와리까는 층계를 물걸레로 닦고 방안을 청소한 다음 뻬치까에 불을 지피고 가게방으로 뛰여간다. 할일이 많다. 숨돌릴 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다.

그러나 그 일들도 조리대앞에 꼬박 서서 감자껍질을 벗기는 일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머리는 조리대에 끌려가고 감자는 눈앞에서 얼른거리고 칼은 손에서 떨어지는데 서슬이 등등한 뚱뚱보안주인이 소

매를 걷어올리고 옆에서 왔다갔다하면서 귀가 메도록 고래고래 소리지른다. 주인들이 점심을 먹는 시중을 들고 빨래와 바느질을 하는 일 역시 고달픈노릇이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마루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자고만싶다.

낮이 지나간다. 어두워오는 창문들을 보면서 와리까는 뻣뻣해지는 관자노리에 힘을 주고는 자신도 까닭모르게 빙그레 웃는다. 저녁 어스름은 소녀의 맞붙어가는 눈을 어루만지며 그에게 어서 자라고 독촉한다.

저녁에 주인들에게로 손님들이 찾아온다.

《와리까, 싸모와르를 덥혀라!》 안주인이 소리친다.

주인집 싸모와르는 작은것이여서 손님들이 흡족할 때까지 차를 마시자면 댓번은 끓여야 한다. 차가 끝난 다음에도 와리까는 계속 한곳에 서서 손님들을 바라보며 분부를 기다린다.

《와리까, 달려가서 맥주 세병 사오너라!》

소녀는 자리를 떠나 잠을 쫓아버리려고 되도록 빨리 달리려고 애쓴다.

《와리까, 뛰여가서 술을 사오너라! 와리까, 병따개는 어디 있느냐? 와리까, 청어를 씻어라!》

그러다가 드디여 손님들이 가버린다. 불들은 꺼지고 주인들은 잠자리에 눕는다.

《와리까, 어린애를 흔들어줘라!》 마지막분부가 들려온다.

뻬치까에서는 귀뚜라미가 운다. 천정의 파란 반점과 헌옷들과 기저귀그림자들이 또다시 와리까의 반쯤 감긴 눈에 비껴들어 소녀의 머리를 흐려놓는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그는 중얼거린다. 《내 노래를 불러주마…》

그러나 어린애는 더 울어댄다. 울고울다가 그만 지치고만다. 와리까는 또다시 질벅질벅한 행길과 배낭을 진 사람들과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다. 소녀는 모든것을 리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알아본다. 그러나 소녀는 여윈 잠을 통하여 자기의 팔, 다리를 얽어매고 자기를 짓누르며 못살게 구는 그 힘이 어떤것인지만은 도저히 알수 없다. 그는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그 힘을 찾아내고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 그

러나 찾을길 없다. 마침내 지쳐버린 와리까는 자기의 모든 힘과 시력을 가다듬어 껌뻑거리는 파란 반점을 쳐다보며 고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는 자기를 못살게 구는 원쑤를 찾아낸다.

그 원쑤는 바로 어린애다.

소녀는 웃는다. 소녀는 왜 이런 대수롭지 않은 일을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가 하는것이 놀랍기까지 했다. 파란 반점과 그림자들과 귀뚜라미 역시 웃고 놀라는것 같다.

혼돈이 와리까를 사로잡는다. 소녀는 걸상에서 일어나 방실 웃으면서 눈도 깜박이지 않고 방안을 거닌다. 그는 자기의 온몸을 얽매는 어린애로부터 이제야 벗어났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하였다. … 어린애를 죽이고 자고자고 또 잘것이다. …

와리까는 웃고 눈을 깜박이면서 그리고 손가락으로 파란 반점을 위협하면서 요람쪽으로 소리없이 다가가서는 어린애에게 몸을 굽힌다. 와리까는 목을 눌러 어린애를 죽이고 재빨리 마루바닥에 눕자 잘수 있다는것이 너무도 기쁜 나머지 방그레 웃다가 곧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에 들었다. …

—1888년—

초 원

—어느 한 려행기—

1

7월의 어느 이른아침, 그 현의 군소재지 N거리로부터 용수철도 대지 않은 다 낡은 경편사륜마차— 요즘 세월에는 로씨야에서 장사치들이나 상인들이나 또는 돈없는 승려들밖에는 타는 사람이 없는 케케묵은 구식 경편사륜마차 한대가 나와 우편도로를 따라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굴러가고있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거리며 새된 소리를 내는 마차는 뒤에 매달린 물통이 내는 신음소리와 함께 박자를 맞추고있어 다른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이 소리들만으로도 또 칠이 다 벗겨진 차체에 매여달려 너덜거리는 헌 가죽쪼각들로 미루어본대도 이 마차가 다 낡아빠졌고 머지않아 페물이 될것이라는것을 판단할수 있었다.

마차에는 N거리에 사는 두사람이 타고있었다. 한사람은 N거리의 장사치로 반반하게 수염을 밀고 안경을 낀데다가 밀짚모자를 쓴것을 보면 장사치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리에 더 가까운 이완 이와늬치 꾸지미쵸브였고 다른 한사람은 재빛돛천으로 된 긴 농군외투에 전넓은 씰크해트를 쓰고 수놓고 채색한 혁띠를 띤 자그마하고 머리를 기른 늙은이로 N거리의 니꼴라이교회 주임사제인 흐리스또포르 씨리스끼신부였다. 첫번째 사람은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오는 잠을 쫓아버리려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버릇된 사무적인 랭정한 마음과 금방 친척들과 헤여지고난 사람이 술에 얼근히 취했을 때 가지게 되는 착한 마음이 서로 엉키여 싸우고있는것이 느껴졌다. 둘째번 사람은 물기어린 눈을 들어 하느님의 세계를 자못 놀라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그 웃음은 어떻게

나 폭이 넓었던지 씰크해트의 전에까지 미치는듯 하였다. 그의 얼굴은 뻘개서 마치도 추위에 언것 같았다. 꾸지미쵸브와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다같이 지금 양털을 팔러 가는 길이였다. 그들은 식구들과 작별을 하고 방금 신 크림을 넣은 기름에 지진 만두를 배가 잔뜩 부르게 먹었고 또 이른아침임에도 상관없이 술까지 한잔씩 마시고 온터였다. … 때문에 두사람의 기분은 어지간히 좋았다.

방금 우에서 소개한 두사람과 기운찬 밤색말 한쌍에 지칠줄 모르고 채찍질을 하고있는 마차군 데니스까외에도 마차에는 또 다른 한사람이 있었다. 그는 볕에 끄슬려 까맣게 되고 얼굴이 눈물로 젖은 아홉살쯤 된 사내아이였다. 그 애는 다름아닌 꾸지미쵸브의 조카 예고루쉬까로, 큰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흐리스또포르신부의 축복을 받고 중학교에 입학하려고 가는 길이였다. 10등관의 미망인으로 꾸지미쵸브의 누이이며 교양있는 사람들과 상류사회를 좋아하는 이 아이의 어머니 올리가 이와노브나는 양털을 팔러 가는 오빠에게 예고루쉬까를 데리고가서 중학교에 넣어달라고 빌다싶이 간청을 하였다. 때문에 지금 이 소년은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마부군자리에 데니스까와 나란히 앉아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의 팔꿈치를 꼭 붙들고 마치 화로우의 차주전자처럼 털썩털썩 뛰여올랐다가는 내려앉군 하는판이였다. 마차가 빨리 달리는 바람에 그의 빨간 웃옷은 등에서 풍선처럼 불룩하게 부풀어오르고 공작새깃을 꽂은 마차군의 새 모자는 줄곧 뒤통수로 미끄러져내리였다. 이 소년은 자기가 더없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여 그저 울고만 싶었다.

마차가 감옥옆을 지나갔을 때 예고루쉬까는 높은 흰 담벽옆으로 천천히 왔다갔다 하는 보초와 조그마한 살창문들, 지붕우에서 번쩍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한주일전 까잔성모제날에 어머니와 함께 감옥교회로 교회성자절을 구경하러 갔던 일이 생각났다. 또 그보다 앞서 부활제날에 그는 식모 류드밀라며 데니스까와 함께 감옥으로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부활제빵이며 닭알, 만두며 구운 소고기를 가지고 갔다. 죄수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십자를 그었는데 그중 한 죄수는 예고루쉬까에게 자기 손으로 만든 주석단추를 선물로 주기도 하였다.

소년은 낯익은 곳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으나 밉살스러운

마차는 그옆을 내달리면서 모든것들을 죄다 뒤로 떨구어버렸다. 감옥뒤로는 시꺼멓게 끄슬린 야장간들과 그뒤로는 둥그런 돌담장으로 둘러싸인 아늑하고 푸른 공동묘지가 언뜻언뜻 보이였다. 담장너머로는 하얀 십자가들과 비석들이 넘겨다보였는데 그것들은 벗나무의 푸른 잎새속에 잠겨 멀리서 보면 마치 하얀 얼룩같았다. 예고루쉬까는 벗꽃이 필 때면 이러한 하얀 얼룩들이 벗꽃들과 뒤섞이여 흰 바다를 이루던것을 회상하였다. 그러나 버찌가 익을 때면 하얀 비석들과 십자가들의 우로는 피같이 새빨간 점들이 뿌려지군 하였다. 담장너머에 있는 벗나무밑에서는 낮이나 밤이나 예고루쉬까의 아버지와 할머니 지나이다 다닐로브나가 고이 잠들고있다. 할머니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통이 좁고 긴 관에 넣고 감겨지지 않는 그의 두눈을 동전 두개로 덮어버렸다. 할머니는 죽기 전까지 정정하여 장마당에서 양귀비씨를 뿌린 만문한 또아리빵을 사가지고 오군 하였으나 지금은 잠들고있었다.

공동묘지너머에는 벽돌공장의 굴뚝들이 무럭무럭 연기를 토하고 있었다. 짙고 검은 연기가 땅에 납작 짓눌리운듯 한 기다란 갈대지붕밑으로부터 커다란 공같이 뭉게뭉게 피여나와서는 하늘로 천천히 솟아올랐다. 공장들과 공동묘지우의 하늘은 뿌옇게 흐리였고 공같이 둥근 연기의 커다란 그림자가 벌판과 길을 가로질러 기여들기도 하였다. 지붕곁의 연기속에서 사람들이며 말들이 빨건 먼지를 뒤집어쓰고 어물거리고들 있었다.

공장뒤에서 거리는 끝나고 벌판이 시작되였다. 예고루쉬까는 마지막으로 한번 거리를 돌아보고는 데니스까의 팔굽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기 시작하였다. …

《그만 그치지 못하겠니, 이 울보야!》 꾸지미쵸브가 욕했다. 《이 응석둥이야, 또 훌쩍거려! 가기 싫으면 떨어지렴, 누가 억지로 끌고 가는건 아니니까.》

《일없어, 괜찮아. 예고르야, 괜찮아…》 흐리스또포르신부가 재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얘야… 하느님만 찾으면 돼…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로 가는게 아니냐. 지식은 세상에서 말하는대로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란다. 이건 사실이다.》

《돌아가구싶으냐?》 꾸지미쵸브가 물었다.

《돌아가… 고 싶어요. …》 예고루쉬까는 흐느끼며 대답하였다.

《그럼 돌아가야지. 가두 역시 쓸데없으니까. 공만 들이지 남는것 없을테니.》

《일없어, 괜찮아. 이 애야…》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말을 이었다. 《하느님만 찾으면 돼. … 로모노쏘브도 고기잡이군들과 같이 이렇게 갔던 사람이지만 그는 나중에 온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단다. 믿음과 함께 얻은 지혜는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열매를 찾게 된단다. 기도에 뭐라고 했니? 주님께는 영광을, 우리네 어버이들에겐 위안을, 교회와 조국에는 리익을… 바로 이거야.》

《리익에두 여러가지지요. …》 값싼 담배를 피우며 꾸지미쵸브가 하는 말이였다. 《어떤자들은 20년씩 공부를 해도 나무아미타불인걸요.》

《그런것도 있지.》

《어떤 사람에겐 머리만 어지럽힐뿐이지요. 내 누이만 해도 뭘 알지 못하는 녀자니까 모든것을 귀족들처럼 하려구 애쓰면서 예고르를 학자로 만들고싶어하는게지요. 그러나 잘살게 해줄수도 있다는건 모른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신부님께 하는건 다름아니라 만약 세상사람이 저마다 학자가 되든가 귀족이 된다면 그때엔 누구도 장사나 농사를 할 사람도 없을것같아 그러는겝니다. 세상사람들은 모두다 굶어죽을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세상사람들이 다 장사나 농사만 한다면 그때엔 누구도 학문을 배우지 못하게 될걸세.》

그들은 두사람이 다 자기들이 그 어떤 확실하고 무게있는 말을 입에 내였다고 생각하면서 심각해진 표정으로 똑같이 외마디기침들을 하였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것도 리해할수 없었던 데니스까는 머리를 젓고나서 몸을 절반쯤 일으켜 밤색말들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신부와 상인은 입을 다물었다.

마차를 타고가는 사람들의 눈앞에는 어느덧 련면히 잇닿은 구릉들이 앞을 막아나서군 하는 가없이 넓은 벌판이 펼쳐졌다. 서로 밀치며 기웃기웃 넘겨다보는듯 한 이 구릉들은 길 바른쪽을 따라 바로 지평선에까지 계속되다가 그만 멀리 연보라빛속으로 사라져버린 한 산봉우리와 합쳐졌다. 가도가도 이 벌판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

서 끝나는지 분간할수 없다. … 해는 이미 군소재지뒤로 넘어가 조용히 아무 시름도 없이 제 할 일을 하려들었다. 맨 처음에는 하늘과 땅과 합쳐진 먼 앞쪽에서 마치도 눈먼 자그마한 사람이 두팔을 휘젓고 서있는것 같은 풍차와 낡은 무덤들곁으로 넓고 진한 누런 띠가 땅으로 기여가는듯 하였다. 그 띠는 잠시후에 얼마쯤 가까이서 해빛을 반사하더니 바른쪽으로 기여가 구릉들사이로 사라져버리였다. 그러자 그 어떤 따스한것이 예고루쉬까의 등을 비치는 사이에 빛을 반사하는 띠는 등뒤로부터 슬그머니 다가와 마차와 말들사이로 얼른 빠져 다른 띠를 맞받아나가는것 같았다. 그러자 어느덧 넓은 초원은 그우에 비친 아침노을과 그늘을 떨어버리고 방긋이 웃기라도 하듯 이슬에 젖어 반짝이였다.

가을한 보리밭과 부리얀풀들, 겨우살이와 들삼들, 찌는듯 한 더위에 고동빛과 붉은빛을 띤채 한 절반쯤 죽은것만 같은 이 모든것들은 지금 이슬에 젖고 해별에 안기여 또다시 꽃이 필수 있도록 되살아났다. 길우로는 칼새들이 즐겁게 우짖으며 날아들고 풀속에서는 모르모트들이 서로 부르고 찾아내고 그 어딘지 왼쪽 멀리서는 또 까치들이 짖어댔다. 사륜마차에 놀란 자고새들의 무리가 후두둑 날아올라 그 부드러운 《뜨르르르》소리를 지르며 구릉들쪽으로 날아가버렸다. 베짱이, 귀뚜라미, 민충이, 그리고 도루래들이 풀속에서 갈리는듯 한 소리로 단조롭게 울고있었다.

그러나 얼마쯤 지나자 이슬은 다 걷히고 대기는 굳어진듯 하다. 한바탕 속았다난 초원은 그 생기없는 7월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풀들은 푹 처지고 생명은 실신한듯 하였다. 그림자처럼 평온하고 가까이는 고동빛을 띤 풀빛으로, 멀리로는 연보라빛을 띤 해별에 탄 구릉들, 더 멀리로는 조는듯 한 평원들이 보였다. 숲과 높은 산들이 없는 이 초원우에 드리운 무섭게 보이기까지 하는 깊고 투명한 하늘, 이런것들이 지금은 슬픔을 안고 감각마저 잃은듯 하였다.

이 얼마나 숨가쁘고 생기없는 풍경인가! 마차는 계속 달린다. 그러나 예고루쉬까의 눈에는 그저 언제나 꼭같은 하늘과 들, 구름만이 보일뿐이였다. … 풀속에서 나던 음악도 그쳐버렸다. 칼새들은 날아가버리고 자고새들도 보이지 않았다. 시든 풀밭우로는 갈가마귀들이 한가롭게 날아옜다. 그 갈가마귀들마저 다들 엇비슷하여 더욱더 이 초원

을 단조롭게 만든다.
수리개 한마리가 날개를 훨훨 치며 공중에서 거침없이 날더니 마치 생활의 적막을 두고 무엇을 생각하기라도 한듯 공중에서 딱 멎어버렸다. 잠시후에 다시 날개를 치며 초원우로 쏜살같이 날아갔다. 수리개가 무엇때문에 저렇게 날며 저 새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도저히 알길이 없다. 멀리서는 풍차의 날개가 돌고있다. …
초원의 단조로움을 깨뜨리려는듯 이따금 부리얀풀속에서는 해골이나 둥근 바위들이 언뜻 보이고 눈깜박할 사이에 먼지를 들쓴 석상이 아니면 웃가지에 갈가마귀가 앉아있는 백양나무가 나타나고 모르모트가 내달리기도 한다. 그리고는 또다시 부리얀풀과 구릉들이, 갈가마귀들이 지나간다. …
바로 이때 고맙게도 풀단들을 실은 짐수레가 마주온다. 그 꼭대기에는 처녀가 가로 누워있다. 더위로 기진하고 졸리는듯 처녀는 머리를 들고 마주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데니스까는 정신없이 처녀에게 반해버리고 밤색말들이 풀단쪽으로 대가리를 내미는 바람에 사륜마차는 새된 소리와 함께 짐수레와 부딪쳤다. 그러자 긴 이삭들이 비자루처럼 흐리스또포르신부의 씰크해트를 스치고 지나갔다.
《사람한테두 대드는구나, 이 뚱뚱보야!》 데니스까는 큰소리를 친다. 《말벌에 쏘인것처럼 낯바닥이 부어가지구!》
처녀는 졸음이 오는지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는 입술을 조금 오무작거리더니 또다시 몸을 눕혔다. 그러자 구릉우로 외로이 서있는 백양나무가 보였다. 누가 그것을 심었는지, 저 나무가 어찌하여 여기 서있는지 그것은 하느님만이 알노릇이다. 푸른 옷을 입은 그 꿋꿋한 나무로부터 눈을 돌리기는 어려웠다. 저 멋쟁이 백양나무가 행복할가? 여름에는 찌는듯 한 더위, 겨울에는 심한 추위와 눈보라, 가을에는 황량함 그리고 들리는것이라고는 행실이 사납고 노하여 아우성치는 바람소리뿐인 무서운 밤, 또 그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본은 한평생 홀로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이다. 백양나무뒤로는 구릉꼭대기로부터 바로 길가에 이르기까지 진한 누런빛양탄자처럼 밀밭들이 잇달려있다. 구릉우의 밀밭들은 곡식들을 이미 다 베여 산처럼 가려놓았으나 아래쪽에서는 금방 가을이 시작되였을뿐이다. … 가을걷이군 여섯명이 나란히 서서 큰 낫을 휘둘렀다. 낫들은 즐거운듯 번쩍거리며 장단을

맞추듯 《스르륵 스르륵.》소리를 냈다. 단을 묶는 아낙네들의 몸놀림을 보거나 가을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해별에 번쩍거리는 낫으로 보아 더위때문에 숨차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검정개 한마리가 혀를 빼물고 가을하는 사람들쪽에서 마차를 향하여 달려갔다. 분명 짖으려고 하는것 같더니 그만 오다말고 뚝 멎어서서 채찍을 들어 위협하는 데니스까를 태연하게 바라보았다. 짖는것도 괴로운 모양이였다! 아낙네 하나가 허리를 펴고 일어났다. 그리고는 허리가 아픈지 두손으로 붙잡고 예고루쉬까의 빨간 웃옷을 바라보았다. 빨간 빛갈이 그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의 생각이 나서 그러는지 그는 옴짝하지 않고 오래동안 한곳에 선채 그들의 뒤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밀밭도 얼핏 지나가버렸다. 또다시 지루한 들판이, 해빛에 끄슬린 구릉들이, 찌는듯 한 해빛이 비치는 하늘이 지나가고 땅우에서는 다시금 수리개가 날아옌다. 멀리서는 여전히 풍차의 날개가 돌고있는데 그것은 키작은 사람이 팔을 내젓는것 같았다.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것도 싫증이 났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곳까지는 가닿을것 같지 않다. 풍차가 마차를 피하여 계속 달아나는것 같기때문에…

흐리스또포르신부와 꾸지미쵸브는 입을 다물고있었다. 데니스까는 말들에 채찍질을 하며 큰소리를 질렀고 예고루쉬까도 이제는 울지 않고 심상하게 좌우옆을 바라보았다. 찌는듯 한 더위와 초원의 적막이 그의 기운을 다 빼앗아간것 같았다. 그는 자기가 이미 오래전부터 들추는 마차를 타고가는듯 하였고 해도 벌써 오래전부터 그의 등을 뜨겁게 지지고있는듯 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 10로리도 채 오지 못하였는데 그는 벌써 (이제는 좀 쉬였으면!) 하고 생각하였다. 큰아버지의 얼굴에서는 점점 인정의 빛이 사라지고 다만 사무적인 랭담한 빛만이 남았다. 그의 수염이 없는 여윈 얼굴은 특히 안경을 썼을 때나 코와 그 주위가 먼지에 덮였을 때면 랭담한 그의 표정에는 절대로 용서를 모르는 잔인한 표정이 더해지군 하였다.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놀라운 하느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계속 빙그레 웃었다. 그는 말없이 그 어떤 좋은것, 즐거운것을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의 얼굴에서는 착하고 점잖은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좋고 즐거운 생각이 더위로 하여 그의 뇌수속에 짝 굳어져버린듯 하였다.

《그래, 어때. 데니스까, 오늘중으로 짐수레들을 따라잡게 되나?》 꾸지미쵸브가 물었다. 데니스까는 하늘을 쳐다보더니 몸을 반쯤 일으켜 말들에게 채찍질을 하고나서야 대답하였다.

《밤까지야 넉넉히 따라잡을수 있겠지요.》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마어마하게 큰 양 지키는 초원의 개 여섯마리가 미친듯이 사납게 짖어대며 마치 매복하였다가 뛰여나오는것처럼 마차를 향하여 달려들었다. 특별히 사나운 이 개들은 털이 수부룩한 상판대기에 악이 올라 눈이 시뻘개서 마차를 빙 둘러쌌다. 그리고는 경쟁이나 하듯 서로 밀치고 닥치며 목갈린 소리로 으르렁거리고 짖어댔다. 개들은 무섭게도 증오에 차서 말들은 물론 마차나 사람들까지도 죄다 갈기갈기 찢어놓으려고 하는것만 같았다. … 개들을 놀려대며 약을 올려서 채찍으로 후려갈기기를 즐기는 데니스까는 좋은 때를 만난듯 기뻐하며 얼굴에 우정 험악한 표정을 짓고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양 지키는 개들에게 채찍을 휘둘렀다. 개들이 더욱 극성스럽게 짖어대자 말들은 훌쩍 내달렸다. 간신히 마차군자리에 주저앉은 예고루쉬까는 개들의 눈깔들과 이발들을 바라보자 만약 마차에서 굴러떨어지면 순식간에 자기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겨질것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러나 별로 무서운것을 느끼지 않고 데니스까와 같이 마음이 시원해지는것을 느끼며 자기의 손에 채찍이 없는것만을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사륜마차는 양떼와 마주치게 되였다.

《멎엇!》 꾸지미쵸브가 소리쳤다. 《고삐를 잡아! 뜨르르릇!…》

데니스까는 온몸을 뒤로 잔뜩 제끼고 말들을 급히 멈추었다. 마차는 멎었다.

《이리 좀 와!》 꾸지미쵸브는 양몰이군에게 웨쳤다. 《개들이 짖지 못하게 해. 망할놈의 짐승들 같으니라구!》

누데기를 걸치고 맨발인데다가 머리에는 털모자를 쓰고 더러운 자루를 허리에 찬데다가 갈구리가 달린 긴 막대기를 쥔 늙은 양몰이군(구약시대의 사람과 별로 다름없다.)은 개들을 짖지 못하게 하고나서 모자를 벗어쥐고 마차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와 꼭같은 구약시대의 인물 하나가 양떼의 저쪽켠에 까딱도 하지 않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이게 누구네 양떼가?》 꾸지미쵸브가 물었다.
《와를라모브네거요!》 늙은이는 큰소리로 대답하였다.
《와를라모브네거요!》 양떼의 저쪽켠에 서있던 양몰이군이 되뇌였다.
《그래, 어제 여기루 와를라모브가 지나간게지. 그렇지 않은가?》
《아니… 그 사람네 집사가 지나간게요. 분명하다니…》
《가자!》
마차는 앞으로 달리였다. 양몰이군들은 그 사나운 개들과 함께 뒤로 사라졌다. 예고루쉬까는 연보라빛을 띤 먼 앞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에게는 날개를 내젓는 그 풍차가 이제는 차츰 가까와지는듯이 생각되였다. 그것은 점점 더 커지더니 그만 부쩍 자라올라 이제는 그 두 날개죽지까지도 똑똑히 구분할수 있었다. 날개 하나는 다 낡아서 더덕더덕 천쪼박을 댔으나 다른 하나는 새 나무로 만든지 얼마 오래지 않아서 해별에 번쩍번쩍 빛났다.
마차는 곧추 가건만 풍차는 웬일인지 왼쪽으로 물러나고있었다. 마차가 갈수록 풍차는 계속 물러났으나 그렇다고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것은 아니였다.
《볼따와가 아들에게 아주 좋은 풍차를 세워줬는뎁쇼.》 데니스까가 말하였다.
《그런데 어쩐셈인지 그 사람네 농가는 보이지 않는군.》
《집은 저 산골짜기뒤인뎁쇼.》
볼따와네 농가가 인차 나타났다. 그런데도 풍차는 여전히 멀리로 물러나지도 않고 뒤에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예고루쉬까에게 그 번쩍거리는 날개를 흔들었다. 꼭 요술쟁이 같았다!

2

거의 한낮이 되여서야 마차는 길을 바른편으로 꺾어들더니 인차 멈춰섰다. 예고루쉬까는 조용하고 매우 다정스럽게 졸졸거리는 물소리와 함께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기가 포근한 비로도천처럼 얼굴에 와닿는것을 느끼였다. 자연의 손으로 크고 괴이한 돌들을 붙여서 만든 구릉에서 시작된 시내물은 그 어떤 알지 못할 은인이 심어놓은듯 한

미나리덤불을 지나 가느다란 흐름을 이루어 달리고있었다. 맑고 즐겁고 해볕에 반짝이는 시내물은 조용히 소곤거리며 마치도 자기를 세차고 사나운 흐름으로 생각하는지 어딘지 왼쪽을 향하여 급히 달려갔다. 그러다가 구릉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는 작은 물웅뎅이로 기여들어가고말았다. 뜨거운 해볕과 또 물을 있는대로 다 마셔버리는 화끈 달아오른 땅이 이 시내물의 힘을 다 빨아버리고만것이였다. 그러나 얼마쯤 더 가자 분명 그 시내물은 또 자기와 같은 다른 자그마한 내물과 합쳐진 모양이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구릉으로부터 시내물을 따라 한 백걸음쯤 가느라니 시퍼런 사초가 무성한 시내가가 나타났기때문이였다. 마차가 가까이로 다가가자 그속에서 도요새 세마리가 소리를 지르며 푸드득 날아올랐다.

길 떠난 사람들은 좀 쉬기도 하고 말들에게 먹이도 먹이려고 시내가에 자리들을 잡았다. 꾸지미쵸브와 흐리스또포르신부 그리고 예고루쉬까는 사륜마차와 마차에서 떼여놓은 말들의 그림자밑에 펠트천을 펴놓고 앉아서 요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더위로 하여 흐리스또포르신부의 머리속에서 굳어졌던 선량하고 즐거운 생각들이 그가 물을 실컷 마시고 구운 닭알 하나를 먹고나자 즉시 입밖으로 튀여나오려고 하였다. 그는 예고루쉬까를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씹으며 입을 열었다.

《이 애야, 나두 공부했단다. 아주 어려서부터 하느님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난 남달리 바로 너와 같이 총명하여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위안을 드렸단다. 아직 열다섯도 안되는 나이에 나는 벌써 우리 말처럼 라틴어로 말도 하고 시도 지었단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지만 나는 흐리스또포르주교님의 지팽이를 말아 들고다녔지. 한번은 미사뒤에 지금생각엔 그날이 바로 알렉싼드르 빠블로위치 블라고쓸로웬늬대공의 명명일이였어. 주교님께서는 제단에서 옷을 벗으시면서 나를 귀엽게 보시더니 물으시겠지－〈Puer boneguam appIIarIs? (이 귀여운 애야, 네 이름이 뭐지?)〉라고 말이야. 그래 내가 〈Christophorussum (흐리스또포르입니다.)〉하고 대답했지. 그랬더니 주교님께서는 〈Ergo Connominati Sumus (그럼 동성이로구나.)〉하시지 않겠니. 글쎄 우리는 같은 성이였단다.… 주교님께서는 계속하여 라틴어로－〈넌 뉘 아들이냐?〉하고 물으시길래 내

가 역시 라틴어로 레베진스꼬예마을 씨리스꼬이보제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지. 내가 대답을 똑똑하게 척척 하는것을 보시고는 주교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지. — 〈너의 아버지한테 편지 써라. 내가 네 아버지를 그대로 둬두지는 않을테라고. 그리고 네 일도 내가 생각해두련다.〉 그때 제단에 있던 신부들과 보제들도 라틴어로 하는 문답을 들으며 퍽 놀라서 저마다 나를 칭찬하며 자기들도 만족해한다고 하였어. 아직 수염도 나지 않았지만 이 애야, 난 그때 벌써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그리고 프랑스어로 책을 읽었고 철학이며 수학, 력사 그밖에도 모든 학문을 다 알고있었단다. 하느님은 내게 놀라운 기억력을 주셨어. 한 둬번만 읽으면 단숨에 주루룩 외우군 하는 때가 많았단다. 선생님들이며 나를 돌보아주신 어른들은 다들 놀라서 앞으로 내가 학문을 하고 교회의 등불이 되리라고들 했단다.

나도 나 혼자서라도 끼예브에 가서 학문공부를 계속하려고 생각했으나 글쎄 부모님이 그러라고 허락하셔야 말이지. 아버지의 말씀이—〈네가 한평생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럼 대체 우린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야 하느냐?〉 하시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학문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은거야.

물론 내가 학자는 못되였지만 그대신 나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거역하지는 않았거던. 그들의 늘그막을 편안하게 해드렸고 장례도 잘 지내드렸지. 순종한다는것은 정진과 기도보다도 더 요긴한게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이젠 학문을 다 잊어버렸겠군요!》 꾸지미쵸브가 한마디 하였다.

《어떻게 잊지 않겠소. 하느님덕분에 벌써 70살이 넘었으니! 철학이나 수사학은 아직도 더러 잊지 않았지만 어학과 수학은 아주 깜깜 잊어버렸어.》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눈을 찌프리고 무엇을 잠간 생각하더니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였다.

《대체 실재라는것은 뭔가? 실재라는것은 그자체의 실현에 대해서 자기 이외의것을 요구하지 않고 존재하는것을 말한다.》

그는 머리를 조금 돌리더니 감동하였는지 씩 웃었다.

《정신의 량식!》 그는 말하였다. 《진실로 물질은 육체를 먹여기르고 정신의 량식이 정신을 먹여기르는것이지!》

《학문은 학문이거니와》 꾸지미쵸브는 한숨을 지었다. 《헌데 와를라모브두 학문두 다 우리 힘으로는 따라잡지 못하는가부지요.》
《사람이 어디 바늘인가. 이제 보이겠지. 그 사람이 지금 이 근처에서 빙빙 돌고있을지도 몰라.》
우거진 왕골우로 앞서 본 도요새 세마리가 날아지나갔다. 그 삐이삐이 하는 울음소리에서는 그 새들이 시내가에서 쫓겨난데 대한 불안과 원한이 느껴졌다. 말들은 점잖게 먹이를 씹으며 푸르럭거리고 코김을 불기도 하였다. 데니스까는 말들의 옆으로 거닐면서 주인들이 먹고있는 오이절임과 만두 그리고 닭알에 별로 흥미가 없다는것을 보이려고 애를 쓰며 말들의 배때기와 등에 달라붙은 등에와 쉬파리들을 때려잡는데만 골몰하였다.
그는 잔인하게도 목에서 그 무슨 이상한 소리를 내며 곤충들을 족쳤는데 그러다가도 잘 맞지 않으면 불만에 찬 고함소리를 지르며 죽음을 피하여 도망치는 이 운수좋은 생물들을 쏘아보았다.
《데니스까, 왜 거기 가있어? 어서 와서 먹지 않구!》 꾸지미쵸브는 숨을 크게 내쉬며 자기는 인젠 배가 불렀다는것을 알리면서 말하였다.
데니스까는 주저하면서 펠트천결으로 오더니 누렇게 된 큰 오이절임 다섯개를 고르고 (조금 작고 싱싱한것을 고른다는것은 마음에 꺼리였다.) 꺼멓게 되고 금이 툭툭 간 구운 닭알 두알을 집은 뒤에 이번에는 마치 제가 뻗친 손을 누가 내려치지나 않을가 하고 겁이 나는듯 주저하며 만두에 손을 가져다대였다.
《어서 집어라.》 꾸지미쵸브가 그를 재촉하였다.
데니스까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만두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멀찍이 한옆으로 비껴나 마차를 등지고 맨 땅우에 주저앉았다. 그러자 곧 입맛 다시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들려왔던지 그만 말들까지도 대가리를 돌려 의아한 눈길로 데니스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식사가 끝나자 꾸지미쵸브는 마차에서 무엇인지 들어있는 자루 하나를 끄집어내더니 예고루쉬까에게 말하였다.
《난 한잠 잘테다. 넌 내 머리맡에서 이 자루를 누가 훔쳐가지 않게 잘 봐라.》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법의와 띠, 긴외투를 벗었다.

예고루쉬까는 그를 보고 놀라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였다. 그는 신부들이 아래바지를 입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는데 이제보니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바지가랭이를 돛천으로 만든 목 긴 장화속에 틀어박았고 우에는 얼럭덜럭한 쟈케트까지 입고있는것이 아닌가. 예고루쉬까는 신부가 자기의 영예로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한것을 보자 긴 머리칼과 수염으로 보아 로빈손 크루소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였다. 옷을 다 벗고난 흐리스또포르신부와 꾸지미쵸브는 사륜마차의 그늘밑에 누워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감았다. 데니스까도 요기를 끝내자 뙤약볕이 지지듯이 내려쪼이는 곳에 나가눕더니 역시 눈을 감았다.

《잘 봐라, 누가 말을 훔쳐가지 않게!》 그는 예고루쉬까에게 한마디 하고는 즉시로 잠들어버렸다.

주위는 고요하였다. 다만 들려오는것은 말들이 푸르럭거리며 코김을 뿜는 소리와 새김질을 하는 소리 그리고 또 잠든 사람들의 코고는 소리뿐이였다. 어디선가 좀 떨어진 곳에서 까치 한마리가 외로이 울었고 이따금씩 이 청하지 않은 손님들이 아직 가지 않았는가고 알아보려고 날아오군 하는 세마리 도요새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올뿐이였다.

그런가 하면 부드럽게 혀굴리는 소리를 내며 작은 시내물이 졸졸 흐르는데 이 모든 소리들은 주위의 정적을 깨뜨리지도 흐트러뜨리지도 않고 도리여 이와는 반대로 삼라만상을 흐리마리한 졸음속으로 몰아넣었다.

예고루쉬까는 음식을 먹고난 뒤라 더 세게 느껴지는 더위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사초들이 무성하게 자란 작은 시내가로 가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지금까지 본것들과 꼭같은것들, 들판과 구릉, 하늘, 보라빛에 물든 먼 풍경들이 보이였다. 다만 구릉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왔고 풍차가 멀리 뒤에 떨어져서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을뿐이였다. 시내물이 흘러내리는 경사가 급한 구릉뒤로는 좀 더 민틋하고 널직이 자리잡은 다른 구릉이 솟아있었고 그우에는 농가들이 몇채 안되는 자그마한 마을이 마치도 꽉 들어붙은듯이 보였다. 그 오막살이들의 둘레에는 사람도 나무도 그늘마저 보이지 않아 마치 이 뜨거운 대기속

에서 숨이 막히고 다 말라버린듯 하였다. 할일이 없어진 예고루쉬까는 풀속에서 민충이 한마리를 잡아 움켜쥐고 귀가에 가져다대고는 오래동안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켜는 음악소리를 듣고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싫증이 나자 그는 사초가 자란 시내가로 날아든 누런 나비들의 떼를 좇아다니다가 어느새 자기 모르게 또다시 말들옆으로 와버렸다. 큰아버지와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여전히 자고있었다. 그들은 분명히 말들이 쉴 동안 두세시간은 잘것이다. 그러니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며 어디서 더위를 피해야 하나? 정말 힘든 일이였다. 예고루쉬까는 왕골들사이로 흘러가는 가느다란 시내물에 입을 가져다댔다. 그의 입안은 곧 시원해졌고 미나리냄새가 확 풍겼다. 그는 처음에는 목이 말라 마시였으나 그뒤로는 찬 기운이 입으로부터 온몸에 퍼질 때까지 물이 옷속으로 스며드는것도 모르고 마셔댔다. 그다음 그는 사륜마차로 가까이 다가가 잠자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큰아버지의 얼굴은 전과 다름없이 사무적이고 랭담하였다. 자기가 하는 일에 광신적인 꾸지미쵸브는 언제나 심지어 꿈속에서까지도 또는 《천사들이시여》라는 노래를 부르는 교회당에서 기도할 때에도 자기 사업을 생각하였다.

그는 자기 사업을 잠시라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여서 지금도 분명 양털이 든 짐짝과 짐수레와 시세와 와를라모브를 꿈꾸고있을것이였다. …

하지만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부드럽고 싹싹하고 웃기 잘하는 사람이여서 한평생 뱀처럼 자기 령혼을 틀어조이는 그런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였다. 그가 한평생 해온 수많은 일들중에서 그의 마음을 제일 끈것은 일자체가 아니라 모든 일에 반드시 따르는 떠들썩함과 사람들과의 교제였다. 때문에 이번 길에서 그의 흥미를 끈것은 양털과 와를라모브, 시세가 아니라 긴 려행길과 도중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마차그늘밑에서 자는 잠과 때없는 식사들이였다. … 때문에 지금도 그의 얼굴표정으로 미루어 그가 꾸고있는 꿈은 분명 라틴어문답, 그의 안해, 신 크림을 넣고 기름에 지진 만두 그리고 꾸지미쵸브의 꿈에는 보이지 않을 그런것들일것이였다.

예고루쉬까가 잠든 사람들의 얼굴들을 바라보고있는 동안 뜻밖에도 나지막한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녀자가 부르는 노래소리였다. 그런데 노래부르는 곳이 어딘지 또 어느쪽인지는 알수 없었다. 나지막하고 길게 뽑는 마치 울음소리와도 같은 그 구슬프고 겨우 귀에 들리는 노래소리는 바른쪽은 물론 왼쪽에서도, 하늘과 땅에서도 들려오는듯 하였다. 그것은 마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령혼이 초원우로 날아다니며 부르는것 같았다. 예고루쉬까는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이 이상한 노래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종시 알수 없었다. 그러자 귀를 기울이고있던 그에게는 문득 이것이 풀이 부르는 노래같이 생각되였다. 이제는 절반쯤 죽어 거의 쓰러진 풀이 소리없는 자기 노래를 통하여 가엾이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는 그 누구에게 죄가 없으며 오직 해가 함부로 자기를 태워죽이려고 한다는것을 믿게 하려고 하소연하는것 같았다.

풀은 안타까이도 살고싶다는것을, 자기는 아직도 젊어 더위와 가물만 아니라면 틀림없이 아름다울것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풀은 죄가 있는것도 아니건만 그 누구에겐지 용서를 빌었고 그리고 자기자신은 도저히 견딜수없이 가슴 아프고 슬프며 가엾다는것을 다짐하는것이였다.

예고루쉬까는 얼마동안 노래를 듣고있었다. 그러자 그에게는 이 구슬프고 늘어진 노래로 하여 대기가 더욱 숨가쁘게 더워지고 그리고 더 옴짝달싹 못하게 된것 같았다. 그는 그 노래를 눌러버리려고 자기도 노래를 부르며 애써 발자국소리를 크게 하며 사초밭으로 내달렸다. 그는 곧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그러자 그는 노래를 부른 녀인을 보게 되였다. 작은 마을끝에 있는 농가옆에 왜가리처럼 다리가 가늘고 긴 한 녀인이 짧은 속옷바람으로 서서 무엇인지 채에 치고있었다.

그의 채밑에서는 흰 먼지가 일어나 둔덕을 따라 한가로이 날려가고 있었다. 노래를 부른것은 그 녀인이 분명하였다. 녀인곁에서 몇걸음 떨어진 곳에 어린 사내아이가 샤쯔바람으로 모자도 없이 옴짝하지 않고 서있었다. 사내아이는 노래에 취한듯 까딱않고 서서 그 어딘가 아래쪽, 분명 예고루쉬까의 빨간 샤쯔를 바라보고있었다.

노래가 멎었다.

예고루쉬까는 천천히 사륜마차가 있는데로 돌아가 심심한김에 흐르는 시내물에서 장난을 하였다.

그러자 또다시 길게 뽑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 다리가 여위고 긴 녀인이 마을둔덕에서 노래를 불렀다. 예고루쉬까는 갑자기 점직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들고있던 풀대를 던지고 눈을 들었다. 이때 그의 눈에 뜨인것은 참으로 뜻밖이여서 그는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머리우에 있는 보기 흉한 커다란 바위우에 바로 그 녀인옆에 있던 샤쯔만을 입고 얼굴은 부은듯 하고 배가 나온데다가 다리가 가는 사내아이가 서있는것이 아닌가. 마치 귀신을 발견하기라도 한듯 사내아이는 놀라고 겁이 나 입을 헤벌린채 예고루쉬까의 빨간 샤쯔며 마차를 바라보았다. 예고루쉬까의 빨간 샤쯔는 사내아이를 다정하게 부르는것이였으나 사륜마차와 그 곁에서 자고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였다. 사실 그 사내아이는 유혹적인 빨간 샤쯔에 이끌려 마을에서 이곳까지 왔건만 이제는 자신의 대담성에 놀란 모양이였다. 예고루쉬까는 오래동안 사내아이를 지켜보았고 그 애도 역시 예고루쉬까를 그렇게 바라보았다. 두 애는 입을 다문채 그 어떤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동안 침묵을 지키고있던 예고루쉬까가 드디여 입을 열어 이렇게 물었다.

《너 이름이 뭐냐?》

낯선 아이의 두볼은 더욱 붉어졌다. 그는 바위에 기대선채로 눈을 크게 뜨며 입술을 움직거리더니 목이 갈린듯 한 낮고 굵은 목소리로 《찌뜨야.》 하고 대답하였다.

아이들은 다시 침묵을 지켰다. 얼마동안 입을 다물고있던 찌뜨라는 그 이상한 사내아이는 예고루쉬까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채 한발을 우로 쳐들더니 발꿈치로 디딜 자리를 더듬어찾자 곧 뒤걸음질을 하며 마치도 예고루쉬까가 등뒤로 다가와 때리지나 않을가 겁이 나는듯이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찌뜨는 언덕꼭대기로 올라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런 자세로 올라갔다.

예고루쉬까는 찌뜨를 눈으로 바래고나서 두손으로 무릎을 껴안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뜨거운 해볕은 여전히 그의 뒤통수며 목덜미, 등을 태웠다.

구슬프게 들리던 노래는 굳어진 숨가쁜 대기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들리군 하였다. 시내물은 단조로운 소리를 내면서 흐르고 말들은 먹이를 씹었다. 시간은 마치도 한자리에서 굳어져버린듯 느껴졌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느덧 백년이 지나가버린듯 생각되였다. … 하느님은 혹시 예고루쉬까와 마차와 말들이 이 대기속에서 넋을 잃고 저 구릉처럼 돌이 되여 한곳에 영원히 남아있기를 바란것은 아니였을가?
예고루쉬까는 고개를 들어 흐려진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이때까지 움직이던, 길이 없던 보라빛에 싸인 먼곳은 하늘과 함께 보다 더 먼곳으로 물러가버렸다. 그뒤를 따라 풀들과 사초덤불들도 물러났다. 예고루쉬까도 이 물러나는것들의 뒤를 따라 죽기내기로 달려갔다. 그 어떤 힘이 어디론지 그를 끌고갔고 그뒤를 따라 고열과 마음을 괴롭히는 노래가 쫓아갔다. 예고루쉬까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다. …
무슨 벌레인지 쏘는 바람에 데니스까가 먼저 잠을 깨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더니 어깨를 긁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망할놈의것 같으니, 이런건 죽지도 않는다니!》
그는 시내가로 가서 물을 잔뜩 마시고 세면을 오래 하였다. 그의 코를 푸는 소리와 물소리로 하여 모든것을 잊고 멍하니 있던 예고루쉬까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물방울이 묻은 얼굴을 대리석처럼 보이게 하는 큼직큼직한 주근깨로 덮인 데니스까의 젖은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물었다.
《인차 떠나게 되나요?》
데니스까는 해가 얼마나 높이 떴는가고 쳐다보더니 대답하였다.
《음, 곧 떠나야지.》
그는 샤쯔자락으로 얼굴을 훔치고는 별로 신중한 기색을 하고 한발을 들더니 말하였다. 《난 깨금질로 갈테니 누가 빨리 저 풀밭까지 가는가 내기하자!》
예고루쉬까는 더위와 설친 잠으로 하여 맥이 빠졌으나 별로 아랑곳않고 그의 뒤를 따라 힘껏 뛰여갔다. 데니스까는 이미 스무살로 마부노릇을 하며 장가갈 차비를 하고있었으나 그래도 아직 장난기를 버리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연띄우기, 비둘기쫓기, 바브까놀이, 따라잡기 같은 놀음들을 퍽 그나 좋아하였고 아이들의 싸움에도 언제나 한몫 끼우군 하였다. 주인들이 어디로 외출하거나 잠을 자든가 하면 그는 좋아라고 깨금질이며 돌던지기 같은 장난을 하였다. 그가 어린 아이들속에 끼여 그렇게도 열중하여 노는것을 보고 어른들은 누구나 다

《이런 바보야!》 하고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이들은 이 커다란 마부가 자기들의 놀음에 뛰여드는것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데니스까가 자기들을 때리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같이 놀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강아지들이 자기들이 노는데 큰 개가 끼여들어 놀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것과 다름이 없었다.

데니스까는 깨금질로 예고루쉬까를 앞섰다. 그는 분명 이것으로 마음이 퍽도 흐뭇한 모양이였다.

그는 한눈을 껌벅거렸다. 그는 자기가 그 어떤 넓은 곳도 깨금질로 다 뛰여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줄 작정인지 예고루쉬까에게 깨금질로 뛰여갔다가 도루 마차까지 뛰여오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예고루쉬까는 머리를 저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그는 숨이 찼고 기운도 다 빠졌던것이다.

데니스까는 꾸지미쵸브가 불이 나게 욕설을 퍼붓든가 아니면 막대기를 휘둘러댈 때는 보이지 않았던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를 기울이며 슬그머니 무릎을 꿇었다.

순간 그의 얼굴에는 이단자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그런 엄격하고 공포에 찬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두눈길을 모아 한곳을 노려보더니 배처럼 우묵한 손을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갑자기 앞으로 넘어지면서 배같이 큰 손으로 풀을 탁 덮쳤다.

《잡았다!》 그는 장한듯이 목갈린 소리로 웨쳤다. 그는 인차 일어나서 예고루쉬까의 눈앞에 커다란 베짱이를 내밀었다.

예고루쉬까와 데니스까는 베짱이를 기분좋게 해주느라고 널직하고 푸른 베짱이의 등을 쓸어주고 수염도 건드려보았다. 그리고나서 데니스까는 살찐 쉬파리 한놈을 잡아 베짱이에게 내밀었다. 베짱이는 마치도 오래전부터 데니스까와 친한듯이 태연하게 갑옷의 눈가리우개와 비슷한 그 커다란 아래턱을 내밀더니 쉬파리의 배때기를 물어뜯었다. 그들은 베짱이를 놓아주었다. 그러자 그놈은 날개의 분홍빛깃을 번뜩거리며 풀밭에 내려앉더니 곧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쉬파리도 놓아주었다. 쉬파리는 날개를 가다듬더니 배가 없어진채로 말들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버렸다.

마차밑에서 숨을 내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꾸지미쵸브가 잠을 깬것이였다. 그는 얼른 머리를 쳐들고 불안스럽게 먼곳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예고루쉬까와 데니스까에게는 별로 눈길을 돌리지 않는것을 보니 그는 잠을 깨서도 양털과 와를라모브에 대한 생각만 하는 모양이였다.

《흐리스또포르신부님, 일어나시오. 때가 되였수다!》 그는 부산을 피우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자다가는 일을 망치고말겠수다! 데니스까, 말을 메워!》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잘 때와 마찬가지로 웃음을 띠운채로 잠에서 깨여났다. 그의 얼굴은 잠잘 때 더 늘어난 주름으로 하여 얼굴이 갑절이나 더 졸아든것 같았다. 세면을 하고나서 옷을 입은 그는 천천히 호주머니에서 기름에 절은 자그마한 수첩을 끄집어내더니 얼굴을 동쪽으로 돌리고 나지막한 소리로 읽으면서 십자를 긋기 시작하였다.

《흐리스또포르신부님!》 꾸지미쵸브는 나무라듯이 말하였다. 《이젠 가야 할 땐데, 말도 다 차비가 됐수다. 당신은 정말…》

《인차 끝내겠네. …》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중얼거렸다. 《까뛰즘(시편의 부분)만은 읽어야만 하네. … 오늘은 아직 못 읽었어.》

《까뛰즘이야 나중에 읽어두 되잖아요.》

《이완 이와늬치, 내게는 매일매일 규칙이 있어서… 안되오.》

《하느님이 처벌하실것 같소?》

흐리스또포르신부는 15분동안이나 얼굴을 동쪽으로 돌린채 까딱하지 않고 서서 입술을 우물우물 놀렸다. 한편 꾸지미쵸브는 거의 적의에 찬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조급하여 어깨를 으쓱하군 하였다. 더우기 흐리스또포르신부가 《영광》이라는 말이 끝날 때마다 숨을 한껏 들이쉬고나서 얼른 십자를 긋고는 다른 사람들도 다 십자를 긋도록 일부러 소리를 높여 세번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시여,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하고 말하자 꾸지미쵸브는 화를 버럭 냈다.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빙그레 웃더니 하늘을 쳐다보고 시편을 호주머니속에 넣고나서 《퓌니!(마지막!)》 하고 말하였다.

마차는 인차 다시 떠났다. 그러나 마차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것만 같았다. 한것은 길손들이 오전에 본것과 꼭같은 풍경들을 다시 보았기때문이였다. 구릉들은 여전히 보라빛속에 잠겨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부리얀풀들과 둥근 바위들이 해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가

을한 이랑들도 지나가고 여전히 갈가마귀들과 천천히 날개를 젓는 수리개가 초원우를 날고있었다. 대기는 무더위와 정적으로 하여 더욱 굳어진듯 하고 부드러운 자연은 정적속에 감각을 잃어버린것 같았다.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다. 초원에서는 생기있고 상쾌한 소리라군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종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초원도 구릉들도 그리고 대기도 더는 견디지 못하게 되여 기진맥진해진채로 자기 몸에서 그 어떤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였다. 구릉너머쪽에서 뜻밖에도 재빛을 띤 흩어진 구름들이 보였다. 구름은 초원과 서로 눈짓을 하고는 《나는 끝장이다.》라고나 하듯이 찡그리였다. 굳어져있던 대기속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찢겨져나가는듯 세찬 바람이 홱 일더니 솨솨 소리, 휙휙 소리와 함께 하늘과 땅을 들었다놓으며 초원을 휘몰아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초원의 풀들이며 해묵은 부리얀풀들은 불평에 찬 아우성을 지르고 길에서는 먼지가 회오리치기 시작하더니 초원으로 내달렸다. 그뒤로 짚검불들이며 잠자리, 새깃들이 휩쓸려 시꺼먼 기둥이 되여 하늘로 솟구쳐올라 해를 가리고 주위를 어둡게 만들었다. 초원우에서는 아스파라가스잎들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그중에서 하나가 회오리바람속으로 휩쓸려들며 핑글핑글 도는가 하면 그만 새처럼 하늘로 날아올라 까만 점이 되여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뒤로 둘째번것이 날아오르고 그뒤로 다시 셋째번것이 날아올랐다. 예고루쉬까는 아스파라가스 두개가 푸른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서로 맞부딪치는것이며 또 결투나 하듯이 서로 감겨도는것을 볼수 있었다.

바로 길옆에서 너새 한마리가 후두둑 하고 날아올랐다. 몸뚱이에 해살을 받은 그 새는 깃과 꼬리를 번뜩이는데 마치도 물고기잡이에 쓰는 홀림낚시와도 비슷하였다. 또한 물우로 보였다말았다 하며 날아갈때면 그 날개가 수염과 합쳐져 마치도 못우에서 나는 나비에게 날개와 수염이 자란것만 같았다. 너새는 공중에서 몸뚱이를 떨기도 하고 얼럭덜럭한 깃을 번쩍거리기도 하면서 일직선을 그리며 하늘높이 날아오르더니 잠시후에는 분명 먼지구름에 놀란 모양으로 한옆으로 슬쩍 빠져날아갔건만 그래도 그 번쩍거리는 그 새의 모습은 예고루쉬까

의 눈길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회오리바람에 놀란 물닭 한마리가 갑자기 웬일인지 물속에서 날아올랐다. 하지만 그 새는 뭇새가 다 그러하듯이 바람을 거슬러서가 아니라 그것을 따라 날았다. 때문에 그 새의 깃은 어지럽게 헝클어져 암닭만큼이나 부풀어올라 그만 성을 낸것처럼 위엄있게 보였다. 다만 초원에서 늙어서 초원의 소동에 습관이 된 갈가마귀만이 태평스럽게 풀우로 날아다니며 태연하게 그 무엇에도 눈을 팔지 않고 굵다란 주둥이로 굳은 흙을 쪼기도 하였다.
구릉너머에서 우뢰가 어렴풋이 우르릉거렸다. 그러자 산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데니스까는 즐겁게 휘파람을 불며 말들을 채찍질하였다. 흐리스또포르신부와 꾸지미쵸브는 자기 모자들을 눌러가며 구릉들쪽을 바라보았다. 소나기라도 한줄금 뿌려주면 얼마나 좋으랴!
조금만 용을 쓴다면, 한번만 더 힘을 쓴다면 비바람과 싸움에서 초원이 이길것만 같았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차츰 바람과 대기를 다스렸고 먼지를 한쪽으로 몰아갔다. 그러자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이 고요해졌다. 구름은 사라지고 해별에 탄 구릉들은 낯을 찡그리는듯 하고 대기는 조용히 다시금 굳어졌다. 다만 놀란 까치들만이 그 어디선가 울며 제 팔자를 한탄하고있었다. …
그러자 인차 저녁이 다가왔다.

3

저녁녘 어스름속에 지붕의 양철들이 녹쓸고 창문이 컴컴한 단층집이 한채 나타났다. 이 집은 비록 뜨락도 울타리도 없이 초원의 한복판에 우뚝 서있었지만 이름은 려인숙이라고 불리웠다. 이 집의 곁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울바자를 두른 보잘것없는 벚나무들이 있는 과수원이 시꺼멓게 보였고 또 창문아래로는 무거운 화판을 숙인 해바라기가 잠든듯이 서있었다. 과수원에서는 퉁퉁거리는 소리로 토끼들을 쫓으려고 세워놓은 풍차가 투박한 소리를 내며 돌았다. 이것들밖에는 이 집 부근에서는 초원을 내놓고 눈에 보이는것도, 들리는것도 없었다.
마차가 채양달린 계단옆에서 멎자마자 집안에서는 반가와하는 남자

와 녀자의 말소리가 들리고 활차가 달린 문에서 찌그덩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눈깜박할 사이에 키가 크고 몸이 여윈 사람이 두팔과 긴 옷자락을 흔들며 마차옆에 우뚝 나타났다. 그는 이 려인숙주인인 모이쎄이 모이쎄이치였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먹같이 새까만 아름다운 턱수염을 가진 중년의 사나이였다. 그는 해여진 꺼먼 후록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의 좁은 어깨우에서 마치 옷걸이에나 걸린것처럼 빙글빙글 돌아갔다. 그가 너무도 기쁘거나 혹은 놀란김에 두손을 마주치는 때면 마치도 날개죽지처럼 그 긴 옷자락이 너불거렸다. 후록코트외에 그의 몸에는 구두를 덮은 통넓은 흰 바지와 엄청나게 큰 빈대 비슷한 홍당무우빛유단조끼가 걸쳐있었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손님들이 온것을 알고 처음에는 감격에 넘쳐 정신이 없었고 그다음은 손벽을 쳐대며 신음소리를 지르는것이였다. 그의 후록코트는 긴 자락을 너풀거렸고 등은 활처럼 굽었으며 그의 해쓱한 얼굴은 마치 마차를 본다는것이 즐거운 일일뿐아니라 가슴벅차도록 반가운 일이라는듯 한 그런 웃음으로 변해버렸다.

《아이구 이런 원, 이렇게 반가울데라구야!》 그는 숨이 가쁘게 그리고 수선을 떠는 자기가 손님들이 마차에서 내리는것을 방해한다는 것도 미처 느끼지 못하고 노래부르는듯 한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였다. 《오늘은 정말 복받은 날이군요! 아 글쎄 제가 지금 뭘 해야 할가요! 이완 이와늬치, 흐리스또포르신부님 그리고 마부 옆자리엔 얼마나 잘생긴 도련님이 앉아있나요! 참말루! 아, 그런데 제가 어쩌자고 이렇게 한자리에만 서서 손님들을 방안으로 모시고 들어가지 않을가요!… 자 어서, 제 소원입니다. … 어서 들어오십시오. 물건은 전부 제게 주십쇼. … 아유, 이런 원!》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마차우를 뒤적거리기도 하고 손님들이 내리는것을 거들어주기도 하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르듯이 괴상야릇하게 목을 눌리운것처럼 웨쳐댔다.

《쏠로몬! 쏠로몬!》

《쏠로몬! 쏠로몬!》 집안에서 녀편네의 목소리가 되받았다.

활차를 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더니 문지방에 키가 그리 크지 않은 머리칼이 빨갛고 커다란 매부리코에 짯짯하고 곱슬곱슬한 머리칼이 몹

시 성글게 난 젊은 유태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옷자락이 둥그렇고 소매가 짧은 해질대로 해여진 짧다란 양복 웃저고리에 또한 짧은 메리야스아래바지를 입고있었는데 그는 이 옷들때문에 털을 뽑히고 꼬리를 잘리운 새처럼 보였다. 그는 모이쎄이 모이쎄이치의 동생인 쏠로몬이였다. 그는 잠자코 인사도 없이 다만 어쩐지 이상하게 빙그레 웃고나서 마차로 다가왔다.

《이완 이와늬치와 흐리스또포르신부님이 오셨어!》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동생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가 저어하는듯 한 어조로 말하였다. 《아, 참 놀라운 일이야, 저런 훌륭하신분들이 갑자기 오신게! 자, 쏠로몬, 어서 짐들을 가져가! 그럼 어서 들어가십시다. 귀하신 손님어른들!》

꾸지미쵸브와 흐리스또포르신부 그리고 예고루쉬까는 인차 커다랗고 음산하고 허전한 방으로 들어가 다 낡은 참나무탁자를 마주하고 앉게 되였다. 이 탁자는 거의 외롭다고 할 지경이였다. 그것도 그럴것이 이 커다란 방안에는 이 탁자와 유포에 구멍이 숭숭 뚫린 넓다란 안락의자 그리고 세개의 걸상밖에는 다른 가구가 없었다. 그 걸상들도 이름뿐이지 누구도 선뜻 걸상이라고 부를 마음이 없는 그런것들이였다. 제 명을 다 산 유포를 씌운 안락의자와 걸상들은 아이들이 타는 썰매처럼 등받이가 뒤로 심하게 제껴진 부자연스럽고 초라한 가구비슷한 물건이였다. 그 어느 목수가 무슨 편리한 점이 있기에 이처럼 사정없이 등받이를 제껴놓았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혹시 목수가 잘못한것이 아니라 어떤 지나가던 힘장수가 제힘을 자랑하려고 걸상의 등받이를 제껴놓았다가 그것을 다시 고치려다가 본래보다 더 세게 제껴놓은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였다. 방은 음산하게 보였다. 담벽들은 재빛인데다가 천정은 연기에 끄슬렸고 마루는 터갈라지고 왜 생겼는지 모를 구멍들이 아가리를 벌리고있었다. (이것도 바로 그 힘장수가 구두뒤축으로 구멍을 낸것은 아닌지) 이 방에 등잔들을 한 열개 달아놓는다 해도 역시 어둡기는 매한가지일것 같았다. 담벽이나 창문에도 치레거리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도 한쪽담벽에는 재빛나무틀에 넣은 대가리 두개가 달린 독수리문장이 있는 그 무슨 법조항이 걸려있었고 다른 담벽에는 꼭같은 틀에 넣은 《인간의 랭담》이라는 제목을 단 판화가 걸려있었다. 인간이 무엇에 랭담하였는지 판화는 오

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퇴색된데다가 파리들이 어지럽힌탓에 내용을 알아볼수 없었다. 방안에서는 그 무슨 매캐한 곰팡내와 시큼한 냄새가 풍기였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손님들을 방안으로 안내하는 동안 연송 허리를 굽신거리고 두손을 마주비비거나 몸을 움츠리면서 기쁜듯이 소리를 질렀는데 아마도 이 모든것은 그가 각별히 은근하고 친절하게 보이기 위하여 필요한 모양이였다.

《우리네 집마차들이 언제 지나갔나?》 꾸지미쵸브가 그에게 물었다.

《한패는 오늘 아침녘에 지나갔구요, 다른 한패는 오늘 이와늬치, 여기서 점심을 먹구 쉬고나서 저녁녘에 떠났습니다요.》

《그럼 와를라모브도 지나갔나?》

《아닙니다. 이완 이와늬치, 어제 아침녘에 그 사람네 집사인 그리고리 예고뤼치가 지나갔는데 그의 말이 와를라모브는 곧장 몰로깐(종교의 일파)네 마을로 가야만 한다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우리도 곧 그 집마차패를 따라잡아야지. 그다음 몰로깐네한테 가기루 하구.》

《원, 이런 변이라구야. 이완 이와늬치!》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두손을 마주치며 질겁을 하였다. 《날이 어둡는데 어디로 가신다는겝니까? 저녁이라도 든든히 잡수시고 그리고 하루밤 묵으셔야지요. 래일 아침에 떠나셔도 따라잡을 사람은 의례히 따라잡으실걸 가지구!》

《시간이 없소, 시간이 없다니까. … 미안하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 다음번에 묵기루 하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한 15분 앉았다가 갈테요! 묵는건 몰로깐네한테 가서두 할수 있으니까!》

《15분이라구요?》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새된 소리를 질렀다. 《글쎄 이완 이와늬치, 하느님을 좀 무서워하시라요! 당신은 제가 당신의 모자를 감추거나 문에 쇠를 잠그거나 하게 하실 작정이시군요! 무얼 좀 드시기라도 하시지요. 차라도 좀 마시십시오.》

《차구 사탕이구 먹을 짬이 없어.》 꾸지미쵸브가 말하였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한옆으로 고개를 숙이고 마치 누가 때리는 것을 막기라도 하듯이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고는 억지로 웃으면서 빌

기 시작하였다.

《이완 이와늬치! 흐리스또포르신부님! 제발 여기서 차라도 마셔주시오! 그래, 이 집에서 차도 마셔서는 안될만큼 제가 그렇게도 나쁜 사람입니까? 이완 이와늬치!》

《뭐 차야 마셔도 좋지.》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동정하듯 한숨을 지었다. 《그런다구 별로 오래 걸릴것도 없으니까.》

《그럼 좋소이다!》 꾸지미쵸브도 찬성하였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부르르 몸을 떨더니 탄성을 올렸다. 그리고는 마치 금방 찬물속에서 더운 곳으로 뛰여나온 사람처럼 몸을 움츠리며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조금전에 쏠로몬을 부를 때처럼 그 괴상하고 짓눌린듯 한 목소리로 웨쳐댔다.

《로자! 로자! 싸모와르를 가져와!》

잠시후에 문이 열리더니 쏠로몬이 커다란 쟁반을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탁자에 다반을 올려놓은 그는 비웃듯이 한옆을 바라보며 조금전과 같이 이상하게 웃었다. 지금은 등불이 비치는지라 그가 웃고 있는것을 잘 볼수 있다 .그 웃음은 퍽도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여러가지 감정을 드러내고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뚜렷한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분명히 경멸이였다. 그는 마치도 그 어떤 우습고 부질없는것을 생각하는듯, 더는 참을수 없어 그 누구를 경멸하는듯 하였다. 그는 무엇을 두고 기뻐하면서 실컷 경멸하고 모욕한 다음 허리가 끊어지게 웃게 될 그런 알맞는 순간을 기다리는듯 하였다. 커다란 코, 두툼한 입술 그리고 교활해보이는 불거져나온 그의 두눈은 실컷 웃고 싶어 긴장된듯 하였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꾸지미쵸브는 비웃듯 빙그레 웃으며 물었다.

《쏠로몬, 이번 여름에는 왜 우리 N시의 장마당에 유태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하려고 오지 않았나?》

두해전, 그것은 예고루쉬까도 잘 알고있었지만 쏠로몬은 N거리의 장마당에 있는 자그마한 가게에서 유태사람들의 생활을 이야기하여 커다란 인기를 끌었던적이 있었다. 이런 일의 회상도 쏠로몬에게서는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는 아무 대답도 없이 방에서 나가더니 잠시후에 싸모와르를 들고 들어왔다.

탁자우에 싸모와르를 올려놓고 그는 한옆으로 비켜서서 가슴우에 팔

짱을 끼고 한발을 내짚은채 비웃는듯 한 눈으로 흐리스또포르신부를 바라보았다. 이러한 그의 자세에는 그 무엇을 호소하는듯도 하고 거만하고 경멸하는것과 함께 극히 가엾고 희극적인것도 있었다. 그 리유는 그의 자세가 대단히 인상적으로 될수록 그의 짧은 양복바지와 꼬리없는 양복웃저고리, 만화적인 코 그리고 털뽑힌 새와 같은 그의 모습전체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기때문이였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딴 방으로부터 쪽걸상을 가져오더니 얼마쯤 탁자에서 떨어져앉았다.

《어서 차와 사탕을 많이 드십시오!》 그는 손님들을 접대하기 시작하였다. 《많이 하십시오. 이런 귀한 손님이 오시리라군 뜻밖입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지요. 참 흐리스또포르신부님은 벌써 5년동안이나 뵙지 못했습니다요. 그런데 어느분도 말씀하시지 않는데 이 귀여운 도련님은 어느 댁 자제분입니까?》 그는 상냥한 눈으로 예고루쉬까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애는 내 누이 올리가 이와노브나의 아들일세.》 꾸지미쵸브가 대답하였다.

《도련님은 지금 어디루 가시는 길인가요?》

《중학교에 입학시키려구 데리구 가는 길일세.》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공손하게 구느라고 얼굴에 놀라는 빛을 띠고는 의미있게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아, 그건 참 좋은 일이군요!》 그는 싸모와르를 향하여 위협하는 손시늉을 하며 말하였다. 《그건 참 좋은 일이군요! 중학교에선 우리들이 모두 모자를 벗고 절해야 될 나으리들만 나오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도련님도 총명하고 부유하고 명예를 떨치게 되실테니까. 그때엔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가. 아,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는 잠간 말이 없더니 제 무릎을 쓱쓱 쓸면서 례절있는 롱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흐리스또포르신부님,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저는 당신이 장사아치들한테서 곡식을 앗아낸다고 주교님께 편지를 올릴가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관청에서 쓰는 문건용지를 사다가 흐리스또포르신부님은 돈이 많지 않아 양털장사를 시작하였다구 주교님께 편지를 쓸가 하

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살을 먹어가지구 잘두 생각했지. …》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말을 하고나서 씩 웃었다.

《이 사람, 나는 인젠 장사아치로 입직이 됐다네. 지금쯤 집에서 하느님께 기도나 드리고 가만 앉아있으면 좋으련만 파라온(고대에짚트의 왕)처럼 수레만 타고 돌아다니게 됐으니… 부질없는짓이지!》

《그 대신 돈이 많이 생기겠지요.》

《흥, 돈이나새나. 장사물건도 어디 내건가, 우리 사위 미하일거지.》

《그런데 왜 사위님이 직접 가지 않는가요?》

《그건 말야. … 그 사람의 입술에서 아직 어머니의 젖냄새가 나기때문이야. 양털을 사기는 했지만 팔기는 두려워하지. 지혜가 없으니까. 아직 나이가 어리니 할수 없지. 제 돈을 다 불어먹고는 일확천금을 해볼 작정으로 남을 속여보려구 글쎄 여기저기 뛰여다니지만 누가 속겠대? 그 애숭이가 이 모양으로 한해가량 떠돌아다니더니 나중에는 나한테로 와서 하는 말이 〈장인님이 양털을 팔아주시오. 제발 사정을 좀 봐주시오! 전 이런 일엔 깜깜이입니다!〉하거던. 일은 이렇게 된거라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에야 장인을 찾지. 그전까지는 장인이 없이도 제 마음대로 하고 물건을 사들일 때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니까 그저 장인이란 말이야. 하지만 장인인들 어찌겠나? 만일 이완 이와늬치가 없으면 장인인들 어디 꼼짝할수 있겠나? 사위라는건 그저 걱정거리야!》

《물론이지요. 젊은것들이란 그저 걱정거리지요, 정말!》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한숨을 지었다. 《제게도 자식이 여섯이나 되는데 한놈은 글을 가르쳐야 하구 다른 놈은 병을 고쳐줘야지요, 또 다른 놈은 안아줘야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크면 그때엔 걱정이 더 늘게 되지요. 지금뿐아니라 성서를 봐두 그때도 역시 그랬더군요. 야꼽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야꼽은 그 애들을 기르느라고 울었는데 그 애들이 다 자라난 다음에도 그는 더 울게 되였더랍니다!》

《그렇구말구…》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무슨 생각에 잠겨 고뿌를 바라보며 찬성하였다. 《난 하느님을 노엽힐 일은 하지 않았어. 나는 하느님덕분에 남들같이 한평생을 살아왔어. … 딸년들은 다 좋은 사위감

들을 구해주고 아들녀석들은 다들 출세시켜놓았으니 지금은 내가 별로 할일없는 한가한 몸이거던. 어느 모로 보나 제 할일은 다 해놓았단 말일세. 안해와 함께 조용히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손자애들과 락이나 보고 하느님께 기도나 드리면 되지. 내게는 이것밖에 더는 아무것도 소용없어. 나는 모든게 넉넉하니까 마음이 늘 흐뭇하지. 그러니 더 알고지내고싶은 사람도 없구. 배꼽 떨어진 뒤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슬픔이란걸 모르고 지내왔지. 혹시 폐하께서 나에게 〈너는 무엇이 소용되느냐? 네 바라는게 뭐냐?〉 하고 물으신다 해도 내게는 아무것도 소용되는게 없단 말야! 내게는 없는것이 없고 또 모든게 다 좋거던. 우리 도시에서 나보다 더 복받은 사람은 없을게야. 내게도 죄야 많지. 하지만 따져보면 죄가 없는건 하느님 한분만이 아니겠나. 내 말이 옳지?》

《예, 아무렴 옳다뿐이겠습니까?》

《글쎄 두말할것도 없지. 이발은 다 빠졌지, 늙어서 허리는 굽구 게다가 여기저기… 또 성욕두 없어졌지. 글쎄 과연 그렇거던. 혼자 생각해봐도 살대로 살았어! 인젠 70이 아닌가! 사람이란 장생불로할수는 없고 또 렴치도 알아야지.》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무슨 생각이 나는지 고뿌에 대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그만 웃음때문에 기침이 터져나왔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례의를 지키느라고 따라 웃고 기침을 하였다.

《참 우습거던!》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쪽손을 내저었다. 《내 맏아들인 가브릴라가 집에 놀러 오군 하지. 그 애는 의사인데 체르니꼬브현의 지방자치회 의사로 일한다네.… 그건 좋은데… 글쎄 내가 그 애한테－〈난 천식증이 있는데 너는 의사렷다. 어디 이 아비를 좀 고쳐다고!〉 하니까 그녀석이 곧 내 옷을 벗기고 등을 툭툭 쳐보더니 귀를 기울이고 들어도 보고 별의별짓을 다 하더군.… 배를 주무르고 그리고는 나중에 한다는 말이－〈아버지, 아버지는 압축공기료법으로 치료하셔야겠군요.〉하더군.》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몸까지 떨며 웃어댔다. 그는 눈물이 나도록 웃고는 일어섰다.

《그래 내가 그 애한테 말하기를 〈그 압축공기라는게 뭐 말라빠진거냐!〉 했지.》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손까지 내저었다. 《뭐

말라빠진거야, 그 압축공기라는게!》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배를 그러쥐고 강아지가 짖는것처럼 가는 소리로 깔깔거리였다.
《뭐 말라빠진거야, 그 압축공기란게!》 흐리스또포르신부는 큰소리로 웃으며 되뇌였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두 음부를 더 높이여 서있기도 힘들만큼 몸을 떨며 자지러지게 웃었다.
《아, 맙소사…》 그는 계속 웃어대며 괴로운 소리를 내였다. 《숨 좀 쉽시다. … 이렇게 웃기시니… 아유!… 막 죽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란듯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쏠로몬을 바라보았다. 쏠로몬은 전과 다름없는 자세를 하고 빙그레 웃고있었다. 그의 눈과 웃음으로 판단해보면 그는 진심으로 이 모든것을 멸시하고 증오하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가련한 그의 모양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예고루쉬까는 그가 스스로 어리광대처럼 귀한 손님들을 비웃으려고 일부러 이런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고있는것이라고 생각되였다.
잠자코 차를 여섯잔쯤 마시고난 꾸지미쵸브는 자기앞에 있는 탁자우를 깨끗이 치워놓더니 바로 마차밑에서 잠잘 때 머리에 베였던 그 자루를 올려놓고 아구리를 동여맸던 끈을 풀고 흔들어댔다. 자루에서 탁자우에 돈이 쏟아져나왔다.
《짬이 있을 때 자, 흐리스또포르신부님, 우리 세여둡시다요.》 꾸지미쵸브가 말하였다.
돈을 보자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당황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남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꼬장꼬장한 사람이나 되는것처럼 발꿈치를 들고 두팔로 몸의 균형을 잡으며 방에서 나가버렸다. 한편 쏠로몬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었다.
《50루블씩이지요?… 3루블짜리가 아흔개씩이구… 25루블짜리와 백루블짜리가 천개씩 들었지요? 당신은 와를라모브에게 줄 7천 8백루블을 세시오. 나는 구쎄위치에게 줄것을 계산할테니까요. 글쎄 주의하시오. 삭갈리지 마시고…》
예고루쉬까는 세상에 나서 탁자우에 놓인것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아직 본적이 없었다. 돈은 분명 굉장히 많은 모양이였다. 왜냐하

면 흐리스또포르신부가 와를라모브의 몫으로 한옆에 따로 내놓은 7천 8백루블을 돈무데기전체와 비교하여보니 퍽 적게 보였기때문이다. 다른 때라면 아마도 이렇게 많은 돈이 예고루쉬까를 깜짝 놀라게 하였을것이다. 그는 이만한 돈으로는 가락지빵과 바쁘까단빵 그리고 양귀비씨소를 넣은 만두를 얼마나 살수 있을가고 궁리를 하였을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무심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다만 그 무데기에서 오는 썩은 사과냄새와 석유냄새와 같은 역한 냄새를 느꼈을뿐이였다. 그는 마차에서 흔들려서 몹시 피곤하여 그저 자고싶은 생각뿐이였다. 그의 머리는 숙어지고 눈은 맞붙고 생각은 실꾸리처럼 헝클어졌다. 만일 그렇게만 할수 있었다면 그는 즐거이 머리를 탁자우에 기대고 등잔이며 돈무데기우로 움직이는 손가락들을 보지 않기 위하여 나른하게 눈을 감고 잘 생각만 하였을것이다. 그가 졸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등불과 차고뿌, 손가락들은 이중으로 아물거리고 싸모와르는 흔들렸으며 썩은 사과냄새는 더욱 코를 찌르고 역하게 하였다.

《아, 돈, 돈!》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빙그레 웃으며 한숨을 지었다. 《너는 고통의 씨로다. 지금 우리 미하일로는 아마 잠을 자며 내가 자기한테 돈무데기를 가지고 가는 꿈을 꾸렷다.》

《당신네 미하일로 찌모페예브는 사리에 어두운 사람이지요.》 꾸지미쵸브는 나직이 말하였다. 《그는 손대지 말아야 할데 손을 대니까요. 그러나 당신은 다 알고있으니까 판단할수 있을겝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한대로 내게 양털을 다 넘겨주고 당신은 도루 돌아가는게 좋으실걸요. 그렇게 되면 나는 꼭 당신께 50꼬뻬이까씩 더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것도 당신을 존경하니 그러는게지요. …》

《아니, 이완 이와늬치.》 흐리스또포르신부는 한숨을 쉬였다. 《그렇게 념려해주어 고맙지만 그야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라면 나는 이러구저러구 이야기도 하지 않겠소. 당신도 잘 알겠지만 물건이 어디 내것인가. …》

모이쎄이 모이쎄이치가 발꿈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는 상냥하게 돈무데기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예고루쉬까에게로 슬그머니 다가가 그의 샤쯔를 잡아당겼다.

《자 도련님, 저리로 가요.》 그는 귀속말로 말하였다. 《내 아주

이상한 곰을 보여줄테니! 아주 무서운데 성을 잘 낸답니다! 자!》
졸고있던 예고루쉬까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를 따라 그 곰을 보려고 천천히 따라갔다. 그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다른것을 보기 전에 먼저 그 무슨 시큼하고 곰팡냄새가 코를 찌르는것이였다. 그 냄새는 큰방보다 여기서 더 지독하게 풍겼다. 분명 그 냄새는 여기로부터 온 집안으로 펴져나가는것 같았다. 이 방안의 절반은 더러운 솜이불을 덮어놓은 커다란 침대가 차지하였고 다른 절반은 옷장과 산더미같은 가지가지 누데기를, 뻣뻣하게 풀을 먹인 치마로부터 아이들의 아래바지와 바지멜빵에 이르기까지 산더미같은 누데기들로 채워있었다.
약속한 곰대신에 예고루쉬까는 꺼먼 점들이 있는 새빨간 모달리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몸집이 크고 뚱뚱한 유태녀인을 보았다. 그는 침대와 옷장사이에 있는 좁은 틈에서 무겁게 몸을 돌리며 마치 이발을 앓는 사람처럼 신음하듯이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예고루쉬까를 보자 울상을 하고 또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예고루쉬까가 방안을 휘둘러볼 사이도 없이 그 녀자는 그의 입에 꿀을 바른 빵쪼박 하나를 가져다댔다.
《먹어. 얘야, 어서 먹어!》 그 녀자는 말하였다. 《여기는 엄마도 없고 누구도 무엇을 가려먹일 사람도 없으니 어서 먹어.》
예고루쉬까는 먹기 시작하였다. 그는 집에 있을 때 매일 얼음사탕과 양귀비씨소를 넣은 만두를 먹었기에 그 밀랍과 벌의 날개들이 절반이나 섞인 꿀이 별로 맛나는줄 몰랐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와 유태녀자는 그가 꿀빵을 먹는것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였다.
《얘야, 너 어디로 가지?》 유태녀자가 물었다.
《공부하러 가요.》 예고루쉬까가 대답하였다.
《네 엄마한텐 너와 같은 아이들이 몇이나 되느냐?》
《나 하나뿐이야요. 나밖엔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저런!》 유태녀자는 한숨을 쉬며 눈을 들었다. 《불쌍한 엄마도 다 있지. 불쌍한 엄마도 있어!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서 울고계실가! 한해만 지나면 우리 나움도 공부시키러 보내야겠지! 오!》
《아, 나움, 나움.》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도 한숨을 쉬였다. 그러자 그의 창백한 얼굴에서는 볼이 신경질적으로 떨리였다. 《글쎄 저

애는 저런 병신이니.》 기름때가 앉은 이부자리가 들썩거리더니 그밑으로부터 퍽도 긴 목우에 놓인 머리칼이 곱슬곱슬한 아이의 머리가 보였다. 그러자 새까만 두눈이 반짝거리며 궁금해하는 빛으로 예고루쉬까를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모이쎼이 모이쎼이치와 유태녀자는 연송 한숨들을 쉬며 옷장곁으로 가더니 무엇인지 유태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모이쎼이 모이쎼이치는 천천히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대체로 그가 하는 유태말은 끊임없이 《갈— 갈— 갈—갈.》 하는 소리로 들리였고 한편 그의 안해는 가느다란 칠면조소리같은 목소리로 그의 말에 대답하였는데 마치 그 무슨 《두— 두— 두— 두.》 하는 소리와 비슷하였다. 그 두사람이 의논하는 사이에 기름때가 앉은 이불밑으로부터 길다란 목우에 놓인 또 하나의 머리칼이 곱슬곱슬한 머리가 내다보았고 그뒤로 셋째, 넷째머리가 련달아 내다보았다. 만약 예고루쉬까가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있었더라면 그는 그 이불밑에 대가리를 백개 가진 괴상한 뱀이 누워있다고 생각하였을것이다.

《갈— 갈— 갈— 갈.》 모이쎼이 모이쎼이치는 말하였다.

《두— 두— 두— 두.》 그 안해가 대꾸하였다.

두사람이 하던 의논은 녀인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옷장으로 다가가 그안에서 초록빛나는 누데기쪼박을 고르고 심장모양을 한 커다란 쁘랴니크(향료나 양념을 치고 꿀, 사탕, 당물을 넣어 만든 과자) 한개를 가져오는것으로 끝났다.

《얘야, 이걸 받아라.》 유태녀자는 예고루쉬까에게 쁘랴니크를 주면서 말하였다. 《지금 네겐 엄마도 없지, 누구도 너한테 맛있는걸 줄 사람이 없을테니.》

예고루쉬까는 쁘랴니크를 받아 호주머니에 쑥 집어넣고는 문있는데로 물러났다. 한것은 이 집 주인들이 살고있는 그 곰팡내나고 시크무레한 공기속에 더는 있을수가 없기때문이였다. 큰방으로 돌아온 그는 될수록 편하게 안락의자에 앉아 제 생각에 잠겼다.

꾸지미쵸브는 금방 돈을 다 세고나서 그것을 자루속에 도루 넣었다. 그는 돈을 각별히 귀중하게 다루는것이 아니라 마치 종이장이나 다루듯 더러운 자루속에 아무렇게나 마구 쓸어넣었다.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쏠로몬과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 어떤가? 현명한 쏠로몬씨?》 그는 하품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십자를 그으며 물었다. 《일은 어떻게 돼가나?》

《신부님은 무슨 일을 두고 말씀하시는가요?》 쏠로몬은 이렇게 묻고나서 마치도 그 무슨 범죄에 대한 암시를 받기나 한것처럼 적의를 품은 눈길을 던지였다.

《대체루 말해서… 무엇을 하고있는가 말일세.》

《제가 뭘 하느냐는 말씀입니까?》 쏠로몬은 다시 되묻고나서 어깨를 으쓱하였다. 《남들이 다 하는 그대로지요.… 당신이 보시는바와 같이 저는 하인입니다. 저는 제 형의 하인이지요. 제 형은 손님들의 하인, 손님들은 와를라모브의 하인이지요. 만약에 제가 천만금을 가졌다면 와를라모브가 제 하인이 될겝니다.》

《그래 그가 어째서 임자의 하인이 된다는건가?》

《왜냐구요? 세상엔 한꼬뻬이까만 공짜로 생긴다고 해두 옴쟁이유태놈의 손이라도 핥지 않을 사람이나 백만장자가 없는 까닭이지요. 저는 지금 옴쟁이, 거지유태놈이라 모두들 저를 보기를 마치 개새끼보듯 합니다만 만일 저한테 돈이 있다면 그때엔 와를라모브도 제 앞에서 마치 모이쎄이가 당신들앞에서 하듯 그렇게 바보노릇을 할겝니다.》

흐리스또포르신부와 꾸지미쵸브는 서로 쳐다보았다. 그들은 쏠로몬의 말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하였다. 꾸지미쵸브는 엄격하고 무뚝뚝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 천치같은 녀석아, 대체 뭐가 어떻게 되여 너와 와를라모브를 같이 비긴단 말이냐?》

《저는 아직 저와 와를라모브를 같이 비길 그런 바보는 아니올시다.》 쏠로몬은 이 상대방들을 비웃듯이 바라보며 말하였다. 《와를라모브는 비록 로씨야사람이긴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옴쟁이유태놈이지요. 그는 그저 자나깨나 돈과 리속밖에 모르는 위인이지만 저는 제 돈을 죄다 난로속에 집어넣어 태워버린 사람입니다. 제게는 돈도 땅도 양도 다 소용없습니다. 또 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갈 때 다들 제가 무서워 모자를 벗어쥐는것도 소용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신네 와를라모브보다는 좀 더 현명하구 그보다 더 사람다운 편이지요.》

예고루쉬까는 곧 잠결에 쏠로몬이 증오에 차고 둔하고 목이 갈린듯 한 소리로 혀가 짧은듯 빠른 말로 유태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수 있었다. 처음에 그는 로어로 맺고끊는것처럼 똑똑히 이야기하더니 차츰 이야기군의 어조로 넘어가 그 언젠가 가게에서 하던 것처럼 과장된 유태사람의 억양으로 지껄이기 시작하였다.

《잠간 가만있어. …》 흐리스또포르신부가 그의 말을 막았다. 《만약 임자가 믿는것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럼 그걸 바꾸어야지 비웃는다는건 죄악이야. 제 믿음을 우롱하는자는 가장 못난 사람이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쏠로몬은 무뚝뚝하게 그의 말을 막았다. 《제가 하는 이야기와 당신의 이야기는 서로 다릅니다.》

《자, 인제야 알겠군. 임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란걸.》 흐리스또포르신부는 한숨을 쉬였다. 《나는 내가 할수 있는대로 임자를 가르쳐주려구 하는데 임자는 성을 내거던. 나는 늙은이답게 조용조용 이야기했건만 임자는 마치 칠면조새끼같이 꾸룩꾸룩 하는 소리만 내니! 해괴한 작자로군, 정말. …》

모이쎄이 모이쎄이치가 들어왔다. … 그는 놀란 눈길로 쏠로몬과 손님들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낯가죽을 신경질적으로 실룩거리기 시작하였다. 예고루쉬까는 머리를 젓고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에는 얼핏 쏠로몬의 얼굴이 뜨이였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쏠로몬의 얼굴이 4분의 3쯤 자기한테로 향해진 순간이였다. 그의 길다란 코그림자가 그의 왼편볼전부를 가리울 순간이였다. 그 그림자와 뒤섞여진 그의 경멸하는듯 한 웃음, 번쩍이는 비웃는 눈, 거만한 표정과 여윈 모습이 예고루쉬까의 눈에 2중으로 보였다. 인제는 그를 어리광대가 아니라 이따금 꿈에서 보는 그 무엇, 분명 악마같은것으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 당신네 집에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미친 작잔가. 제발 맙소사!》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빙그레 웃으며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 어서 어떤 일자리를 구해주든가 장가를 들이는게 좋겠네. … 사람같지 않으니…》 꾸지미쵸브는 성이 난듯 얼굴을 찡그리고있었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다시 놀라며 수상하게 동생과 손님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쏠로몬, 예서 물러가!》 그는 엄하게 말하였다. 《나가!》
그는 이밖에도 또 유태말로 뭐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쏠로몬은 새된 웃음을 웃으며 방에서 나가버렸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이쎄이 모이쎄이치가 놀라서 흐리스또포르신부를 보며 물었다.
《우쭐했거던.》 꾸지미쵸브가 대답하였다. 《버릇없는 놈이 제 잘난체 하구 야단이야.》
《그런줄 알았습니다!》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두손을 마주 비비며 황송해하였다. 《아, 하느님! 하느님!》 그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리고나서 말하였다. 《그저 두분께서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노여워마십시오. 그놈은 그런 위인이옵니다. 그런 위인이 돼놔서! 아, 하느님! 하느님! 그놈이 제 친동생이긴 하지만 저는 그놈한테서 슬픔밖에는 아무것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정말 그놈은 글쎄…》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어루만지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놈은 제정신이 아니지요.… 아주 버린 사람이지요. 글쎄 저도 그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니까요.… 글쎄 누구나 할것없이 다 비웃고 부질없는 수작만 하고 무슨 일이든 참견하지 않는것이 없지요. 두분은 믿지 않겠지만서두 한번은 와를라모브가 여기 오신 때였는데 글쎄 쏠로몬이 그분에게도 무어라고 말해서 그만 그분이 채찍으로 그놈과 저를 족치기까지 하였습니다요.… 헌데 저야 무엇때문에 맞겠습니까? 과연 그게 제 죄겠습니까? 하느님이 그놈의 지혜를 빼앗았구 그것은 다름아닌 하느님의 뜻인데 글쎄 과연 그것이 제 죄가 되겠습니까?》
한 10분이 지나갔다. 그러나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여전히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리면서 한숨을 쉬였다.
《밤에도 그놈은 자지 않고 생각만 하는데 그놈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도리가 없지요. 밤에 그놈이 있는데로 가보면 그놈은 화를 내고 웃기까지 하지요. 그놈은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구 바라는것도 없지요! 저의 아비가 죽을 때 그놈과 제게 6천루블씩 남겨주었지요. 저는 그 돈으로 려인숙을 사고는 장가를 들고 그리고 지금은

새끼들도 있지요만 그놈은 제 몫으로 탄 그 돈을 난로에 집어넣어 태워버렸답니다. 얼마나 분하던지. 정말 분했습니다. 그걸 왜 태웠겠습니까? 저한테 소용없으면 이 형한테나 줄것이지 글쎄 태우기는 왜 태우느냐 말입니다.》

갑자기 문이 드르렁 소리를 내자 마루가 그 누구의 발걸음에 흔들흔들 흔들리였다. 예고루쉬까는 가벼운 바람이 불어오는것을 느꼈다. 그는 갑자기 커다란 검은 새 한마리가 옆으로 날아가며 얼굴가까이에서 날개를 치는것 같이 느껴졌다. 그는 눈을 떴다.… 큰아버지는 자루를 손에 든채 길떠날 차비를 마치고 안락의자옆에 서있었다.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전 넓은 중절모를 손에 들고 누구에겐지 허리굽혀 인사를 하며 빙그레 웃었는데 그 웃음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다정한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은근하고 긴장된감을 주었다. 한편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어떻게나 허리를 굽신거리는지 마치 그의 몸은 세부분으로 꺾이운것처럼 되여 그 바람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가누면서 애쓰는것 같았다. 다만 쏠로몬만은 아무런 일도 없었던듯이 방 한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팔짱을 끼고 여전히 경멸하는 웃음을 띠우고있었다.

《아씨님, 용서하십시오. 저희네 이곳은 이렇게 더러운 곳이 돼놔서!》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는 꾸지미쵸브와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아랑곳없이 보기에도 괴롭도록 달콤한 웃음을 띠우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신음하듯 말하였다. 《아씨님, 저희들은 그저 하찮은 사람들이 돼놔서!》

예고루쉬까는 눈을 부비였다. 과연 방 한가운데 젊으면서 퍽 예쁜 그리고 몸이 똥똥한 귀부인이 새까만 옷에 밀짚모자를 쓰고 서있었다. 예고루쉬까는 그 녀인의 얼굴을 보자 첫순간 웬일인지 그 부인이 낮에 본 그 구릉우에 외로이 꼿꼿하게 서있던 백양나무가 생각났다.

《와를라모브가 오늘 왔댔는가요?》 녀인이 물었다.

《아니올시다, 아씨님!》 모이쎄이 모이쎄이치가 대답하였다.

《래일 그이를 보거들랑 잠간 나한테 들리라고 하세요.》

예고루쉬까는 갑자기, 뜻밖에도 자기 눈앞에서 새까만 비로도같은 눈섭, 커다란 밤빛눈 그리고 마치 해빛같이 온 얼굴에 웃음이 함뿍 담

긴데다가 보조개가 진 녀인의 두볼을 보았다. 무엇인가 굉장히 화려한것이 느껴졌다.

《참 귀여운 애로군!》 귀부인이 말하였다. 《뉘집 아인지? 까지미르 미하일로위치, 좀 봐요. 얼마나 귀여워요! 아이 저런, 잠이 들었네! 토실토실한게 귀엽기도 하지. …》

귀부인은 예고루쉬까의 두볼에 입을 맞추었다. 예고루쉬까는 방그레 웃고 제가 잔다는것을 생각하였는지 눈을 감았다. 문이 드르렁 열리더니 조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리였다. 그것은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 소리였다.

《예고루쉬까야! 예고루쉬까야!》 낮고 굵게 속삭이는 말소리가 울리였다. 《일어나라, 가야지!》

그가 누군지, 아마 데니스까였는지 모른다. 그는 예고루쉬까를 일으켜세우더니 그의 손을 잡고 나갔다. 예고루쉬까는 나가면서 눈을 한 절반쯤 뜨고 자기 볼에 입을 맞추어준 그 까만 옷을 입은 어여쁜 부인을 다시한번 바라보았다. 귀부인은 방 한가운데 서서 예고루쉬까가 방에서 나가는 모양을 말끄러미 바라보며 방그레 웃고 정답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예고루쉬까는 문가에서 중절모를 쓰고 가죽각반을 친 얼굴이 잘 생기고 몸집이 건장하고 눈과 머리, 살갗도 모두 밤빛인 사람을 보았다. 그는 귀부인을 안내해온 사람이였다.

《후루루!》 하는 소리가 뜨락에서 들려왔다. 예고루쉬까는 대문옆에 화려한 새 마차 한대와 검은 말 한쌍이 서있는것을 보았다. 마부석에 앉아있는 마부는 제복을 입고 손에는 길게 엮은 채찍을 쥐고있었다.

배웅하려고 나온 사람은 쏠로몬 하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가까스로 웃음을 참고있는것처럼 긴장되여있었다. 그는 마음껏 그들을 비웃어보려고 조바심을 해가며 손님들이 떠나는것을 기다린것 같았다.

《드라니쯔까야백작부인이요.》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마차우로 올라가며 속삭이였다.

《예, 드라니쯔까야백작부인입니다.》 꾸지미쵸브도 그의 말을 되뇌이며 수군거렸다.

백작부인이 나타난것이 어찌도 큰 인상을 주었던지 심지어 데니스

까까지도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는 려인숙이 이제는 10리쯤이나 떨어져 그저 희미한 불빛으로만 보이게 되였을 때야 비로소 말들에 채찍질을 하고 큰소리를 지를 생각이 들게 되였다.

4

그럼 이제는 사람들이 다 말밥에 올리는 쏠로몬한테서는 경멸을 받건만 그 아릿다운 백작부인까지도 꼭 만나야 하겠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와를라모브란 대체 누구인가? 마부석에 데니스까와 나란히 앉아 반쯤 졸고있는 예고루쉬까는 바로 그 와를라모브를 두고 생각하였다. 그는 한번도 그를 본 일이 없으나 그에 대한 말은 자주 들어왔고 자기의 상상속에서 그를 그려보군 하는 때도 많았다. 그가 알고있는것이란 와를라모브가 수만 제샤찌나의 땅과 수만마리의 양,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라는것이였다. 그의 생활과 사업에 대하여 예고루쉬까가 알고있는것은 다만 그가 언제나 《이 지방을 빙빙 돌아다닌다는》것과 사람들이 언제나 그의 행방을 찾는다는것이였다.

예고루쉬까는 집에 있을 때 드라니쯔까야백작부인에 대한 말도 많이 들어왔다. 부인도 또한 수만 제샤찌나의 땅과 수많은 양들과 양마장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고있었으나 빙 빙 돌아다니지는 않고 그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있었다. 그 저택에 대해서 잘 알고있는 사람들과 그 저택에 무슨 일로 여러번 드나든 일이 있는 이완 이와늬치는 그 저택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상한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뽈스까왕들의 초상들이 주런이 걸려있는 백작부인의 응접실에는 바위처럼 생긴 커다란 탁상시계가 있었는데 그우에는 눈이 금강석으로 된 금으로 만든 말이 앞발을 들고 서있고 금으로 만든 기사가 그 말을 타고있어서 시계가 종을 칠 때면 언제나 그 기사가 창을 좌우로 내두른다는것이였다. 또한 백작부인은 한해에 두어번씩 무도회를 열고 현의 귀족들과 관리들을 모두 초대하는데 와를라모브도 역시 참석한다는것이였다. 이때는 모인 손님들은 모두 은으로 된 싸모와르의 차를 마시고 신기한것(례를 들면 겨울철에 성탄절을 앞두고 멍석딸기와 따딸기가 나왔다.)들을 먹고 그리고 밤낮없이 켜대는 음악에 맞추어 춤들을 춘다는

것이였다. …

(글쎄 그 부인이 얼마나 이뻐!) 예고루쉬까는 백작부인의 얼굴과 웃음을 회상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꾸지미쵸브도 분명 백작부인을 생각하였는지 마차가 한 5리쯤 왔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글쎄, 그 까지미르 미하일리치는 그 부인을 잘도 쪼아먹거던요! 재작년 내가 그 부인한테서 양털을 살 때에도 그는 한 3천루블이나 뜯어먹었으니까요.》

《뾜스까놈이야 그것밖에 다른게야 바랄수 없지.》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말하였다.

《그런데도 그 부인은 그런건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거던요. 아직 젊은데다가 좀 어리석다구들 하더군요. 분별이 없으니까!》

예고루쉬까는 어찌된 일인지 그저 와를라모브와 그 백작부인, 그중에서도 각별히 백작부인에 대해서만 생각하고싶었다. 그의 한 절반쯤 졸고있는 머리는 일상적인 생각을 떠나 몽롱하게 흐려졌다. 그는 자기가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머리속에서 생겨났다가 머리만 한번 저어도 흔적없이 사라지는 그런 옛말같은 환상적인것들만 생각하고있었다. 참으로 실지 주위에 있는 모든것들이 별로 일상적인 생각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른쪽으로는 그늘진 구릉들, 마치도 자기스스로 그 어떤 알지 못할 무서운것들을 가리우는듯 하였고 왼쪽으로는 지평선우에 드리운 하늘이 붉은 노을에 물들어 그 어디에 불이 났는지 아니면 달이 떠오르는지 잘 분간할수 없었다. 먼곳은 낮이나 다름없이 보였으나 이미 그 부드러운 보라빛은 저녁안개에 싸여 어둠속에 잠겨버렸다. 초원은 마치 모이쎄이 모이쎄이치네 아이들이 이불속에 숨어버리듯 안개속에 사라졌다.

7월달은 저녁이나 밤이나 물닭도 울지 않고 숲속골짜기에서 꾀꼴새노래도 그치고 꽃향기도 풍기지 않았건만 초원은 여전히 아름답고 생기에 넘쳐있었다. 해가 지고 땅우에 안개가 깃들면 마치 낮동안의 애수가 다 잊혀지고 모든것이 지나가버린듯, 또 초원은 그 넓은 가슴을 벌려 후련한듯 숨을 쉬였다. 풀들은 어둠속이라 자기들의 늙은 꼴이 보이지 않았고 낮에는 누릴수 없었던 즐거움에 차고 젊고 생기있는 소리가 이는듯 하였다. 툭툭 튀는듯 한 소리, 휘파람소리, 무엇

을 긁는듯 한 소리, 초원에서 나는 저음과 고음— 이 모든 소리들이 끊임없이 단조롭게 울리는 소리와 합쳐지는데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 그 무엇을 추억하면서 탄식하기에 좋은것이다. 단조롭게 무엇이 튀는 것만 같은 소리는 자장가처럼 졸음을 불러왔다. 마차를 타고가노라면 저절로 졸린다. 그러나 이때 그 어디선가 아직 잠들지 않은 새들이 가슴을 설레게 하면서 간간이 우는 소리가 들리든가 아니면 그 누가 놀라서 웨치는 소리와도 비슷한, 어떻다고 꼭 찍어 말할수 없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잠은 물러가버리고말았다. 숲이 무성한 골짜기옆으로 지나가노라면 초원의 사람들이 잠보라고 부르는 새가 누구에겐지 《자거라! 자거라! 자거라!》라고 소리를 지르는듯이 들리기도 하고 또 다른 새들은 소란하게 웃든가 신경질적으로 울든가 하는데 이것은 올빼미가 우는것이였다. 그 새들이 누구를 위해 울고 또 이 초원에서 누가 그 새들의 소리를 듣고있는지 그것은 아무리 해도 모를 일이건만 그들의 울음속에는 수많은 서글픔과 하소연이 깃들어있다. … 건초며 시들어 마른 풀들에서는 철늦은 꽃들의 냄새가 풍겼다. 그 냄새들은 짙고 달콤하고 그리고 부드럽다.

안개속으로 보이는 모든것들의 빛갈이며 륜곽을 분간하기 어렵다. 모든 물체들은 다 그대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마차를 타고가노라면 갑자기 눈앞에 있는 바로 길가에서 중과 비슷하게 생긴것이 눈에 뜨인다. 그것은 까딱하지 않고 서서 무엇을 손에 들고있다. … 혹시 강도가 아닐가? 그 형체가 차츰 가까와지며 커진다. 인차 마차와 가지런히 서게 된다. 그것을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니라 키낮은 나무나 커다란 바위라는것이 알린다. 이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 누구를 기다리는듯 한것들은 구릉들우에 서있기도 하고 오랜 무덤들뒤에 숨어있기도 하고 부리얀풀에서 내다보기도 한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과 비슷하여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달이 떠오르면 밤은 더욱 창백해지고 어두워진다. 안개는 언제 있었더냐싶듯이 걷힌다. 대기는 투명하고 맑고 따사롭고 어디나 다 잘 보인다. 길가에 자란 부리얀풀들의 줄기조차 잘 분간할수 있을 정도였다. 먼 들판에는 해골과 바위들이 눈에 뜨인다. 중들과 비슷한 그 괴상한 형체들은 밝은 밤의 대기속에서 더욱 검고 험상궂게 보인다. 무엇이 튀는듯 한 단조로운 소리속으로 더욱 자주 고요한 대기를 흔

들며 그 누구인가 놀라 부르짖는것만 같은 《아— 아!》 소리가 들리고 아직 자지 않거나 잠꼬대를 하는 새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온다. 넓은 그림자들이 마치 하늘을 떠도는 구름같이 벌판우를 지나간다. 그 어딘지 알수 없는 먼곳을 오래 바라보노라면 그 어떤 몽롱하고 괴이한 형체들이 높이 솟고 서로 뭉치며 오르내린다. 좀 무섭다. 그러나 구름 한점없이 별들만을 뿌려놓은 창백한 맑은 하늘을 바라보노라면 어찌하여 따스한 대기가 까딱하지 않고있는지, 어찌하여 자연이 조심히 움직이기를 저어하는것인지 그 까닭을 알게 될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자연이 단 한순간이라도 생명을 잃을수 없기때문이다. 하늘의 그 무궁한 깊이와 무한한 넓이에 대하여 판단할수 있는것은 오직 바다나 달빛이 밝은 밤 이런 초원에서뿐이다. 이런 하늘은 무섭고 아름답고 그리고 다정하며 지친듯 바라보며 자기한테로 오라고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럴 때면 그의 다정함으로 하여 사람들의 머리마저 어지로워진다.

마차를 타고 더 간다.… 도중에서 덤덤히 말없는 옛 무덤들이나 누가 언제 세웠는지 모를 돌부처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밤새가 소리없이 땅우를 날기도 한다. 그러노라면 차츰 초원의 전설들이,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초원에서 살아온 어머니들의 옛말이 그리고 자기가 보고 자기 머리로 깨달은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에 떠오른다. 벌레들이 우는 튀는듯 한 소리속에, 의심스러운 형체들과 옛 무덤들에, 푸른 하늘과 달빛속에, 밤새의 퍼덕임속에 보이고 들리는 이 모든것들속에 아름다움의 승리와 청춘, 힘 그리고 열정적인 생의 갈망을 느끼게 된다. 사람의 정신은 아름답고 준엄한 조국과 호응하면서 밤새와 함께 하늘을 날고싶어진다. 이 장엄한 아름다움속에, 넘치는 행복속에 초원은 마치 자기가 고독하다는것을 자기의 재부와 창조적기백이 어느 누구에게선 칭송을 받음이 없이, 또 누구에게 꼭 소용됨도 없이 이 세상을 위하여 헛되이 사멸한다는것을 알고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긴장과 애수를 느낀다. 그리고 기쁨에 찬 소음속에서 초원의 서글프고 절망적인 부름인 가수! 가수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뜨르르! 어 빤젤레이! 다 무고한가?》

《덕택에 그저, 이완 이와늬치!》

《여보게들, 와를라모브를 못 봤나?》

《아니, 못 봤어요.》

예고루쉬까는 잠을 깨여 눈을 떴다. 마차는 멎어있었다. 오른쪽으로 길을 따라 멀찌감치 짐수레들이 앞을 향하여 늘어섰고 그주위에서 웬 사람들이 서성거리고있었다. 짐수레들은 모두 양털이 든 집채같은 짐짝들을 실어 부풀어오른듯 커지고 말들은 줄어들고 다리들이 짧아진것 같았다.

《글쎄 우린 지금 몰로깐네한테 가는 길이야!》 꾸지미쵸브가 큰소리로 말하였다.

《유태녀석의 말이 와를라모브가 몰로깐네게서 묵고있다는군. 그럼 이 친구, 작별합세! 잘있게!》

《잘 가요, 이완 이와늬치!》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대답하였다.

《그런데 여보게들.》 꾸지미쵸브가 얼른 말을 이었다.

《우리 애를 좀 같이 데리구 가주게! 이 애가 우리를 따라 쓸데없이 헤매지 않게 말일세. 빤쩰레이, 이 애를 자네 짐우에 올려태우고 슬금슬금 가게나. 우리가 인차 따라잡을테니. 예고르야, 가거라! 가. 괜찮아!…》

예고루쉬까는 마부자리에서 내렸다. 마차의 짐우에서 몇사람들의 손이 그를 붙잡아 우로 끌어올렸다. 예고루쉬까는 곧 무엇인가 크고 부드러운데다가 이슬에 젖어 어느 정도 축축한것우에 앉는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부터 하늘이 가까와지고 땅은 멀어진것 같이 생각되였다.

《어이, 네 외투를 가지고 가!》 아래쪽에서 데니스까가 소리질렀다.

아래서 던져올린 외투와 짐꾸레미가 예고루쉬까의 곁에 떨어졌다. 그는 다른것은 생각하지 않고 꾸레미를 얼른 머리밑에 놓고 외투를 들쓴 다음 다리를 쭉 뻗쳤다. 그는 이슬에 젖어 몸이 떨렸으나 한편 흐뭇한 생각이 들어 빙그레 웃었다.

(어서 자자, 자자.)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여보시오. 그 애를 구박하지 말라구요!》 밑에서 데니스까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였다.

《그럼 헤지자구. 부디 잘 가게!》 꾸지미쵸브가 웨쳤다.

《난 자네들을 믿네.》

《걱정마소, 이완 이와늬치!》

데니스까는 말들에게 소리쳤다. 마차는 삐걱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마차는 길로가 아니라 어딘가 길 한옆으로 갔다. 짐수레들은 잠시 마치 잠이 든듯 조용하였다. 다만 마차뒤에 매여놓은 물통이 부딪치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멀어지며 차츰 작아졌다. 이때 짐수레앞에서 누가 소리쳤다.

《끼류하, 떠나자구!》

맨앞에 있던 짐수레가 갈리는 소리를 내고 그뒤로 둘째, 셋째 짐수레의 삐걱소리가 들렸다. 예고루쉬까는 자기가 올라탄 짐수레도 덜컹하고 흔들리더니 삐걱소리를 내는것을 들었다. 짐수레행렬이 떠난것이였다. 예고루쉬까는 짐짝들을 얽어맨 바줄을 한손으로 더 든든히 쥐고 흐뭇한 생각이 들어 다시한번 빙그레 웃었다. 그는 호주머니를 더듬어 쁘랴니끄를 잘 건사하자 마치 자기 집에서 자듯이 잠들어버렸다. …

그가 잠을 깨였을 때 해는 벌써 솟아있었다. 구름이 해를 가리웠으나 해는 온 누리에 빛을 뿌리려고 애를 쓰는듯 힘껏 누리를 비치면서 지평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예고루쉬까는 해가 제자리에 있지 않는것처럼 생각되였다. 어제는 해가 자기의 등뒤에서 떴건만 오늘은 그보다 퍽 왼쪽에서 뜬것 같았다. 이 고장의 풍경도 어제와는 전혀 달랐다. 구릉들은 이미 없어지고 사방 어디를 둘러보나 푸른빛을 띤 음울한 초원이 끝간데없이 뻗어있었다. 이따금 그리 크지 않은 옛무덤들이 나타나고 어제 보던 갈가마귀들이 날아돌았다. 먼 앞쪽에는 종루들과 마을의 농가들이 희뜩희뜩 보이기도 하였다. 이날은 일요일이라 우크라이나사람들은 집에 들어앉아 무엇인가 굽고 지지는 모양이였다. 한것은 농가들의 굴뚝들마다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솟아올라 검푸른빛을 띤 휘장처럼 마을우에 드리운것으로 보아 알수 있었다. 농가와 농가들사이와 교회당뒤로는 시내물이 파랗게 보이였고 그뒤로는 모든것이 안개에 싸여있었다. 그러나 길은 어제 오던 길과 완전히 달랐다. 대단히 넓고 앞이 툭 터진 넓은 띠가 길대신 초원으로 뻗어있었다. 그것은 마차들의 바퀴에 다져지고 다른 길들과 다름없이 먼지를 뒤집어쓴데다가 너비가 수십메터나 되는 재빛을 띤 띠였다. 그 시원하고 넓은 띠는 예고루쉬까의 마음속에 의심을 자아냈고 옛말과도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그 누가 여기로 마차를 몰아갔을가? 그 누구에게 이렇게 넓은 길이 필요했을가? 정말 리해할수 없는 이상한 일이였다. 사실 로씨야에는 일리야 무로메츠나 쏠로베이 라즈보이니끄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아직 살고있고 장대한 말들도 아직 남아있는것 아닐가. 예고루쉬까는 그 넓은 길을 바라보며 성서의 삽화에서 보군 하던것들과 비슷한 다락같이 높은 마차들이 여섯대나 가지런히 달리는 광경을 그려보았다. 미친듯이 사납고 갈개는 말 여섯필이 이 커다란 마차를 끌고 달리면 구름같은 먼지가 하늘에라도 닿을듯 일어난다. 이 말들을 꿈이나 옛말에서 나오는 그런 장수들이 몰고간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살아있다면 그들은 이 초원과 이 길에 얼마나 잘 어울릴것인가!

길 오른쪽으로는 두가닥의 전선줄을 걸머진 전주대들이 쭉 뻗어나갔다. 그것들은 차츰 작아지며 마을가까이에서 농가들과 록음속으로 사라졌다가 보라빛이 되는 먼곳에서 마치 땅에 박힌 연필처럼 조그마하고 가느다란 막대기모양으로 또다시 모습을 나타내였다. 전선줄우에는 독수리와 새매 그리고 까마귀들이 앉아서 지나가는 짐수레대렬을 태연하게 바라보고있었다.

예고루쉬까는 맨 마지막 짐마차를 타고있었기때문에 짐수레대렬을 한눈에 볼수 있었다. 짐마차들은 한 스무대쯤 되였고 석대에 한명씩 마부가 붙어있었다. 예고루쉬까가 타고있는 맨뒤의 짐수레옆에는 수염이 희고 흐리스또포르신부처럼 여윈데다가 키가 작고 해볕에 타 꺼매진 엄한 얼굴에 생각에 잠긴듯 한 늙은이가 걸어가고있었다. 그 로인은 별로 엄하지도, 생각에 잠기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였으나 그의 벌건 눈시울과 뾰족한 코는 그의 얼굴에 언제나 외로이 그 무슨 심각한것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수 있는 그런 표정을 짓게 하였다. 그는 흐리스또포르신부처럼 전넓은 모자를 쓰고있었으나 그것은 귀족들이 쓰는 그런것이 아니라 펠트로 만든, 밤색나는 중절모라기보다는 오히려 원추형에 가까운 모자였다. 그는 맨발이였다. 아마도 짐수레옆에서 여러번이나 꽁꽁 얼지 않으면 안되는 추운 겨울동안에 붙은 습관때문이리라. 그는 걸어가며 제 엉치를 툭툭 치기도 하고 발을 구르기도 하였다. 그는 예고루쉬까가 잠을 깬것을 알자 그를 바라보며 마치 심한 추위나 느끼듯이 몸을 떨

며 물었다.

《그래 잠이 깼니, 이 애야! 너 이완 이와늬치의 아들이라지?》

《아니예요, 조카야요.》

《이완 이와늬치의 조카라? 난 이렇게 장화를 신지 않은 맨발로 간단다. 발이 아프고 얼어서 그래. 장화를 신지 않는편이 시원하니까. 시원하구말구. 이 애야.… 글쎄 장화를 신지 않는게 편하다니… 그래, 조카라구? 그는 좋은 사람이다. 훌륭하지.… 제발 몸 성하기를… 훌륭하지… 난 이완 이와늬치의 말을 하는게야.… 그는 몰로깐네한테 갔어. 아, 하느님덕분에!》

늙은이는 마치도 퍽 추운듯이 이따금 말을 끊어가며 제대로 입을 벌리지도 않고 중얼거리듯 이야기하였다. 그는 마치 입술이 얼어붙기나 한듯 말을 더듬어가며 우습게 말하였다. 그는 예고루쉬까를 돌아보며 한번도 웃지 않아 엄해보였다.

앞에서 가는 두번째 짐마차에는 길다란 주홍색외투를 입은 전없는 모자에 목달이가 축처진 장화를 신은 사람이 손에 채찍을 쥐고 걸어가고있었다. 그는 나이가 한 마흔살쯤 나보였다. 그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고루쉬까는 성근 염소수염을 기르고 바른쪽눈밑으론 해면같은 혹이 난 길고 뻘건 얼굴을 보았다. 그 사나이한테서는 꼴보기 흉한 혹밖에 또 하나 눈에 인차 뜨이는 류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왼쪽손에 채찍을 들고 바른쪽손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합창대를 지휘하듯 흔들어대는것이였다. 이따금 그는 채찍을 어깨밑에 꼈는데 이럴 때면 그는 두손으로 지휘를 하는것처럼 무엇인지 코소리를 하였다.

그의 앞에 있는 마부는 어깨가 퍽 경사지고 등이 널판자처럼 넙적한데다가 꼿꼿한 몸집을 가진 사람이였다. 그는 행진을 하든가 아니면 자막대기를 삼킨듯이 몸을 꼿꼿이 세우고있었으며 손도 흔들지 않고 마치 곧은 막대기처럼 밑으로 드리워져있었다. 그는 또한 장난감 병정모양으로 무릎을 거의 구부리지 않고 되도록 폭이 넓게 걸으면서 어쩐지 나무로 만든 사람처럼 걸었다. 늙은이와 해면같은 혹을 가진 사람이 두발자국 걸을 때 그는 한발자국밖에는 더 내딛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느리게 걷는것 같았다. 그는 얼굴을 천으로 싸매고 머리에는 그 무슨 중들의 모자같은것을 쓰고있었다. 그는 더덕더

덕 온통 덧기운 짧다란 우크라이나식의 외투를 입고 하늘빛바지에 짚신을 신고있었다.

예고루쉬까는 이 사람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분간할수 없었다. 그는 배를 깔고 엎디자 짐짝에 구멍을 뚫고 심심풀이로 양털을 꺼내여 실을 꼬기 시작하였다. 아래서 걷고있는 늙은이는 그의 얼굴표정과는 달리 엄격하고 심각한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는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체로 그치지 않았다.

《너 어디루 가니?》 그는 걸음을 멈추고 소년에게 물었다.

《공부하러요.》 예고루쉬까가 대답하였다.

《공부하러? 아하… 그래,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구나. 지혜란 좋은거지. 하지만 둘이면 더 좋아. 하느님이 어떤 사람에겐 지혜를 하나 주시고 어떤 사람에겐 지혜 둘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겐 셋을 주셨단다. … 어떤 사람에겐 셋을 말이다. 정말이야. … 지혜 하나는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같이 낳는것이요, 다른 하나는 공부하는데서 생기는것이고 세번째것은 살림살이를 잘하는데서 생기는거란다. 그러니까 말이다. 이 애야, 사람이 누구나 지혜를 셋만 가지면 좋은거다. 그런 사람에겐 살아간다는것만 아니라 글쎄 죽는것도 시원하거던. 죽는것도 말이야. … 누구나 죽기는 매한가지니까.》

늙은이는 제 이마를 긁적긁적 긁는듯 하더니 그 빨간 눈을 들어 예고루쉬까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막씸 니꼴라예위치라구 하는 쓸라뱌노쎄르브스끄의 나리님도 지난해 아드님을 공부하러 보냈지. 그의 학문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아드님은 괜찮지. 훌륭해. … 하느님덕분에 몸이 성해야지.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그래 역시 공부하러 보냈지. 쓸라뱌노쎄르브스끄에는 글쎄 학문을 배울만 한 학교가 없거던. 없어. … 그래도 거리는 괜찮아. 훌륭하지. … 보통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보통학교는 있지만 그래두 큰 공부를 할 학교는 없거던. … 없지. 그건 정말이야. 네 이름이 뭐지?》

《예고루쉬까야요.》

《그럼 예고리군. … 거룩하신 대순교자 예고리 뽀베도노쎄츠의 날은 4월 스무사흘이였다. … 내 세례이름은 빤쩰레이란다. … 빤쩰레이 자하로브 홀로도브지. … 우리는 홀로도브네 집안들이거던. … 나를 꾸

르스까야현 찌므에서 낳았다고 하는 말도 있지. 내 형제들은 거지들이 되여 거리의 공장에서 일하구 나는 농사군이란다. … 난 농사군이 됐지. 한 7년전에 나는 그리루 갔댔다. … 글쎄 집으로 말이야. 난 촌에도 있어보고 거리에도 있어보았어. … 찌므에 있었단 말이다. 그때는 하느님덕분에 모두 살아서 몸성히들 있더니 지금이야 알수가 있나… 아마 죽은 사람도 있을게야. … 하긴 인젠 죽을 때가 됐지, 다들 늙었으니. 나보다 더 늙은 축들도 있단다. 죽는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괜찮아. 하지만 한마디 남길 말도 없이 참회도 안하고 죽어선 안돼. 잔뜩 건방진채로 죽는것처럼 나쁜 일은 다시 없단다. 건방진채로 죽는건 마귀나 기쁘게 하는게거던. 참회하고 죽어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걸리는것이 없게 하려면 대순교와 와르와라님앞에 빌어야지. 와르와라님은 중재하는분이니까 그분이 정말이야. …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그에게 그런 자리를 정해주셨지. 글쎄 누구나 다 참회를 하려거들랑 그분에게 빌어도 좋은 그런 자리 말이야.》

빤쩰레이는 중얼거렸다. 그는 예고루쉬까가 자기 말을 듣든 안 듣든 조금도 개의치 않는듯 하였다. 그는 기운이 진한듯이 목소리를 높이지도 낮추지도 않고 저 혼자나 들을만 한 소리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하였다. 그가 한 이야기들은 서로 이어지지 않았고 예고루쉬까에게는 조금도 재미가 없는 그런 토막진 이야기들뿐이였다. 그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무말없이 지내보낸 지난밤에 이어 다시 시작된 이 아침에 자기가 생각하고있는것이 그대로 머리속에 남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큰소리로 한번 외워보는것인지도 모른다. 참회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자 그는 또다시 쏠라뱌노쎄르브스끄출신이라는 막씸 니꼴라예위치의 말을 꺼냈다.

《글쎄 아들은 데리고 갔어. … 데리고 갔거던. 이건 정말이야. …》

멀리 앞서가던 마차군 하나가 제자리를 떠나 한옆으로 달려가더니 채찍으로 땅바닥을 내려쳤다. 그 사나이는 나이가 한 서른살쯤 되고 희끄무레하고 고슬고슬한 고수머리에 보기에도 힘이 세여보이고 큰 키에 어깨가 쩍 버그러졌다. 그의 어깨와 채찍의 움직임과 그 무엇에 열중하고있는 자세로 보아 그는 지금 그 무슨 산것을 때리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그러자 그한테로 키가 작고 몸집이 앙바틈한데다가 새까만

턱수염을 수북이 기르고 조끼와 샤쯔의 단추도 채우지 않은 다른 마부가 달려갔다.

《어이, 듸모브가 독사를 죽였어! 정말…》

사람들가운데는 웃음과 목소리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지능정도를 판단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수염이 꺼먼 마부도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에 속하였다. 그의 목소리나 웃음소리만 듣고도 그가 어찌할수 없는 바보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머리털이 희끄무레한 듸모브는 때리던것을 멈추자 채찍으로 땅에서 새끼오리 비슷한것을 쳐들더니 웃으면서 그것을 짐수레들쪽으로 내던졌다.

《그건 독사가 아니라 늘메기야!》 누가 소리쳤다.

얼굴을 천으로 싸매고 나무인형처럼 걷던 마부가 죽은 뱀이 있는데로 재빠르게 달려가 그것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막대기같이 생긴 두손을 마주쳤다.

《징역이나 갈 놈같으니!》 그는 우는듯 한 궁근 목소리로 웨쳤다.

《어쩌자고 임자는 늘메기를 죽였니? 그게 임자한테 뭘 어쩌던가. 망할놈 같으니? 왜 봐. 늘메기를 다 죽이다니! 그래 임자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겠나?》

《늘메기는 죽이면 안돼. 그건 정말이야. …》 빤쩰레이가 조용히 말하였다.

《안돼. 그건 독사가 아니거던. 그게 비록 뱀이긴 하지만 온순하고 아무 해도 주지 않는 생물이야. … 사람을 좋아하지. … 늘메기가…》

듸모브와 수염이 새까만 마부는 분명 부끄러워진 모양이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큰소리로 웃어대며 놀리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늦장을 부리며 자기 마차들쪽으로 가버리였다. 맨뒤의 짐수레가 죽은 늘메기가 있는 곳에 오자 늘메기를 내려다보고 서있던 얼굴을 동여맨 사나이가 빤쩰레이쪽으로 얼굴을 돌리더니 우는듯 한 소리로 물었다.

《령감님, 글쎄 그놈이 늘메길 왜 죽였겠소?》

예고루쉬까가 본데 의하면 그의 눈은 흐릿하였고 얼굴은 재빛에 병색을 띠였으며 턱은 빨갛고 심하게 부어오른듯 하였다.

《령감, 글쎄 왜 죽였겠소?》 그는 빤쩰레이와 가지런히 걸어가며 되뇌이였다.

《어리석은 작자야. 손이 근질거려 죽였겠지.》 늙은이가 대답

하였다. 《그러나 늘메기를 죽여서는 못써. … 그건 정말 그렇다니… 듸모브는 다들 아다싶이 망종이니까 뭐나 손에 닥치는대로 마구 쳐 죽이거던. 그런데도 끼류하는 그 생물을 보호해주지 않았지. 보살펴 줘야 했건만 그는 그저 하하호호 하고 웃기만 하거던. … 그런데 와샤, 자네 성내지 말게. … 왜 성을 내나? 죽여버렸으니 할수 없지. … 듸모브는 망종이고 끼류하는 천생 어리석은 작자니까. … 그런게지. … 사람이란 어리석고 뭐가 뭔지 모르는 물건이니까. 글쎄 할수 없지. 저 에멜리얀은 쓸데없는 일은 간참하지 않거던. 절대루. 그건 정말 그렇다니… 사람이 배운데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작자들이야 어리석은 위인들이지. … 에멜리얀이야… 그야 어디 건드리나.》

주홍색외투를 입고 해면같은 혹이 달리고 보이지 않는 합창을 지휘하던 마부는 제 이름소리를 듣자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빤쩰레이와 와샤가 오기를 기다려 함께 걸어갔다.

《무슨 이야기들이야?》 그는 쉬고 눌리운듯 한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말이야. 와샤가 성이 났거던.》 빤쩰레이가 말하였다. 《그래, 성내지 말라고 내가 타이르던 참이야. 글쎄… 아, 발이 아프군. 얼어서! 에익! 주일날때문에, 하느님 명절날탓에 근질근질거리거던!》

《그건 걸어서 그래요.》 와샤가 입을 열었다.

《아니야. 이 젊은 사람아, 걸어서 그런게 아니야. 걸을 때면 도리여 좀 나은것 같아. 누워서 몸을 녹일 때는 막 죽을 지경이야. 나는 걷는건 일없다니.》

주홍색외투를 입은 에멜리얀은 빤쩰레이와 와샤의 사이에 들어서자 마치도 이들한테 노래라도 부르게 하려는듯이 한손을 내흔들었다. 얼마쯤 내흔들던 그는 그만 손을 축 늘어뜨리고 락심한듯이 신음하듯 말하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는 말하였다. 《큰 화를 만났어! 어제 밤새와 오늘 아침에도 우리들이 마리놉스끼네 결혼식때에 불렀던 그 〈주여, 가엾이 여기소서〉의 3부 합창이 귀에 아물아물 들리거던. 그게 머리와 목구멍에 붙어있다니까. … 그래서 한번 불러보려고 하였지만 글쎄 어디 되여야지! 소리가 안 나와!》

그는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잠간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난 십오년동안 가수노릇을 했지. 루간스끄공장에는 내 목소리만 한 소리도 없었지. 그런데 무슨 망할 지랄로 재작년 도네츠강에서 미역을 감지 않았겠나. 그때부터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게 됐지. 목이 굳어진게야. 글쎄 내가 소리를 못 낸다는건 일군에게 손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니.》

《그건 옳은 말이야.》 빤쩰레이는 그럴듯이 여기였다.

《난 자기를 잘 알아. 이젠 다 망해버렸어. 아무것도 아니지.》

이때 와샤는 우연히 예고루쉬까를 보았다. 그의 눈이 빛나더니 더욱 작아졌다.

《도련님이 우리들과 같이 가다니!》 그는 마치 부끄럽기나 한듯 팔소매로 코를 가리웠다. 《짐마차군이 얼마나 중요해. 우리와 함께 짐마차군이 되구. 양털도 날라가게 되였으니 말일세.》

도련님과 마차군이 함께 가고있다는 생각이 그에게는 분명 퍽 진귀하고 묘하게 여겨졌다. 때문에 그는 크게 웃어대며 자기 생각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다. 에멜리얀도 예고루쉬까를 쳐다보았으나 그저 피뜩 차디찬 눈길을 던졌을뿐이였다. 그는 자기 생각에 골똘해있었기때문에 와샤만 아니였더라면 예고루쉬까가 있는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것이였다. 그는 5분도 못되여 또다시 손을 내젓고나서 같이 가는 일행에게 지난밤에 그의 기억속에 떠올랐던 결혼식에서 부른 〈주여, 가엾이 여기소서〉의 아름다운 선률을 여러가지로 그려보이며 채찍을 겨드랑이밑에 끼고는 두손을 내저었다.

마을에서 1키로메터쯤 되는 곳에 있는 우물곁에서 짐마차들은 멎었다. 수염이 까만 끼류하가 장대끝을 당겨 드레박을 드리우느라고 우물방틀에 배를 대고 어두운 우물속으로 더부룩한 머리와 어깨, 가슴 한쪽을 쑥 들이미는 바람에 예고루쉬까는 겨우 땅에 닿을가말가한 그의 짧은 다리만을 보았다. 끼류하는 깊은 우물물에 자기 머리가 비치는것을 보자 좋아라고 어리석고 궁근 소리로 웃어댔다. 그러자 우물속에서 맞울림이 꼭같은 소리로 화답하였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그의 얼굴과 목이 홍당무우처럼 빨갛게 되였다. 그는 드레박에서 몇번 얼굴을 떼고는 끼류하에게 뭐라고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지 한절반 웃으며 물을 마시였다. 그는 물을 다 마시자 휙 돌아서더니 온 초원이 다 들리게 큰소리로 상말을 댓마디 웨쳐댔다. 예고루쉬까는 그 말들

의 뜻은 알지 못하였으나 상스러운 말이라는것만은 알수 있었다. 그는 자기 부모들과 또 아는 사람들이 이런 상말에 대하여 은연히 마음속에 혐오감을 품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때문에 그는 자기도 역시 그런 상말에 대해서는 혐오의 감정을 가지게 되였다. 그는 다만 술취한 사람들이나 싸움군들만이 이런 말을 크게 웨칠 특권을 가진것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듸모브가 늘메기를 때려죽인 일을 잊지 않고있었고 이제 또 그의 웃음소리를 듣고나니 그는 자기도 모르게 듸모브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감정에 사로잡히는것을 느꼈다. 그러자 듸모브는 마치 일부러 그러기나 하듯 짐마차에서 내려와 우물로 가고있는 예고루쉬까를 보자 《여보게들, 늙은이가 간밤에 아들을 하나 낳았네!》 하고 크게 웃어대며 떠들었다.

끼류하는 궁근 소리를 내여 웃다가 그만 콜록콜록 기침을 하였다. 그밖에 또 누구인지 웃어대는 바람에 예고루쉬까는 그만 얼굴이 빨개지며 이제는 어쩔수없이 듸모브가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단정해버렸다.

희끄무레하고 곱슬곱슬한 머리에 모자도 쓰지 않고 웃옷의 단추도 채우지 않은 듸모브는 잘생긴데다가 힘꼴도 쓰게 보이였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는 자기 값을 아는 망나니와 힘장수의 모습이 드러나군 하였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기도 하고 허리를 짚기도 하였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웃고 떠들었다. 그는 마치 한손으로 무거운것을 쳐들어보여 세상을 놀래우려고 하는것만 같았다. 그의 미친듯 하고 비웃는듯 한 눈길은 길이나 짐마차, 하늘을 두리번거리며 어느 한곳에 머무는 일이 없었고 심심풀이로 그 누구를 때려죽이고 누구를 비웃어줄것인가 하고 찾기라도 하는것 같았다. 보매 그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 어떤것에도 구속받지 않았으며 예고루쉬까의 생각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한편 예고루쉬까는 그의 희끄무레한 머리와 잘생긴 얼굴, 그의 힘을 미워하였다. 때문에 그가 웃는것까지 미웠다. 그는 어떻게 하면 듸모브를 앙갚음하겠는가 하고 계속 궁리하였다.

빤쩰레이도 물통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초록빛나는 등잔모양의 고뿌를 꺼내더니 천쪼박으로 훔치고나서 물을 떠서 마셨다. 그는 더 한번 물을 떠서 마시고는 천쪼박으로 싸서 다시 호주머

니속에 넣었다.

《할아버지, 왜 등잔으로 물을 마시나요?》 예고루쉬까가 놀라 물었다.

《물통에서 마시는 사람두 있구 등잔으로 마시는 사람두 있지.》 늙은이는 분명치 않게 대답하였다. 《다 저마끔 제멋대루들 하니까.… 넌 물통에서 마시겠지. 그래, 실컷 마셔라.…》

《내가 좋아하는거로구나. 곱기도 하지.》 갑자기 와샤가 정에 겨워 우는듯 한 소리로 말하였다. 《내가 좋아하는거로군.》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은 먼곳으로 쏠렸다. 그의 눈은 반짝이고 웃음을 머금었다. 지금 그의 얼굴표정은 예고루쉬까를 보았을 때와 꼭 같았다.

《거 누굴 두고 하는 소리요?》 끼류하가 물었다.

《여우지… 그놈이 반듯이 누워 개처럼 장난을 치구있겠지.…》

모두들 먼곳을 바라보며 눈으로 여우를 찾으려고 애썼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와샤 혼자 그 흐린 재빛눈으로 무엇인가 바라보며 정신없이 좋아하였다. 예고루쉬까는 후에야 확실히 믿게 되였지만 그의 시력은 놀랍게 예민하였다. 그는 어떻게나 눈이 밝은지 거칠대로 거칠어진 푸른 초원도 그에게는 생명과 활동이 가득찬것으로 보이였다. 그는 그저 먼곳을 한번 바라만 보면 그만이였다. 그럴 때면 그의 눈에는 여우, 토끼나 너새들 그리고 그밖에 사람에게서 될수록 멀리 떨어져있으려는 동물들이 보였다. 뛰는 토끼며 날아나는 너새 같은것을 본다는것은 물론 하치 않은 일로 초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볼것이다. 그러나 야생동물들이 자기의 보금자리, 다시말하여 그것들이 달아나지도 않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방을 살피지도 않을 때 본다는것은 누구나 다 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와샤는 장난하는 여우며 발로 세면을 하는 토끼며 깃을 다듬는 너새들을 볼수 있었다. 와샤는 이처럼 눈이 좋은 덕분에 사람들이 볼수 있는 세계밖에 또 하나의 다른 세계를, 그 누구도 들어갈수 없는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가지고있었다. 그가 그것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즐길 때면 그를 부러워하지 않을수 없는 좋은것임이 틀림없는 그런 세계였다.

짐마차들이 길을 다시 떠났을 때 교회당에서는 미사에 부르는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5

짐마차들은 마을에서 벗어나 강기슭에 머물러있었다. 해는 어제와 다름없이 내려쪼이고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아 숨이 가빴다. 강기슭에는 몇그루 버드나무가 서있었으나 그 그늘은 땅이 아니라 물우에 떨어졌고 짐마차들의 그늘도 숨가쁘고 무더웠다. 하늘이 비쳐 푸르러보이는 물은 사람들을 한껏 유혹하였다.

예고루쉬까가 이제야 겨우 주의를 돌리게 된 열여덟살쯤 되는 우크라이나젊은이는 길다란 웃옷을 허리띠도 매지 않고 입은데다가 걸을 때마다 기발처럼 너풀거리는 넓다란 바지가 장화우에 덮인 마부 스쩨쁘까는 얼른 옷을 벗어던지더니 가파로운 기슭을 달려내려가 물속에 풍덩 뛰여들었다. 그는 세번쯤 자맥질을 하더니 곧 번듯이 누운채로 자못 흐뭇한지 눈을 스르르 감았다. 그의 얼굴은 웃고있었는데 마치도 무엇인가 간지럽고 아프고 우스운듯 하였다.

찌는듯이 뜨겁고 숨이 막힐듯 한 더위를 어떻게 피해야 할지 모를 그런 더운 날에는 미역을 감는 사람의 숨소리와 물방울이 튀는 소리마저 사람들의 귀에는 좋은 음악처럼 들린다. 듸모브와 끼류하는 스쩨쁘까를 보자 얼른 옷들을 벗고는 미리 즐거움을 맛보는듯 고함까지 치며 련달아 물속으로 뛰여들었다. 지금까지 조용하던 강가에서는 푸푸 하는 물뱉는 소리, 물을 끼얹는 소리, 고함소리로 떠들썩해졌다. 끼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물속에 처박기라도 한듯이 기침을 하고 웃고 소리를 질렀고 듸모브는 그의 다리를 붙잡으려고 애썼다.

《에헤헤.》 듸모브가 소리쳤다. 《저걸 붙잡아!》

끼류하는 웃고 떠들며 좋아라고 하였으나 그의 얼굴표정은 물속에 뛰여들기 전이나 다름없이 마치 누가 슬그머니 등뒤로 와서 도끼로 머리를 내리패기라도 하는듯 어리석고 어리둥절해보였다. 예고루쉬까도 옷을 벗었다. 그는 기슭까지 다 내려가지 않고 3메터쯤 되는 높이에서 물속에 뛰여들었다. 공중에서 곡선을 그리며 물에 떨어진 그는 깊숙이 잠기였으나 물밑에는 닿지 못하였다. 산뜻하고 기분좋게 느껴지는 그 어떤 힘이 그를 사로잡더니 다시 물우로 솟구치게 하였다. 그는 물속에서 떠올랐다. 그는 푸푸거리며 눈을 떴다. 해빛이 바로 그

의 얼굴을 면바로 비쳤다. 처음에는 눈이 부시는 불꽃이, 다음에는 무지개 같은것과 컴컴한 얼룩점이 보였다. 그는 얼른 물속으로 들어가서 눈을 떴다. 그러자 그는 달밤과 비슷한 그 어떤 흐릿한 초록빛을 보았다. 또다시 물밑에 가닿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힘이 그를 시원한 물속에 있지 못하도록 물우로 떠밀었다. 그는 다시 물밖으로 떠오르면서 가슴만 아니라 배속까지도 시원하게 열리도록 숨을 크게 내쉬였다. 그는 물의 혜택을 다 누려보려고 여러가지 동작을 하였다. 반듯이 누워도 보고 물장구를 치기도 하고 개헤염, 선헤염을 치면서 맥이 빠질 때까지 실컷 헤염쳤다. 맞은편 기슭의 무성한 밭은 해별에 금빛으로 빛났고 갈대꽃들은 아름다운 술들이 되여 물우에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갈밭의 한곳이 흔들리더니 갈꽃들이 고개를 흔들어 인사를 하고 버석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스쩨쁘까와 끼류하가 가재들을 잡았다.

《가재다! 보라구 여보게들, 가재야!》 끼류하가 장한듯이 소리치더니 정말 가재를 내보였다.

예고루쉬까도 갈밭쪽으로 헤염쳐가서 자맥질을 하면서 갈대뿌리쪽을 손더듬하였다. 물렁물렁하고 끈적거리는 감탕을 더듬느라니 무슨 날카로운것이 감촉되였다. 혹시 가재인지도 모를것을 더듬는데 갑자기 누가 그의 발을 붙잡아 물우로 끌어올렸다. 예고루쉬까는 사래가 들려 기침을 하며 눈을 떴다. 그러자 앞에서 듸모브가 히쭉거리고있는것이 보이였다. 듸모브는 가쁜숨을 쉬였다. 그의 눈을 보니 더 장난을 하고싶어하는것이 알렸다. 그는 예고루쉬까의 발을 꽉 붙잡고 이번에는 예고루쉬까의 목을 틀어쥐려고 다른손을 쳐들었다. 예고루쉬까는 그가 자기를 물속에 처넣을것만 같아 공포와 함께 미운 생각이 들어 그의 손을 뿌리치며 부르짖었다.

《바보같은게! 뺨을 갈길테다!》

이런 정도로는 자기의 증오심을 다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예고루쉬까는 잠시후에 이렇게 보탰다.

《마귀같은게! 개자식!》

그러나 듸모브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예고루쉬까는 벌써 잊어버리고 끼류하에게 헤염쳐가면서 웨쳐댔다.

《헤헤! 고길 잡자구! 다들 고길 잡잔 말이야!》

《그거 좋지.》 끼류하가 찬성하였다. 《여긴 고기가 많을게야. …》
《스쩨쁘까, 마을로 달려가서 농군들한테서 그물을 좀 빌려와.》
《주지 않아요.》
《왜 안 줘? 가서 졸라보렴! 주님을 위해서라구 빌라구. 우린 순례자들이라구 해!》
《그건 옳아!》
스쩨쁘까는 물속에서 나와 얼른 옷을 주어입더니 모자도 쓰지 않고 훌렁한 바지가랭이를 너풀거리며 마을로 내달렸다. 예고루쉬까는 듸모브와 충돌한 뒤라 물에 아무런 흥취도 느끼지 못하였다. 빤쩰레이와 와샤는 가파로운 기슭에 다리들을 축 늘어뜨리고앉아서 미역감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벌거벗은 에멜리얀은 기슭에서 무릎까지 치는 물속에 들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손으로 풀대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제 몸을 쓸었다. 어깨뼈가 드러나고 눈아래에 혹이 돋은 그가 허리를 굽히고 분명 물을 겁내는 꼴을 보고는 웃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심각해졌다. 그는 언제인가 도네츠강에서 미역을 감다가 감기에 걸려 목소리를 빼앗긴데 대한 분풀이라도 하려는듯 물을 노려보았다.
《아저씬 왜 미역을 안 감나요?》 예고루쉬까가 와샤에게 물었다.
《그저… 감기 싫어서…》 와샤가 대답하였다.
《아저씨, 턱은 왜 부었어요?》
《아파서… 이 애, 난 성냥공장에서 일했단다. 의사의 말이 그래서 내 턱이 붓는대. 거기는 공기가 나쁘거던. 나뿐아니라 세 자식들도 다 부었어. 그중에서 한 애는 아주 죽어버리구.》
얼마 안있어 스쩨쁘까가 끄는 그물을 얻어왔다. 듸모브와 끼류하는 물속에 오래 있은탓에 살갗이 보라빛을 띠고 목소리도 쉰것같이 되였으나 고기잡이에 즐겨 달라붙었다. 처음에 그들은 갈밭의 깊은 곳에서 그물을 끌었다. 그곳은 듸모브의 목까지 오고 키가 작은 끼류하는 머리까지 잠겼다. 끼류하는 물속에 빠져 물장구를 치고 듸모브는 날카로운 갈뿌리에 걸려 그만 넘어져 그물속에서 첨벙거리며 떠들어대는 바람에 고기잡이는 장난처럼 되고말았다.
《깊구나.》 끼류하가 목쉰소리로 말하였다. 《아무것두 못 잡겠어!》

《잡아당기지 말라, 이 망할것아!》 듸모브가 그물을 잘 잡으려고 애쓰며 소리쳤다. 《손으로 누르라니까!》

《여보게들, 거기선 못 잡아!》 빤쪨레이가 기슭에서 그들을 보고 소리쳤다. 《고기나 놀래워. 이 바보같은것들아! 왼쪽으로 붙어! 거기는 좀 얕아!》

그물우로 커다란 고기가 번쩍 뛰여올랐다. 그러자 모두 와와 하고 소리들을 질렀다. 듸모브는 고기가 뛰여올랐던 곳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성을 냈다.

《에익!》 빤쪨레이가 신음하듯 소리치며 발을 굴렀다. 《피라미를 놓쳤어! 달아났네!》

듸모브와 끼류하는 왼쪽으로 해서 차츰 얕은 곬으로 나왔다. 이제는 고기잡이가 제대로 되였다. 그들은 짐마차가 있는데서 한 3백걸음 떨어진 곳까지 나갔다. 그들은 될수록 갈밭에 가까이 붙으려고 애쓰면서 말없이 발도 움직이는둥 마는둥 그물을 끌면서 물고기를 그물로 몰기 위하여 주먹으로 물을 쳤다. 기슭에서는 갈밭에서 그물을 끌면서 덤벙거리는 모양이 다 보였다. 그들은 갈밭의 맞은편기슭까지 가서 그물질을 하였지만 락심한 표정을 짓고 무릎을 높이 쳐들며 갈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였으나 내용은 알수 없었다. 해볕이 그들의 등을 지지고 등에가 달라붙어 쏘았다. 그들의 몸은 얼어서 진자주빛으로 되였다. 그들의 뒤로는 두손에 물통을 들고 웃옷을 겨드랑이까지 걷어올린 다음 그 자락을 입에 문 스쩨쁘까가 따라다녔다. 고기가 잡히면 그는 그것을 높이 쳐들어 해볕에 번쩍거리면서 이렇게 웨쳤다.

《보라요! 굉장한 피라미야요. 다섯마리나 잡았어요.》

듸모브와 끼류하, 스쩨쁘까는 매번 오래동안 흙탕속을 뒤적이면서 무엇인지 물통에 넣기도 하고 꺼내버리기도 하였다. 이따금씩 그물에 들어온것을 들고 이 논, 저 논 옮기며 이상한지 자세히 보다가는 역시 내던졌다.

《그건 뭐야?》 기슭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소리쳤다.

스쩨쁘까가 무엇이라고 대답은 하였으나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 않았다. 잠시후 그는 물속에서 나왔다. 그는 두손으로 물통을 쥐고 웃옷을 내리는것도 잊어버린채 짐마차들쪽으로 뛰여왔다.

《벌써 가득찼어요!》 그는 가쁘게 숨쉬며 소리쳤다. 《다른 물통을 달라요!》

예고루쉬까가 물통을 기웃이 들여다보니 물고기로 가득차있었다. 쏘가리새끼가 그 보기 흉한 대가리를 물밖으로 내밀고 그옆에는 가재들과 잔태미들이 복작거렸다. 예고루쉬까는 밑바닥까지 손을 쑥 넣어 물을 저었다. 그러자 쏘가리는 가재들밑으로 쑥 사라지고 그대신에 누치와 납주레기가 우로 솟았다. 와샤도 물통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은 빛나고 얼굴은 조금전에 여우를 보았을 때처럼 정다워졌다. 그는 물통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더니 입으로 가져다가 물어뜯기 시작하였다. 우적우적 하는 소리가 났다.

《야, 이것 좀 봐요.》 스쩨쁘까가 놀랐다. 《와씨까가 쏘가리를 산채로 먹어요! 에익!》

《이건 쏘가리가 아니야, 능쟁이지.》 하고 와샤는 씹던것을 그냥 씹으며 천천히 대답하였다.

그는 입에서 물고기꼬리를 꺼내더니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고나서 다시 입에 쑥 넣어버렸다. 그가 물고기를 씹으며 뿌드득 소리를 내는 것을 본 예고루쉬까는 자기앞에 있는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와샤의 부어오른 턱, 흐리멍텅한 눈, 류달리 예민한 시력, 입안에 들어간 물고기꼬리 그리고 그가 물고기를 씹어먹을 때의 그 침착한 태도들은 그를 동물처럼 보이게 하였다.

예고루쉬까는 그의 곁에 서있는것이 흥미가 없었다. 이제는 고기잡이도 끝났다. 그는 짐수레들곁을 빙빙 돌다가 무엇인가 잠간 생각하고나서 심심풀이로 마을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잠시후 교회당으로 들어가 삼냄새가 나는 어떤 사람의 뒤에 서서 합창대가 부르는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미사도 끝나갔다. 예고루쉬까는 찬송가를 잘 모르기때문에 별로 흥미가 없었다. 그는 조금 듣다가 하품을 하면서 사람들의 뒤통수와 등을 바라보았다. 머리칼이 빨갛고 갓 미역을 감은탓에 아직 물기가 있는 뒤통수를 보고 예고루쉬까는 그가 에멜리얀이라는것을 알았다. 에멜리얀은 뒤머리를 보통때보다 더 높이 둥글게 깎아올렸고 앞머리도 여느때와는 달리 좀 높이 깎은탓에 그의 빨간 귀는 마치 두개의 우엉처럼 삐죽 나와 어쩐지 어색하게 보였다. 예고루쉬까는 그의 뒤통수와 두귀를 바라보면서 왜

서인지 에멜리얀이 무척 불행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에멜리얀의 몸자세와 쉰 목소리, 미역을 감을 때 겁이 나하던것들이 머리속에 떠올라 그에 대한 세찬 련민의 정을 느꼈다. 예고루쉬까는 그에게 그 무슨 다정한 말을 해주고싶었다.

《나예요!》 그는 에멜리얀의 팔소매를 당기며 속삭이듯 말하였다.

합창대에서 고음이나 저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특히 일생에 한번만이라도 지휘를 해본적이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엄하고 시끄러운 존재로 바라보는 버릇이 붙기마련이다. 이러한 버릇은 그들이 가수노릇을 그만둔 때에도 좀처럼 버리지 않는다. 에멜리얀은 예고루쉬까에게 얼굴을 돌리고 눈을 치뜨며 쏘아붙였다.

《교회당에 와선 엉석부리지 말아!》

예고루쉬까는 사람들속을 뚫고 성단앞에 있는 장막이 가까운쪽으로 나갔다. 그는 곧 재미나는 사람들을 보았다. 맨앞에 있는 오른쪽 주단우에 한 신사와 귀부인이 서있었고 그들뒤로는 걸상들이 하나씩 놓여있었다. 신사는 옷차림을 말쑥하게 하고 마치 군인의 거수경례를 할때처럼 까딱않고 서서 면도자리가 파랗게 난 턱을 번쩍 쳐들고있었다. 그의 빳빳하게 날이 선 옷깃과 새파란 턱, 대머리와 그가 짚고있는 개화장에서는 위엄이 풍기였다. 그의 목은 긴장되였다. 턱은 마치 머리가 방금이라도 떨어져 훌쩍 날아오르기나 할듯이 힘있게 우로 버쩍 쳐들려있었다. 한편 하얀 비단옷을 휘감은 나이지긋한 뚱뚱한 귀부인은 고개를 기우뚱하고 마치 방금 그 누구에게 은혜라도 베풀고는—《아, 그렇게 치하하지 말어! 난 그런건 질색이야. …》 하고 말하려는것 같았다. 주단둘레에는 우크라이나사람들이 두터운 벽처럼 빙 둘러서 있었다.

예고루쉬까는 성상앞에 있는 장막으로 가까이 가서 거기에 있는 성상들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어느 성상앞에서나 천천히 엎드려 절을 하고나서 사람들을 돌아본 다음 일어나 입을 맞추었다. 그는 찬 마루바닥에 이마를 대자 시원한감을 느꼈다. 제단뒤에서 교회당지기가 초불을 끄려고 길다란 심지자르개를 들고나왔다. 예고루쉬까는 얼른 땅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달려갔다.

《빵은 다 나누어주었나요?》 예고루쉬까가 물었다.

《없어, 없어. …》 교회당지기는 귀찮아하며 중얼거렸다. 《여기선 그따위소리 말아. …》

미사는 끝났다. 예고루쉬까는 천천히 교회당에서 넓은 공지로 가서 천천히 거닐었다. 그는 지금까지 마을과 공지며 농군들을 많이 보았기때문에 지금 눈에 띄운 모든것들은 하나도 그의 흥미를 끌지 못하였다. 그는 할 일이 없고 또 시간을 보내야 하기때문에 문에 붉은 천을 드리운 어느 한 가게로 들어갔다. 가게는 휑하니 넓고 불빛이 어슴푸레한 두칸으로 되여있었는데 한칸에서는 천들과 잡화를 팔고 다른 칸에는 타르통들이 있었고 천정에 멍에들이 걸려있었다. 첫칸에서는 가죽과 타르의 냄새가 풍겨왔다. 가게의 마루에는 물이 뿌려져있었는데 물을 뿌린 사람은 큰 공상가나 자유사상가가 분명하였다. 왜냐하면 마루가 여러가지 모양과 신비적인 표식들로 뒤덮여있기때문이였다. 매대뒤에는 돈궤에 배를 대고 넓은 얼굴에 턱밑 수염을 둥글게 기른데다가 잘 먹어 살이 피둥피둥 찐, 척 보기에 우크라이나사람같은 가게주인이 서있었다. 그는 입안에 사탕덩어리를 넣고 깨물며 차를 마시였는데 차를 한모금 삼킬 때마다 한숨을 길게 내쉬군 하였다. 그의 얼굴은 아주 태연하였으나 그의 한숨은 매번 (이제 두고보자. 내가 단단히 경을 치게 해줄테니.) 하는 소리가 들리는듯 하였다.

《해바라기씨 한꼬뻬이까어치 주세요!》 예고루쉬까가 그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가게주인은 눈섭을 올리고 매대뒤에서 나오더니 예고루쉬까의 호주머니에 해바라기씨 한꼬뻬이까어치를 쓸어넣어주었다. 이때 되박으로 쓴것은 조그마한 빈 뽀마도병이였다. 예고루쉬까는 가게에서 나오고싶지 않았다. 그는 오래동안 쁘랴니크가 담긴 그릇을 바라보고나서 잠간 생각하다가 하도 오래되여 껍질에 곰팽이가 낀 자그만큼씩한 뱌젬의 쁘랴니크를 가리키며 물었다.

《저 쁘랴니크는 얼마예요?》

《둘에 한꼬뻬이까.》

예고루쉬까는 호주머니에서 어제 유태녀자가 준 쁘랴니크를 꺼내들고 물었다.

《그럼 이런 쁘랴니크는 여기서 얼마나요?》

가게주인은 쁘랴니크를 손에 받아들고 이모저모 뜯어보더니 한쪽눈

섭을 찡긋 올렸다.

《이런거?》

그는 다시 한쪽눈섭을 찡긋하고는 잠간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다.

《둘에 세꼬뻬이까. …》

가게주인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빨간 구리차주전자에서 차를 따르며 물었다.

《넌 뉘집 애냐?》

《이완 이와늬치의 조카야요.》

《이완 이와늬치도 여럿이니까.》 가게주인은 한숨을 쉬였다. 그는 예고루쉬까의 머리너머로 출입문쪽을 쳐다보며 잠시 입을 다물고있더니 물었다. 《차는 안 마시겠니?》

《마시겠어요. …》 예고루쉬까는 비록 아침차가 그렇게도 무섭게 마시고싶었지만 점잖게 대답하였다.

가게주인은 그의 앞에 차를 한고뿌 따라놓고 여기저기 깨물어 부스러뜨린 사탕을 앞에 내놓았다. 예고루쉬까는 접는 걸상에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는 사탕물에 절인 자두 한폰드에 얼마나 하는지 물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들어왔다. 주인은 제 고뿌를 한옆에 밀어놓고 손님을 타르냄새가 나는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오래동안 그와 무슨 이야기를 하였다. 손님은 고집이 세고 빈틈이 없는지 종시 반대한다는 표시로 머리를 젓더니 출입문쪽으로 갔다. 가게주인은 어떻게 했는지 그가 자기 말을 믿게 하고나서 커다란 마대에다 그에게 줄 귀밀을 쏟아넣기 시작하였다.

《그게 귀밀이 맞소?》 손님은 락심한 어조로 물었다. 《이건 귀밀이 아니라 겨요, 닭도 웃겠군. … 그만두겠소. 본다렌꼬한테루 갈테요!》

예고루쉬까가 강가로 돌아오니 기슭에서는 자그마한 우등불이 타고 있었다. 마부들이 끼니를 끓이는 모양이였다. 스쩨쁘까가 연기가 나는 속에서 커다란 숟가락으로 남비안을 휘젓고있었다. 우등불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연기에 쐬여 눈들이 빨갛게 된 끼류하와 와샤가 앉아서 고기비늘을 벗기고있었다. 그들앞에는 흙탕과 물풀들이 뒤덮인 그물이 놓여있는데 이 그물우에서 물고기들이 번쩍거리고 가재들이 기고있었다.

교회당에서 돌아온지 얼마 안되는 에멜리얀은 빤젤레이와 나란히 앉아서 손을 내흔들며 목쉰 소리로 들릴락말락하게 《너에게 노래불러주리…》라는 노래를 불렀다. 듸모브는 말들옆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비늘을 다 벗기고난 끼류하와 와샤는 고기와 산 가재들을 물통에 넣고 씻은 다음 설설 끓는 물속에 쏟아넣었다.

《기름을 넣을가?》 쓰쩨쁘까가 숟가락으로 거품을 걷어내며 물었다.

《왜? 고기가 제맛을 내겠는데.》 끼류하가 대꾸하였다.

남비를 불에서 내려놓기 전에 쓰쩨쁘까는 그안에 기장을 세줌 쏟고 소금을 한숟가락 넣었다. 그다음 간을 맞추고 입맛을 다시며 숟가락을 반반히 핥고나서 만족한듯이 신음비슷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바로 어죽이 다 되였다는 신호였다.

빤젤레이를 내놓고는 다들 우등불옆에 자리를 잡고앉아 숟가락들을 놀리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들 보게! 이 애에게 숟가락을 줘야지!》 빤젤레이가 준절하게 책망하였다. 《글쎄 이 애도 먹고싶을게 아닌가!》

《이건 상놈들이 먹는거여서.》 끼류하가 한숨을 지었다.

《상놈들이 먹는거라두 몸보신엔 좋거던. 먹고싶은 생각만 있다면야.》

예고루쉬까에게도 숟가락이 차례졌다. 그는 바로 남비곁에 선채로, 마치 무슨 구멍이나 들여다보듯 그안을 들여다보면서 퍼먹기 시작하였다. 어죽에서는 고기비린내가 나고 기장에는 고기비늘이 섞여있었다. 가재는 숟가락으로 건질수 없어서 손가락으로 건져냈다. 그중에서도 이런데서는 사양할줄 모르는 와샤가 손뿐아니라 소매까지 어죽속에 담그었다. 그러나 어죽은 예고루쉬까에게 퍽도 맛있게 생각되였고 집에서 어머니가 끓이군 하던 가재국을 생각나게 하였다. 빤젤레이는 한옆에 앉아서 빵을 씹었다.

《령감, 왜 안 자시우?》 에멜리얀이 물었다.

《난 가재는 안 먹어. … 가재는 말이야.》 늙은이는 대답하고나서 까다로운 표정을 짓고 외면하였다.

음식을 먹는 동안 모두 한가지 이야기만 하였다. 예고루쉬까는 그

들의 이야기에서 이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이 비록 나이와 성격은 다르지만 서로 통하는 그리고 이들을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것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아름다운 과거와 대단히 좋지 못한 현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것이였다. 때문에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환희에 찬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현재는 거의 경멸하였다. 로씨야사람들이란 과거를 추억하기 즐겨하며 현재를 멸시한다. 예고루쉬까는 아직 이것을 모르고있었다. 그는 어죽을 다 먹기 전에 이미 남비둘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들 운명의 곡절을 겪고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다. 빤쩰레이는 아직 철도가 놓이기 전에 짐수레들과 같이 모스크바의 니즈늬 등지에 자주 다녔고 그때에는 돈을 하도 많이 벌어 그것을 어디 쓸지 몰랐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때에는 장사군들도 얼마나 좋았던가. 물고기는 얼마나 맛있었던가? 또 모든것이 얼마나 눅었던가! 지금은 길이 짧아지고 장사군은 린색해졌으며 사람들은 가난해졌다. 빵은 비싸지고 모든것이 더할나위없이 작아지고 좁아졌다는것이다. 에멜리얀을 보아도 이전에 루간스끄공장에서 가수노릇을 하고 목소리도 아주 훌륭하였으며 악보도 무척 잘 보았지만 지금은 상놈이 되여 형의 신세를 지고 사는데 형은 이 동생에게 자기 말들을 맡겨놓고 동생이 돈을 절반이나 잘라먹는다고 한다는것이였다. 와샤는 그전에 성냥공장에서 일하였다. 끼류하는 귀족집의 마차군으로 일등가는 삼두마차군으로 사방에 소문을 냈다. 살림이 넉넉한 농사군의 아들인 듸모브는 부족한것이 없이 놀며 지내면서 세상의 슬픔이라는것을 몰랐다. 그러나 겨우 스물이 지나자 그의 엄하고 완고한 아버지는 그에게 무슨 일을 한가지 가르쳐줄셈으로 또 그가 집에서 엉석이나 부리고 사람구실을 못하게 될가봐 그를 알몸 하나밖에 없는 농사군이나 로동자와 다름없이 짐마차의 마부로 보냈다. 다만 쓰쩨쁘까만이 입을 다물고있었다. 그러나 그의 수염없는 얼굴로 보아 그도 이전에는 지금보다 잘살았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듸모브는 아버지생각을 하자 숟가락을 든채 얼굴을 찡그리였다. 그는 눈을 치뜨고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예고루쉬까를 보았다.

《이 이교도야, 모자를 벗어라!》 그는 무뚝뚝하게 말하였다. 《모자를 쓰고 음식을 먹다니? 그래도 도련님이냐?》

예고루쉬까는 모자를 벗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어죽의 맛도 모르게 되였다. 그는 빤쩰레이와 와샤가 자기 역성을 들어주는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듸모브에 대한 원한이 쌓였다. 소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에게 골탕을 먹이겠다고 마음먹었다.

식사가 끝난 뒤 모두 어슬렁어슬렁 마차들로 헤여져 가서 그늘에 누워 딩굴었다.

《할아버지, 인차 가나요?》 예고루쉬까는 빤쩰레이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가라시는 때에 가지. … 지금은 못 가, 뜨거워서. … 오 하느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너도 좀 누워라. 이 애야!》

마차들아래에서는 인차 코고는 소리가 들렸다. 예고루쉬까는 또다시 마을로 가보고싶었으나 다시 생각하고는 하품을 하고 늙은이곁에 누워버렸다.

6

짐마차대렬은 하루종일 강가에 머물러있다가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해서야 떠났다.

예고루쉬까는 또다시 짐짝우에 누웠다. 짐마차들은 나직이 삐걱소리를 내며 흔들리였고 그곁에서는 빤쩰레이가 걸어가며 발을 구르고 엉뎅이를 툭툭 치며 중얼거렸다. 공중에는 어제나 다름없이 초원의 음악이 차있었다.

예고루쉬까는 번듯이 나가누워 팔베개를 하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저녁노을이 타오르다가 꺼지는것을 보았다. 하느님의 수호천사들은 그 황금의 날개로 지평선을 덮으며 하루밤 묵어갈 곳을 정하는 모양이였다. 하루해가 무사히 지나가고 고요하고 행복이 가득찬 밤이 오니 천사들도 이제는 천상에 있는 자기 보금자리에 편히 들게 되였는지. … 예고루쉬까는 하늘이 차츰 어두워지고 저녁안개가 내리면서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것을 보았다.

오래동안 밤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노라니 어쩐지 생각도 넋도 고독속에 잠기는것만 같다. 소년은 자기자신을 어찌할수 없는 고독

한 존재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가깝고 정답게 생각되던 모든것들이 한없이 멀어지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진것으로 여겨졌다. 수천년동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있는 별들이며 그 스스로도 리해할수 없는 하늘과 안개며 사람의 짧은 일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런것들이 마주서서 보며 그것들의 의미를 알려고 애를 쓰면 그것들은 침묵으로 사람의 혼을 괴롭힌다. 무덤속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고있는 그 고독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러면 인생은 절망적으로 무섭게 느껴진다. …

예고루쉬까는 곧 벚나무밑에 있는 묘지에서 깊이 잠들고있는 할머니를 생각했다. 그는 할머니가 두눈우에 5꼬뻬이까짜리 동전을 올려놓고 관속에 누웠던 일과 관뚜껑을 덮고 광중에 내려놓던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흙덩이들이 관뚜껑에 떨어지던 그 궁근 소리도 상기되였다. …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의지가지없는 신세가 되여 좁고 어두운 관속에 들어있는 할머니를 생각하였다. 그는 할머니가 관속에서 갑자기 눈을 뜨고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관뚜껑을 치며 사람살리라고 고함을 칠 모습도 상상해보았다. 그는 또한 흐리스또포르신부를, 드라니쯔까야백작부인과 쏠로몬을 죽은 사람으로 상상했다. 그는 자기도 집을 멀리 떠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의지가지없는 죽은 사람이 되여 컴컴한 관속에 들어가있는것으로 애써 상상해보았으나 잘되지 않았다. 그는 자기만을 생각할 때 죽는다는것을 상상조차 할수 없었고 자기는 영원히 살것처럼 생각되였다. …

그런데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와온 빤쩰레이가 걸어가면서 자기 생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였다.

《훌륭해. … 좋은 나리들이지. …》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도련님을 공부하라구 보냈거던. 그런데 도련님이 거기서 어떻게 지나겠는지. 그 소식은 듣지 못하겠지. … 쓸라뱌노쎄르쁘쓰끄에는 큰 지혜를 배울 학교가 없다니까. … 없어. 그건 정말이야. … 그런데 도련님은 좋은 애거던. 그만하면 됐어. … 크면 아버지의 힘이 될게야. 예고르야, 너도 지금은 작지만 크면 부모를 모시게 될게다. 하느님이 그렇게 정해놓았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야지. … 내게두 자식들이 있었건만 다 타죽었어. … 녀편네도 아이들도 타

죽었다니까. … 이건 정말이야. 세례제날 밤중에 집에 불이 났거던. … 난 그때 집에 없었지. 오룔에 갔댔으니까, 오룔에… 마리야는 뛰여나왔지. 그러자 아이들이 집에 누워잔다는 생각이 나서 다시 집으로 달려들어가 아이들과 같이 타죽었어. … 그래… 그 이튿날 아침엔 그저 뼈들만 남았지.》

깊은 밤중에 마차군들과 예고루쉬까는 또다시 조그마한 우등불을 둘러싸고앉았다. 부리얀풀이 타는 동안 끼류하와 와샤는 골짜기쪽으로 물을 길러 갔다. 그들은 어둠속에 사라졌으나 그들이 물통을 들어올리는 소리며 말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골짜기가 그리 멀지 않았던것이다. 우등불의 불빛은 껌벅거리는 큰 얼룩이 되여 땅우에 가로비끼였다. 달이 비쳤으나 붉은 얼룩뒤로는 모든것이 내다볼수 없도록 컴컴하였다. 마차군은 불빛때문에 눈이 시여 큰길의 한쪽밖에 볼수 없었다. 어둠속에서는 짐짝들을 실은 륜곽이 똑똑치 않은 산모양을 한 짐마차들과 말들이 겨우 눈에 뜨일뿐이였다. 우등불에서 한 스무걸음쯤 떨어진 곳에 길과 들판이 갈리는 경계선에 한쪽으로 기우뚱한 십자가말뚝이 서있었다. 예고루쉬까는 아직 우등불이 잘 붙지 않아서 먼 곳을 내다볼수 있을 때에 이와 꼭같이 오래된 한쪽으로 기울어진 십자가가 큰길 맞은쪽에도 서있는것을 보았다.

끼류하와 와샤는 물통을 들고 돌아오더니 솥에 물을 가득 붓고 불우에 든든히 올려놓았다. 쓰쩨쁘까는 톱날같이 된 숟가락을 손에 들고 연기가 나는 솥곁에 자리를 잡고는 무슨 생각에 잠겨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끓기를 기다렸다. 빤쩰레이와 에멜리얀은 가지런히 앉아서 아무 말도 없이 무엇인지 생각하고있었다. 듸모브는 주먹으로 머리를 고이고 배를 깔고 누워서 불을 바라보았다. 쓰쩨쁘까의 그림자가 그의 몸우에서 얼른거려 그의 곱살한 얼굴은 어둠속에 잠겼다가 다시 불빛에 비치군 하였다. … 끼류하와 와샤는 우등불주위에 서성거리며 우등불을 지필 부리얀풀과 누릅나무를 주어모았다. 예고루쉬까는 손을 호주머니속에 넣고 빤쩰레이의 옆에 서서 불길이 풀을 널름널름 삼키는것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무엇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빨간 얼룩들이 얼른얼른 춤을 추는 십자가를 흘끔흘끔 바라보기도 하였다. 고독한 무덤에서는 그 어떤 서글픔이 꿈을 꾸는듯 한 그리고 고상한 시적인것

이 느껴졌다. 무덤에서 소리없는 소리가 들리고 침묵속에서 십자가밑에 놓인 알지 못할 사람의 혼이 존재한다는것이 느껴진다. 그에게는 초원에 이렇게 누워있는것이 좋았던가? 이 달밤이 쓸쓸하지 않았던가? 무덤옆으로 펼쳐진 초원은 서글프고 울적하고 시름에 싸인듯 하였고 풀은 더욱 슬픈듯 베짱이들마저 소리를 죽여 우는것 같았다. … 참으로 길손들치고 이 외로운 무덤을 위로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무덤이 뒤로 멀어져 안개에 가리워지기까지 그것을 돌아다보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

《할아버지, 십자가는 왜 세웠나요?》 예고루쉬까가 물었다.

빤쩰레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듸모브에게 물었다.

《미꼴라, 저게 아마 그 풀베기군들이 장사군을 죽인 자리가 아니던가?》

듸모브는 달갑지 않은듯이 팔굽을 고이고 몸을 반쯤 일으켜세우며 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하였다.

《바로 거기요. …》

다시 조용해졌다. 끼류하는 마른풀을 버석거리며 그것을 꿍져서는 솥밑으로 쓸어넣었다. 불은 더욱 세게 불어올라 쓰쩨쁘까는 시꺼먼 연기에 싸이고 침침한 어둠속에서 짐수레들옆으로 십자가의 그림자가 휙 지나갔다.

《그래 죽였어요. …》 듸모브는 슬며시 말하였다. 《장사군과 그의 아들이 성상을 팔러 왔거던요. 그들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지금은 이그나트 포민이 주인인 려인숙에 묵고있었지요. 늙은 장사군은 술을 좀 지나치게 마시고는 돈이 많다는 자랑을 했지요. 장사군들이란 다 제자랑하기 좋아하는 작자들이니까. 딱한 일이지. … 사람들앞에서 뽐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지요. 그때 려인숙에는 풀베기군들이 묵고있었거던요. 그자들은 그 장사군이 자랑하는 말을 듣고 그냥 보내지 않았지요.》

《오, 하느님. … 성모님!》 빤쩰레이는 한숨을 지었다.

《그 이튿날 날이 밝자》 듸모브가 말을 이었다. 《장사군들이 길을 떠나려는데 풀베기군들이 착 달라붙었지요. 〈나리님들, 같이 가십시다요. 그럼 재미도 있고 무섭지도 않을테니까요. 여기는 좀 외진 곳이 되여서…〉 하고 말했지요. 장사군들은 성상이 상하기

라도 할가봐 말을 천천히 몰았기때문에 풀베기군들에게는 더 좋았지요. …》
디모브는 무릎을 세우고 기지개를 켰다.
《그런데…》 그는 하품을 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구는 별일 없었지요. 그러나 장사군들이 바로 그 자리에 오게 되자 풀베기군들이 그들을 큰 낫으로 요정내려 들었지요. … 그 아들은 완력이 있는자여서 낫을 한자루 빼앗아 저도 역시 요정내려고 들었지요. … 글쎄 물론 그 풀베기군들이 이기기야 했지. 그자들은 여덟이나 됐으니까. 장사군들을 어떻게나 란도질을 해놨는지 그 몸뚱이들에 성한 곳이 한곳도 없었지요. 일을 다 끝낸 그자들은 아비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아들은 그 반대쪽으로 끌어냈지요. 이 십자가와 마주 저 건너쪽에 십자가가 또 하나 서있지요. … 제대로 서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제대로 있어.》 끼류하가 말하였다.
《돌아가는 말이 뒤에 정작 알고보니 글쎄 돈은 얼마 안됐더라구 하더군요.》
《얼마 안됐어.》 빤쩰레이가 확실하다는듯 그루를 박았다. 《한 100루블쯤 됐지.》
《그 풀베기군중에서도 나중에 세 녀석이 죽었어요. 장사군들이 역시 낫으로 난탕을 쳐놓았으니까. … 피가 지독히 나왔거던요. 장사군이 풀베기군의 팔을 몽땅 잘랐다더군요. 그래 그자는 팔없이 한 10리쯤 달아나 꾸리꼬브근방의 언덕에 온것을 사람들이 찾았대요. 그자는 마치 무슨 생각에 잠긴듯이 무릎우에 머리를 대고 쭈그리고앉아있더래요. 그래 들여다보니 죽었더래요.》
《피흘린 흔적을 따라서 찾았지. …》 빤쩰레이가 말하였다.
다들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또다시 조용해졌다. 그 어디선지 분명 골짜기에서 구성지게 우는 새소리가 《자거라! 자거라!》 하는것처럼 들려왔다.
《이 세상엔 악한 사람들이 많아.》 에멜리얀이 말하였다.
《많고말구!》 빤쩰레이가 맞장구를 치고는 마치 무서운 노래소리가 들리기라도 한듯 한 얼굴로 불가까이로 다가갔다. 《많지.》 그는 나직한 소리로 말을 이었다. 《난 한평생 그런자들을 수없이 봤어. …

악한 사람들 말이야. … 거룩하고 옳은 사람들도 많이 봤지만 글쎄 죄진자들은 이루 셀수없이 많지! 하늘에 계신 성모님, 그들을 건져주고 용서하옵소서. … 한 30년전일가. 아마 그보다 더 될게야. 한번은 내가 장사군 하나를 모르샨스끄에서 태우고 간 일이 있었지. 그 장사군은 사람이 좋고 잘나고 돈도 있는데… 그 장사군은… 좋은 사람이였지. 괜찮았어. … 우리는 길을 떠나 어느 려인숙에 들어 묵었지. 그런데 로씨야려인숙들은 이 고장것들과는 다르다네. 울안은 그 무슨 짐승우리 비슷하거나 잘사는 장원의 헛간처럼 지붕이 있거던. 하긴 헛간보다는 조금 높을게야. 우리가 그런데 묵지 않았겠나. 처음에는 별일없었지. 장사군은 방안에 있고 나는 말앞을 떠나지 않았지. 서로 좋을대로 했으니까. 잠자려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구는 조금 거닐려구 울안으로 나갔지. 밤은 캄캄하여 지척을 분간할수 없고 도대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지금처럼 말일세. 내가 얼마쯤 걸어 아마 저 짐수레들 있는데만큼이나 갔을가 했는데 보니까 난데없는 가느다란 불빛이 비치지 않겠나. 웬일일가? 주인집내외는 벌써 잠든지 오랠것이고 나와 장사군밖에는 그 려인숙에서 묵는 사람이 없었거던. 웬 불인가? 나는 의심이 잔뜩 들더군. … 그래 나는 가까이 갔지. … 불있는데로 말일세. 하느님,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성모님! 보니까 바로 땅바닥까지 박힌 살창문이 있지 않겠나. … 나는 땅에 엎디여 그안을 들여다보았지. 그런데 그만 온몸에 소름이 쭉 끼치지 않겠나. …》

끼류하는 부스럭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부리얀풀단을 우둥불에 밀어넣었다. 부리얀풀이 빠직빠직 하고 쉭쉭 타는 소리가 멎기를 기다려 늙은이는 하던 이야기를 이었다.

《그쪽을 들여다봤더니 거기는 이렇게 커다랗고 컴컴한 마대속같은 땅굴이 아니겠나. … 통우에 등불이 켜있더군. 땅굴 한가운데는 시뻘건 웃옷을 입은 사람들 한 여라문명이 소매들을 걷어붙이고 길다란 칼들을 갈지 않겠나. … 에키! 글쎄 우리가 도적패거리의 손에 들어왔단 말일세. 강도놈들한테… 이걸 어떻거겠나? 난 장사군한테 달려갔지. 그를 가만히 깨워놓고 말했네. ─ 〈여보 주인님, 놀라지 마시오만 야단났수다. … 우리가 강도놈들 소굴에 들어왔어요.〉 했더니 그는 낯빛이 금시 달라지며 묻더군. ─ 〈빤젤레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어미, 아비 없는 아이의 돈을 많이 가지고있거던. … 내 목숨은 하느님의 뜻에 달린것이니 죽는것은 무섭지 않네만 부모가 없는 아이의 돈을 잃어버리는게 무섭네. …〉 한단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대문은 잠겼으니 빠져나갈데도 없지. … 담장이라면 타고 넘을수도 있으련만 글쎄 이 울안은 지붕이 덮였거던. … 〈자 주인님, 너무 겁내지 말고 하느님께 기도나 올리시오. 아마 하느님은 고아들을 욕보이지 않으실겝니다. 여기 가만있으면서 아는체 하지 마십쇼. 내가 그동안 좋은 수를 궁리해낼테니까요. …〉 나는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네. 했더니 하느님은 내게 지혜를 내려주시지 않겠나. … 난 내 마차우에 올라가서 아무도 듣지 못하게 가만히 지붕에서 이영을 벗기고 구멍을 뚫고 그리로 해서 밖으로 기여나왔네, 밖으로 말이야. … 그리고는 지붕에서 뛰여내려 숨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달렸네. 어떻게나 달렸던지 꼭 숨이 끊어질것만 같데. 아마 단숨에 5리나 달렸을가. 아니, 그보다 더 될지도 몰라. … 고마운 일도 있지, 보니까 마을이 하나 있더군. 나는 첫 농가로 달려가 그 집 창문을 두드렸네. 〈정교신자들, 여사여사하니 그리스도의 혼을 멸망케 하지 말아주시오.〉 다들 깨워일으켰지. 농군들은 모두 나를 따라 려인숙으로 오는 판이네. … 어떤 사람은 바줄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를, 어떤 사람은 지레대를 들었지. … 우리는 려인숙대문을 박차고 곧 땅굴로 달려들었지. … 강도놈들은 벌써 칼들을 다 갈아놓고 장사군을 죽이려던 참이였어. 농군들은 그놈들을 죄다 붙들어서 꽁꽁 동여매여 관가로 끌고갔지. 장사군은 기쁜김에 농군들에게 3백루블을 내놓았고 내게는 금화를 다섯잎이나 주었네. 그리고 내 이름을 제 수첩에 적어넣더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뒤 땅굴속에서는 사람들의 해골이 수없이 나왔더라네. 해골이 말이야. … 놈들은 글쎄 사람들을 털어내고는 흔적을 없애느라고 묻어뒀댔지. 후에 그놈들은 모르샨스끄에서 형리들의 손에 처단됐지.》

빤쩰레이는 이야기를 끝내자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잠자코 마주 바라보았다. 물은 이미 끓어서 쓰쩨쁘까는 거품들을 걷어내였다.

《비게기름이 다 됐나?》 끼류하가 속삭이듯 물었다.

《예, 조금 기다려요. …》

쓰쩨쁘까는 빤쩰레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가 자기 없는데서 이

야기를 계속할가봐 짐마차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재빠르게 나무로 된 작은 통을 가지고 돌아와 돼지비게를 그안에 넣고 짓찧기 시작하였다.

《언젠가 또 장사군과 같이 갔지. …》 빤쩰레이는 여전히 나직한 소리로 눈도 껌벅이지 않고 이야기를 이었다. 《그 사람 이름이 지금도 생각나지만 뾰뜨르 그리고리위치였어. 좋은 사람이였지. … 장사군이였어. … 우리는 전과 다름없이 또 려인숙에 들었거던. … 그는 방안에 있고 나는 말곁에 있었지. … 주인은 남편도 녀편네도 다 좋고 인정있는 사람들인것 같더군. 그 집 하인들도 역시 나쁜 사람들같지 않더군. 하지만 어쩐지 나는 잠이 오지 않더란 말일세. 마음이 께름직했단 말이야! 그저 그랬지. 대문이 휑하니 열리고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글쎄 무서웠거던. 마음이 좋지 않더군. 모두들 잠이 든지 오래되여 밤은 깊었지. 좀 있으면 일어날 때가 되였는데두 나는 혼자 마차안에 누워 마치 올빼미같이 눈을 붙이지 못했지. 여보게들, 그런데 바로 내 귀에— 〈뚝, 뚝.〉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나? 누군지 마차쪽으로 몰래 오는게 분명했지. 머리를 쑥 내밀고 보니까 아, 녀편네 하나가 속옷바람에 맨발로 서있더란 말이야. … 나는 〈웬 녀자야? 왜 그래?〉 했지. 그랬더니 그 녀자가 사시나무 떨듯 하며 얼굴이 종이장같이 되더군. …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큰일났어요. … 이 집 주인내외가 흉악한 일을 생각했어요. 당신네 장사군을 요정내려구 한답니다. 제가 바깥주인이 안주인과 수군거리는걸 들었어요. …〉 하더란 말이야. 그러고보니 께름직하던게 다 까닭이 있었거던! 〈대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내가 물어봤지. 했더니 〈전 이 집 식모야요. …〉 하더군. … 나는 마차에서 기여나와 장사군한테 갔지. 그를 깨워가지고 〈뾰뜨르 그리고리위치, 여사여사합니다. 일이 흉하게 됐어요. … 나리님은 후에도 주무실수 있으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옷을 어서 입으시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갑시다. …〉 라구 했지. 그런데 바로 그가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문이 확 열리더니 〈안녕하시오.〉 하질 않겠나. … 보니까 아, 성모님… 바깥주인놈과 안주인년이 하인 셋을 데리고 들어서더군! 글쎄 하인들까지 충동질하여 끌어왔거던. … 장사군에게 돈이 많이 있으니 그걸 빼앗아 나누어가지자구 말이지. … 그들 다섯년놈들은 모두 손에 긴칼 한자루씩

을 들었더군. … 칼을 한자루씩 말이야. … 바깥주인이 문에 쇠를 잠그더니 하는 말이 〈지나가던 손님들, 하느님께 기도나 올리게. … 만약 소리를 지르면 죽기 전 기도도 드리지 못하게 될테니…〉 자, 그러니 어떻게 소린들 지르겠나? 우리는 너무도 무서워서 목구멍이 얼어붙을 지경이여서 소리가 나올리 없었지. … 장사군이 울며 말했지—〈정교신자분네들, 당신들은 내 돈을 보고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을게요.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요. 수많은 우리 장사군형제들이 려인숙에서 칼침을 맞고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보시오, 정교신자형제들, 무슨 까닭으로 내 마차군이야 죽이겠소? 내 돈때문에 그가 죽는거야 너무하지 않소?〉 그는 참 애처롭게 말하더군. 그랬더니 그 주인이란자가 〈만일 그를 살려둔다면 그가 먼저 우리를 고발할게 아닌가. 하나를 죽이거나 둘을 죽이거나 매한가지야. 이미 내친 걸음이니 생각한대로 해야지. … 하느님께 기도나 올려. 그것밖에 없다. 더 이야기할게 없단 말이다!〉 나는 장사군과 가지런히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렸네. 장사군은 자기 자식들을 생각했지만 나는 그때 아직 젊은지라 더 살고싶었네. … 나는 성상을 쳐다보며 기도를 올렸지. 그때 어떻게나 슬펐던지 지금도 눈물이 날 지경일세. … 그런데 그 안주인계집년이 우리를 보고있다가 하는 말이 〈당신네들은 착한 사람들이야. 저세상에 가서 우리를 악독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줘요.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를 죽여달라고 기도드리지 말라요. 우리도 가난해서 이런짓을 하니까.〉 하거던. 우리는 기도를 올리고 또 올리고 울고 또 울었지. 그랬더니 하느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거던. 글쎄 가엾이 여겨주셨단 말일세. … 주인놈이 장사군의 아래턱수염을 거머쥐고 칼로 목을 찌르려고 할 바로 그때 갑자기 그 누군가 창문을 툭툭 두드렸단 말일세! 우리들은 그대로 앉아있었지만 주인놈은 손을 내릴수밖에… 누군지 창문을 자꾸 두드리면서 소리쳤지—〈뾰뜨르 그리고리위치, 여기 있나? 어서 차비하게. 같이 가세!〉 주인년놈은 장사군을 데리러 사람들이 온것으로 알고 질겁해서 냅다 줄행랑을 놓았지. … 그러자 우리는 급히 울안으로 뛰여나와 마차에 말을 메우고는 말아 우리를 살려라 하고 내달렸다네. …》

《누가 창문을 두드렸소?》 듸모브가 물었다.

《창문? 그거야 응당 하느님의 하인이나 천사겠지. 그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 하느님이 하신 일이지.》

빤쩰레이는 계속하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의 이야기는 모두가 한결같이 길다란 칼이 한몫 보았고 또 꾸며낸 이야기라는것이 느껴졌다. 그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 어느 다른 사람들한테서 들었는지 혹은 자기스스로가 오래전에 지어냈는데 후에 그의 기억력이 약해져서 그가 직접 겪은것과 꾸며낸것이 혼동되여 분간할수 없게 되였는지도 모른다. 이것저것 다 있을수 있는 일이였지만 다만 한가지 이상한것은 지금 이렇게 길을 가는 동안 그는 꾸며내기를 더 좋아하고 한번도 직접 겪은 일은 말하지 않는다는 그것이였다. 예고루쉬까는 그가 말한 모든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다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후 한평생 온 로씨야를 못 가본데없이 다 돌아다니고 많은것을 보고 안해와 자식들이 불에 타죽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 자기의 생활을 하찮게 여기고 우등불가에 앉았을 때나 다른 때나 늘 입을 다물고있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는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였다.

어죽을 먹는 동안 모두들 입을 다물고 방금 들은 이야기들을 생각하였다. 인생이란 무섭고 기이한것이다. 그러므로 로씨야에서는 아무리 무서운 이야기를 해도 또 그것을 불한당들의 소굴, 긴칼, 기적 같은것들로 아무리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 다만 학식이 있는 사람만이 미덥지 않다는듯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침묵을 지킬뿐이다. 길가의 십자가, 거뭇한 짐짝, 망망한 초원과 우등불가에 모인 사람들의 운명, 이것들자체가 그 얼마나 기이하고 무서운것이였던지 그만 지어낸 사건이나 허황한 이야기는 환상성을 잃고 생활과 합쳐져버리고말았다.

모두 솥에서 어죽을 그대로 퍼먹었는데 빤쩰레이만은 한옆에 혼자 떨어져앉아서 나무통에 퍼담아들고 먹었다. 그의 숟가락은 다른 사람들의 숟가락과는 달라서 이깔나무로 만든것으로 조그만 십자가가 달려있었다. 예고루쉬까는 그를 바라보면서 등잔고뿌가 머리에 떠올라 쓰쩨쁘까에게 나직이 물어보았다.

《저 할아버지는 왜 혼자 앉아있나요?》

《그는 구교도야.》 쓰쩨쁘까와 와샤가 동시에 대답하였다. 그러면

서 그들은 마치 남의 약점이나 혹은 숨은 결함을 말하는듯 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들 말이 없이 생각에 잠기였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난 뒤라 늘 있는 일들을 두고 이야기하고싶지는 않았다. 갑자기 조용한 속에서 와샤가 몸을 펴며 일어났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어느 한곳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였다.

《왜 그래?》 듸모브가 물었다.

《웬 사람이 가고있어.》 와샤가 대답하였다.

《어디 있다구 그래?》

《저기 있지 않나! 희끄무레한게.》

와샤가 바라보는 곳에는 어둠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들 귀를 기울이였으나 발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큰길로 가구있나?》 듸모브가 물었다.

《아니, 들판으루… 여기루 오네.》

잠시 침묵이 깃들었다.

《혹시 땅에 묻힌 장사군이 저기 초원에서 어정거리는게 아닌가.》 듸모브가 침묵을 깨뜨렸다.

모두 십자가쪽을 곁눈질하였다. 그러다가 서로 쳐다보고 갑자기 웃어댔다. 자기들이 겁을 먹었던것이 부끄러웠던것이다.

《그 장사군이 왜 나와 서성거리겠나?》 빤쩰레이가 말하였다. 《밤에 무덤에서 나와다니는것들은 땅에서 받아들이지 않는것들이라니. 장사군들이야 일없지. … 그 장사군들은 영예롭게도 순교자가 되였으니까. …》

바로 그때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그 누군가가 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뭔가 가지고오네.》 와샤가 말하였다.

다가오는 사람의 발밑에서 풀들이 바삭거리는 소리며 부리얀풀의 버석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등불빛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드디여 발소리가 곁에서 나더니 누군가 기침소리를 냈다. 너울거리던 불빛이 한옆으로 물러나며 눈에 장막이 덮이는듯 하더니 마부들의 눈앞에는 갑자기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불길이 너울거린때문인지 아니면 우선 나타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싫어한때문이였는지. 마부들은 다들 첫눈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옷이 보인것이 아니라 그의 웃음이였다는것은 이상한 일이였다. 그것은 잠을 깬 어린애들한테서나 볼수 있는 그렇게 유난히 착하고 부드러운 웃음이였다. 그 웃음은 반드시 그렇게 빙긋 웃어야 할 웃음으로 남들에게도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바로 그런 웃음이였다.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이 낯선 사람은 한 서른살쯤 되여보이고 얼굴은 잘생기지 못한데다가 별로 이렇다할 특징이 없는 사람이였다. 그는 코와 팔, 다리가 길고 키가 후리후리한 우크라이나사람이였다. 그는 모든것이 다 길어보이였으나 오직 목만은 밭아서 꼽추처럼 보였다. 그는 옷깃에 수를 놓은 웃옷과 흰 바지를 입고 새 장화를 신고있어 마부들에 비하면 퍽 사치스럽게 보였다. 그의 손에는 첫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크고 흰것이 들려있었고 어깨너머에는 긴총의 총구멍이 보였다.

캄캄한 어둠속에서 밝은 불빛앞에 나선 그는 못박힌듯이 서서 한 30초동안 마치도 (좀 보시오. 내 빙그레 웃는 웃음이 어떤가!) 하고 말이라도 하려는듯 마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우등불쪽으로 다가오며 좀더 밝은 웃음을 짓고 말하였다.

《여러분, 편안들 하시오!》

《잘 오셨소!》 빤젤레이가 모두를 대신하여 대답하였다.

낯선 사람은 손에 들었던것을 우등불가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총에 맞은 너새였다. 그는 다시한번 인사를 하였다.

다들 너새를 둘러싸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멋진 샌걸! 뭘으로 쐈소?》 듸모브가 물었다.

《굵은 산탄으로요. … 작은 산탄으론 안돼요. 가닿질 못하지요. … 여러분, 이걸 사시오! 당신들한테는 20꼬뻬이까에 드리지요.》

《이건 우리한테 소용이 없어. 저놈은 구워야지 끓이면 아마 질길걸. 먹지 못해. …》

《제길, 이건 장원에 있는 량반들한테나 가져가오. 그들은 한 50꼬뻬이까는 줄게야. 그런데 좀 멀다오. 15로리는 되니까요!》

낯선 사람은 주저앉더니 총을 벗어 제옆에 놓았다.

그는 졸음이 오고 지친듯 하였으나 빙그레 웃으며 불빛에 눈을 쪼프리였다. 보기에 그는 즐거운 일을 생각하는것 같았다. 사람들이 그

에게 숟가락을 주자 그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당신은 누구요?》 듸모브가 물었다.

낯선 사람은 묻는 말을 듣지 못한것 같았다. 그는 대답을 하지 않고 또 듸모브도 쳐다보지 않았다. 웃기 잘하는 이 사람은 어죽맛을 모르는 모양이였다. 그것은 그가 어떤 때는 어죽이 가득 담긴 숟갈을, 어떤 때는 빈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며 기계적으로 느릿느릿 입을 놀리는것을 보아 알수 있었다. 그는 술에 취한것도 아니였으나 머리가 멍한 모양이였다.

《당신한테 묻는거요. 당신은 누구요?》 듸모브가 되뇌이였다.

《나 말이요?》 낯선 사람은 깜짝 놀랐다. 《끈스딴찐 즈브니끄요. 로브늬에서 오우. 예서 한 4로리가량 되지.》

그는 처음에는 자기가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상놈이 아니라 그들보다 잘났다는것을 보이려는지 얼른 이런 말을 덧붙이였다.

《우리 집에선 벌도 치고 돼지도 먹이우.》

《장가는 들었소? 아니면 총각이요?》

《장가는 들었소. 지금은 따루 살지요. 세간을 났으니까. 이달 뾰뜨르제일이 지나 장가를 들었지요. 지금은 안해가 있소. 오늘까지 계산하면 결혼신고를 한지 열여드레째 되오.》

《좋은 일이야!》 빤젤레이가 말하였다. 《녀편네란 좋은게지. … 그건 하느님이 축복해주신거야. …》

《젊은 안해는 혼자 빈방에서 자는데 글쎄 이 사람은 초원으루 빙빙 돌아다닌다?》 끼류하는 웃었다. 《괴상한걸!》

끈스딴찐은 마치 가장 아픈 곳을 찔리운듯 몸을 흠칠하며 하하 웃고는 얼굴이 빨개졌다.

《안해가 집에 없으니까요.》 그는 얼른 입에서 숟가락을 빼더니 기쁘고 놀라운듯이 주위를 빙 둘러보며 말하였다. 《없어요! 이틀동안 제 어머니한테 다녀오려고 갔답니다! 정말 그가 가고 없으니 난 이렇게 안해가 없는 놈같이 됐지요. …》

끈스딴찐은 한손을 내젓고나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계속 자기 생각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양이였으나 그의 얼굴에 떠오르는 웃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양이였다. 그는 마치 앉아있는것이 불편한듯 자세를 바꾸며 다시 웃음을 터뜨리고 한손을 내저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앞에서 자기의 즐거운 마음을 드러내는것이 부끄러웠으나 또 그와 동시에 자기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싶어 견딜수 없는 모양이였다. 《데미도보에 있는 저희 어머니한테루 갔지요!》 그는 낯을 붉히고 총을 딴 자리로 옮겨놓으며 말하였다. 《래일은 돌아올거야요. … 점심때까지는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래 쓸쓸한가요?》 듸모브가 물었다.

《그럼요. 글쎄 그러지 않구 어떻게? 바로 엊그제 장가를 들었는데. 그가 가버렸으니… 예? 허, 안해는 왈패가 되여서. 그래두 그가 얼마나 마음이 좋고 귀여운지. 웃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지요. 촉기가 얼마나 빠른지 영낙없이 화약이거던요! 그가 옆에 있으면 머리가 핑글핑글 돌지만 글쎄 그가 없으면 마치 무엇을 잃어버린것 같아서 이렇게 바보처럼 초원을 빙빙 돌지요. 점심때서부터 나와다니는데 막 죽고싶도록 쓸쓸해요.》

꼰스딴찐은 눈을 비비고 불을 들여다보며 또다시 웃음을 터뜨리였다.

《사랑한단 말이지. …》 빤쩰레이가 말하였다.

《얼마나 마음이 좋고 귀여운지.》 꼰스딴찐은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제 말만 되뇌이였다. 《무척 령리하고 상냥하지요. 온 마을치고 막사람들속에서는 이런 안해를 찾지 못할거요. 그런데 가버렸거던. … 글쎄 그도 쓸쓸해할거요. 난 아오, 안다니까. 그 알뜰한것이! 그는 래일 점심때까지는 돌아온다고 했어요. … 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야요!》 꼰스딴찐은 갑자기 목청을 돋구면서 자세를 달리하고 거의 웨치다싶이 부르짖었다. 《지금은 나를 사랑하구 그리워하지만 글쎄 처음엔 나한테 시집오려구 하지 않았지요.》

《자, 어서 드오!》 끼류하가 어죽을 권하였다.

《나한테 시집오구싶어하지 않았지!》 꼰스딴찐은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말하였다. 《3년동안이나 그때문에 속을 태웠지요. 처음에는 깔라치에서 그를 보고 홀딱 반했지요. 교수대에 오르라면 오르기까지 할 정도로 그를 좋아했거던요. … 나는 로브늬에 있구 그는 데미도보에 있었지요. 그러니 25로리나 떨어져있어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더군요. 그한테 매파를 보내보았더니 그가 〈난 싫어.〉라구 했지요! 그 알뜰한것이 말이요! 나는 이럭저럭 어떻게 해서 귀걸이와

쁘랴니크꿀도 한 반뿌드 가져다주었지만 그래도 그는 날 싫다는게 아니겠소. 정말 야단났더군. 솔직히 따져보면 내가 그에게 무슨 짝이 되겠소? 그는 젊고 예쁜데다가 화약같이 촉기가 빠르지만 나는 벌써 서른살이 돼오고 그리고 또 요모양으로 생겼겠다, 대못같은 수염이 수북하겠다, 얼굴은 온통 울퉁불퉁하니 내가 어떻게 그와 비교가 되겠소! 그저 한가지 살림만은 유족했지요. 그런데 저쪽 와흐라멘까네도 잘살았지요. 황소가 여섯마리에 머슴을 둘씩이나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글쎄 난 반해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였지요.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머리속엔 부질없는 생각들이 들어차고 그놈의 질색할 현기증이 떠나지 않더군요. 그를 만나보고싶었으나 그가 있는데는 데미도보이니. … 그래 당신들은 내가 어떻게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요. 난 한주일에 세번씩이나 터벅터벅 걸어서 그를 보러가군 했지요. 일같은건 다 집어치웠지요! 나중에는 그와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어보려고 데미도보에서 어디 머슴이라도 살 생각까지 먹게 되도록 머리가 멩해졌지요. 참 괴로웠지요! 어머니는 점쟁이를 불러오지 아버지는 하루에 열번도 더 나를 때리려들지. 그래 3년동안을 속을 태우며 지내고는 이렇게 결심했지요. 제길, 망할것 같으니. 난 시내로 가서 마부나 돼야지. 그런데 글쎄 그런 팔자두 못 타구 났지요! 난 부활제주일에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보려고 데미도보로 갔지요. …》

끈스딴찐은 머리를 뒤로 제끼고 마치 금방 그 누구를 능청스럽게 속여넘겼다는듯이 즐겁게 웃어댔다.

《보니까 그가 젊은축들과 같이 개울가에 있더군요.》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부아가 치밀어서… 그를 딴데로 불러내다가 한시간동안이나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했지요. 그랬더니 그가 나를 좋다는게 아니겠소. 3년동안이나 허락을 안하더니 그때에야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 무슨 말을 했기에?》 듸모브가 물었다.

《무슨 말? 글쎄 생각은 안나우. 생각이 날게 뭐요. 난 그때 통에서 물이 쏟아져나오듯 단숨에 좔좔 말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한마디도 그때 말이 나오지 않소. … 그래 그가 나한테로 왔지요. … 고 알뜰한것이 지금은 제 어머니한테 가구 없지요. 그래서 난 혼자 초원으

로 빙빙 돌아다니고있는거라오. 집에 가만히 앉아있을수가 없으니까. 난 그렇게 배겨낼수가 없어요!》

끈스딴찐은 자기가 깔았던 다리를 빼여 땅우에 쭉 펴더니 주먹으로 머리를 고이였다. 그러다가 몸을 일으켜 또다시 주저앉았다. 사람들은 이제야 이 사람이 안해에게 홀딱 반한,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였다. 빙그레 웃는 그의 얼굴과 눈 그리고 그의 일거일동이 가슴이 미여질 지경인 그의 행복을 나타냈다. 그는 안절부절하며 머리속에 넘쳐나는 즐거운 생각때문에 지치지 않으려면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낯선 사람들앞에서 자기의 마음속을 다 털어놓고난 그는 드디여 입을 다물고 불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엔지 골몰했다.

행복에 겨운 사람을 앞에서 보고난 사람들은 모두 마음들이 쓸쓸해졌다. 자기들도 그렇게 행복하였으면 얼마나 좋으랴!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듸모브는 일어나더니 우등불옆에서 서성거렸다. 그의 걸음걸이나 그의 어깨뼈가 노는것으로 보아 그 역시 분명 마음이 괴로워 쓸쓸해하는것 같았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끈스딴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만 또 주저앉았다.

우등불은 꺼져갔다. 불빛은 이미 번쩍거리지 않고 그 빨간 얼굴은 좁아지고 희미해졌다.… 불이 빨리 타면 탈수록 달밤은 더욱 환해졌다. 이제는 길이 온통 환하게 드러나고 짐들과 멍에, 새김질을 하는 말들도 다 볼수 있었다. 길건너쪽에 있는 십자가의 희미한 륜곽도 드러났다.

듸모브는 한손으로 턱을 고이고 조용히 그 무슨 구슬픈 노래를 불렀다. 끈스딴찐은 잠이 가득 실린 눈에 웃음을 짓고 낮은 소리로 그의 노래를 따라불렀다. 그들은 한 30초동안 노래를 부르다가 그만 입을 다물었다. 에멜리얀은 몸을 부르르 떨고는 팔꿈치를 움직이고 손가락을 흔들었다.

《여보게들!》 그는 기도하듯 말하였다. 《무슨 거룩한 노래나 하나 부르세나.》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였다.

《여보게들!》 그는 손으로 가슴을 꽉 누르며 되뇌였다. 《무슨 거룩한 노래를 하나 부르세나!》

《난 모르는데요.》 꼰스딴찐이 말하였다.

다들 노래를 마다하였다. 에멜리얀은 저 혼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두손을 내젓고 고개를 흔들면서 입을 크게 벌렸으나 그의 목에서는 다만 목이 갈린듯 한 소리만 튀여나왔다. 그는 손과 머리, 눈 그리고 지어는 혹으로까지 정열을 다하여 괴롭게 노래불렀다. 그가 다문 한가락이라도 더 크게 뽑아보려고 가슴에 힘을 주어 조일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욱 죽어들어갔다.

예고루쉬까도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쓸쓸해졌다. 그는 제 짐마차로 가서 짐짝우로 올라가 누웠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행복한 꼰스딴찐과 그의 안해를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왜 장가를 들가? 이 세상에 녀자들은 왜 있을가? 예고루쉬까는 자신도 잘 알수 없는 문제들을 내세우고 분명 남자들은 자기옆에 정답고 명랑하고 아릿다운 녀자들이 언제나 있어주어야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였다. 웬일인지 그의 머리속에는 드라니쯔까야백작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얼핏 그런 녀자와 같이 산다면 분명 즐거울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아마도 그것이 그리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그 녀자와 즐겨 결혼하였을것이다. 그는 그 녀자의 눈섭을, 눈동자를, 반휘장마차를 그리고 그 남자의 인형이 달린 시계를 회상하였다. …

고요하고 따사로운 밤이 그의 귀에 무엇인가 조용히 속삭이였는데 예고루쉬까는 그것이 다름아닌 그 아름다운 녀인이 자기에게 몸을 굽히고 방긋 웃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는것 같이만 생각되였다. …

우등불에는 계속 작아만지는 자그마한 빨간 눈알 같은것들만이 남았다. 마부들과 꼰스딴찐은 그옆에 컴컴하고 움직일줄 모르는 모습으로 앉아있어서 조금전보다 더 커진것 같았다. 십자가들은 똑같이 보이였다. 먼곳의 큰길가에서 빨간 불빛이 보였다. 아마도 누가 또 죽을 끓이는 모양이였다.

《우리 어머니로씨야는 온 누리의 머— 어— 리》 갑자기 끼류하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꺼냈다가 목이 메여 뚝 그치고말았다. 초원의 메아리가 그의 목소리를 날라갔다. 그것은 마치도 어리석음자체가 육중한 수레를 타고 초원으로 굴러가는것만 같았다.

《갈 때가 됐어!》 빤쩰레이가 말하였다. 《다들 일어나.》

마차들에 말을 메우는 동안 꼰스딴찐은 마차옆에서 서성거리며 안

해를 계속 칭찬하였다.

《다들 잘 가시오!》 마차들이 움직이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접을 잘 받아서 고마워요! 난 또 저쪽 불로 가겠어요. 혼자서는 견딜수 없으니까요!》

그러자 그는 곧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행복을 알리려고 불빛이 비치는 곳을 향하고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소리는 오래동안 멎지 않고 들려왔다.

그 이튿날 예고루쉬까가 잠을 깨니 이른아침이였다. 해는 아직 뜨지 않았다. 짐마차들은 멎었다. 흰 모자를 쓰고 값싼 제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어린 까자크수말우에 앉은채로 맨앞에 있는 짐마차옆에서 듸모브와 끼류하와 더불어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맨앞의 짐마차에 한 2로리쯤앞에 길다랗고 그리 높지 않은 창고들과 흰 집들이 보이였다. 그 집들옆에는 울타리나 나무도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건 무슨 마을이나요?》 예고루쉬까가 물었다.

《저건 아르메니야사람들네 마을이란다.》 빤쩰레이가 대답하였다. 《저기는 아르메니야사람들이 살지. 좋은 사람들이야. … 아르메니야사람들이 말이야.》

재빛옷을 입은 사람은 듸모브와 끼류하와 하던 이야기를 끝내고 제 말을 뒤로 물리고 마을을 바라보았다.

《별일두 다 있지!》 마을을 바라보며 새벽의 찬대기에 몸을 움츠린 빤쩰레이가 한숨을 지었다. 《그가 무슨 문서를 가져오라고 마을로 사람을 보냈는데 아직 오지 않거던. … 스쩨쁘까라도 보냈으면 좋을걸!》

《할아버지, 저 사람은 누구나요?》 예고루쉬까가 물었다.

《와를라모브다.》

아! 예고루쉬까는 벌떡 일어나 흰 모자를 바라보았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있을 이런 시각도 그리 좋지도 못한 둔한 말에 올라앉아 상놈들과 이야기하는 이 사람, 커다란 장화에 회색옷을 입은 키가 작은 이 사람, 세상사람들이 다 찾아다니고 언제나 빙빙 돌아다니며 돈은 드라니쯔까야백작부인보다도 더 많이 가진 신비롭고 보기 힘든 와를라모브를 만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뭐, 좋은 사람이지. …》 빤젤레이는 마을쪽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참말이지 좋은 량반이야. … 와를라모브 쎄묜 알렉싼드리츠 말이야. … 글쎄 저런 사람들이 있기에 이 땅덩이가 부지되여가는거란다. 이건 정말이야. … 닭이 아직 울기도 전인데 저 사람은 벌써 일어나 다니지 않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쿨쿨 자기나 하든가 집안에서 손님들과 시시껄렁한 수작질이나 하고있으련만 저 사람은 온종일 초원으로 돌아다니거던. … 한바퀴 돈단 말이야. 일을 얼마나 부지런히 하는가 봐라. 여간한 젊은내기도 따라가기 힘들어. …》

와를라모브는 마을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였다. 그 어린 수말은 조바심을 하며 발들을 갈아짚으며 힘을 주었다.

《쎄묜 알렉싼드리츠.》 빤젤레이는 모자를 벗고 웨쳤다. 《스쩨쁘까를 보내라요! 에멜리얀, 스쩨쁘까를 보내도록 소리를 치라구!》

그제서야 마을에서 말탄 사람이 나타났다. 몸을 한옆으로 잔뜩 기울이고 채찍을 머리우에서 높이 휘두르며 마치 말타기재주나 부리듯 그리고 자기의 대담한 말타기로 사람들을 한번 놀래워주려고나 하듯이 그는 짐마차들쪽으로 새처럼 나는듯이 달려왔다.

《저건 필시 저 사람의 기마수일게야.》 빤젤레이가 말하였다. 《저이에겐 저런 기마수들이 달려있거던. 아마 한 백명, 그보다도 더 많을거야.》

앞에 있는 짐마차와 나란히 하게 되자 말탄 사람은 멈추더니 모자를 벗고 무슨 장부 같은것을 와를라모브에게 내주었다. 와를라모브는 그 장부에서 종이를 몇장 꺼내여 읽고나서 소리를 질렀다.

《이완츄끄의 글쪽지는 어디 있나?》 말탄 사람은 장부를 다시 받아들고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였다. 분명 변명을 하며 다시 마을에 갔다오게 해달라고 청하는 모양이였다. 와를라모브가 탄 수말이 마치도 와를라모브가 더 무서워지기라도 한듯 갑자기 움직이였다.

《저리 가!》 와를라모브는 화가 나서 웨치고 말탄 사람을 향하여 채찍을 휘둘렀다.

그는 말을 돌려세우고 장부속의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을 평보로 걷게 하여 짐마차들쪽으로 다가왔다. 그가 맨뒤에 있는 짐마

차에 오자 예고루쉬까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더 똑똑히 보려고 하였다. 와를라모브는 늙은 사람이였다. 짧은 흰수염이 난 그의 얼굴, 소박한 로씨야사람의 별에 탄 얼굴은 벌겋고 이슬에 젖어있었는데 푸른 피줄들이 두드러져있었다. 그의 얼굴도 역시 이완 이와늬치의 얼굴처럼 사무적인 랭담성과 그와 꼭같은 사무적인 환상이 깃들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이완 이와늬치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큰아버지의 얼굴에는 사무적인 랭담성과 함께 늘 와를라모브를 만나지 못하거나 늦어질가봐, 좋은 시세를 놓칠가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빛이 어리여있었다. 재산이 적고 남에게 매여사는 사람들에게 흔히 볼수 있는 그런것이 와를라모브의 얼굴이나 거동에 전혀 없었다. 그는 자기가 값을 정했고 누구를 찾는 법도 없었으며 누구에게 매여있지도 않았다. 아무리 그의 외모가 평범하다고 해도 그의 모든 행동 지어는 채찍을 쥐는 법에서도 초원에 대한 익숙한 권력과 힘이 느껴졌다.

그는 예고루쉬까의 옆을 지나가면서도 쳐다보지 않았다. 크고 어리석은듯 한 눈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듯이 보았다. 빤젤레이가 와를라모브에게 인사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느꼈는지 눈을 서류에서 떼지 않은채 혀아래소리로 인사를 받았다.

《잘있었소, 령감!》

와를라모브가 말탄 사람에게 하던 욕설이며 채찍을 휘두르던 이 모든것이 짐마차들에 압도적인 인상을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정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노여움을 사서 그만 기가 꺾인 말탄 사람은 모자도 쓰지 않고 말고삐를 늘어뜨린채 앞에 있는 짐마차 옆에 묵묵히 서있었다. 마치도 그는 오늘 일이 이처럼 재수없이 시작된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였다.

《그렇게두 성미가 급하다구야…》 빤젤레이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성미도 너무 급하니! 하지만 뭐 좋은이야. … 까닭없이 욕은 하지 않으니까… 일없어. …》

서류를 다 보고난 와를라모브는 장부를 주머니속에 쓸어넣었다. 수말은 마치도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기나 한듯 주인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몸을 부르르 떨고는 큰길로 달려갔다.

7

마부들은 다음날 밤도 쉬면서 죽을 쑤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모든것에서 그 어떤 막연한 쓸쓸함이 느껴졌다. 날씨는 무더웠다. 모두 물을 자주 마시였으나 그래도 갈증은 덜어지지 않았다. 뻘겋고 푸르끼레한데다가 마치 환자같이 보이는 달이 떠올랐다. 별들도 역시 푸르끼레하고 안개는 더 짙어지고 먼곳도 더 흐리여있었다. 삼라만상이 마치도 그 무엇을 예감하고 괴로와하는듯 하였다.

우등불가에는 이미 어제날의 흥성거림과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다. 모두 쓸쓸해하며 맥없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빤젤레이는 그저 한숨을 쉬면서 발이 아프다고 하소하였고 그리고 다시 그 죽음의 이야기를 꺼내놓군 하였다.

듸모브는 배를 깔고 누워서 잠자코 지푸래기만 씹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도 지푸래기에서 무슨 언짢은 냄새라도 나는듯 역스럽고 화가 나고 지친듯 한 기색이 떠돌았다. … 와샤는 턱이 아프다고 하면서 날씨가 궂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에멜리얀은 손을 내젓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시무룩하여 불을 바라보았다. 예고루쉬까도 지쳤다. 평보로 가는 마차를 타고가는것이 그를 지치게 하였고 낮동안의 그 뜨거운 해볕으로 머리가 아팠다.

죽을 다 끓이자 듸모브는 마음이 우울한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려들었다.

《어이 혹부리, 잔뜩 바투 앉아서 맨먼저 숟가락을 들고 기여들거던!》 그는 화를 내며 에멜리얀에게 말하였다. 《욕심만 잔뜩 들어차서! 솥옆에 맨먼저 자리를 잡으려구 노리거던, 노래나 좀 했다구 자기를 량반으루 생각하는 모양이지! 너 같은 그따위 소리군들은 큰길에서 수두룩이 동냥질해!》

《너 왜 시끄럽게 야단이야!》 에멜리얀도 화를 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글쎄 그렇게 솥가까이 덤벼들지 말란 말이야. 너무 저 잘났다구 하지 말아.》

《바보같으니, 더 말할나위두 없지.》 에멜리얀은 목쉰소리를

내였다.

이런 이야기끝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이미 지내보아서 잘 아는 빤쩰레이와 와샤는 듸모브에게 공연히 남을 욕하지 말라고 타이르려고 들었다.

《흥, 노래나 불렀다구…》 듸모브는 업신여기는듯 비웃으며 숙어들지 않았다. 《그렇게도 못 부를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당문앞에나 앉아서 〈한잎 적선합쇼!〉 하고 부를게지, 이 상놈아!》

에멜리얀이 입을 다물고있자 듸모브는 신경질을 냈다. 그는 지난날의 소리군을 더욱더 밉살스럽게 바라보며 말하였다.

《내가 지금은 싸우고싶지 않아 그러지 그렇잖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련만!》

《넌 왜 나한테 시끄럽게 구는거냐? 이 마제빠(배반자)같은 놈아.》 에멜리얀이 발칵 성을 냈다.

《내가 널 건드리기라도 하더냐?》

《너 뭐라구?》 듸모브는 몸을 펴며 이렇게 물었다. 그의 눈은 충혈이 되였다. 《뭐라구? 내가 마제빠야? 이놈, 혼 좀 나보겠니? 그 숟가락은 저기서 찾아라!》

듸모브는 에멜리얀의 손에서 숟가락을 잡아채여 한옆으로 멀리 내던졌다. 끼류하와 와샤 그리고 스쩨쁘까가 벌떡 일어나 그것을 찾으려고 뛰여갔다. 에멜리얀은 무엇을 빌기라도 하고 묻기라도 하는듯 빤쩰레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얼굴이 작아지더니 찌프려졌다. 눈을 껌벅거리던 지난날의 소리군은 아이들처럼 엉엉 소리를 내여 울기 시작하였다.

듸모브를 오래전부터 미워해오던 예고루쉬까는 갑자기 견딜수 없도록 숨이 가빠졌다. 그는 우등불의 불이 자기 얼굴을 뜨겁게 달구는것 같았다. 그는 어서 캄캄한 어둠속에 서있는 짐마차로 달려가고싶었으나 듸모브의 사납고 음울한 눈길이 그를 자기한테로 끌어당겼다. 예고루쉬까는 듸모브에게 그 어떤 모진 모욕을 주고싶은 생각이 타는듯 간절해졌다. 그는 듸모브에게 다가가 숨을 헐떡거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제일 나빠요! 난 당신이 싫어 못 견디겠어요!》

그는 인차 짐수레들쪽으로 달아나야 할것이였으나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 말을 이었다.

《저세상에 가면 당신은 지옥불에 타죽을거야요! 난 이완 이와늬치에게 일러바칠테야요! 에멜리얀을 욕하지 말아요!》

《그래 또 어서 더 말해봐라!》 듸모브가 웃었다. 《돼지새끼들은 모두 아직 대가리에 피도 마르지 않을 때부터 이래라저래라 야단이거던. 너 귀쪽이라도 떨어지고싶으냐?》

예고루쉬까는 숨이 딱 멎는것 같았다.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적이 없었지만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고 발을 구르며 새된 소리로 부르짖었다.

《저놈을 때리라요! 저놈을 때려요!》

그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그만 부끄러워졌다. 그는 비칠거리며 짐마차쪽으로 뛰여갔다. 그는 자기의 웨침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 알지 못하였다. 그는 짐짝우에 누워 쿨적쿨적 울면서 팔과 다리까지 부들부들 떨며 속삭였다.

《엄마! 엄마!》

우등불둘레에 있는 사람들의 그림자, 컴컴한 짐짝들 그리고 멀리서 계속 번쩍거리는 번개— 이 모든것들이 지금 그에게는 사람을 꺼리는것처럼 그리고 무서운것으로 생각되였다. 그는 겁이 났다. 그는 절망속에서 왜 자기가 이런 낯선 땅, 무서운 천한 사람들속에 들어오게 되였는가고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지금 큰아버지와 흐리스또포르신부 그리고 데니스까가 어디 있을가? 그들은 왜 이렇게 오래동안 오지 않는지, 그들이 자기를 잊어버리지나 않았는지? 그는 자기가 이제는 아주 잊혀지고말아 운명에 맡겨 되는대로 되라고 버림을 받은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선뜩해지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져 그만 짐마차에서 뛰여내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도망치고싶은 충격을 몇번이나 받았다. 하지만 그 길에서 만나게 될 그 컴컴하고 음울한 십자가들과 멀리서 번쩍거리는 번개불이 그를 주저앉게 하였다. … 그는 그저 《엄마! 엄마!》 하고 속삭일 때만 조금 마음이 놓이는것 같았다. …

마차군들도 무서움을 느꼈던지 예고루쉬까가 우등불곁에서 달아난 뒤로 처음 그렇게 오래동안 침묵을 지켰다. 한참후에야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무엇을 념두에 두었는지 이제 그것이 오니 어서 차비를

하고 피하여 달아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저녁을 먹고 불을 끈 다음 묵묵히 마차들에 말을 메우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부산을 피우며 한마디씩 주고받는 말들을 미루어보건대 그 어떤 불길한 것이 다가온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길을 떠나기 전에 듸모브가 빤쩰레이에게 다가가 나직이 물었다.

《저 애 이름이 뭐요?》

《예고리야…》 빤쩰레이가 대답하였다.

듸모브는 한발로 수레바퀴우에 올라서서 짐짝을 동여맨 바줄을 붙잡고 몸을 올리추었다. 예고루쉬까는 그의 얼굴과 고수머리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해쓱해지고 지친데다가 심각하였으나 이미 사나운 빛은 보이지 않았다.

《예고리…》 그는 조용히 말하였다. 《자, 날 때려라!》

예고루쉬까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바로 이때 번개가 번쩍하였다.

《괜찮아, 때려라!》 듸모브는 다시 되뇌이였다.

그는 예고루쉬까가 자기를 때리든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아래로 뛰여내리였다. 그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난 컬컬해 죽겠어!》

그는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몸을 흔들고 어깨박죽을 움직이며 짐마차들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우는것도 아니고 성난것도 아닌 소리로 되풀이하였다.

《난 컬컬해 죽겠어! 아! 에멜리얀, 성내지 말라요.》 그는 에멜리얀의 곁을 지나가며 말하였다.

《우리는 다 망쳐진 흉악한 인생이야!》

오른편쪽에서 번개가 번쩍거렸다. 그러자 그것은 거울에 비쳐지기라도 하듯 금시 먼곳을 번쩍하고 비치였다.

《예고리, 이걸 받아!》 빤쩰레이는 아래서 그 무슨 커다랗고 시꺼먼것을 올려보내면서 웨쳤다.

《이건 뭐야요?》 예고루쉬까가 물었다.

《기직이다. 비가 오면 이걸 써야 해.》

예고루쉬까는 몸을 일으켜 주위를 보았다. 먼곳은 눈에 뜨이게 꺼멓게 되였고 잠시도 쉬지 않고 눈을 껌벅거리듯이 희끄무레한 빛이 껌

벅거리였다. 그 먼곳의 꺼먼것은 마치 무거운것에 눌리운듯 오른편쪽으로 기울어졌다.

《할아버지, 소나기가 올가봐 그러나요?》 예고루쉬까가 물었다.

《아, 발이 아프구나. 멀었어!》 빤쩰레이는 예고루쉬까의 말은 듣지도 않고 발을 굴러가며 노래나 부르듯 목청을 돋구어 말하였다.

왼쪽에서는 마치 그 누가 하늘에 대고 성냥을 긋기나 하듯 희끄무레한 린빛을 발산하며 번쩍하고 빛나더니 깜빡 꺼졌다. 그러자 마치 그 어디 먼곳에서 누가 양철지붕우를 지나가기나 하는듯 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맨발로 지붕우를 지나가는듯 궁근 쇠소리를 냈다.

《이건 멎지 않을 비로구나!》 끼류하가 웨쳤다.

먼곳과 오른쪽지평선사이에서 번개가 얼마나 밝게 비치는지 초원의 먼끝과 밝은 하늘이 시꺼매지며 서로 맞닿은 경계선이 환하게 드러나도록 비치였다. 무거운 먹장구름은 커다랗게 뭉치여 천천히 움직였다. 그 가장자리에는 갈가리 찢긴 검은구름들이 매달렸다. 그 구름들은 서로 겹쌓이면서 오른쪽은 물론 왼쪽지평선에서도 뭉게뭉게 솟아올랐다. 변두리의 구름들이 떨어져나가고 푸시시하게 털이 헝클어진것 같은 비구름의 모양은 마치 술에 취한 장난군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러자 똑똑하고 분명하게 우뢰가 우르렁거리였다. 예고루쉬까는 십자를 긋고 얼른 외투를 입었다.

《컬컬해 죽겠어!》 디모브의 웨치는 소리가 앞에 있는 짐마차에서 들려왔는데 그의 목소리로 미루어 그가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한것이 분명하였다. 《컬컬해!》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다. 얼마나 세차게 부는지 예고루쉬까의 짐보따리와 기직까지 나꾸챌 정도였다. 기직은 세차게 펄럭거리며 짐짝을 때리는가 하면 예고루쉬까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다. 바람은 소리치며 초원으로 내달리고 어지럽게 빙빙 꾀여 돌아가기도 하고 풀을 휩쓸며 소란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로 우뢰도 마차바퀴의 갈리는 소리도 파묻혀 들리지 않았다. 바람은 비를 실은 먹장구름으로부터 불어오는데 그것은 구름같은 먼지와 비냄새, 젖은 땅의 냄새까지도 다 날라왔다. 달빛이 빛을 잃고 별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길가를 따라 구름같은 먼지가 일고 그 그림자가 급히 뒤걸음질치는것이 보이였다. 지금은 분명 회오리바람이 용솟음치며 땅에서 먼지와 마른풀과 새깃들

을 걷어올려 하늘로 솟구쳐올랐다. 바로 비를 실은 검은구름결에서 팔자꽃풀들이 날아헤매는 모양인데 그것들은 지금 얼마나 무서울가? 그러나 사람의 눈을 가리는 먼지속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번개불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예고루쉬까는 금방 비가 쏟아질것 같아 일어나 기직으로 몸을 감쌌다.

《빤쩰레이— 어!》 누가 앞쪽에서 소리쳤다. 《아… 아… 와!》

《들리지 않아!》 빤쩰레이가 큰소리로 노래부르듯 대답하였다.

《아… 아… 와! 이랴— 아!》

우뢰는 우르렁거리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뒤에서 우르렁거리더니 앞에 있는 짐마차들옆으로 사라졌다.

《거룩… 거룩… 거룩하오이다. 싸바오프(무력과 전능의 신)신이시여.》 예고루쉬까는 십자를 그리며 중얼거렸다. 《하늘과 땅이 당신의 영광으로 차도록…》

하늘의 검은 심연은 아가리를 쩍 벌리고 흰번개불로 숨을 쉬는듯 하였다. 또다시 우뢰가 우르렁거렸다. 그 소리가 잦아들기 바쁘게 번개불이 번쩍 하고 활짝 비치는 바람에 예고루쉬까는 기직의 짬사이로 갑자기 큰길의 먼곳까지 마부들과 지어는 끼류하의 조끼까지도 다 볼수 있었다. 누데기같은 검은구름쪼각이 왼쪽에서 우로 솟구치는데 그중에서 왁살스럽고 우악한 짐승의 발통같은 한쪼각은 달을 향하여 뻗어올라갔다. 예고루쉬까는 눈을 꼭 감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이 모든것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비는 웬일인지 오래동안 내리지 않았다. 예고루쉬까는 혹시 비구름이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행여나 하는 생각으로 기직짬으로 내다보았다. 앞은 캄캄하였다. 예고루쉬까에게는 빤쩰레이나 짐들도 자기 몸마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얼마전까지 달이 떠있던 하늘쪽을 곁눈질로 쳐다보았으나 거기도 역시 이 짐마차우처럼 어두울뿐이였다. 어둠속에서 번개가 번쩍할 때마다 더욱 희고 눈부시여 눈이 아팠다.

《빤쩰레이!》 예고루쉬까가 찾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은 종시 기직을 들춰놓고는 어디론가로 사라졌다. 고르롭고 가락맞은 소리가 들렸다. 크고 찬 비방울이 예

고루쉬까의 무릎우에 떨어지고 손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무릎에서 기직이 벗겨진것을 보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바로 이때 무엇인지 우두두 떨어지면서 길과 멍에, 짐짝들을 툭탁거리며 때렸다. 이것은 비였다. 비와 기직은 이미 서로 알고있는 사이인듯 마치 두마리의 까치같이 그 무엇을 두고 빠른 말로 즐겁게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예고루쉬까는 일어섰다.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장화를 깔고앉았다. 비가 기직을 때리자 그는 갑자기 작은 자기 무릎을 덥석 몸으로 가리우려고 웃몸을 앞으로 숙이였다. 무릎은 가리워졌으나 그대신 1분도 못 가서 차고 기분나쁘게 척척한것이 등뒤와 등아래, 허벅다리에서 느껴졌다. 그는 다시 조금전과 같은 자세로 무릎을 드러내놓고 어둠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직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젖었고 소매와 옷깃속으로 비물이 흘러들어 어깨는 싸늘해졌다. 그는 꼼짝않고 앉아서 모든것이 끝나기를 기다리려고 마음먹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그는 속삭이였다.

갑자기 그의 머리우에서 무서운, 귀가 멍해지는듯 한 우지끈소리가 나며 하늘이 쭉 짜개져나갔다. 그는 몸을 굽히고 제 뒤통수와 등에 하늘의 깨진 쪼각들이 우두둑 떨어질것이라고 생각하며 숨을 죽이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떴다. 그의 손과 젖은 옷소매, 기직에서 흐르는 비물과 짐짝들 그리고 밑에는 땅우에서도 눈부시게 찌르는듯 한 빛이 갑자기 확 하고 번쩍하더니 한 댓번이나 번쩍번쩍 비쳤다. 그뒤로 그렇게도 세차고 무서운 우뢰가 새로 우르렁거렸다. 그러자 하늘은 다시 요란하게 울지도 우르렁거리지도 않았고 그저 마른나무가 쩌개지는 소리와 같은 메마르게 빠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지끈! 지끈!》 우뢰소리는 이런 소리를 크게 내고는 하늘을 구르며 발로 차는듯 하다가 앞에 있는 짐마차들가까이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뒤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가 난듯이 토막토막 끊어진 《우지끈!》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이전에는 번개가 그저 무섭게 보였으나 이처럼 우뢰가 울자 그것이 그 어떤 불길한것으로 느껴졌다. 그 요술같은 빛은 꼭 감은 눈속으로 파고들어와 찬기운이 되여 온몸속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을 보

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 예고루쉬까는 얼굴을 뒤로 제끼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마치 누가 자기를 눈여겨살피는것만 같아 겁을 내듯이 조심조심 기여 손바닥으로 젖은 짐짝을 짚고 미끄러져 몸을 제꼈다.

《우지끈! 딱! 딱!》 하는 소리가 그의 머리우에서 들려오더니 짐마차가까이에 떨어지며 터져나가는듯 하였다. 《우르르!》

눈은 또다시 저도 모르게 떠졌다. 예고루쉬까는 곧 새로운 위험을 보게 되였다. 짐마차뒤로 길다란 창들을 가진 거인 셋이 다가왔던것이다. 번개는 그들의 창끝에서 번쩍하고 빛을 뿌리며 그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비치였다.

그것은 얼굴을 가리우고 머리를 푹 숙인듯이 무겁게 걷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마치 슬픔에 잠기고 지친듯, 무슨 골똘한 생각에 잠긴것 같았다. 그들이 무슨 나쁜짓을 하려고 짐마차들의 뒤를 따라오는것은 아닌듯도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있다는것자체가 그 어떤 공포를 안겨주었다.

예고루쉬까는 얼른 앞으로 얼굴을 돌리였다. 그는 온몸을 벌벌 떨며 이렇게 웨쳤다.

《빤쩰레이! 할아버지!》

《우지끈! 딱! 딱》 하늘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앞에 마부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하여 눈을 떴다. 번개는 두곳에서 번쩍거리며 먼길과 짐마차들, 마부들을 다 비치였다. 길옆으로는 물줄기가 흐르고 물방울들이 즐거이 튀였다. 빤쩰레이는 짐마차옆으로 걸어가고있었다. 그의 굽높은 모자와 어깨는 조그마한 기직으로 가리워져있었다. 그는 마치도 우뢰로 하여 귀가 멀고 번개로 하여 눈이 멀기나 한것처럼 공포나 불안도 나타내지 않았다.

《할아버지, 저 큰 사람들을 보라요!》 예고루쉬까가 그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령감은 듣지 못하였다. 그의 앞에서는 에멜리얀이 걸어가고있었다. 그는 머리에서 발까지 커다란 기직을 쓰고있어서 마치 삼각추같았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와샤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나무로 된 사람처럼 다리를 높이 들며 무릎을 굽히지 않고 걸어갔다. 번개가 번쩍하고 비칠 때마다 짐마차들은 움직이지 않고 마부들은 얼어붙은듯

하였고 와샤의 들어올린 다리도 마비가 된것 같았다. …

예고루쉬까는 그래도 다시 빤젤레이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어 그는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는 모든것이 끝나기만 기다릴수 없었다. 그는 방금이라도 벼락을 맞아 죽을것 같았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뜨고 무서운 거인들을 보게 될것만 같았다. 그는 더 십자를 긋지 않고 빤젤레이도 부르지 않았으며 어머니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추위와 번개, 소낙비가 영영 멎지 않으리라는 생각으로 온몸이 굳어졌다.

그때 갑자기 말소리가 들려왔다.

《예고리, 얘, 너 자니, 응?》 빤젤레이가 아래서 소리쳤다. 《내려와! 귀가 먹었니, 이 바보같은 녀석아!…》

《원, 무슨 놈의 소낙비가!》 이렇게 말하는 귀에 설고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뒤를 이어 술을 한잔 마시고 내는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예고루쉬까는 눈을 떴다. 짐마차들옆에 빤젤레이와 기직을 쓴 삼각추모양이 된 에멜리얀 그리고 키 큰 사람들이 서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키들이 퍽 작아졌다. 예고루쉬까가 다시 자세히 보니 그들은 어깨에 창이 아니라 쇠스랑들을 메고있는 평범한 농군들이였다. 빤젤레이와 삼각추모양의 에멜리얀사이로는 나지막한 어느 농가의 밝은 창문이 보였다. 짐마차들이 마을에 들어선것이였다. 예고루쉬까는 기직을 벗어버리고 꾸레미를 들고 급히 짐마차에서 내렸다. 그는 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창문에 불빛이 비치는 지금은 비록 우뢰가 여전히 우르릉 울고 번개가 온 하늘에 금을 그어놓으며 번쩍거린다고 하여도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번개질하는 소낙비는 좋은거란다. 괜찮아…》 빤젤레이는 중얼거리였다. 《고맙게도… 비때문에 발이 얼마간 풀렸는걸. 이것도 좋은 일이지. … 다 내렸니, 예고리야? 그럼 집으로 들어가라… 괜찮다.》

《거룩, 거룩, 거룩…》 에멜리얀은 목갈린 소리를 내였다. 《틀림없이 어디 벼락이 내렸을거예요. 아바이들은 여기 사람들인가요?》 그는 큰 사람들에게 물었다.

《아니, 글리노브에서 온다. … 우린 글리노브사람들이란다. 쁠라쩨로브주인네한테서 일들 하지.》

《마당질을 하나요?》
《밀가을을 할 때까지는 이것저것 다 하지. 원 번개두 글쎄. 이런 번개는 오래동안 못 봤는걸…》
예고루쉬까는 집안으로 들어갔다. 여윈데다가 허리가 굽고 턱이 뾰족한 늙은 녀인이 그를 맞아주었다. 늙은 녀인은 손에 짐승기름으로 만든 등불을 쥐고 눈을 찌프리며 늘어지게 한숨을 쉬였다.
《원 하느님두, 그런 뢰성벽력이 어디 있담!》 늙은 녀인은 입을 열었다. 《우리 집것들이 초원에서 묵고있는데 혼났겠군! 자 애기야, 어서 옷을 벗어, 벗으라구.》
예고루쉬까는 추워서 바들바들 떨며 몸을 옴츠리고 흠뻑 젖은 외투를 벗었다. 그다음 팔과 다리를 쩍 벌린채 한동안은 옴짝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그때마다 척척하고 선뜩선뜩한 불쾌한 감촉이 느껴지기때문이였다. 웃옷의 소매와 등은 흠뻑 젖었고 바지는 다리에 철썩 달라붙었으며 머리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
《이 애야, 넌 왜 다리를 벌리고 서있느냐?》 늙은 녀인이 말하였다. 《어서 가서 앉아라!》
예고루쉬까는 다리를 그냥 벌린채 엉기적거리며 탁자곁으로 다가가 그 누구의 머리가 놓인 걸상 한옆에 걸터앉았다. 그 머리는 움찔하더니 코로 숨을 크게 내쉬고 입을 우물거리더니 그만 잠잠해졌다. 머리를 걸상에 기대고 양가죽을 덮은 무슨 덩어리같은것이 늘어져있었다. 어떤 녀자가 자고있었다.
늙은 녀인은 한숨을 짓고나서 밖으로 나가더니 곧 수박과 참외를 들고 돌아왔다.
《얘야, 어서 먹어라. 이것밖에 더 대접할게 없구나. …》 늙은 녀인은 하품을 하며 말하였다. 그는 상자속을 뒤지더니 려인숙에서 불한당들이 장사군들을 베여죽이는데 쓴다는 그런 칼과 비슷한 길고 날이 선 칼을 꺼냈다. 《얘야, 어서 먹어!》
예고루쉬까는 마치 열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며 꺼먼 빵에 참외와 수박을 한쪼각씩 먹었다. 그러자 몸이 더 떨렸다.
《우리 집것들이 초원에서 묵는데…》 늙은 녀인은 예고루쉬까가 먹는 동안에 또다시 한숨을 쉬였다. 《하느님… 맙소서… 성상앞에 초불이라두 켰으면 좋으련만 글쎄 스쩨빠니다가 어디 건사했는지 알수

가 있어야지. 애기야, 어서 먹어, 먹어…》

늙은 녀인은 하품을 하면서 바른손을 뒤로 돌려 왼편어깨박죽밑을 극적극적 긁었다.

《아마 한 둬시나 됐겠지.》 늙은 녀인은 말하였다. 《이제는 일어날 때도 됐어. 우리 집것들이 초원에서 묵는데… 아마 다들 흠뻑 젖었을게야…》

《할머니.》 예고루쉬까가 말하였다. 《난 졸음이 와요.》

《애기야, 어서 누워라.》 늙은 녀인은 하품이 섞인 한숨을 쉬였다. 《아, 주 예수그리스도시여! 난 자면서도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지. 깨여나보니 하느님이 이런 우뢰와 번개를 보내셨더군. … 초불이라도 켰으면 좋으련만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늙은 녀인은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분명 그의 잠자리인듯 한 긴 걸상에서 누데기를 끌어내더니 벽난로가까이에 걸렸던 가죽옷을 두개 벗기여 예고루쉬까의 잠자리를 보아주었다.

《번개, 우뢰가 어디 자야지.》 늙은 녀인이 중얼거렸다. 《갑자기 벼락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면 좋으련만, 우리 집것들이 초원에서 묵고있는데… 애기야, 여기 누워자거라. … 그리스도께서 보살펴주신다. … 참외는 치우지 않을테니 자다 일어나서 먹어라.》

늙은 녀인의 한숨과 하품, 잠이 든 녀인의 괴로운 숨소리, 농가의 어둠, 창밖의 소란한 비소리들은 모두 졸음을 자아냈다. 예고루쉬까는 로파앞에서 옷을 벗기가 부끄러웠다. 그는 장화만 벗고 그대로 누워서 양가죽옷을 뒤집어썼다.

《이 애가 누웠나?》 잠시후에 빤쩰레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웠수!》 늙은 녀인이 중얼거리듯 대답하였다. 《아이구, 무섭기두! 그저 으르렁거리기만 하니 언제 멎겠는지…》

《이제 지나갈거외다.》 빤쩰레이가 앉으며 목쉰소리로 대답하였다. 《이젠 좀 조용해졌수다. … 젊은이들은 농가들루 가버리구 말옆에는 둘만 남았어. … 젊은놈들이란… 말들을 도둑맞힐수 있거던. … 조금 앉았다가 바꾸어주어야지… 안돼, 도둑맞힐수 있으니까. …》

빤쩰레이와 늙은 녀인은 예고루쉬까의 발치에 가지런히 앉아서 목

갈린 소리로 조용히 이야기하였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한숨과 하품으로 자주 끊어지군 하였다. 예고루쉬까는 아무리 애써도 몸이 녹지 않았다. 그는 따스하고 무거운 가죽옷을 덮었건만 보람없이 온몸이 그냥 와들와들 떨리고 손과 발이 푸들푸들 자개바람이 일고 배안에서도 요동을 쳤다. … 그는 가죽옷밑에 누운채로 옷을 벗었으나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몸은 더 떨렸다.

빤쩰레이는 교대해주려고 나갔다가 잠시후에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예고루쉬까는 그때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몸을 떨기만 하였다. 무엇인지 그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누르며 괴롭히는것이였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늙은이들의 속삭임인지 아니면 양의 냄새인지 알수 없었다. 수박과 참외를 먹은탓에 입안에서는 불쾌한 쇠맛이 돌았다. 게다가 벼룩이 따끔따끔 물었다.

《할아버지, 추워요!》 예고루쉬까가 말하였으나 그자신도 자기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였다.

《자거라, 이 애야, 자. …》 늙은 녀인은 한숨을 쉬였다.

다리 긴 찌뜨가 휘청휘청 침상가까이로 오더니 손을 내저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자꾸 커져 천정에까지 머리가 닿더니 그만 풍차로 변하고말았다.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마차에 탔을 때와는 달리 법의를 갖추어입고 손에는 세례솔을 들고 풍차곁으로 왔다갔다하며 성수를 뿌렸다. 그러자 풍차는 멎었다. 예고루쉬까는 이것이 환각인줄을 깨닫자 눈을 번쩍 떴다.

《할아버지!》 그는 불렀다. 《물을 좀 주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예고루쉬까는 견딜수 없이 답답하여 그냥 누워있을수가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주어입고 집밖으로 나갔다. 벌써 아침이 되였다. 하늘은 흐리였으나 비는 이미 그쳤다. 예고루쉬까는 젖은 외투를 입은채 몸을 떨며 진탕이 된 울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고요한 정적속에서 귀를 기울이였다. 한 반쯤 열린 갈대문이 달린 외양간이 먼저 눈에 뜨이였다. 그는 외양간을 들여다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안에 있는 마른 끼쟈크(연료용건분)우에 앉았다.

그는 머리가 무겁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번갈아떠올랐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쇠비린내가 나 역스러웠다. 그는 모자를 벗어쥐고 거기 꽂

힌 공작새깃을 바로잡았다. 그는 이 모자를 사려고 어머니와 같이 다니던 일이 생각났다. 그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슨 푸르끼레하고 끕적끕적한 아교같은 덩어리를 꺼냈다. 그는 어디서 이런것이 호주머니속에 들어갔을가고 생각하다가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러자 그 덩어리에서 꿀냄새가 났다. 그것은 바로 유태녀자가 준 쁘랴니크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비에 흠뻑 젖어버렸다.

예고루쉬까는 제 외투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그의 외투는 커다란 뼈단추가 달린 재빛나는것인데 비옷모양으로 지은것이였다. 그 외투는 새것인데다가 비싸서 집에서 현관이 아니라 침실에 어머니의 옷들과 함께 걸어두군 하였다. 그는 명절같은 때만 이 외투를 입었다. 예고루쉬까는 외투를 보니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기와 이 외투가 운명에 맡겨진채 될대로 되라고 버림을 받았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라 끼쟈크더미에서 굴러내릴만큼 정신없이 목놓아울었다.

비에 젖은탓에 대가리털이 머리말개처럼 엉킨 커다란 흰 개 한마리가 외양간으로 들어오더니 궁금한듯 예고루쉬까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개는 짖을것인가 말것인가 망설이는 모양이였다. 개는 짖어봤대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였는지 예고루쉬까에게 조용히 다가가더니 그 아교덩어리같은것을 닁큼 삼켜버리고는 나갔다.

《저건 와를라모브네 사람들이야!》 누군가 길가에서 소리쳤다.

실컷 울고난 예고루쉬까는 외양간에서 나왔다. 그리고는 물웅뎅이를 돌아 어정어정 길로 나갔다. 대문앞에는 짐마차들이 머물러있었다. 비에 젖어 발들이 진탕투성이가 된 마부들은 마치 가을파리떼처럼 맥이 빠지고 졸음이 와서 멍에옆을 서성거렸고 그우에 걸터앉기도 하였다. 예고루쉬까는 그들을 바라보며 (농군이 된다는건 얼마나 쓸쓸하고 괴로운 일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빤쩰레이에게 다가가 그와 가지런히 멍에우에 걸터앉았다.

《할아버지, 난 추워요!》 그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손을 소매속에 넣고 말하였다.

《괜찮아, 인제 곧 가닿게 돼.》 빤쩰레이는 하품을 하였다. 《괜찮아, 인제 더워질게다.》

짐마차들은 해별이 퍼져 더워지기 전에 일찍 떠났다. 예고루쉬까는

짐짝우에 누워서 몸을 덜덜 떨었다. 비록 해가 솟아올라 그의 옷과 짐짝, 땅이 말랐지만 예고루쉬까는 눈을 감자마자 또다시 찌뜨와 풍차가 보이였다. 그는 구역질이 나고 몸이 무거워졌다. 그는 떠오르는 환상들을 쫓아버리려고 애써보았다. 그러나 이런 환상들이 사라지자마자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여 주먹을 부르쥔 망종인 듸모브가 아우성을 지르며 달려들고 《컬컬해 죽겠어!》 하는 그의 외마디소리가 들려왔다. 까자크수말을 탄 와를라모브가 지나가고 행복한 꼰스딴찐이 비가리개를 들고 빙그레 웃으며 지나갔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 싫고 견디기 어려우며 역스러운 존재들인가?

그는 저녁녘에 한번은 물을 달래려고 머리를 들었다. 짐마차들은 넓은 강우에 놓인 큰 다리우에 멎어있었다. 강아래쪽으로는 연기에 꺼멓게 끄슬린 짐배를 바줄로 련결하여 끌고가는 기선이 보이였다. 강건너에는 집들과 교회당들이 있는 커다란 산이 얼룩져보이였다. 산밑으로는 화물차량들을 단 기관차가 달리고있었다. …

예고루쉬까는 지금까지 기선이나 기관차, 넓은 강을 본적이 없었다. 그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겁도 내지 않고 놀라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지어 그것들을 알고싶어 궁금해하는 빛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현기증이 나 얼른 짐짝 한모퉁이에 가슴을 대고 누워버렸다. 그는 구역질을 하였다. 빤쩰레이는 그것을 보자 신음하는듯 한 소리를 내며 머리를 저었다.

《우리 어린게 앓는군!》 그는 말하였다. 《분명 배가 찼던 모양이야. … 어린게… 낯선 곳에 와서… 야단이군.》

8

짐마차들은 선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인들이 드는 큰 숙박소에 묵게 되였다. 짐마차에서 내리던 예고루쉬까는 귀에 퍽 익은 말소리를 들었다. 그 누군가가 마차에서 내리는 그를 거들어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린 벌써 엊저녁에 왔단다. 오늘은 하루종일 너희들이 오길 기다렸지. 어제 우리가 너희들을 따라잡으려구 했지만 그만 재수없이 딴길로 들지 않았겠니. 에키, 너 외투를 잘 구겨놨구나! 너 큰아버지한

테 단단히 꾸중을 듣게 됐구나!》

예고루쉬까는 말하는 사람의 대리석같은 얼굴을 보자 그가 데니스까라는것을 알았다.

《큰아버지와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방에 계신다.》 데니스까가 말을 이었다. 《차를 마시자고 있지. 어서 가자!》

그는 예고루쉬까를 컴컴하고 음산한 N거리의 자선병원과 비슷한 2층짜리 큰 건물로 데리고 갔다. 현관과 컴컴한 계단들, 길고 좁은 복도를 지나 예고루쉬까와 데니스까는 이완 이와늬치와 흐리스또포르신부가 차탁에 마주앉아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예고루쉬까를 본 두 늙은이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반가와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아, 예고르 니꼴라이츠!》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마치 노래를 부르듯 말하였다. 《로모노쏘브씨!》

《아, 귀족나으리!》 꾸지미쵸브가 말하였다. 《어서 오시오.》

예고루쉬까는 외투를 벗고 큰아버지와 흐리스또포르신부의 손에 입을 맞춘 다음 차탁에 마주앉았다.

《그래 어떻게 왔니, Puer Bone(귀여운 아이)?》 흐리스또포르신부가 차를 부어주며 늘 하던 버릇대로 얼굴에 확 퍼지는듯 한 웃음을 짓고 이것저것 연거퍼 물었다. 《아마 마차타기도 싫증이 난게지. 인젠 짐마차나 소달구지 타는건 진절머리가 났겠지! 가고가도 글쎄 맙소사, 앞을 바라보면 언제나 같은 초원뿐이니까. 끝이 보이지 않거던! 려행이 아니라 그저 욕이야. 너는 왜 차를 마시지 않느냐? 글쎄 우리는 네가 짐마차를 타고 따라오는 동안 일을 죄다 깨끗이 끝냈단다. 하느님덕분에 양털을 쵀레빠힌한테 운수좋게 잘 팔았단다. 한수 잘 떴거던.》

예고루쉬까는 사람들을 보자 무엇을 하소하고싶은 생각이 걷누를수없이 일어나는것을 느꼈다. 그는 흐리스또포르신부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엇부터 그리고 각별히 무엇을 하소해야 할것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불쾌하고 날카로운듯 한 흐리스또포르신부의 말소리가 그의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헤살을 놓았다. 그의 생각은 흩어졌다. 그는 한 5분도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 안락의자로 가서 누웠다.

《아니!》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놀랐다. 《차는 안 마시냐?》

예고루쉬까는 무엇부터 하소연할것인가고 생각하다가 안락의자등에 이마를 대고 갑자기 목놓아울었다.

《저것 봐!》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일어나 안락의자로 가까이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게오르기, 너 어떻게 됐니? 왜 우는거냐?》

《난… 난 아파요!》 예고루쉬까가 말하였다.

《아파?》 흐리스또포르는 놀래여 어리둥절하였다. 《이거 야단났구나. 이 애야… 이렇게 길을 떠나 앓으면 되겠니? 너 어떻게 된거냐, 응?》

그는 예고루쉬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의 볼을 만져보며 이런 말을 하였다.

《참, 머리가 불덩이로구나. … 네가 아마 고뿔이 온 모양이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잘못 먹었거나. … 너 하느님께 기도올려라.》

《이 애에게 금계랍을 줄가요?…》 이완 이와늬치가 당황하여 말하였다.

《아니요, 이 애한테 뭘 뜨거운걸 먹여야 하겠소. 게오르기야, 너 국 먹을래? 응?》

《아니… 싫어요…》 예고루쉬까는 대답하였다.

《너 추우냐?》

《아까는 추웠는데 지금은… 지금은 더워요. 난 몸이 죄다 아파요. …》

이완 이와늬치는 안락의자로 가서 예고루쉬까의 머리에 손을 대보았다. 그는 당황하여 신음소리를 지르며 탁자로 돌아왔다.

《너 옷을 벗고 누워자거라.》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말하였다. 《한잠 잘 자야겠다.》

그는 예고루쉬까를 거들어 옷을 벗기고는 베개를 베워주고 이불을 씌워주었다. 그리고 이불우에 이완 이와늬치의 외투를 덮어주고나서 발꿈치를 들고 탁자로 다시 가앉았다. 예고루쉬까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는 즉시 려인숙방에 있는것이 아니라 큰길가의 우둥불옆에 있는듯 한 생각이 들었다. 에멜리얀이 한손을 내젓고 듸모브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여 누워서 비웃듯이 예고루쉬까를 바라본다.

《저놈을 때려요! 저놈을 때려요!》 예고루쉬까가 소리질렀다.

《헛소릴 하는군.》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나지막한 소리로 말하

였다.
《걱정인걸!》 이완 이와늬치가 한숨을 쉬였다.
《기름에 초를 섞어서 좀 발라줘야겠군. 아마 래일이면 낫겠지.》
예고루쉬까는 괴로운 환상들로부터 벗어나려고 눈을 뜨고 불을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흐리스또포르신부와 이완 이와늬치는 차를 다 마시고나서 무엇인지 쑥덕쑥덕 이야기를 하였다. 신부는 행복한듯 싱글벙글 웃고있었다. 분명 양털을 팔면서 상당한 리익을 본것이 아무리 해도 잊을수 없는 모양이였다. 그를 이처럼 즐겁게 한것은 리익 그자체보다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그 많은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능청을 부리며 눈을 깜박거리고 통쾌하게 웃을수 있다는 생각이였다. 그는 먼저 양털을 제 값보다 눅게 팔았다고 속인 다음 사위 미하일에게 불룩한 돈뭉치를 내주며 《옛다, 받아라! 일은 이렇게 해야 하는게야!》 하고 말할것이다. 꾸지미쵸브는 만족해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다름없이 사업상의 랭담성과 걱정의 표정이 나타나있었다.
《허, 췌레빠힌이 그런 값으로 살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그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을 하였다. 《그랬더라면 집에서 그 3백뿌드를 미까로브에게 팔지 않았을텐데.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담! 그러나 누가 알았겠소, 여기값이 올랐다는걸.》
흰 웃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싸모와르를 치우고 방 한구석에 있는 성상앞에 등불을 켜놓았다. 흐리스또포르신부가 그의 귀에 대고 무어라고 말하자 그는 마치 요술하는 사람처럼 신비스러운 표정을 짓고 《알았습니다.》고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는 잠시후에 돌아오더니 안락의자밑에 그릇을 하나 가져다놓았다. 이완 이와늬치는 잠자리를 펴고 몇번 하품을 하고나서 느릿느릿 기도를 올리고 그만 자리에 누워버렸다.
《래일은 대사원으로 갈가 하우…》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말하였다. 《거기엔 내 잘 아는 교회당 당직중이 있거던. 주교님한테는 미사뒤에 가야겠는데 글쎄 편치 않으시다니.》
그는 하품을 하고 등잔불 하나만을 남기고 다른것은 껐다.
《면회를 안한다고 하시니》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법의를 벗으며 말

을 이었다. 《그러니 뵈옵지 못하고 갈수밖에.》

그는 긴 외투를 벗었다. 예고루쉬까는 곧 자기앞에 선 로빈손 크루소를 보게 되였다. 그 로빈손은 사발에 무엇을 개더니 예고루쉬까한테 다가와서 속삭이였다.

《로모노쏘브, 자느냐? 좀 일어나거라! 내가 기름에 초를 섞은걸 발라줄테니. 이건 퍽 좋은게다. 넌 그저 하느님께 기도만 드려라.》

예고루쉬까는 얼른 일어나앉았다. 흐리스또포르신부는 그에게서 속옷을 벗기고 다름아닌 자기가 간지럼을 당하기나 한듯 몸을 움츠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고루쉬까의 가슴을 비벼대기 시작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그는 중얼거렸다. 《등을 우로 가게 엎드려라!… 그렇지, 그렇지. 래일은 다 나을게다. 그저 앞으로 죄만 짓지 말거라. 불덩어리같구나! 아마 오다가 번개와 우뢰를 만났지?》

《길에 오며 만났어요.》

《물론 앓지 말아야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앓지 말아야 해!》

예고루쉬까에게 약을 다 바르고나자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속옷을 입혀주고 싸준 다음 십자를 긋고는 그의 옆을 떠났다. 예고루쉬까는 그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는것을 보았다. 늙은이가 성상앞에 오래동안 서서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는것만 보아도 그가 숱한 기도문을 뜬금으로 외우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기도를 다 올리고난 그는 창문과 출입문, 예고루쉬까와 이완 이와늬치에게 십자를 긋고 베개도 없이 안락의자에 눕더니 자기의 긴 외투를 둘러썼다. 복도에서는 시계가 열시를 쳤다. 예고루쉬까는 아침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것을 생각하자 고독감을 느꼈다. 그는 안락의자의 등에 이마를 대고 자기를 괴롭게 구는 흐리마리한 환상들을 애써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은 그가 생각했던것보다는 빠르게 다가왔다.

그는 자기가 안락의자의 등에 이마를 대고 누워있는것이 얼마 오래지 않은것 같았지만 눈을 떠보니 방에 있는 두 창문들로부터 벌써 마루바닥에 해빛이 가로 비껴있었다. 흐리스또포르신부와 이완 이와

늬치는 보이지 않았다. 방안은 깨끗이 정돈되고 밝고 아늑하였고 늘 그런것처럼 방아풀과 들국화냄새가 나는 흐리스또포르신부의 체취가 풍기였다. (그는 집에서 늘 들국화로 세례솔과 성상의 치레거리를 만들기때문에 그 냄새가 몸에 푹 배여있었다.) 예고루쉬까는 베개와 가로 비낀 해살과 깨끗이 닦아서 안락의자옆에 가지런히 놓은 제장화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의 입가에는 저절로 웃음이 떠올랐다. 그가 짐짝우에 누워있지 않고 사방이 다 보들보들 마르고 천정에는 번개, 우뢰도 없는 이 모든것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는 안락의자에서 뛰여내려 옷을 입으려고 하였다. 기분은 참 좋았다. 어제 아프던것은 간데없고 다리와 목이 얼마큼 맥이 없을뿐이였다. 분명 기름과 초를 섞어 바른것이 효과를 본 모양이였다. 그는 어제 흐리마리하게 보았던 기선과 기관차, 넓은 강이 생각나 얼른 옷을 입고 선창으로 달려가 다시 보려고 서둘렀다. 그가 세면을 다하고 붉은 웃옷을 입었을 때 갑자기 문에서 열쇠소리가 나더니 문지방에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쥔채 돛천으로 만든 긴 외투우에 푸르끼레한 비단법의를 입은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나타났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얼굴을 번들거리며 (교회당에서 금방 돌아온 늙은이들은 언제나 얼굴이 번들거린다.) 탁자우에 빵과 그 무슨 꾸레미 하나를 놓더니 기도를 드린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하느님의 은혜가 내리셨다! 그래 몸이 어떠냐?》

《지금은 안 아파요.》 예고루쉬까는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대답하였다.

《덕분에… 난 지금 미사에 갔다온다. … 내가 아는 당직중을 만나러 갔댔지. 그가 자꾸 차를 마시러 자기 집으루 가자구 하는걸 가지 않았다, 새벽부터 남의 집에 가서 손님노릇하는게 싫어서. 하느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기를!》

그는 법의를 벗고 제 가슴을 쓱쓱 쓰다듬으며 꾸레미를 천천히 풀었다. 낟알같은 이끄라가 든 함석통과 훈제한 물고기 한쪼각, 프랑스빵이 예고루쉬까의 눈에 띄였다.

《생선가게옆을 지나다가 샀다.》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말하였다. 《보통날에 호사해서는 안되지만 집에 앓는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

다고 생각했다. 이끄라는 좋은게다, 철갑상어알이니까…》
흰 웃옷을 입은 사람이 싸모와르와 그릇들을 올려놓은 쟁반을 가져왔다.
《먹어라.》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빵쪼각에 이끄라를 발라 예고루쉬까에게 내밀었다. 《지금은 먹고 놀아라. 이제 때가 오면 공부해야지. 정신차려, 공부하는 보람이 있두룩 정신을 팔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라. 외울것은 외워라. 그리고 외우지 않고 그 뜻을 제 말로 해야할 때는 제 말로 해라. 그리고 모든 과학을 죄다 배워넣으려고 힘써라. 어떤 사람은 수학은 썩 잘 아나 뾰뜨르 모길에 대해서는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뾰뜨르 모길은 알지만 달에 대해 설명은 못하거던. 그래서는 안된다. 너는 모든걸 다 알도록 공부해야 해. 라틴어도 도이취어도… 지리와 력사는 물론 신학과 철학, 수학도… 다 배워넣어야지.… 그래, 덤비지 말고 기도를 드리면서 열심히 모든것을 다 배워넣은 다음에야 일을 시작해야 한다. 모든것을 다 알게 되면 너는 아무리 좁은 길에 들어서도 쉽게 걸어갈수 있단다. 너는 그저 공부만 하고 품행을 잘 가져라. 그러면 하느님은 네가 무엇이 되여야 할지 가르쳐주실게다. 의사나 재판관, 기사든 그 무엇이든지…》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작은 빵쪼각에 이끄라를 조금 발라 입에 넣고나서 다시 말하였다.
《사도 빠울의 말씀에 이런것이 있단다. 〈사교 이단의 가르침을 숭상하지 말라.〉 물론 마술, 폭언, 그렇지 않으면 싸울처럼 저세상의 령혼을 부른다든가, 자기와 세상사람들한테 아무런 리익도 되지 않는 그런 학문은 배우지 않는게 나아. 그저 하느님이 축복해주신것만을 배워야 해. 너는 그분들의 본을 따라야 한다.… 거룩하신 사도들이 예수의 말들로 말씀하셨으니까— 너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워라. 성 와씰리는 수학과 철학을 배웠으니 너도 배워라. 성 네스또르는 력사를 저술하였으니 너도 력사를 배워서 글을 쓰거라, 사도들의 본을 따라…》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차를 홀짝홀짝 마시더니 수염을 쓱쓱 문지르고 고개를 저었다.
《좋아!》 그는 말하였다. 《나는 구식공부를 했구 벌써 많이 잊어

버렸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가지. 그들과 비길수가 없을 지경이란다. 말하자면 그 어디 큰 모임때나 연회, 사람들이 모인데서 라틴어로 말하고 혹은 력사나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도 다 즐거워지고 또 나도 즐겁거던. 혹시 순회재판때 다른 성직자들은 다들 사양을 하지만 나는 판사나 변호사들과 허물없이 대하거던. 나는 학문이야기를 하며 그들과 차도 같이 마시고 웃기도 하고 모를것은 묻기도 하지… 그들도 이런것이 즐겁단다. 그러니 봐라, 이 애야.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다. 공부해라! 물론 그건 힘들지. 지금은 배우자면 밑천이 많이 든다. … 너의 엄마는 과부가 아니냐. 그래 년금으로 지내지. 그러니 글쎄 정말… 》

흐리스또포르신부는 놀란듯 문을 바라보며 소곤소곤 말을 이었다.

《이완 이와늬치가 도와주겠지. 그는 너를 내버려두진 않을게다. 그는 제 자식이 없으니까 너를 도와줄게다. 걱정말아라.》

그는 정색하고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다.

《그저 정신을 차려라. 게오르기야, 넌 정말 어머니와 이완 이와늬치를 잊어서는 안된다. 어머니를 위하는건 계률이고 이완 이와늬치는 네 은인이다. 아버지대신이야. 네가 공부하러 나와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세상사람들이 너보다 어리석다고 해서 네가 그들을 꺼리고 업신여기면 안된다. 그건 네게 불행이다, 불행이야!》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손을 높이 들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되뇌였다.

《불행이지, 불행이야!》

흐리스또포르신부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였다.

그는 성수가 났다. 그는 점심때까지라도 말을 계속 할 잡도리였으나 마침 문이 열리더니 이완 이와늬치가 들어섰다. 그는 신부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는 탁자를 마주하고 앉아 급히 차를 마셨다.

《자, 모든 일을 다 처리했소.》 그는 말하였다. 《오늘이라도 집으로 돌아갈수 있지만 글쎄 예고르의 일을 보아야 하니 저 애를 어디다 맡겨야겠는데 내 누이동생의 말은 여기 어디에 제 친구 나스따샤 뻬뜨로브나라는 녀자가 있다구 하던데. 그 녀자가 저 애를 집에 데리구있을거라구 하더군요.》

그는 주머니에서 몹시 구겨진 편지를 꺼내여 읽었다.

《〈말라야 니쥐냐야거리 나스따샤 뻬뜨로브나 또스꾸노바야 앞〉 이제 곧 그 녀자를 찾아야겠군요. 시끄러운노릇이야!》

차를 마시고난 이완 이와늬치는 예고루쉬까를 데리고 숙박소를 나섰다.

《시끄러운 일이야!》 큰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넌 그저 우엉씨처럼 내게 묻어다니니. 너를 하느님께 맡겨야지! 너는 학문과 몸가짐도 배우겠지만 아, 난 그저 너희들의 치닥거리가 괴로워 못 견디겠다!…》

그들이 마당에서 나와보니 짐마차들과 마부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이른아침부터 선창으로 나갔던것이다. 마당의 한쪽구석에는 낯익은 짐마차가 한대 거뭇하게 보이였다. 그옆에는 밤색말들이 서서 귀밀을 먹고있었다.

(잘있거라, 짐마차야!) 예고루쉬까는 생각하였다.

그들은 가로수길을 따라 오래동안 언덕으로 올라갔다가 커다란 장마당공지를 지나 이완 이와늬치는 순사에게 말라야 니쥐냐야거리가 어딘가고 물었다.

《그게 어디라구!》 순사가 웃었다. 《아직 머오. 목장쪽으루 가야하오.》

길에서 마차들과 마주치군 하였다. 큰아버지는 명절날이나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는 평소에 마차를 타는 호사스러운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와 예고루쉬까는 오래동안 포장한 거리를 걸어가다가 마차는 안 다니고 사람들만 다니는 길을 걸었고 나중에는 마차나 사람도 잘 다니지 않는 오솔길에 들어섰다. 이완 이와늬치는 여러번 물으면서 말라야 니쥐냐야거리로 들어섰다. 그들은 그동안 얼굴들까지 뻘겋게 되여 모자를 벗고 땀을 씻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완 이와늬치는 대문가의 걸상에 앉아있는 늙은이에게 물었다. 《여기 어디 나스따샤 뻬뜨로브나 또스꾸노바야라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습니까?》

《여기엔 또스꾸노바야란 사람은 없소.》 늙은이는 잠간 생각하더니 대답하였다. 《혹시 찌모쉔꼬가 아니요?》

《아닙니다, 또스꾸노바야인데요. …》
《안됐지만 그런 사람은 없소. …》
이완 이와늬치는 어깨를 으쓱하고나서 다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가야 못 찾소!》 늙은이가 등뒤에서 이렇게 소리쳤다. 《가야 없다니까 그래, 글쎄 없소!》
《저 아주머니.》 이완 이와늬치는 길옆에서 쟁반에 해바라기씨와 배를 담아놓고 파는 늙은 녀인에게 물었다. 《여기 어디 나스따샤 뻬뜨로브나 또스꾸노바야라는 사람네 집이 있는가요?》
늙은 녀인은 놀라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나스따샤 뻬뜨로브나가 지금도 그 집에 살고있수?》 늙은 녀인이 물었다. 《아유, 그가 딸을 시집보내구 사위에게 그 집을 내준지 여덟해가 되는데! 거긴 지금 그 사위가 살고있다우.》
그의 두눈은 이렇게 말하는듯 하였다. (당신들은 바보들이야. 그만한 일도 모르다니?)
《그럼 그 부인은 지금 어디서 사는가요?》 이완 이와늬치가 물었다.
《아유!》 늙은 녀인은 두손을 마주치며 놀랬다. 《그가 세방살이를 하는지가 언제부터라구! 제집을 사위에게 내준지 여덟해나 되는데, 원!》
로파는 분명 이완 이와늬치도 역시 깜짝 놀라 《그럴 법이 있나!》 하고 소리를 지를줄 알았는데 이완 이와늬치는 조용히 물었다.
《그의 세집이 지금 어디 있나요?》
늙은 녀인은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손을 들어 한곳을 가리키면서 새되고 가느다란 소리로 웨쳤다.
《그저 곧바루만 가요. 저기… 빨간 집을 지나 왼쪽으로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을 따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세번째 대문이라오. …》
이완 이와늬치와 예고루쉬까는 빨간 집까지 가서 왼쪽골목으로 꺾어들어 바른쪽으로 세번째 대문을 향하여 갔다. … 재빛대문은 무척 오래된것이였는데 그 량옆으로는 틈새가 넓은 재빛담장이 둘리여있었다. 오른쪽담장은 앞으로 몹시 기울어 방금이라도 쓰러질것처럼 위태했고

왼쪽은 안쪽으로 잔뜩 제껴져있었으나 대문만은 꼿꼿이 서있어서 마치도 앞으로 쓰러질지, 뒤로 쓰러질지, 어디로 쓰러지는것이 더 편할가 하고 궁리하고 서있는것만 같았다. 이완 이와늬치는 대문을 열었다. 그러자 그는 예고루쉬까와 함께 부리얀풀과 우엉이 수북하게 자란 커다란 마당을 볼수가 있었다. 대문에서 한 백걸음 떨어진 곳에 지붕이 붉고 덧문이 푸른 조그마한 집이 한채 서있었다. 한 뚱뚱한 녀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땅에 무엇을 뿌리면서 앞에서 만난 장사하는 늙은 녀인과 꼭같은 새되고 가는 목소리로 《체, 체.》하고 웨쳤다.

그의 등뒤에는 귀가 크고 불그레한 개가 앉아있었다. 손님들을 본 개는 달려와 날카롭게 짖어댔다. (불그레한 개들은 모두 다 이렇게 짖는다.)

《누구를 찾소?》 녀인이 한손을 들어 눈채양을 하여 해별을 가리우며 물었다.

《안녕하시오!》 이완 이와늬치는 지팽이를 휘둘러 개를 쫓으며 역시 큰소리로 물었다. 《말씀 좀 물읍시다. 여기 나스따샤 뻬뜨로브나 또스꾸노바야라는분이 살고계신가요?》

《여기 있지요! 그런데 무슨 볼일이 있는가요?》

이완 이와늬치와 예고루쉬까는 그 녀인에게로 가까이 갔다. 녀인은 의아해하는 빛을 띠우고 그들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무슨 일로 그를 만나려는지요?》

《혹시 당신이 바로 그 나스따샤 뻬뜨로브나가 아니신가요?》

《네, 나야요.》

《참 반갑소. … 당신의 오랜 친구 올리가 이와노브나 끄냐제바가 안부를 전하라고 해서요. 이 애가 그의 아들애올시다. 그리고 저는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올리가 이와노브나의 오빠 이완 이와늬치입니다. … 부인도 우리 N거리태생이지요. … 우리한테서 나서 딴곳으로 출가하셨지요. …》

한동안 잠잠히 말들이 없었다. 뚱뚱한 녀인은 마치 믿어지지 않는다는듯이, 잘 리해되지 않는다는듯이 멍하니 이완 이와늬치만 보고 있다가 그만 얼굴이 확 빨개지며 두손을 마주쳤다. 그통에 그의 앞치

마에서는 귀밀이 흩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올리가 이와노브나!》 녀인은 흥분한 나머지 가쁜숨을 쉬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내 정다운 친구! 아 이런, 날 좀 봐, 어쩌자고 바보처럼 멍하니 서고만 있는게야! 아유, 요 내 귀여운 천사같은것아…》 그는 예고루쉬까를 껴안고 그의 얼굴을 눈물로 적셔가며 소리를 내여 진정으로 울었다.

《아유!》 그는 자기 손을 비틀며 말을 이었다. 《올레취까의 아들이라구? 정말 반갑구나! 너 엄마를 꼭 닮았구나! 정말 엄마 그대로야! 글쎄 왜 이렇게 뜨락에 서계셔요?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녀인은 울고 한숨을 짓다가 말도 하면서 집쪽으로 잰걸음을 옮기였다. 손님들도 그의 뒤를 따라갔다.

《집이라고 치우지 않아서.》 녀인은 손님들을 성상들과 꽃병들이 주런이 놓인 좁고 숨이 막히는 현관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며 말하였다. 《아, 성모님! 와씰리싸, 가서 덧문이라도 좀 열어놓으렴! 요 내 천사야! 참, 그린것처럼 귀엽기도 하지! 난 올레취까에게 이런 아들이 있는줄은 몰랐구나!》

녀인은 마음이 가라앉고 손님들에게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이완 이와늬치는 그에게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녀인은 예고루쉬까를 딴 방으로 보냈다. 거기에는 재봉침이 한대 놓여있었고 창문에는 어치를 넣은 새조롱이 걸려있었다. 그리고 현관방이나 마찬가지로 숱한 성상들과 꽃병들이 널려있었다. 재봉침옆에는 찌뜨처럼 해빛에 타고 볼이 볼록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처녀애가 옴짝도 하지 않고 서있었다. 그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예고루쉬까를 바라보았는데 분명 그도 퍽 어색한 모양이였다. 예고루쉬까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너 이름은 뭐냐?》

처녀애는 입술을 오물거리며 울상을 하더니 대답하였다. 《아찌까…》

이것은 곧 까찌까라는 말이였다.

《저 애를 댁에 두어두려구 그럽니다.》 이완 이와늬치는 녀인에게 나직이 말하였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매달 십루블씩 보

내드리겠습니다. 저 애는 집에서 응석받이로 기른 아이는 아닙니다. 온순하지요. …》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이완 이와늬치!》나스따샤 뻬뜨로브나는 우는소리를 내며 한숨을 쉬였다. 《10루블은 적은 돈이 아니지만 남의 어린것을 맡는다는건 두려워요! 갑자기 앓기라도 하든가 하면…》

예고루쉬까가 다시 방으로 불려들어갔을 때는 이완 이와늬치가 이미 손에 모자를 벗어들고 작별을 고하는 판이였다.

《뭐라구요? 글쎄 지금 이대로 댁에 남겨두렵니다.》 그는 말하였다. 《잘있거라! 예골아, 여기 남아있어라!》 그는 이번에는 조카에게 말하였다. 《너 응석을 부리면 못써. 나스따샤 뻬뜨로브나 아주머니의 말을 잘 듣구… 잘있어라, 래일 또 올게.》

그는 가버렸다. 나스따샤 뻬뜨로브나는 다시한번 예고루쉬까를 껴안더니 그를 천사라고 부르고 울고 부석부석해진 얼굴로 식사준비를 시작하였다. 한 3분뒤에 예고루쉬까는 녀인과 나란히 앉아서 그가 그칠줄 모르고 물어보는데 따라 대답을 해가며 기름지고 뜨거운 국을 먹었다.

저녁에도 그는 같은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서 턱을 손으로 고이고 나스따샤 뻬뜨로브나의 이야기를 들었다. 녀인은 웃다가 울었다가 하며 예고루쉬까에게 어머니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 자기가 시집가던 이야기며 자기 자식들의 이야기를 하였다. 난로에서는 귀뚜라미가 울고 남포등주둥이에서는 겨우 들릴만큼 소리가 났다. 녀인은 나지막한 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하며 흥분되였는지 자꾸 골무를 떨어뜨렸다. 그러면 그의 손녀인 까쨔가 그것을 집으러 탁자밑으로 기여들어가서는 오래동안 탁자밑에 앉아있으면서 예고루쉬까의 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편 예고루쉬까는 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졸면서 나이많은 녀인의 얼굴이며 그의 털난 혹이며 눈물자리며를 바라보았다. … 그는 서글펐다, 몹시도 서글펐다! 녀주인은 그를 상자우에서 자게 하였고 그리고 밤에 혹시 배가 고프면 복도에 나가 창문우에 접시를 덮어놓은 삶은 닭을 먹으라고 미리 일러주었다.

이튿날 아침에 이완 이와늬치와 흐리스또포르신부가 작별하러 왔다.

나스따샤 뻬뜨로브나는 기뻐하며 싸모와르에 차를 끓이려고 하였으나 이완 이와늬치는 몹시 바쁜지 손을 내저었다. 《차나 사탕을 먹고 있을 짬이 없어요. 우리는 곧 떠나야 하니까요.》

작별을 앞두고 모두 잠간 자리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나스따샤 뻬뜨로브나는 꺼지게 한숨을 쉬며 울고난 눈으로 성상을 바라보았다.

《자.》 이완 이와늬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다. 《그럼 넌 남아있거라. …》

그의 얼굴에서는 갑자기 사무적인 랭담한 빛이 사라지고 낯이 붉어지더니 서글픈 웃음을 짓고 이런 말을 하였다.

《정신차려 공부해라. … 어머니를 잊지 말구. 나스따샤 뻬뜨로브나의 말씀을 잘 듣구… 예골아, 너 공부만 잘하면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을테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예고루쉬까를 등지고 돌아서서 오래동안 잔돈을 뒤적거리다가 10꼬뻬이까짜리 하나를 찾아내여 예고루쉬까에게 내밀었다. 흐리스또포르신부는 한숨을 지으며 별로 급해하지 않고 예고루쉬까를 축복하였다.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공부해라.》 하고 그는 말하였다. 《힘써 공부해. 이 애야, 만일 내가 죽으면 잊지 말고 생각해라. 자, 나한테서도 10꼬뻬이까짜리를 하나 받아라. …》

예고루쉬까는 그의 손에 입을 맞추고는 그만 울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인지 이제 다시는 이 늙은이와 만나지 못할것이라고 속삭이였다.

《나스따샤 뻬뜨로브나, 내가 중학교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이완 이와늬치는 마치 복도에 죽은 사람이라도 있기나 한듯 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8월 초이레날, 저 애를 시험치러 데려가주십시오. … 그럼 잘계시오! 하느님께서 돌봐주실게다! 잘있거라, 예고르야!》

《글쎄 차라도 한잔 하실걸!》 나스따샤 뻬뜨로브나가 신음하는듯 한 소리를 질렀다.

눈에 눈물이 글썽한 예고루쉬까는 큰아버지와 흐리스또포르신부가 방을 나가는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창문가로 달려가보았으나 마당에서도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대문쪽에서 금방 짖던 개가 제

임무를 다하였다는듯 다시 달려왔다. 예고루쉬까는 자기도 무슨 까닭인지 알수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여나갔다. 그가 대문밖으로 나오니 이완 이와늬치는 갈구리가 달린 지팽이를, 흐리스또포르신부는 긴 지팽이를 각각 흔들며 벌써 길모퉁이를 돌아가고있었다. 예고루쉬까는 지금까지의 자기 생활이 저 사람들과 함께 연기같이 영원히 사라지고말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맥없이 걸상에 펄썩 주저앉으며 이제 그를 위하여 시작된 새롭고 알지 못할 생활을 쓰디쓴 눈물로 맞아들였다.

이 생활은 과연 어떻게 될것인가?

—1888년—

6 호 병 실

1

병원마당안에 외따로 떨어져있는 한채의 건물은 마치도 숲처럼 우거진 국화가막사리며 쐐기풀이며 돌삼 등에 파묻힌것처럼 보였다. 그 건물의 지붕은 녹이 쓸고 굴뚝은 반이나 무너져내렸고 현관층계는 썩어 풀에 묻혔으나 그래도 담벽에 발랐던 회칠은 흔적이나마 남아있었다. 이 건물의 정면은 병원쪽으로 향해있었고 뒤에는 밭이 있었다. 이 건물과 밭사이에는 날카로운 못들이 솟아있는 병원의 나무울타리가 둘러싸여있었다. 뾰족한 못들과 나무울타리 그리고 이런 건물같은것들은 우리 나라에서는 병원이나 감옥 같은 건물에서만 볼수 있는 류달리 음산하고 저주로운 꼴을 하고있었다.

누구나 쐐기풀에 찔리는것이 싫지 않다면 그 건물로 가는 좁은 오솔길에 들어설것이다. 그러면 그 건물안에서 벌어지고있는 광경들을 볼수 있을것이다. 첫문을 열면 현관이다. 여기는 담벽과 난로곁에 병원의 잡동사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침대깔개와 갈기갈기 찢어진 흰 환자복들, 바지며 푸른 줄이 간 속옷이니 아무데도 쓰지 못할 해진 구두니 하는 이 모든 넝마들이 더미로 쌓인채 구겨지고 뒤엉키고 썩어 숨막힐듯 한 악취를 풍겼다.

그 쓰레기더미우에서는 언제 보나 문지기 니끼따가 이발새에 대통을 물고 누워있었다. 그는 색이 바래여 벌거스레한 휘장을 달고있는 늙은 제대병사였다. 그의 얼굴은 여위여 사나와보였고 눈섭은 축 늘어져 초원의 양지기개같은 인상을 주었고 코는 빨갰다. 그는 키가 크지 않고 겉으로 보아서는 몹시 여위여 힘줄만 남은것 같았으나 강단이 있어보였고 두주먹은 억세였다. 그는 이 세상에서 질서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였기때문에 사람들을 때리기도 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있는 단순하고 적극적이며 실천력이 강하고 우둔한 그런 사람들축에 속하였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과 가슴, 잔등을 닥치는대로 때렸다.

그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질서를 세울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곳을 지나면 크고 넓은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관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면 이 방은 건물의 전체를 차지하고있었다. 담벽들은 어둡고 퍼르스레한 색갈로 더럽혀지고 천정이 굴뚝없는 농가처럼 연기에 끄슬린것으로 보아 겨울에는 이 방의 난로가 대고 숯내를 자주 먹는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 창문들은 안쪽에 쇠살창들이 꽂혀있어 보기가 아주 흉하였다. 마루바닥은 꺼멓고 가시투성이였다. 여기서는 소금에 절인 시큼한 가두배추냄새며 초심지 타는 냄새, 빈대와 암모니아냄새가 풍기였다. 이 고약한 냄새는 이 방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 동물원에 들어간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방안에는 나사못으로 마루바닥에 고정시킨 침대들이 있었다. 침대들우에는 푸른 환자복을 입고 구식실내모를 쓴 사람들이 앉아있기도 하고 누워있기도 하였다. 그들은 정신병환자들이였다.

이 방에는 모두 다섯사람이 있었다. 한사람만은 중산층출신이였고 나머지는 평민들이였다. 문옆에서 불그레하고 윤이 도는 수염과 울어서 부은 눈을 한 평민은 머리를 고이고 앉아서 한곳만 줄곧 바라보았다. 그는 밤낮으로 머리를 흔들고 한숨을 쉬며 쓴웃음을 지으면서 슬퍼하였다. 그는 남의 말에 참견하지 않았고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음식을 주면 그저 기계적으로 먹고 마시였다. 고통스럽게 쿨렁대는 기침이며 초췌한 두볼이 꺼지고 홍조를 띤것으로 보아 그는 분명 페결핵을 앓고있었다.

그의 다음에는 키가 작고 팔팔하고 동작이 잰 늙은이가 있었다. 그의 수염은 뻣뻣하고 머리칼은 흑인처럼 꺼멓고 굽실굽실하였다. 그는 낮에는 이 창문에서 저 창문으로 병실안을 서성거리든가 자기 침대에 다리를 틀고 앉아있었다. 그는 산까치와 같이 가만있지 못하고 휘파람을 불거나 나직이 노래를 부르며 히히 웃었다. 그가 어린애같이 쾌활하고 동작이 민첩한것은 밤에도 나타났다. 그는 밤에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려고 즉 주먹으로 가슴을 치거나 손가락으로 긁느라고 의례히 일어나군 했다. 이 유태인 모이쎄이까는 20년전에 정신병에 걸렸는데 그때 그의 모자상점이 불탔기때문이였다.

이 6호병실의 입원환자들중에서 그 사람만은 병실밖으로 나갈수 있었고 지어 거리에도 나가게 하였다. 그가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된것은

벌써 오래전부터였다. 그것은 그가 이 병동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다가 온순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바보이며 시내의 어리광대이기도 한 까닭이였다. 시내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가 애들이나 개한테 둘러싸여있는것을 보아왔다. 그는 잠옷에 우습강스러운 실내모를 쓰고 방신을 끌거나 때로는 맨발로 게다가 바지까지 벗고 시내거리들을 싸다니면서 남의 집 대문간이나 가게곁에 서서 동냥하군 하였다. 어떤 곳에서는 크와쓰를 주었고 다른 곳에서는 빵을 또 다른 곳에서는 동전을 주었다. 때문에 그는 병동으로 돌아올 때마다 늘 배가 불러있었고 돈도 많았다. 니끼따는 자기가 쓰려고 그가 벌어온것을 몽땅 빼앗군 하였다. 이 제대병사는 그의 호주머니를 홀딱 뒤집어 몽땅 빼앗고는 이 유태인을 다시는 거리에 내보내지 않을것이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것은 무질서라고 하느님까지 증인으로 내세우며 사납게 화를 내군 하였다.

모이쎄이까는 남의 시중을 들기 좋아했다. 그는 같이 있는 환자들에게 물을 떠다주었고 그들이 잘 때에는 덮어주었으며 환자들에게 매번 돈을 동냥해다주고 새 모자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는 자기 옆에 있는 중풍환자에게 음식을 숟갈로 떠먹이기까지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하는것은 동정이나 어떤 인도적인것이 아니라 자기 옆사람의 오른쪽에 있는 그로모브의 흉내를 내여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였다.

이완 드미뜨리치 그로모브는 한 30살쯤 된 사나이로 중산층네 집에서 태여났고 집달리도 현서기도 하였는데 박해망상증에 걸려있었다. 그는 침대에 몸을 구부리고 누워있든가, 운동을 하는것처럼 이 구석, 저 구석 걸어다녔고 앉아있는 일은 아주 드물었다. 그는 언제나 어떤 막연하고 걷잡을수 없는 예감에 흥분하여 격동되고 긴장해있었다. 현관에서 바스락소리가 나거나 뜰에서 웨치는 소리만 들려도 누가 자기를 잡으러 오거나 찾는줄 알고 머리를 들고 귀를 기울이였다. 이럴 때면 그의 얼굴에는 말할수 없는 불안과 혐오의 표정이 떠오르군 하였다.

그의 넙적하고 광대뼈가 두드러진 얼굴, 언제나 창백하고 불행해보이며 싸움과 계속되는 공포에 지친 감정이 거울에 비치듯이 나타나는 그의 얼굴은 내 마음에 들었다. 그의 찌프린 얼굴은 이상하고 병적이였으나 심각하고 모진 고통이 그의 얼굴에 그려놓은 섬세한 선들은 리성적이고 지성적이였으며 따뜻한 눈에는 건전함이 엿보였다. 그는 니

끼따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공손하고 친절하며 류달리 상냥한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는 누구든지 단추나 숟갈을 떨어뜨리면 재빨리 침대에서 뛰여내려 집어주었다. 그는 아침에는 같이 있는 환자들에게 인사를 했고 자려고 누우면서도 그들에게 저녁인사를 했다.

부단히 긴장하고 얼굴을 찌프리는것외에도 그가 미쳤다는것은 다음과 같은데서도 나타나군 하였다. 즉 그는 때때로 저녁이면 잠옷만을 입고 온몸을 떨며 이발을 맞부딪치면서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또는 침대사이로 분주히 왔다갔다하기 시작하였다. 마치 심한 열이 난 사람같았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동료들을 바라보는것으로 보아 그가 무슨 심상치 않는 말을 하고싶어한다는것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남들이 첫눈에도 자기의 말을 들어줄것 같지 않고 또 리해하지도 못하리란것을 알았는지 성급히 머리를 내저으며 다시금 걷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인차 말하고싶은 욕망이 다른 모든 생각들을 누르자 그는 마음껏 열렬하고 정열적으로 말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갈피를 잡을수 없고 열에 뜬것처럼 신경질적이였으며 돌발적이고 리해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대신 그의 말들속에는 그 어떤 매우 훌륭한것이 있었다. 그가 말할 때 우리는 그한테서 광인과 정상인간을 다 찾아볼수 있었다. 그의 조리없는 이야기를 종이우에 써서 전달하기는 힘들다. 그는 인간의 비렬성에 대하여, 진실을 유린하는 폭압과 이 지상에서 시대에 맞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하여, 그에게는 늘 강압자들의 우둔함과 잔인성을 상기시키는 창문들의 쇠살창들을 두고 말하였다. 우리는 오래기는 하였으나 아직 더 불리워져야 할 노래들로 된 뒤섞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혼성곡을 여기서 듣게 된다.

2

한 12년～15년전만 하여도 관리였던 그로모브는 이 도시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 자기 집을 가지고있었고 착실하고 유족한 살림을 하고있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인 쎄르게이와 이완이 있었다. 쎄르게이는 대학 4학년때에 급성페염에 걸려 죽었는데 이것은 마치도 그로모브네 가정에 별안간 떨어진 숱한 불행의 단서로 된것 같았다. 쎄르게이의 장례가 끝난지 한주일이 지나 늙은 아버지는 사기와 공금랑비죄로

재판받고 감옥병원에서 장티브스로 죽었다. 집과 모든 재물은 경매되였고 이완 드미뜨리치와 어머니는 맨몸만 남았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완 드미뜨리치는 뻬쩨르부르그에서 대학에 다니면서 집에서 한달에 60～70루블씩 받았다. 때문에 옹색한것을 전혀 모르고 지냈으나 이렇게 되고보니 그는 자기의 생활을 급격히 고쳐야 하였다.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 안되는 돈을 받으며 시간교수를 했고 필사를 해야 하였다. 그러나 번 돈은 모두 어머니의 부양비로 보냈기때문에 그는 역시 굶주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완 드미뜨리치는 이러한 생활을 견디여내지 못하였다. 그는 기력이 쇠진해지고 몸이 허약해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 소도시에서 주선을 받아 군립학교의 교원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동료들과 휩쓸리지 못하였고 학생들에게서도 호감을 받지 못하여 곧 그 자리를 떠났다. 어머니가 죽었다. 그는 한 반년동안 직업이 없이 빵과 물만으로 지내다가 그후에는 집달리로 들어갔다. 그는 병으로 물러날 때까지 그 일을 하였다.

그는 젊은 대학생때에조차 건강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였다. 그는 언제나 창백하고 몸은 여위여있었으며 감기에 자주 걸렸다. 그는 적게 먹고 잘 자지 못하였으며 포도주 한잔에도 머리가 핑 돌고 신경질을 냈다. 그는 늘 사람들을 가까이하려고 했으나 성미가 까다롭고 의심이 많아서 어느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하여 친구들도 없었다. 그는 자기 도시 사람들을 언제나 경멸하고 흉을 보면서 그들의 무식과 라태한 동물적생활이 자기에게는 구역질이 날 지경으로 더러운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열렬하게 격분하든가, 환희와 경탄을 담아 언제나 성실하게 말하였다. 그와 무엇을 두고 말하든지 그는 늘 모든것을 하나로 귀착시켰다. 즉 이 도시에서 사는것이 숨막힐듯 하며 재미가 없다는것이였다. 그는 사회에 고상하고 흥미있는것이 없고 다만 애매하고 무의미한 생활만을 영위하면서 강압과 음탕과 위선만이 지배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는 비렬한자들은 배가 부르고 잘 입고있는데 정직한 사람들은 먹다남은 찌꺼기를 먹고있다고 하였다. 그는 학교들이나 정직한 로선을 가진 지방신문이나 연극, 독서와 지식계층들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가 자신을 인식하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람들에 대한 자

기의 견해를 두고 흰것과 검은색으로만 평가했고 중간색은 인정하지 않았다. 즉 그는 인류가 정직한 사람들과 비렬한 사람들로 갈라졌고 중간은 없다는것이였다. 그는 녀성과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정열적으로 환희를 가지고 이야기하였으나 한번도 사랑에 빠진적은 없었다.

도시에서는 그의 견해가 신랄하며 한편 신경질은 있으나 그래도 그를 사랑하고 그가 없는데서는 그를 와냐라고 사랑스럽게 불렀다. 그의 타고난 상냥한 품성과 친절한 태도, 점잖은 자세, 도덕적결백성과 그의 해여진 후록코트며 병색이 도는 얼굴이며 가정의 불행 등은 그에게서 좋고 따뜻하고 서글픈 감정을 일으켰다. 게다가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독서도 많이 하여 이 도시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무엇이나 다 알아 일종의 산 사전과 같다고 하였다.

그는 무척 많이 읽었다. 구락부에 가서는 신경질적으로 수염을 잡아뜯으며 잡지나 서적들을 뒤적이였는데 그런 때에는 그가 그것들을 읽는것이 아니라 미처 씹지 못하고 삼키고있다는것이 그의 얼굴에 분명히 나타나군 하였다. 그의 이러한 독서도 하나의 병적인 습관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손에 닥치는것이라면 무엇이나 즉 해묵은 신문이나 력서까지도 꼭같이 굶주린듯이 달라붙었기때문이다. 그는 자기 집에서는 늘 누워서 책을 읽었다.

3

어느 가을날 아침 이완 드미뜨리치는 외투깃을 세우고 골목들과 뒤뜰안의 진창을 질벅거리며 걸었다. 그는 지금 집행명령서를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평민네 집으로 가는 길이였다. 언제나 아침이면 그렇듯이 그의 기분은 음울했다. 어느 한 골목에서 그는 손에 수갑을 채운 두 죄수가 총을 멘 호송병 네명의 감시를 받으며 가는것을 보았다. 이전에도 이완 드미뜨리치는 이런 죄수들을 자주 본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 죄수들은 그에게 가엾고 거북스러운 감정을 일으키군 하였는데 지금도 그는 그들을 보며 어떤 류달리 이상한 인상을 받았다. 그는 갑자기 웬일인지 자기도 역시 수갑을 차고 이런 진창길로 감옥으로 끌리여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평민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는 우편국부근에서 잘 아는 경찰서장을 만났다. 서장은 인사

를 하면서 그와 함께 얼마간 걸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이것이 그에게는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다음에도 온종일 그의 머리속에서는 죄수들과 총을 멘 병사들이 떠나지 않았다. 알수 없는 마음속의 불안이 그에게 책을 읽지도 정신을 집중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는 저녁에도 불을 켜지 않았고 밤에는 자지도 않으면서 계속 자기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워 감옥에 처넣을지 모른다는 이 한가지 생각만을 하였다. 그는 자기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있었기때문에 자기가 앞으로 결코 살인이나 방화, 절도를 하지 않으리란 것만은 보증할수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 우연히 죄를 범할수도 있지 않는가. 이것이 과연 있을수 없는 일일가, 그리고 중상이라든가 결국에 가서는 법정의 과오라든가 하는것도 과연 있을수 없는 일일가? 동냥자루는 들지 않고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장담하지 못한다는것은 오랜 력사를 통하여 인민들의 경험이 가르쳐주었다는것도 그럴만 한 리유가 있지 않을가. 그런데 법정의 잘못은 재판과정에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다. 남의 고통을 직무상으로나 사무로만 취급하는 사람들, 례를 들어 재판관이나 경찰, 의사와 같은 사람들은 세월이 이루어놓은 관습에 따라 피고나 손님에게 생각은 어떻든간에 형식적으로 대할수밖에 없을 정도로 관습화되고말았다. 이 점에서 그들은, 뒤뜰안에서 양이나 송아지를 잡고도 피에는 아무 관심도 돌리지 않는 무지한 농군들과 조금도 다를바가 없다. 사람에 대한 이렇듯 형식적이며 랭담한 태도가 지배하는데서는 죄없는 사람에게서 재산의 모든 권리를 빼앗고 도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재판관에게 단 한가지 시간만이 필요한것이다. 나라에서는 재판관에게 단지 그것때문에 봉급을 지불하고있는 그런 형식성을 충실히 지킬만 한 시간만 있으면 만사가 그만인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철길에서 2백로리나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작고 더러운 도시에서 공정성과 비호를 찾아보라지! 그러니 사회는 이러한 모든 강압을 리성적이고 목적에 맞는 필요한것이라고 환영하고 자비의 행동, 례를 들어 무죄선고 같은것은 불만과 복수의 감정을 폭발시키고있는 이때 공정성을 생각한다는것은 가소롭지 않은가?

다음날 아침, 이완 드미뜨리치는 금시라도 자기를 체포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나머지 공포에 싸여 이마에 식은땀을 쭉 흘리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제의 괴로운 생각이 이렇게 오래동안 떠나지 않는것을 보면 결국 이런 생각에는 얼마간이라도 진실이 있는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사실 아무런 리유도 없이 이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수는 없지 않는가.

경관이 천천히 창문곁을 지나갔다. 이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집곁에 서있다. 그들은 왜 말이 없는가?

이완 드미뜨리치에게는 곧 괴로운 낮과 밤들이 시작되였다. 창문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뜰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밀정이나 형사로 보이였다. 점심때가 되면 군경찰서장이 늘 쌍두마차를 타고 거리로 지나가군 하였다. 이것은 그가 교외에 있는 자기 집에서 경찰서로 가군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이완 드미뜨리치는 서장이 이렇게 빨리, 무슨 심상치 않은 표정을 하고 마차를 달리는것은 분명히 몹시 중한 죄인이 이 도시에 나타났다는것을 알리려고 서두르는것으로 보이였다. 이완 드미뜨리치는 문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가 딸각소리만 나도 몸을 떨었고 녀주인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몹시 괴로와하였다. 그는 경관이나 헌병을 만나도 우정 태연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미소를 띠우고 휘파람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는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몰라 어느 한밤도 편히 자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는 녀주인에게 자기가 자는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도 하고 큰 숨을 내쉬기도 하였다. 만일 자기가 자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영낙없이 자기가 량심의 가책을 받고있는것으로 보일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범죄의 증거가 아닌가! 사실과 건전한 론리는 이 모든 공포가 어리석은 일이며 정신병이라고 인정하고 문제를 더 널리 고찰하면서 체포나 감옥 같은것은 전혀 무섭지 않다고 그를 설복시켰기때문에 그의 량심이 편할수도 있었을것이다. 하지만 그가 령리하게 보다 론리적으로 판단하면 할수록 마음속의 불안은 더 커졌고 더 고통스러워졌다. 이것은 마치도 한 백치가 밀림속에 자기의 집터를 닦으려고 도끼질을 열심히 하여 나무들을 찍으면 찍을수록 주위의 밀림이 더 울창하고 세차게 자라는것처럼 생각되는것과 같았다. 이완 드미뜨리치는 결국 이러한것들이 허사임을 알고 이것저것 판단하기를 아주 그만두고 절망과 공포에 몸을 맡겨버렸다.

그는 혼자 있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근

무가 이전에도 싫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더구나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가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호주머니에 뢰물을 찔러넣고 그것을 죄의 증거로 하지나 않을가, 아니면 남의 돈을 잃지나 않을가 하는 두려운 생각에 시달렸다. 그는 자기 생각이 이전에는 한번도 지금처럼 능란하지 못했고 궁리가 많지도 못했던것이 이상하였다. 자기는 지금 매일처럼 자신의 자유와 명예를 수천가지로 우려하고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대신 바깥세상에 대한 그중의 관심, 특히 책들에 대한 그의 관심이 눈에 띄게 감소되였고 기억력도 몹시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봄이 되여 눈이 녹자 산골짜기의 묘지근처에서 맞아죽은것이 분명한 반이나 썩은 늙은 녀인과 소년의 시체가 발견되였다. 시내에서는 온통 이 두 시체와 그들을 죽인 알지 못할 살인자들에 대한 이야기뿐이였다. 이완 드미뜨리치는 자기가 그들을 죽인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거리로 나다니며 미소를 띠우기도 하였으나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창백한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약하여 자기 몸을 가눌 힘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것보다 더 비렬한 범죄는 없다고 확인시키려고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설교하는것도 귀찮아져 곰곰히 생각한 끝에 지금 자기의 처지로 가장 좋기는 집주인네 움속에 숨어있는것이라고 작정했다. 그는 온종일 움속에 들어가있었고 그다음날도 움속에 있는 바람에 온몸이 몹시 얼었다. 그는 할수없이 어둡기를 기다려 도적처럼 몰래 나와 자기 방으로 갔다. 그는 새벽까지 꼼짝도 않고 귀를 기울이면서 방가운데 선채로 새웠다. 그날 아침일찍 해가 뜨기 전에 벽난로공들이 녀주인을 찾아왔다. 이완 드미뜨리치는 그들이 벽난로를 고쳐쌓으려고 온줄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공포증으로 하여 그 벽난로공들이 변장한 형사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방에서 가만히 빠져나와 공포에 사로잡힌채 모자도 후록코트도 없이 거리로 뛰여나갔다. 개들이 짖어대며 그의 뒤를 따르고 등뒤 어디선가는 농군이 소리를 지르고 귀가에서 바람이 소리를 내는통에 이완 드미뜨리치는 이 세상의 온갖 폭행이 자기 잔등에 떨어지는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집으로 끌어왔다. 그리고 녀주인을 시켜 의사를 불러오게 하였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라고 부르는 의사는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머리에 찬물찜질을 하게 하고 식물성물약을 처방하였다.

그는 우울한 얼굴로 머리를 저으며 녀주인에게 사람이 미치는것을 방해해서는 안되기때문에 자기는 다시 오지 않겠노라고 한마디 하고는 가버리였다. 주인집에서는 그를 먹이거나 치료할 방도가 없기때문에 병원으로 보내여 매독환자들이 있는 병실에 두었다. 그는 밤이면 자지 않고 제멋대로 굴면서 환자들을 괴롭혔다. 때문에 안드레이 예피믜치의 지시에 따라 곧 6호병실로 옮겨오게 되였다.

한해가 지나자 시내에서는 이미 이완 드미뜨리치의 일을 잊어버렸고 녀주인이 처마곁에 있는 썰매우에 쌓아두었던 그의 책들은 어린애들이 다 훔쳐가고말았다.

4

이완 드미뜨리치의 왼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유태인 모이쎄이까이고 오른편사람은 우둔하고 백치같은 얼굴을 한 농군이였다. 살이 지고 뚱뚱한 이 사나이는 끔짝 않고 먹기만 하였고 사고한다든가 각성한다든가 하는 능력을 잃은지 이미 오랜 더러운 짐승이나 다름없었다. 그한테서는 언제나 숨막힐듯 한 역한 냄새가 풍겼다.

그를 거두어주는 니끼따는 자기의 주먹을 아끼지 않고 그를 힘껏 때리군 했다. 이런 경우에 무섭다는것은 그를 친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맞는데는 익숙해질수도 있으니까.) 이 둔한 짐승같이 돼버린 그가 매를 맞고도 찍소리도 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거나 눈도 한번 깜빡하지 않고 다만 무거운 나무통처럼 얼마쯤 흔들릴뿐이라는것이였다.

이 6호병실에서 다섯번째인 마지막환자는 이전에 우편국에서 분류원으로 있던 보통사람이였다. 그는 키가 작고 몸집이 약하였다. 그는 머리칼이 벌거우리하고 선량해보이기는 하지만 약간 능청스러운 표정을 한 사나이였다. 밝고 명랑하게 바라보는 령리하고 온순한 그의 눈을 보면 그는 제정신을 잃지 않고 무엇인가 몹시 소중하고 즐거운 비밀을 가지고있는것 같았다. 그는 베개와 침대깔개밑에 무엇인가 숨겨두고있었으나 그것을 누구한테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누가 빼앗거나 또는 훔칠가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끄러움때문이였다. 그는 때로 창문가에 가서 다른 환자들이 보지 않게 돌아서서는 가슴에 무엇인가

를 붙이고는 머리를 숙여 내려다보군 하였다. 이때 누구든지 그한테 다가가면 그는 얼굴을 붉히며 가슴에 붙였던것을 떼버리군 하였다. 그러나 그의 비밀을 추측하는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그는 이완 드미뜨리치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하였다.

《나를 축복해주시오. 나는 금메달이 달린 쓰따니슬라브훈장 2급을 추천받게 되여있으니까요. 금메달이 달린 2급은 외국사람들에게만 수여한다는데 웬일인지 나한테 특별히 수여한다는군요.》 그는 못미더운듯 어깨를 으쓱하며 눈웃음을 웃었다. 《그런데 터놓고 말하지만 난 예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난 그런건 전혀 모르오.》 이완 드미뜨리치는 퉁명스럽게 말을 내뱉았다.

이전 분류원은 능청맞게 실눈을 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인차 받게 될가요, 늦게 받게 될가요? 나는 스웨리예 〈북극성〉훈장을 틀림없이 받겠지요. 이 훈장이야말로 받을수 있게 힘써볼만 한게지요. 흰색십자에 검은 술이 달려있으니까요. 참, 아름답거던요.》

아마도 딴 병실들에서는 이 병실처럼 생활이 단조롭지는 않을것이다. 아침이면 마비환자와 뚱뚱한 농군을 내놓고는 모두 현관에 있는 커다란 물통의 물로 세면을 하고 환자복자락으로 훔쳤다. 이것이 끝나면 니끼따가 본관에서 가져오는 차를 주석으로 만든 차잔에 받아마셨다.

한사람한테 한잔씩 차례졌다. 점심에는 소금에 절인 가두배추국과 죽을 먹었고 저녁에는 점심에 남겼던 죽을 먹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였고 창문을 바라보면서 이구석저구석을 거닐기도 하였다. 매일마다 꼭 같았다. 분류원조차도 언제나 꼭같은 훈장이야기만 하였다.

6호병실에는 새로 들어오는 환자가 매우 드물었다. 안드레이 예피미치의사는 오래전부터 새 정신병환자는 받지 않았고 세상에는 정신병원을 방문하는 호사가도 많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두달에 한번씩 리발사 쎄묜 라자리츠가 이 병실로 오군 했다. 그가 정신병환자들의 머리를 어떻게 깎아주는지, 이 리발사가 머리를 깎을 때 니끼따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거나하게 취한 리발사가 미소를 띠우고 나타날 때마

다 환자들이 어떤 소동을 일으키는지 하는것은 말하지 않기로 하자.
리발사외에 누구도 이 외따로 떨어진 병실에 머리를 내미는 사람이 없었다. 환자들은 날마다 니끼따만을 보군 하였다.
그러나 요새 병원에서는 어지간히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의사가 이 6호병실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는것이였다.

5

참 이상한 소문이였다.
의사 안드레이 예피믜치 라긴은 출신으로 보아도 훌륭한 사람이였다. 그는 아직 어렸을 때 신앙심이 두터워 승려가 되려고 1863년에 중학교를 졸업하자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의학박사이며 외과의사인 아버지가 그를 몹시 비웃으며 만일 승려가 되면 자기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언명하였다고 한다.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안드레이 예피믜치자신이 여러번 자백한바에 의하면 그는 의학이나 대체로 전문과학 같은것을 자기 직업으로 여겨본적이 전혀 없다는것이였다.
그는 어쨌든 의학부를 졸업하고 승려가 되지는 않았다. 그는 신앙심이 없었고 의사가 된 다음에도 역시 지금처럼 성직자 비슷한데가 별로 없었다.
그의 외모는 뚱뚱하고 막된 농군같았다. 다시말하여 그의 얼굴이며 구레나룻이며 부시시한 머리칼이며 뚱뚱한 몸집으로 보아 먹성이 좋고 주책이 없으며 우둔한 큰 길가의 술집주인을 련상케 했다. 엄한 얼굴에는 푸른 피줄들이 많았고 눈은 작고 코는 시뻘갰다. 큰 키에 어깨가 쩍 벌어진 그의 손발도 큼직하였는데 그 주먹에 한대 얻어맞으면 쓰러질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럽고 가벼웠다. 때문에 그는 좁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늘 먼저 길을 내주려고 발을 멈추고 예상하였던 굵고 낮은 목소리가 아니라 가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안합니다!》 라고 했다. 그의 목에는 그리 크지 않은 종처가 있어 그때문에 그는 풀먹인 꽛꽛한

깃을 댄 샤쯔가 아니라 늘 부드러운 아마천이나 또는 꽃천으로 된것을 입고 다녔다. 그는 대체로 의사다운 옷차림을 하지 않았고 같은 신을 한 10년씩 신고다녔다. 그는 늘 유태인상점에서 새옷을 사군 하였는데 그가 입으면 낡은 옷처럼 해지고 구겨진것같이 보이였다. 그는 단벌인 후록코트를 입고 환자를 진찰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나들이옷으로도 입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린색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외모에는 전혀 무관심하기때문이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가 임명을 받고 이 도시로 왔을 때 이 자선병원은 무서운 형편에 처해있었다. 병실과 복도, 병원마당이나 할것없이 냄새가 고약하여 숨도 쉬기 어려웠다. 병원의 막일군들과 간병원들이며 그들의 자식들까지 환자들과 함께 병원에서 잤다. 그들은 바퀴며 빈대, 쥐 같은것들때문에 편히 지낼수가 없다고 불평들을 하였다. 외과병실에는 단독이 계속 전염되였다. 병원에는 다 합하여 외과용수술칼이 두개밖에 없었고 체온기는 전혀 없었으며 목욕탕에는 감자를 쌓아두고있었다. 경비원이니 세탁부니 준의니 하는 사람들은 환자들을 뜯어먹었고 안드레이 예피믜치가 오기 전에 있던 늙은 의사는 병원의 알콜을 몰래 팔아먹고 간병원들과 녀자환자들을 자기 방에 끌어들여 동거생활을 하였다는 말들이 돌았다. 시내에서는 병원이 이처럼 무질서하다는것을 잘 알고들있었고 게다가 몇배나 과장하여 소문을 내면서도 이런것들을 태연하게 생각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도시의 천민이나 농군들뿐인데 그들이 집에서야 어디 병원에서처럼 잘 지낼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아무렴 그들에게 들꿩까지 먹일수야 없지 않는가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방자치회가 돕지 않으면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병원이나마 유지해나갈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나쁜 병원이라도 있다는것이 다행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더러운 병원이 있는것이 도리여 정당한것처럼 말하였다. 또한 나온지 얼마 안되는 이 도시의 지방자치회는 시내에 자기들이 후원하는 병원이 있다는것을 구실로 진료소 하나도 더 내오지 않았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병원형편을 자세히 알아보고나서 이러한 병원은 비도덕적이며 위생상으로 보아도 극히 유해로운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책은 환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병원문을 닫아버려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자면 자기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안되며 또한 육체적이며 도덕적불결을 한곳에서 쫓아내더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갈것이니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이 스스로 바람에라도 날려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또한 사람들이 병원을 열고 그것을 그래도 참아나가는것이 그들에게는 필요한것임에 틀림없었다. 편견이라든가, 이 세상의 그 모든 너절하고 구역질나는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땅에 뿌려질 비료처럼 어떤 쓸모있는것으로 될수 있기때문에 필요한것이였다. 이 세상에는 자기 바탕속에 너절한것을 가지고있지 않을만큼 훌륭한것은 하나도 없었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임명되자 이러한 더러운것들에 아주 무관심하게 대한듯 하였다. 그는 다만 병원의 막일군이나 간병원들이 병원에서 자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기구들을 넣는 장을 두개 마련하게 하였다. 경비원들은 물론 세탁부와 준의며 단독균들이 여전히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리성과 성실성을 몹시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주위에 리성에 맞고 성실한 생활을 꾸리기에는 그의 성격과 신념이 너무도 부족하였다. 그는 결코 명령하거나 금지시키거나 주장하지도 못하였다. 그는 마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명령법은 사용하지 않기로 맹세한것 같았다. 그는 《주게》라든가 《가져오게》라는 말을 하기 힘들어하였고 먹고싶을 때에도 우물쭈물 기침을 하여가며 식모에게 《차 한잔 마시고싶은데…》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좀 했으면 하는데…》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경비원에게 물건을 훔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를 쫓아내거나 또한 이러한 필요없는 식객같은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기에는 그의 힘이 너무도 모자랐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남들이 속인다든가 아첨하든가 뻔히 아는 부정적인 계산서에 수표를 해달라고 가져오면 새우처럼 얼굴이 빨개지면서 죄나 진것처럼 느꼈다. 그러면서도 역시 계산서에 수표하였다. 환자들이 그에게 배가 고프다든가 또는 간병원이 랭대한다고 신소하면 그는 몸둘바를 몰라하며 미안한 어조로 중얼거리였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 나중에 알아보지요. … 아마 무슨 착오겠지요. …》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처음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는 매

일 아침부터 점심까지 진찰하고 수술도 했으며 산부인과의 조산원 노릇까지 하였다. 부인들이 그가 세심하고 병도 잘 진단하고 특히 어린이병과 부인병을 잘 안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월이 감에 따라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단조롭고 분명히 쓸데없는 일이라는것을 알게 되여 싫증이 났다. 오늘 30명의 환자를 진찰하면 래일은 35명, 모레는 40명이 밀려들었다. 이렇게 날이 가고 해가 가도 이 도시의 사망률은 줄지 않을것이며 환자들은 더 많아질것이다. 40명씩이나 되는 환자들을 아침부터 점심까지 자세히 진찰하자면 우선 육체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거짓말을 할수밖에 없었다. 1년동안에 1만 3천명의 환자를 받았다면 이것은 솔직히 말하여 1만 3천명이 속은것과 같다. 중환자들을 이런 상태의 병실에 입원시키고 의학적규정에 따라 그들을 치료한다는것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였다. 왜냐하면 규정은 있지만 과학이 없기때문이였다. 만일 철학적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의사들처럼 자로 재듯이 규정에만 의거하자면 우선 먼지가 아니라 청결과 환기가 필요하고 소금에 절인 가두배추국이 아니라 영양가치가 높은 음식이 필요하며 도적놈들이 아니라 훌륭한 방조자들이 필요한것이다.

더우기 죽음이란것이 어느 누구 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종말이라면 무엇때문에 사람들이 죽는것을 방해하랴? 혹시 어떤 장사군이나 관리가 한 5년이나 10년을 더 산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만일 의학의 목적이 약으로 고통을 덜게 하는것이라면 도대체 고통을 왜 덜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스스로 생기게 된다. 첫째로 우선 고통이 사람을 완성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고들 말하고있지 않는가, 둘째로 만일 인류가 정말 알약이나 물약으로 자기의 고통을 더는것을 배운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불행을 막아주고 행복을 찾아주기까지 한 종교나 철학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있지 않는가, 뿌슈낀은 림종직전에 무서운 고통을 겪었고 불쌍한 하이네는 몇해동안 중풍으로 자리에 누워있었다, 생명은 원래 아무 내용도 없기때문에 만일 고통만 없었더라면 아주 텅 비게 되였을것이고 아메바의 생명과도 같았을 안드레이 예피미치라든가 마뜨료나 싸위쉬나와 같은 사람들이 앓는것이 무엇이 나쁜가?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이런 생각에 억눌리자 손맥이 풀리여 병원에도 매일 나가지 않게 되였다.

6

그의 일과는 이렇게 지나갔다. 그는 늘 아침 여덟시경에 일어나 옷을 입고 차를 마신다. 그다음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든가 병원으로 간다. 병원에는 좁고 어두운 복도에 병을 보러온 환자들이 앉아있다. 그 환자들앞으로 막로동자들과 간병원들이 벽돌바닥에 구두소리를 내면서 뛰여다닌다. 환자복을 입은 초췌한 환자들이 지나다니고 시체들과 불결한 식기들을 나르며 애들이 울어대고 맞바람이 친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이러한 환경이 열이 있는 환자들이나 결핵환자들 또한 대체로 신경이 예민한 환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것임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진찰실에서는 준의인 쎄르게이 쎄르게이치가 그를 맞아주었다. 키가 작고 뚱뚱한 이 사나이는 면도를 한데다가 깨끗이 씻은 피둥피둥한 얼굴이며 부드럽고 말쑥한 외모며 새로 입은 후렁후렁한 옷으로 하여 준의라기보다는 원로원 의원같았다. 그는 이 도시에 개인적인 왕진단골을 많이 가지고있었고 흰 넥타이를 매고 다녔다. 그는 왕진단골이 전혀 없는 의사보다는 자기가 더 능숙하다고 생각하였다. 옆에는 흰 천을 씌운 탁자가 있었고 담벽에는 주교들의 초상화들이며 쓰와또고르수도원의 전경이며 시든 들국화화환들이 걸려있었다. 쎄르게이 쎄르게이치는 신앙심이 두터웠고 화려한것을 좋아하였다. 성상은 그가 사다놓은것이였다. 일요일이면 진찰실에서 환자들중 어느 한사람이 그의 분부에 따라 찬미가를 불렀고 그것이 끝나면 쎄르게이 쎄르게이치가 향로를 들고 직접 온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향불을 피웠다.

환자들은 많고 시간은 적었기때문에 치료라는것은 다만 짤막한 질문이나 어떤 약 즉 휘발성연고나 피마주기름을 주는것으로 그쳤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앉아서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 생각에 잠긴채 기계적으로 묻군 하였다. 쎄르게이 쎄르게이치도 역시 앉아서 손을 맞부비면서 가끔 가다 말참견을 하군 하였다.

《자비하신 주님께 기도를 잘 드리지 않으니 앓기두 하구 고통두 받지요. 그렇구말구요!》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진찰시간에는 전혀 수술을 하지 않았다. 그는

수술하는 습관이 없어진지 오랬고 피를 본다는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는 어린애의 목구멍을 들여다보기 위하여 입을 벌리게 하였을 때 어린애가 소리를 친다든가, 손으로 막으려고 버둥질하면 귀속이 왕왕 울어대는 바람에 머리가 핑핑 돌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분주히 약처방을 떼주고 애어머니더러 어서 어린애를 데리고가라고 손을 내저었다.

그는 진찰을 할 때면 환자들이 겁을 먹는다든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한다든가 화려한 차림을 한 쎄르게이 쎄르게이치가 가까이 오거나 담벽에 걸린 초상화들이며 그가 벌써 20년이상 한본새로 물어보군 하는 자기의 질문들이 딱 질색이였다. 그는 대여섯명의 환자를 진찰하고는 가버렸다. 남은 환자들은 준의 혼자서 진찰했다. 그는 다행히도 시내에서 자기를 왕진에 청하지 않는지 오래되고 아무도 자기를 방해할 사람이 없다는 유쾌한 생각으로 집에 돌아오면 서재로 가서 책상앞에 마주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는 무척 많이 그리고 언제나 몹시 만족감을 가지고 읽었다. 그는 봉급의 절반을 책 사는데 바쳤다. 때문에 그의 집은 방이 여섯칸이였는데 그중에서 세방은 책들과 낡은 잡지들로 가득차있었다. 그는 력사나 철학책들을 제일 좋아하였다. 의학책으로는 그가 늘 끝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의사》라는 잡지 하나만을 받아보았다. 그는 늘 독서하였고 몇시간동안이나 내처 책을 읽어도 지칠줄 몰랐다. 그는 언젠가 이완 드미뜨리치가 읽던것처럼 그렇게 빨리 열중하여 읽는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나하나 뜻을 새겨가면서 읽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가 리해가 되지 않는 대목에서는 독서를 멈추었다가 다시 읽었다. 책옆에는 의례히 술병과 오이절임이나 또는 접시가 아니라 그냥 천쪼각우에 놓은 사탕물에 절인 사과가 있었다. 한 반시간에 한번씩 그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술잔에 술을 부어마시고는 역시 손더듬으로 오이절임을 집어 한쪼각씩 물어뜯었다.

3시가 되면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문쪽으로 가서 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리유스까,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지간히 맛없고 유쾌하지 못한 식사가 끝나면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가슴에 팔을 겯고 자기 방안을 왔다갔다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4시가 지나고 5시가 돼도 그는 줄곧 왔다갔다하면서 생각하였다. 가끔 부엌문소리가 나고 다리유스까의 벌겋고 지나치게 자서 부석부석한 얼굴이 나타나군 하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 맥주를 마실 때가 아니예요?》 다리유스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아직 때가 안됐소. … 좀더 기다리지… 좀더 있다가…》

저녁이면 늘 우편국장 미하일 아베리야늬치가 왔다. 그는 안드레이 예피믜치가 이 도시에서 무랍없이 사귈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였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한때 굉장히 돈많은 지주였고 기병대에도 복무했으나 파산당하여 살림이 옹색해지다보니 늘그막에 우편국에 들어갔다. 그의 외모는 생기있고 듬직하였으며 흰 구레나룻이 풍채를 돋구었다. 그는 점잖고 목소리는 크고 듣기 좋았다. 그는 착하고 정다운 사람이였으나 성미가 메말랐다. 우편국에서 어떤 손님이 항의를 하거나 접수하지 않거나 또는 공연한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면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얼굴이 홍당무우처럼 되여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큰 목소리로 《잠자쿠 있소.》 하고 고함을 지르군 한 까닭에 이미 오래전부터 우편국은 가기가 무서운 기관이라는 소문이 나있었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안드레이 예피믜치가 교양이 있고 마음이 착하다고 존경하고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가 마치도 자기의 부하나 되는것처럼 말하였다.

《저올시다! 안녕합니까? 이젠 아마 제가 오는게 성가시겠지요?》 그는 안드레이 예피믜치네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천만에, 아주 반갑습니다. 저는 언제나 당신이 오시는게 반갑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대답하였다.

두 친구는 서재의 안락의자에 앉아 얼마동안 말없이 담배만 피웠다.

《다리유스까, 맥주를 주었으면 하는데!》 안드레이 예피믜치가 말했다.

의사는 생각에 잠긴채 그리고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무엇인가 몹시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처럼 즐겁고 활기를 띤채 첫 맥주병을 역시 말없이 마시였다. 이야기는 언제나 의사가 먼저 꺼냈다.

그는 머리를 저어가며 상대자를 마주 바라보지도 않고 (그는 마주 바라보는 법이 없었다.) 천천히 조용조용 말을 시작하군 하였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미하일 아베리야늬치, 우리 도시에 리성적이고 흥미있는 이야기를 할줄 알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것이 아주 유감천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손실입니다. 지식층조차도 저속한것을 벗어나지 못하고있지요. 그들의 발전수준이란 하층보다 난것이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시요, 동감이올시다.》
《당신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의사는 낮은 목소리로 도간도간 끊어가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이 세상에는 인간리성이라고 하는 최고의 정신적표현밖에는 모두가 너절하고 따분하지요. 동물과 인간의 계선을 뚜렷이 그어놓는게 리성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사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생을 인간에게 보장해주고있지요.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서 리성은 단 하나의 가능한 즐거움의 원천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위에서 리성이란걸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있지요. 즉 우리는 즐거움을 상실하고있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실재한 담화나 실재한 교제와는 전혀 다르지요. 아주 적절한 비교는 아닙니다만 책이 악보라면 담화야 노래가 아닙니까.》
《정말 옳은 말씀이요.》
침묵이 시작되였다. 다리유스까가 부엌에서 나와 어딘가 모를 서글픈 빛을 하고 주먹으로 뺨을 고이고서 이야기를 엿들으려고 문가에 서있었다.
《에이구! 요새 리성인가 하는것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미하일 아베리야늬치가 한숨을 지었다.
그는 이전에는 사람들이 건전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았다느니, 로씨야에는 참으로 리성이 있는 지식층이 있었다느니, 그 지식층이 명예와 우정의 관념을 참으로 높이 내세웠다느니 하고 말하였다. 령수증이 없이도 돈을 빌려주었고 곤궁한 동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는것을 수치로 여겼다는것이였다. 그리고 원정이나 모험, 전투니 하는것들은 참으로 훌륭하였다고 하였다. 그런 동료들, 그런 부인들이 지금에야 어디 있겠는가! 깝까즈, 참으로 놀라운 지방이다! 한 대대장의 안해는 희한한 부인이였는데 저녁마다 사관복을 입고 안내자도 없이 혼자서 말을 타고 산중을 헤맸다. 깝까즈촌에서 이 부인에게 어

떤 공작과의 련정관계가 있었다는것이였다.

《아이구머니나, 성모 마리야님…》 다리유스까가 한숨을 지었다.

《얼마나 마시고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참으로 걷잡을수 없는 자유주의자들이였지요!》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듣기는 하였으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맥주를 질금질금 마셨다.

그는 불쑥 미하일 아베리야늬치의 말을 꺾고 자기 말을 하였다.

《나는 가끔 리성있는 사람들을 또 그들과 담화하는것을 꿈에 보군하였지요. 아버지는 나에게 훌륭한 교육을 주었습니다만 1860년대 사상의 영향을 받은지라 나를 억지로 의사로 만들어놓았지요.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리성적인 운동의 제일 중심에 들어있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어떤 학부의 성원이 되였겠지요. 물론 리성이란것도 역시 영구한것은 아니고 부질없는것이지만 그러나 제가 왜 리성에 대한 호의를 품고있는지 당신께서는 이미 아실겝니다. 인생이란 참 억울한 함정이지요. 사색하는 인간이 어른이 되여 의식이 성숙하게 되면 그는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자기가 이 헤여날 길 없는 함정속에 들어있는것처럼 느끼게 되는것입니다. 정말이지 인간은 자기가 바라지도 않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무에서부터 인간세상에 태여나지요.… 왜? 인간은 자기 생존의 의의와 목적을 알고저 하지만 그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말을 해줍니다. 인간은 문을 두드리나 그에게 문을 열어주지는 않지요. 죽음 역시 인간은 바라지도 않는데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십시오, 감옥에서 같은 불행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자리에 모이면 마음이 편해지는것처럼 생에 대하여 분석하고 일반화하려는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여 자랑에 차고 자유로운 사상을 교환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에는 인생에서 함정을 느끼게 되지 않지요. 이런 의미에서 리성은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즐거움이지요.》

《참으로 옳은 말씀이요.》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상대방을 마주 바라보지도 않고 조용히 띠염띠염 리성적인 사람들 또 그들과의 담화에 대한 말을 계속하였고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옳은 말씀이요.》하고 동의했다.

《그런데 당신은 령혼의 불멸을 믿지 않습니까?》 우편국장이 별안간 물었다.
《네, 존경하는 미하일 아베리야늬치, 안 믿습니다. 믿을 근거가 없으니까요.》
《고백하건대 나도 의심을 품고있습니다. 아, 그런데 내게는 내가 결코 죽지 않을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 늙어빠졌으니 죽을 때라고 생각은 하지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런 말을 믿지 말게. 죽지는 않을테니까!〉 하는 어떤 목소리가 속삭이지요. …》
아홉시가 되자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일어섰다. 그는 응접실에서 외투를 걸치면서 한숨섞인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왜 하필 운명이 우리들을 이따위 동떨어진 곳에 끌어다놓았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죽게 된다는게 제일 억울한 일이지요. 기가 막혀서!…》

7

친구를 보내고나서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책상앞에 앉아 다시금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저녁은 물론 밤에도 역시 그의 방은 바스락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하였다. 시간은 흐름을 멈추고 의사와 더불어 책우에 멎어선듯 하였다. 책과 푸른 갓을 씌운 등불밖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것 같았다. 인간리성이 전진한다는 생각에 상되고 막사람같은 의사의 얼굴에는 감동과 환희의 미소가 조금씩 비끼였다. (오, 무엇때문에 사람은 영생하지 못하는가?) 그는 생각한다. (만일 뇌중추며 뇌주름이니, 시각이며 언어, 건강상태의 자각이니, 천재니 하는 이 모든것들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땅과 더불어 식고 그 후에는 수백년을 의미나 목적도 없이 태양의 둘레를 줄달음치기마련이라면 이따위들은 무엇때문에 필요하단 말인가? 그저 식어서 줄달음칠바에야 고상하고 거의 거룩하다고까지 할 리성을 가진 인간을 빈곳에서 끌어내다놓고 후에는 마치 조롱이나 하듯이 그를 흙으로 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은가.
신진대사라! 그러나 이따위 영생의 대용물로써 자신을 위안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것인가! 자연속에서 진행되는 무의식의 과정이

란 인간의 우매성보다도 더 저급한것이다. 왜냐하면 우매성가운데는 그래도 의식이나 의지 같은것이 있지만 과정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기때문이다. 그 무슨 공명심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많은 비겁쟁이만이 풀이나 돌, 두꺼비속에서 그의 육체가 시대와 함께 살게 되리라는것으로 자신을 위안할수도 있을것이다. … 자기의 영생을 신진대사로 본다는것은 값비싼 바이올린이 깨여져 못쓰게 된 다음 그 케스의 빛나는 앞날을 예언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괴상한것일것이다.

시계가 치자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안락의자등에 넌지시 몸을 기대고 무엇인가 생각하노라고 눈을 감았다. 그는 책에서 읽고 알게 된 훌륭한 생각에 이끌리여 불현듯 자기의 과거와 현재에 눈길을 돌렸다. 과거는 생각만 하여도 끔찍한것이여서 그것은 회상하지 않는것이 더욱 좋았다. 그러나 현재도 과거와 다를것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사색들이 식어진 땅덩어리와 자기의 집과 나란히 태양둘레를 줄달음칠 때 이 큰집속에서 사람들이 병과 육체적불결속에 묻히여 고통을 당하고있다는것도 알고있었다. 아마도 어느 누군가는 잠들지 못하고 벌레와 싸우고있을것이고 또 어느 누군가는 단독을 앓든가 아니면 꽁꽁 감은 붕대로 하여 앓음소리를 낼것이고 아마도 경환자들은 간병원들과 주패를 하며 술을 마실것이다. 한회계년도에 1만 2천명이 기만을 당할것이고 병원은 여전히 20년전처럼 도적질이나 말다툼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친구관계로 비호하든가 엉터리없는 사기협잡이 진행될것이다. 병원은 여전히 비도덕적이며 입원환자들에게는 보건상으로 보아도 극도의 해로운 시설로 될것이다. 6호병실에서는 니끼따가 살창뒤에서 환자들을 힘껏 때릴것이며 모이쎄이까는 매일처럼 거리를 돌아다니며 동냥하리라는것도 그는 알고있었다.

다른 한편 이 25년동안에 의학계에서는 수수께끼같은 변화가 생겼다는것도 그는 잘 알고있었다. 그가 대학에서 배울 때만 해도 련금술이나 형이상학이 곧 의학계를 휩쓸것처럼 보였으나 그가 밤마다 책을 읽는 오늘날에 의학은 그를 감동시키고 그에게서 경탄과 환희까지도 자아냈다. 이 얼마나 뜻밖의 광명이며 얼마나 큰 혁명인가! 방부술(썩는것을 방지하는 기술)로 하여 위대한 삐로고브조차 장래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던 그러한 수술을 하고있지 않는가. 평범한 지방의사들까지도 무릎관절절제수술을 할 작정을 하고있었고 자궁수

술은 백번에 단 한건의 사망사고가 있었을뿐이고 결석에 대해서는 누구도 학술론문조차 쓰지 않으려는 그런 소소한것으로 생각하고있지 않는가. 매독은 근본적인 치료에 들어섰다. 세상은 유전성리론이니 최면술이니 빠스퇴르며 코흐의 발견이니 통계위생학이니 하고있지만 우리 로씨야의 지방의학은 어떤가? 정신병학도 지금은 분류가 되고 식별하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와 옛날과 비교하면 이것은 완전히 유럽의 엘브루쓰산과도 대비할수 있다. 지금은 정신병자의 머리에 찬물을 붓는다든가, 그들에게 특수한 환자복을 입히지는 않는다. 그들을 사람답게 대하고 신문들에 게재되듯이 그들을 위하여 연극과 무도회도 연다. 오늘과 같은 개명한 시대에 6호병실과 같은 구역질나는 존재는 철도에서 백여리나 떨어진 이런 도시가 아니고서는 있을수 없다. 이런 도시에서는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들이란 작자들도 다 반무식의 시정배들로 이자들은 의사가 환자의 입에 납덩이를 녹여 붓는대도 한마디도 따지지 않고 믿는 신관으로 모신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대중여론이나 신문들이 이따위 바스띠유(프랑스의 감옥)를 이미 오래전에 산산쪼각냈을것이라는것을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눈을 뜨며 자문하였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단 말인가? 방부술이니 코흐니 빠스퇴르니 해도 사물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지 않았는가. 질병이니 죽음이니 하는것들 역시 그대로가 아닌가. 정신병자들에게 무도회나 연극을 열어주지만 역시 그들을 내보내주지는 않는다. 다시말하여 모두가 부질없는 일이며 헛수고이다. 훌륭한 윈의 병원이나 내 병원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하나 서글픔과 시기 비슷한 감정이 그를 랭정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이것은 피로에서 오는것이 틀림없었다. 무거운 머리가 책으로 숙여지자 그는 머리를 받치려고 손으로 턱을 고인채 생각을 계속하였다.

《나는 해로운 일을 하면서도 나한테 기만당하고있는 사람들한테서 봉급을 받구있으니 나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 혼자서야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은가. 나는 필연적인 사회악의 한부분에 불과하다.

즉 전체 도시의 관리들이 해로운 존재들이면서도 공연히 봉급을 받고 있지 않은가. … 다시말해서 내가 정직하지 못한 죄는 나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시대에 있다. … 내가 2백년만 늦게 태여났대도 난 딴사람이 됐을텐데.》

시계가 새벽 세시를 치자 그는 등불을 끄고 침실로 갔다. 그러나 자고싶지는 않았다.

8

지방자치회는 2년전에 큰 마음을 먹고 앞으로 지방자치병원이 생길 때까지 시립병원의 의료일군들을 릉가하는 보조금으로 년 3백루블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안드레이 예피미치를 돕기 위하여 군의사 예브게니 페도릐치 호보또브가 시의 초청을 받고 왔다. 그는 나이가 30살도 안된 아주 젊은 사나이였는데 키가 크고 갈색머리칼에 광대뼈가 크고 눈이 작은것을 보아 아마도 그의 선조는 딴 민족이였을것이다. 그는 돈 한푼없이 작은 트렁크를 들고 젊기는 하나 못생긴 녀인을 데리고 이 도시로 왔다. 그는 그 녀인을 자기의 식모라고 불렀다. 이 녀인한테는 젖먹이가 있었다. 예브게니 페도릐치는 채양달린 모자를 쓴데다가 긴 장화를 신었고 겨울에는 반외투를 입고 다녔다. 그는 준의인 쎄르게이 쎄르게이치와 회계원과는 아주 가까이 지냈으나 어째선지 그밖의 사람들은 귀족이라고 하면서 경원시했다. 그에게는 단 한권의 책—《1881년도 윈병원의 최신처방법》이 있을뿐이였다. 그는 환자한테 갈 때마다 늘 이 책을 끼고 갔다. 그는 구락부에서 저녁마다 당구를 쳤고 주패는 좋아하지 않았다. 이야기할 때는 《까니쩰리(크리스마스나무장식용금줄)》니 《초를 친 만찌불》이니 《사람을 일부러 속이려는거겠지》 하는 말들을 쓰기 좋아하였다.

그는 한주일에 두번씩 병원에 나가 병실들을 돌면서 환자들을 진찰했다. 그는 소독제나 부항단지가 없는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그는 안드레이 예피미치의 비위를 건드릴가 두려워서 새 질서를 세우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의 동료인 안드레이 예피미치를 로련한 협잡군으로 생각하였고 그에게 큰 재산이 있을것이라고 속짐작을 하면서 그를 부러

워하였다. 그는 할수 있다면 안드레이 예피믜치의 자리도 차지했을것이였다.

9

벌써 땅에 눈이 녹아 없어지고 병원뜰안에서는 찌르러기가 울어대는 3월말의 어느날 저녁 의사는 친구인 우편국장을 대문까지 바래주려고 나갔다. 바로 이때 동냥하러 나갔다 돌아오던 유태인 모이쎄이까가 뜰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모자도 없이 맨발에 작은 덧구두를 신었고 손에는 크지 않은 동냥자루를 들고있었다.

《한푼 주세요.》 그는 추위에 몸을 덜덜 떨면서도 미소를 짓고 의사에게 말을 건넸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여태 거절해본적이 없는지라 10꼬뻬이까짜리를 그에게 내밀었다.

(이게 얼마나 몸에 나쁠가.) 발목이 새빨갛고 앙상한 그의 맨발을 바라보면서 의사는 생각하였다. (다 젖었구나.)

그는 유태인이 가엾기도 하고 밉살스럽기도 한 감정에 사로잡히여 유태인의 대머리며 발목을 번갈아보며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다. 의사가 들어가자 니끼따는 넝마더미우에서 뛰여내려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안녕하오, 니끼따.》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 유태인에게 장화를 주는게 어떻겠소. 그렇지 않으면 감기 들겠는데.》

《알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경비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오. 그더러 내 이름으로 청하라 하오. 내가 부탁하더라고 말이요.》

출입문은 현관에서 병실로 열려져있었다. 이완 드미뜨리치는 침상에 누운채 몸을 반쯤 일으키고 낯선 목소리에 근심스러운듯 귀를 기울이더니 불현듯 의사가 온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격분하여 온몸을 떨면서 침상에서 뛰여내렸다. 그는 시뻘겋고 사나운 얼굴로 눈을 부라리며 병실 한복판으로 뛰여나왔다.

《의사가 왔구나!》 그는 소리치면서 너털웃음을 웃었다. 《마침내

왔구나! 여러분, 의사가 우리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시다! 저주받을 비렬한 놈!》 그는 병실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는 째진 소리로 정신없이 부르짖고 발을 굴렀다. 《저 비렬한 놈을 죽여야 한다! 아니, 죽이는것만은 부족해! 똥통에 처박아야 해!》

이 말을 듣고있던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현관에서 병실안을 들여다보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무엇때문이요?》

《무엇때문인가구?》 이완 드미뜨리치는 위협하는 태도로 그에게 다가가면서 발작적으로 환자복의 앞자락을 감싸면서 말하였다. 《무엇때문인가구? 이 도적놈!》 그는 아니꼬와 침이라도 뱉을듯한 입술을 하고 내뱉았다. 《이 사기군! 이 사람백정!》

《진정하시오.》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죄송스러운 미소를 띠우고 말했다. 《나는 결코 도적질한것이 없다는걸 당신에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것에 대해서는 아마 당신이 너무 과장을 하고있소. 내 보기에는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고있는 모양인데 될수만 있다면 진정하시오. 그리고 랭정하게 말씀하시오, 무엇때문에 당신이 화를 내는지?》

《그래 무엇때문에 당신은 나를 여기에 붙들어두고있소?》

《당신이 앓고있기때문이지요.》

《그렇소, 앓고있소. 그런데 건강한 사람과 미치광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당신의 무식으로 해서 수십, 수백명의 미치광이들이 자유로운 몸으로 돌아다니고있지 않소. 나와 여기에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속죄양처럼 만사람을 대신하여 여기에 갇히여있어야 한단 말이요? 당신이나 준의나 경비원이나 당신네 그 모든 병원의 악당들은 도덕적인 점에서 우리들중의 그 누구보다도 더 저렬하오. 그런데 어째서 우리들은 갇혀있어야 하고 당신들은 갇혀있지 않소? 그건 무슨 론리요?》

《도덕적인 점이니 론리니 하는것들은 여기에 관계가 없소. 모든것은 경우에 따르는거요. 가두면 갇히우고 가두지 않으면 돌아다니는게지요. 그저 그뿐입니다. 내가 의사고 당신이 정신병환자라는것에는 아무런 도덕성이나 론리도 없고 다만 한가지 공허한 우연성이 있을뿐이요.》

《나는 그런 맹랑한 사설은 알아듣지 못하겠소. …》 이완 드미뜨리치는 멋적은듯 중얼거리며 자기 침상으로 가서 걸터앉았다.

의사가 없었더라면 니끼따에게 샅샅이 몸뒤짐을 받았을 모이쎄이까는 자기의 침상우에 빵쪼각과 동전들, 뼈다귀들을 널어놓고 아직도 추위에 몸을 떨면서 유태말로 무엇인가 빨리 노래하듯 떠벌이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에게는 가게를 열었다고 생각되는 모양이였다.

《나를 내놔주오.》 하고 말하는 이완 드미뜨리치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못 내놓겠소.》

《그건 왜요? 어째서?》

《그건 내 마음대로 할수 없기때문이요. 혹시 내가 당신을 내놔준단들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 생각해보오. 여기서 나가도 사람들과 경찰들이 다시 당신을 붙들어 돌려보낼게요.》

《예, 예! 그건 옳소. …》 이완 드미뜨리치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이마를 훔쳤다. 《그건 무서운 일이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하란 말이요? 어떻게?》

이완 드미뜨리치의 목소리며 찌프리고있는 그의 젊고 지성적인 얼굴이 안드레이 예피믜치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이 젊은 사람을 달래고 진정시키고싶었다. 그는 침상에 그와 나란히 앉아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라느냐구 당신은 물었지요? 당신의 립장에서는 여기서 도망치는것이 가장 좋을거요.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그건 무익한노릇입니다. 당신은 붙잡히고말겁니다. 사회가 죄수나 정신병환자나 또 대체로 위험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당신에겐 단 한가지 당신이 여기에 있는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습관될수밖에 딴 도리가 없지요.》

《그따윈 아무에게도 필요치 않소.》

《감옥이나 정신병원이 존재해있는 한 누구든지 그안에 들어가있기 마련이지요. 당신이 아니면 내가, 내가 아니면 어떤 딴사람이. 여보시오, 감옥이나 정신병원이 먼 장래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칠 때가 오면 창문에는 창살도 없을것이고 이런 환자복도 없어질것입니다. 물론 그런 때가 언제든지 오기는 하겠지만.》

이완 드미뜨리치는 비웃는듯 웃음을 띠였다.

《당신은 롱담을 하는군요.》 그는 눈을 찌프리며 말하였다. 《당신이나 당신의 조수인 니끼따와 같은 사람들에게 미래가 무슨 관계가 있소. 그러나 당신들도 좋은 때가 오리란걸 믿을수 있을게요! 제 표현이 속되여도 좋습니다. 웃어주시오. 새생활의 아침노을이 비끼고 진실이 개가를 올리겠지요. 그러면 우리 도시에도 명절이 올겁니다! 나는 그때를 보지 못하겠지요. 나는 죽을테니까요. 그러나 그대신 누군가의 증손자들은 보게 될겝니다. 나는 그들을 충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뻐요! 앞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도울게요, 친구!》

이완 드미뜨리치는 눈을 번쩍이며 일어섰다. 그리고 두팔을 창문으로 뻗치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창살안에서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진리 만세! 참 기쁘구나!》

《나는 별로 기뻐할 리유가 없소.》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이완 드미뜨리치의 동작이 신파처럼 보였으나 동시에 무척 마음에 들었다. 《감옥이니 정신병원이니 하는것들은 없어질겝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대로 개가가 오르리라는것도 정말입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것이고 자연법칙도 여전히 남아있을거요. 사람들은 앓고 늙으며 지금처럼 죽을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생활에는 찬란한 아침노을이 비낄것이지만 역시 결국 당신을 관속에 밀어넣고 못을 박아 구뎅이속에 던져질것입니다.》

《그럼 영생은?》

《에이, 그건 헛소리요!》

《당신은 믿지 않는군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도스또옙스끼든가 볼테르든가의 어느 주인공은 비록 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놓을게라고 말했지요. 그래 나도 영생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위대한 인간의 리성이 틀림없이 그것을 꾸며내리란것을 굳게 믿구있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마음이 흐뭇하여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믿는다는건 좋은거요. 그런 신념만 있으면 담벽속에 갇혀서라도 편히 살수 있을겝니다. 당신은 어디서 교

육을 받았는가요?》
《대학을 다녔지만 끝마치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은 사색적이며 사고가 깊은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은 자기자신가운데서 안정을 찾을수 있지요. 인생을 리해하려고 갈망하는 자유롭고 깊은 사고와 어리석은 속세의 허영에 대한 완전한 경멸, 이 두가지야말로 사람이 지금껏 맛본적이 없는 그런 행복입니다. 당신이 비록 세겹으로 된 쇠살창안에서 산다 하더라도 당신은 이러한 행복을 가질수 있지요. 디오게누스는 나무통속에서 살았지만 세상의 그 어느 제왕보다도 더 행복했지요.》
《당신이 말하는 디오게누스는 망두석이였지요.》
이완 드미뜨리치는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디오게누스니 무슨 인생을 리해한다느니 해가면서 당신은 내게 무슨 말을 하자는거요?》 그는 별안간 화를 내며 벌떡 일어섰다. 《나는 인생을 사랑하오, 열렬하게 사랑한단 말이요. 내겐 피해망상증이 있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공포증이. 그러나 생활욕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순간이 가끔 있지요. 그런 때엔 나는 미치는게 두렵소. 무섭게 살구싶소, 무섭게!》
그는 흥분에 휩싸여 병실안을 왔다갔다하며 목소리를 낮추어 다시 말하였다.
《내가 공상을 할 때면 환영들이 날 찾아오오.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오군 하오. 내겐 그들의 목소리도 음악소리도 다 들리오.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어떤 숲이나 바다가를 거닐고있는것같이 생각되여 몹시 마음이 들떠 이것저것 시중도 들고싶어지오. 어서 말 좀 해주오. 글쎄 저기에 무슨 새로운게 있소?》 이완 드미뜨리치가 물었다. 《저기에 말입니다.》
《당신은 도시의 일을 알고싶소 아니면 세상형편을 알고싶소?》
《자, 우선 내게 도시의 이야기를 해주고 다음 세상이야기도 해주오.》
《글쎄 뭐라고 할가요? 도시는 견딜수없이 따분하지요.… 서로 말을 할 사람도 없고 말을 들어볼 사람도 없으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이 없지요. 그런데 요지음 젊은 의사 호보또브가 왔다오.》
《그 사람은 벌써 내가 여기 있을때 왔지요. 그 속된 인간 말이

지요?》
《예, 교양이 없더군요. 이상하거던요. 이것 보시오. 모든것으로 미루어 우리 나라 수도에는 지적침체가 없고 움직임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여 거기에는 참다운 사람들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거기서 우리한테로 보내온다는건 언제나 보기도 싫은 사람들뿐이군요. 참 불행한 도시지요!》
《그렇구말구요. 불행한 도시지요!》 이완 드미뜨리치는 한숨을 짓고는 웃어댔다. 《그래, 세상형편은 어떻습니까? 신문들이나 잡지들에서 뭐라고 쓰고있는가요?》
병실은 이미 어두웠다. 의사는 일어섰다. 그는 선채로 외국이나 로씨야에서 무엇들을 쓰고있으며 또 어떤 사상적경향이 주목되고있는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완 드미뜨리치는 주의깊이 들으며 묻기도 하였으나 별안간 마치도 어떤 무서운것이 생각난듯 자기의 머리를 틀어쥐고 의사에게 등을 돌린채 침상에 누워버렸다.
《왜 그러시오?》 안드레이 예피미치가 물었다.
《당신은 내게서 한마디도 더는 들어볼게 없소!》 이완 드미뜨리치는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나를 내버려둬요!》
《왜요?》
《내버려두란 말이요! 악마같으니!》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어깨를 으쓱하고 한숨을 쉬며 나왔다. 그는 현관을 지나 나오면서 말하였다.
《여기를 다 치우는게 어떻소. 니끼따… 냄새가 참 고약하오!》
《알았습니다, 선생님.》
《참, 얼마나 유쾌한 청년인가!》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자기 집으로 오면서 생각하였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서로 이야기할수 있는 사람이라군 아마도 이 사람이 처음일게야. 그는 사고할줄 알고 정말 필요한데 흥미를 가지고있거던.》
그는 책을 읽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줄곧 이완 드미뜨리치를 생각하였다. 다음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자 어제 지성이 있고 흥미있는 사람을 알게 된것을 상기하자 기회만 있으면 그에게 가리라고 마음먹었다.

10

이완 드미뜨리치는 어제와 같은 자세로 팔로 머리를 그러안고 다리를 겹쳐올린채 누워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또 왔소, 친구.》 안드레이 예피믜치가 말하였다. 《잠들었소?》

《첫째로, 나는 당신의 친구가 아니요.》 이완 드미뜨리치는 베개에 대고 말했다. 《둘째로, 당신은 헛수고를 하고있소. 당신은 내게서 한마디 말도 들어볼수 없을거요.》

《이상하군요. …》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어리둥절하여 중얼거렸다. 《어제만 해도 우리는 정답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단번에 끊어버리다니… 아마 내가 당신에게 듣기 거북한 말을 했던가 아니면 당신이 믿는것과는 맞지 않는 생각을 말한것 같군요. …》

《그래, 내가 함부로 당신을 믿을줄 아오?》

이완 드미뜨리치는 벌떡 일어나 의사를 비웃는듯이 또 불안스러운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여있었다. 《다른 곳에 가서는 밀정질을 해보려고 해도 좋지만 여기선 안될게요. 나는 벌써 어제 당신이 무엇때문에 왔다는걸 깨달았소.》

《이상한 환상인걸!》 의사는 웃었다. 《그럼 당신은 날 밀정이라고 생각하오?》

《그렇구말구요. … 밀정이 아니면 날 시험하려고 온 의사지요. 아무러나 마찬가지지.》

《허허, 당신두 참. 미안하오만… 괴상한 량반이요!》

의사는 침상곁에 있는 걸상에 걸터앉아 섭섭한듯 머리를 저었다.

《당신의 말이 옳다고 칩시다.》 그는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경찰에게 고자질하려고 말로 그럴듯하게 당신을 꼬였다고 칩시다. 당신을 잡아다가 가두겠지요. 그러나 재판정이나 감옥이 과연 당신에게 여기보다 더 나쁘기야 하겠소? 그리고 류형에 처한다든가 강제로동에 보낸다 한들 이 병실에 갇히여있는것보다 설마 더 나쁘기야 하겠소? 더 나쁘지는 않을거요. 그러니 무얼 두려워할게 있소.》

이 말이 이완 드미뜨리치에게 효력을 발생한것만은 분명하였다. 그

는 조용히 앉아있었다.

오후 네시였다. 여느때같으면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자기 방안에서 왔다갔다했을것이고 다리유스까가 《맥주를 마실 때가 아니예요?》 하고 그에게 물어볼 시간이였다. 밖은 날씨가 맑고 고요하였다.

《점심을 먹은 뒤라 산보나왔다가 이렇게 들렸지요.》 의사가 말하였다. 《아주 봄이 완연하군요.》

《지금은 무슨 달인가요? 3월이지요?》 이완 드미뜨리치가 물었다.

《예, 3월도 끝나갑니다.》

《바깥은 진가요?》

《아니요. 그리 질지 않소. 뜰엔 벌써 길이 났으니까.》

《지금쯤 어디든 교외로 마차를 타고 산보했으면 좋겠는데.》 이완 드미뜨리치는 잠에 취한듯 한 자기의 충혈된 눈을 비비며 말하였다. 《그리고나서 아담한 제집의 서재로 돌아갔으면… 또 유능한 의사한테서 머리아픔을 치료받았으면… 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지가 벌써 오랬지요. 여기가 더럽기란! 견딜수없이 더러워요!》

그는 어제부터 느낀 흥분으로 하여 지치고 맥이 빠져 말하기도 흥이 나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였다. 그의 얼굴로 보아 머리가 몹시 아팠던것이 분명하였다.

《아늑하고 아담한 서재와 이 병실의 차이는 별로 없지요.》 안드레이 예피믜치가 말했다. 《사람의 안정과 만족은 그의 외부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자신가운데 있으니까요.》

《다시말해서 왜 그렇습니까?》

《보통사람은 좋은것이나 나쁜것이나 밖으로부터 기대하지요. 즉 마차라든가 서재라든가 하는데서요. 그러나 사색하는 사람은 자기자신으로부터 기대하지요.》

《그런 철학은 따뜻하고 오렌지냄새가 풍기는 그리스에나 가서 설교하시오. 그런건 여기서는 기후에 맞지 않지요. 내가 누구와 디오게누스의 얘기를 했는지요? 당신하구였지요, 그렇지요?》

《그렇소. 어제 나와 말했지요.》

《디오게누스는 서재나 따뜻한 방이 소용없었지요. 거기는 그런게 없어두 더우니까요. 통속에 누워서두 귤이나 올리브를 먹을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로씨야에서 살게 된다면 섣달은 고사하고 5월

에도 방안을 찾을게요. 아마 추워서 운신도 못할게요.》

《아니요, 추위란것도 대체로 모든 아픔과 같이 느끼지 않을수 있지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지요. 〈아픔이란 아픔에 대한 하나의 산 관념이다.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단련하라. 그 관념을 버리라. 앓는 소리를 그만두라. 그러면 아픔이 없어질것이다.〉 이건 옳은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이나 명백하게 사고하거나 사색적인 사람들은 고통을 무시하는데 이것이 남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만족해있고 무엇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나는 고통과 불만을 느끼고 사람의 비방에도 놀라니까 결국 천치지요.》

《그건 공연한 말이요. 만일 당신이 깊이 사색한다면 당신을 흥분시키는 외적인것이 모두 얼마나 보잘것없는것인지 깨닫게 될게요. 인생은 리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그가운데 참다운 행복이 있으니까요.》

《리해라…》 이완 드미뜨리치는 얼굴을 찌프리였다. 《외적인것과 내적인것… 미안하지만 나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아는건 다만》 그는 일어서서 의사를 노엽게 바라보면서 말하였다. 《하느님이 더운 피와 신경으로 나를 만들었다는것뿐이요. 그렇구말구요! 유기체조직이란 만일 그것이 생활능력이 있는것이라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겠지요. 나도 반응하지요! 아픔에 대해서는 웨침과 눈물로, 비렬한데 대해서는 분노로 응답하고 구역질나는것에 대해선 증오로 대답하지요. 내 의견은 바로 이런것을 생활이라고 합니다. 유기체가 저급하면 저급할수록 덜 느낄것이고 자극에 대해서 적게 응답할겝니다. 또 그것이 고급하면 할수록 현실을 더 민감하게, 더 정력적으로 반응할겝니다. 이것은 뻔하지요. 의사선생님이 이런 초보도 모르다니! 고통을 무시하고 언제나 만족해하면서 그 무엇에도 놀라지 않으려면 바로 이런 상태에까지 이르러야겠지요.》 이완 드미뜨리치는 뚱뚱하고 기름이 번지르르한 사나이를 가리켰다. 《아니면 고통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에 익숙되여야 하겠지요. 즉 다시말하여 살기를 그만두어야지요. 미안하지만 나는 성인도 철학자도 아니요.》 이완 드미뜨리치는 약이 올라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판단능력이 없으니까요.》

《도리여 당신은 훌륭하게 판단합니다.》

《당신이 모방하고있는 금욕주의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였습니다만 그들의 학설은 벌써 2천년전에 식어버리고 한방울도 흘러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실천적이고 비생활적인 까닭에 더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원인은 모든 학설을 연구하고 감상하는데 자기의 일생을 보낸 소수의 사람들은 성공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을 리해하지 못했지요. 재부에 대한 생활상편리를 랭담하게 대한다든가, 고통이나 죽음에 대한 경멸을 설교하는 학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리해되지 못한것은 이 다수의 사람들이 재부도 생활의 편리도 결코 몰랐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경멸한다는것이 그들에게는 생활자체를 경멸하는것으로 되였지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이 기아나 추위, 모욕, 상실 또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가 하는 감각들로써 이루어져있기때문입니다.

일체 생명은 이러한 감각들가운데 있는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불쾌하게 여길수도 있고 그것을 미워할수도 있지만 그것을 무시할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한번 더 되풀이합니다만 금욕주의자들의 학설은 결코 미래가 없습니다. 보시다싶이 기원 초시기부터 오늘까지 투쟁이나 아픔에 대한 민감이나 자극에 응답하는 능력은 향상되고있습니다. …》

이완 드미뜨리치는 별안간 사고의 실마리를 잃었는지 우뚝 서서 분풀이로 이마를 훔쳤다.

《무슨 중요한 말을 하려댔는데 그만 놓쳤습니다.》 그는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가? 옳지, 그건 이런게요— 어느 한 금욕주의자는 자기 친구의 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팔았지요. 즉 금욕주의자까지도 자극에 반응한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망치는것 같은 활발한 행동을 하자면 의분심과 동정심이 필요했기때문입니다. 나는 여기 감옥에서 이전에 배웠던것을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어떤것은 생각났을텐데. 그래 그리스도의 례를 들가요? 그리스도도 현실에 반응했기에 울고 웃기도 하고 슬픔과 격분, 고민까지도 했지요. 그도 고통을 받자 웃지 못했고 죽음을 무시하지도 못하고 그 시간을 지나치게 해달라고 겟세마네동산

에서 기도를 드렸던거요.》

이완 드미뜨리치는 웃어대면서 걸터앉았다.

《인간의 안정과 만족이 그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칩시다.》 그가 말하였다. 《고통도 무시하고 무엇에든지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설교를 합니까? 당신이 성인인가요, 철학자인가요?》

《아니요, 나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리성적인것이기때문에 누구나 그걸 설교해야 하지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때문에 리해한다든가, 고통을 무시한다든가 하는데서 자신을 권위자로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과연 당신은 일전에 고통을 당한적이 있습니까? 고통이라는걸 알고있습니까? 어렸을 때 매를 맞은적이 있는지요?》

《아니요, 부모는 나에게 체형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주었지요.》

《하지만 나의 아버지는 나를 무섭게 때렸습니다. 아버지는 성미가 메마르고 치질환자이고 관리였는데 코가 길고 목은 누렜지요. 그러나 나는 나의 말보다 당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평생 누구도 당신을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고 누구도 당신을 공갈하지 않았고 몹시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황소처럼 건강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보호밑에 자라 아버지의 돈으로 공부하고 곧 한가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여년동안 당신은 따뜻하고 밝으며 하녀가 있는 집에서 집세도 물지 않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일할 권리가 있으면서도 당신은 제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당신은 천성이 게으르고 연약하기때문에 그 무엇도 당신을 불안하게도 하지 못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당신을 밀어내지도 못하게 되였습니다. 당신은 준의와 다른 악당들에게 일을 맡겨버리고 자기는 따뜻하고 조용한 곳에 앉아 돈을 모으고 책을 읽으면서 고상한체 하는 어리석은짓과(이완 드미뜨리치는 의사의 새빨간 코를 바라보았다.) 술이나 마실 즐거운 생각만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생활을 본적도 없고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며 현실을 리론으로만 알고있습니다. 인생이 덧없다느니 생활에 대한 내적, 외적멸시라느니 고통과 죽음, 리해며 참다운 행복이라느니 하는 이 모든것들은 로씨야의 게으름뱅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철학이라는 아주 단순한 리유에서 당신은 고통을 경멸하고 무엇에나 놀

라지 않는것입니다. 례를 들어 무지한 사람이 안해를 때리는걸 당신이 본다고 합시다. 그것을 왜 말리겠습니까? 실컷 때리라지요. 어쨌든 그들은 조만간 죽게 될테니까요. 그리고 때리는 사람은 누구나 때린다는것으로써 맞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모욕하는것이니까요. 술을 지나치게 마신다는것은 어리석고 보기 흉한것이지만 그러나 마셔도 죽고 안 마셔도 죽겠지요. 농촌아낙네가 왔다고 합시다. … 그래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아픔이란 아픔에 대한 관념이고 더구나 이 세상에서는 병이 없이는 살아갈수 없는게고 언젠가는 죽는것이니까 촌아낙네는 어서 물러나시오. 내가 사색을 하고 술을 마시는걸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지요. 젊은 사람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논하자구 찾아왔다 합시다. 그에게 대답하기 전에 우선 딴 사람같으면 생각해볼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게 리해하도록 노력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행복을 바라시오 하고 말할 대답이 이미 준비되여있지요. 하지만 그 환상적인 〈참다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대답을 못하겠지요. 우리들을 쇠살창안에 가두어 썩게 만들고 고문해도 이것은 아름답고 리성적인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이 병실과 아늑하고 아담한 서재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으니까요. 하는 일도 없고 량심도 깨끗하고 자기를 성인이라고 느낄수 있으니 참 편리한 철학입니다. … 아니지요. 선생님, 이건 철학이 아니며 사색이나 리해력이 있는 견해도 아닙니다. 이건 라태며 요술이고 잠꼬대입니다. … 그렇지요!》 이완 드미뜨리치는 다시금 화를 냈다.

《고통을 무시한다구요? 그러나 문틈에 손가락을 끼여보시오. 그러면 아마 목청껏 소리를 지를겝니다!》

《그러나 나는 소리를 지를것 같지 않습니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부드럽게 미소를 띠우고 말했다.

《원, 천만에! 그래, 이것 보시오. 만일 중풍이 당신을 넘어뜨린다든가 아니면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나 철면피한 사람이 자기의 지위나 직위를 리용하여 당신을 대중앞에서 모욕을 했지만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무사하리란것을 당신이 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때에는 당신도 이런 때 어떻게 남들에게 리해라든가 참다운 행복이라든가 하는것을 권고할수 있겠는지 리해하게 되겠지요.》

《그건 기발한 말씀인데요.》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만족한듯이

웃고 손을 맞부비면서 말하였다.

《당신의 일반화하는 능력에 나는 유쾌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금방 하신 나에 대한 성격묘사는 아주 훌륭합니다. 고백하건대 나는 당신과의 담화에서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자, 내가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었으니 인젠 당신도 아무쪼록 내 말을 들어주오. …》

11

이야기는 한시간가량이나 더 계속되였다. 안드레이 예피미치에게는 이 이야기가 깊은 인상을 준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날마다 이 병실로 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침마다 가고 점심후에도 갔다. 그는 가끔 날이 어두울 때까지도 이완 드미뜨리치와 이야기하였다.

이완 드미뜨리치는 처음에는 그가 오는것을 꺼리였고 좋지 않은 생각에서 의심도 하였고 내놓고 자기의 증오심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차츰 그에게 익숙해지면서 자기의 날카로운 태도를 너그럽게 빈정대는 태도로 바꾸었다.

안드레이 예피미치가 6호병실에 자주 가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얼마후에 병원안에 퍼졌다. 준의나 니끼따, 간병원들도 그가 왜 거기에 다니며 왜 거기서 한시간씩이나 보내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며 어째서 처방은 쓰지 않는지 통 알지 못하였다. 그의 거동이 이상하게 보이였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가끔 그의 집에 찾아갔으나 만날수 없었다. 이런 일은 이전에는 한번도 없던 일이였다. 의사가 제시간에 맥주를 마시지 않고 때로는 점심식사에까지 늦어지자 다리유스까도 몹시 걱정스러웠다.

6월말의 어느날 호보또브의사가 무슨 일때문에 안드레이 예피미치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가 집에 없었기때문에 호보또브는 그를 찾으러 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의사선생은 지금 정신병환자한테 갔다고 알려주었다. 호보또브는 그들의 말을 듣고 6호병실로 갔다. 현관에서 발길을 멈춘 그는 말소리가 들려오자 귀를 기울이였다.

《우리는 전혀 서로 어울릴수 없지요. 그리구 당신의 신념대로 날

고칠수도 없을거요.》 이완 드미뜨리치가 화를 내며 하는 말이였다. 《당신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데다 고통을 당해본적도 없고 다만 술주정군처럼 남의 고통덕에 먹고 살아왔지요.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나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고통을 당해왔소. 그래 털어놓고말해서 나는 모든 점에서 당신보다 더 낫소. 더 권위가 있단 말이요. 당신은 날 가르치려고 하지 마오.》

《나는 당신을 나의 신념대로 고치자는 의도는 없습니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자기의 말을 리해하려고 하지 않는것이 서운한듯 조용히 말하였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지요. 친구, 문제는 당신이 고생을 했고 내가 고생을 하지 않았다는데 있는것이 아니요. 고통이나 기쁨은 덧없는것이니까. 그따위는 내버려둡시다. 될대로 되라지요. 문제는 당신이나 내가 사색할수 있는 사람이라는데 있는것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사색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비록 우리들의 의견이 다르다할지라도 우리들을 일치시키게 하는것입니다. 늘 보게 되는 무지와 무능, 우둔 같은것들에 내가 얼마나 싫증을 느꼈는지 또 내가 얼마나 기쁘게 당신과 이야기를 하는지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현명한분이요. 나는 당신이 반갑습니다.》

호보또브는 문을 조금 열고 병실안을 들여다보았다. 실내모를 쓴 이완 드미뜨리치와 안드레이 예피믜치가 침상에 나란히 걸터앉아있었다. 정신병자는 얼굴을 찌프리고 환자옷을 경련적으로 감싸고있었고 의사는 머리를 떨어뜨린채 꼼짝 않고 앉아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벌겋고 맥없이 서글픈 빛을 띠고있었다. 호보또브는 어깨를 으쓱하고 웃으면서 니끼따와 눈짓을 하였다. 니끼따도 어깨를 으쓱하였다.

이튿날 호보또브는 준의와 함께 병실로 왔다.

두사람은 현관에 서서 엿들었다.

《아니, 우리 령감이 꼼짝 못하는군그래!》 호보또브는 병실에서 나오면서 말했다.

《하느님맙시사!》 하고 화려하게 차린 쎄르게이 쎄르게이치는 반들반들하게 닦은 장화에 물이 튈가 두려워 물웅뎅이를 열심히 돌아오면서 한숨을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친애하는 예브게니 페도릐치, 나는 벌써부터 그렇게 될줄 알았지요!》

12

그후부터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주위에서 어떤 이상한 공기가 돌고 있다는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막일군들과 간병원, 환자들은 그를 만나면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경비원의 딸 마샤는 그가 병원뜰에서 자주 만나군 하여 친해졌으나 지금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려고 웃으며 다가가면 왜서인지 그를 피하여 달아나군 하였다.

우편국장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도 그의 말을 들어주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아주 옳은 말씀이시오. …》 하지는 않고 웬일인지 당황한 빛을 띠우고 《예, 예…》하고 중얼거릴뿐이였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 서글프게 그를 바라보면서 무엇때문인지 자기 친구에게 술과 맥주를 끊으라고 충고하기 시작하였다. 우편국장은 속이 깊은 사람이라 맞대놓고 말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실례를 들어 아주 훌륭한 사람인 어떤 대대장이라든가 혹은 훌륭한 젊은이인 련대에 소속된 목사의 실례를 들면서 그들도 술을 마시고 병에 걸렸댔지만 술을 끊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났다고 하였다.

호보또브가 두서너번 안드레이 예피믜치한테 왔는데 그도 역시 술같은 주정이 있는 음료를 끊으라고 충고하였고 무슨 똑똑한 리유도 없이 취소카리를 복용하라고 권하였다.

그해 8월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시장한테서 몹시 중대한 용무가 있으니 와달라는 련락을 받았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지정된 시간에 시청으로 갔다. 거기에는 주둔군 부대장과 군시학관, 시자치회 의원과 호보또브, 그밖에 의사라고 소개를 받은 어떤 뚱뚱하고 머리칼이 연한 갈색인 사람이 있었다. 뽈스까계통의 발음하기 어려운 성을 가진 그 의사는 도시에서 30로리나 떨어진 곳에서 살고있었는데 우연히 이 도시에 들렸다고 하였다.

《여기에 당신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시자치회의원은 모두 인사를 하고 책상에 마주앉자 안드레이 예피믜치에게 말을 건네였다. 《바로 여기 있는 예브게니 페도릐치의 말에 의하면 그 병원에서는 약국이 좁아서 어느 한 병실로 옮겨야겠다

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본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옮길수도 있겠지요, 더 중요한 원인은 그 병실을 수리해야겠다는것입니다.》

《예, 꼭 수리해야 합니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잠시 생각하고나서 말하였다. 《례를 들어 만약 한쪽모퉁이에 있는 건물을 약국으로 쓰자면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5백루블은 들겝니다. 비생산적인 지출이지요.》

잠시 말들이 없었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하였다.

《저는 벌써 10년전에 이 병원의 현재 규모가 시의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크다고 제기하였던적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1840년대에 지은것인데 그때에도 그것을 유지할 자금은 없지 않았습니까. 시에서는 필요도 없는 건물과 쓸데없는 기구에 너무도 많은것을 랑비하고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예산으로 달리 마련을 한다면 모범적인 병원을 두개이상 운영유지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다르게 마련한다는건 무엇인지요?》 시자치회의원은 신이 나서 말하였다.

《저는 이미 의료부문을 지방자치회에 넘기라고 제기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지방자치회로 넘기면 자치회가 그 돈을 횡령할게요.》 머리칼이 연한 갈색인 의사가 웃어댔다.

《그게야 습관이니 어련하겠소.》 시자치회의원은 맞장구를 치며 역시 웃어댔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머리칼이 연한 갈색인 의사를 무표정하게 멍하니 바라보며 말하였다.

《공정하게 해야지요.》

다시금 말들이 없었다. 차가 나왔다. 왜 그런지 몹시 당황한 표정을 한 주둔군 부대장이 책상너머로 안드레이 예피미치의 손을 툭툭 치며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들을 아주 잊어버렸지요. 의사선생, 당신은 주패도 안하고 녀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마치 수도승같이 지내지요. 당신은 우리 친구들이 따분해졌지요.》

모두 점잖은 사람이 이 도시에서 살기는 따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극도 음악도 없고 얼마전에 구락부에서 열린 무도회때에는 부인이 한 20명가량이나 되였는데 상대하는 남자는 단 두명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젊은이들은 춤은 추지 않고 매점앞에 몰려있지 않으면 주패를 하였다고들 하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시민들이 이렇게 된것은 자기의 정력과 열정, 리성을 주패나 쓸데없는 공담으로 허비하면서 흥미있는 담화나 독서에는 시간을 돌리려고도 하지 않는데 있으며 리성이 주는 혜택은 누리려고도 하지 않는데 있다. 이 얼마나 섭섭하고 또 섭섭한 일인가고 말하였다. 다만 리성만이 흥미있고 훌륭하며 나머지는 천박하고 저급하다는것이였다. 호보또브는 자기 동료의 말을 듣다가 불현듯 이렇게 물었다.

《안드레이 예피믜치,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가 대답하자 호보또브와 머리칼이 연한 갈색인 의사는 안드레이 예피믜치에게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일년은 며칠인가, 6호병실에 훌륭한 예언자가 있다는것이 정말인가고 스스로도 졸렬하다고 느껴지는 시험관의 태도로 물었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얼굴을 붉힌채 마지막으로 대답하였다.

《예, 거기 있는 환자입니다. 그러나 흥미있는 젊은이지요.》

더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가 현관에서 외투를 입느라니 주둔군 부대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우리 늙은이들에겐 쉴 때가 왔소!》

시청에서 나오면서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이 모임이 자기의 정신상태를 검토하기 위해서 마련된 위원회였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에게 묻던 물음들을 다시 생각하자 얼굴을 붉혔다. 그는 왜 그런지 이제야 일생에서 처음으로 의학이 가엾게 여겨졌다.

《한심하군.》 그는 방금 머리칼이 연한 갈색인 의사가 자기를 심사하던것을 회상하면서 생각하였다. 《그자들은 겨우 최근에야 정신병학강의를 받고 시험을 치지 않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되여 그런 무례한짓을 망탕 한단 말인가? 그자들이야말로 정신병학을 리해조차 못하는 주제에!》

그는 난생처음으로 모욕을 느끼고 격분하였다.

바로 그날 저녁 미하일 아베리야느치가 찾아왔다. 우편국장은 인사도 하지 않고 다가가 그의 두손을 붙잡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귀중한 친구, 당신이 나의 참다운 우정을 믿는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리구 날 자기의 친구로 생각해주시오, 나의 친구!》 그는 안드레이 예피미치가 말하려는것을 막으면서 흥분하여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의 교양과 선량한 마음씨를 사랑했지요. 내 말을 들어주시오. 귀중한 친구, 의사들은 당신에게 진실을 숨기는것을 과학적도의로 생각하고있지요. 그러나 나는 군대식으로 진실을 털어놓겠습니다. 당신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용서하시오. 내 귀중한 친구, 그러나 그건 정말이요. 그건 벌써 오래전부터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느끼고있던것입니다. 지금 예브게니 페도릐치의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건강을 유지하자면 쉬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것이 필요하다는군요. 아주 옳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오늘 당장 휴가를 받아 딴 공기를 마시러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내 친구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함께 떠납시다! 같이 가서 어디 망녕을 부려봅시다.》

《나는 자신을 아주 건강하다고 느끼고있습니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잠시 생각하고나서 말하였다. 《난 어디로든지 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나의 우정을 달리 밝히게 하여주시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별로 특별한 리유도 없이 책이나 다리유스까, 맥주도 없이 어디론가 떠나간다든가, 20년동안이나 세워온 생활질서를 갑자기 깨뜨린다든가 한다는것은 첫 순간 그에게 괴이하고 환상적인것으로 보이였다. 그러나 그는 시청에서 주고받은 말들과 그곳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맛본 무거운 기분을 돌이켜보았다. 그러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를 미친 사람으로 치부하고있는 이 도시에서 얼마동안이라도 떠나가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미소를 던지기도 하였다.

《그럼 당신은 어디로 갈 작정입니까?》 안드레이 예피미치가 물었다.

《모스크바나 뻬쩨르부르그, 와르샤와로… 와르샤와에서 나는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다섯해를 보냈지요. 참으로 놀라운 도시지요! 갑시다, 내 귀한 친구.》

13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한주일이 지난 후에 상부에서 휴식하라는, 다시말하여 사표를 제출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태연한 태도를 취하였으나 그는 한주일후에는 미하일 아베리야늬치와 함께 벌써 역마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철도역으로 떠났다. 그날은 날씨가 쌀쌀했으나 하늘은 개여 멀리까지 맑게 틔여있었다. 정거장까지는 2백로리나 되였다.

그들은 도중에서 이틀밤을 자게 되였다. 역관에서 차를 마실 때에 잘 씻지 않은 차잔을 내놓든가 혹은 말메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얼굴이 상기되여 온몸을 떨면서 《참아야지, 괜히 여기서 이러쿵저러쿵할게 없지.》하고 부르짖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가는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깝까즈나 뽈스까로 갔던 려행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자기가 그때 사랑에도 빠졌고 사람들한테서 대접도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도 열이 올라 말하는 바람에 그가 허풍을 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편국장이 의사의 얼굴에 입김을 끼얹고 귀에 대고 너털웃음까지 치는 바람에 의사는 생각을 집중하지도, 어느것 하나 똑똑히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그들은 려비를 절약하느라고 3등렬차를 타고갔다. 려객들은 대부분 순박한 평민들이였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곧 모든 사람들과 가까와져 이 걸상에서 저 걸상으로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불쾌하기 그지없는 기차려행은 할것이 아니라고 고아댔다. 《다 협잡판이요! 말을 타고가는게 훨씬 편하지. 하루에 백로리를 단숨에 달려도 기운이 나고 시원하거던. 그런데 우리 고장에서는 삔늪이 바싹 말라서 흉년이 들었지요. 하여튼 무서운 란장판이지요.》 그는 신이 나서 목청을 돋구어 말하면서 남들에게는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의 큰 웃음소리며 능란한 몸짓과 뒤섞인 이 끝없는 잡담에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진절머리가 났다.

(우리 둘가운데서 누가 미쳤단 말인가?)

그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다. (려객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나인가 아니면 자기가 제일 더 현명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안정을 주지 않는 이 리기주의자인가?)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모스크바에 들어서자 견장을 뗀 군대외투와 붉은 줄이 간 바지를 입었다.

그가 군모와 군대외투를 입고 거리로 나가면 병사들은 그에게 경례를 하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이제야 이 사나이야말로 한때 자기가 가지고있던 모든 귀족적인것들중에서 좋은것은 죄다 써버리고 나쁜것만을 남긴 그런 인간으로 보이였다. 그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남을 부려먹기 좋아하였다. 그는 성냥이 자기앞에 있는 탁상우에 있어도 성냥을 가져오라고 하인에게 소리쳤다. 그는 하녀들앞에서도 바지를 입지 않고 속옷바람으로 다니는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늙은 하인들한테도 너라고 했고 화가 나면 그들을 보고 절구통이니 바보니 하고 욕하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그가 량반티를 내느라고 그런다는것을 알지만 구역질이 났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우선 자기 친구를 이베르사원으로 안내하였다. 그는 머리가 땅바닥에 닿도록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며 열심히 기도를 하였다. 그는 기도를 끝내자 꺼질듯이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믿지는 않더라도 기도를 하고나면 어쩐지 마음이 후련해지는군요. 성상에 입을 맞추시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얼굴을 찌프리고 성상에 입을 맞추었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면서 쑹얼쑹얼 기도를 하였는데 그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이였다. 그뒤로 그들은 크레믈리로 가서 거기서 짜리대포와 짜리종을 보았고 손으로 그것들을 쓸어보기까지 하였다. 모스크바 남쪽의 풍경을 황홀하게 바라보았고 쓰빠씨쩰리사원과 루만쩨브박물관에도 갔다.

그들은 쩨스또브에서 점심을 먹었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구레나룻을 쓸어내리며 음식차림표를 바라보다가 식당을 제집처럼 느끼는데 익숙해진 태도로써 말했다.

《당신이 우리들에게 오늘은 무엇을 대접하는지 봅시다, 천사아씨!》

14

의사는 다니고 보고 먹고 마시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감정, 미하일 아베리야늬치에 대한 불만만이 가득차있었다. 그는

혼자 쉬고싶었고 친구에게서 떠나 숨어버리고싶었다. 그러나 친구는 그를 한걸음도 곁에서 떼여놓지 않았고 그에게 될수록 많은 위안을 주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였다. 구경할것이 없을 때면 우편국장은 이야기로 그를 위안하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이틀동안은 참았다. 그러나 사흘째가 되자 몸이 아파 자기는 숙소에 남아있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우편국장은 그러면 자기도 남겠다고 하였다. 사실 말이지 이제는 쉬여야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는 다리가 견딜수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쏘파의 등에 얼굴을 돌려대고 누워서 프랑스가 도이췰란드를 반드시 격파할것이라느니, 모스크바에는 사기군이 무척 많다느니, 말은 겉으로 보아서는 좋은것을 알아볼수 없다느니 하는 자기 친구의 말을 이를 악물고 듣고있었다. 의사는 귀속이 왕왕 울어대고 심장이 울렁거리기 시작하였으나 원래 마음이 무던한탓에 자기 친구에게 물러가달라거나 잠자코 있어달라고 하지도 못하였다. 다행히도 미하일 아베리야느이치는 방안에 있기가 갑갑한지 점심을 먹자 산보하러 나가버렸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혼자 남게 되자 마음껏 휴식을 즐겼다. 쏘파에 가만히 누워있다는것은 얼마나 유쾌한가! 참다운 행복은 고독없이는 있을수 없다. 땅에 내려온 천사가 하느님을 배반한것은 아마도 천사들이 모르던 고독이 반가왔기때문일것이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최근에 보고 들은것들을 혼자서 조용히 생각해보고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하여도 미하일 아베리야느이치가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우정과 너그러운 마음에서 휴가를 받고 나와 함께 오지 않았는가.) 의사는 생각할수록 서운했다. 그는 이런 우정의 보살핌이 도리여 성가시였다. 우편국장은 사실 선량하고 마음도 너그럽고 명랑하지만 그에게는 정말 질색이였다. 이렇게 늘 현명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우둔한 사람들로 느껴졌다.

그 다음날부터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병을 구실로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는 쏘파등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누워 친구가 이야기로 위안을 할 때에는 고통을 느꼈고 친구가 없으면 편안하였다. 그는 여기까지 따라온 자기자신에게 화가 났고 날마다 더 수다스러워지고 주책없이 구는 친구에게도 화가 났다. 그는 자기의 생각을 도저히 참되고 고상하게 조절할수가 없었다.

(이건 바로 이완 드미뜨리치가 말한 그 현실이 나를 치는것이다.) 그는 자기의 어리석은 태도에 성을 내면서 생각하였다. (그러나 부질없는 생각이다. … 내가 집에만 가면 모든것이 이전처럼 순조로이 되겠지.)…

뻬쩨르부르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온종일 방에서 나가지 않고 쏘파에 누워있으면서 맥주를 마실 때만 일어났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와르샤와로 가자고 줄창 졸라댔다.

《거긴 뭘하러 가겠소?》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간절하게 말하였다. 《혼자 가시오. 나는 집으로 가겠소! 제발 부탁이요!》

《그 어떤 구실을 대도 안됩니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반대하였다. 《그건 놀라운 도시요. 나는 거기서 내 한평생에 가장 행복한 다섯해를 보냈지요!》

안드레이 예피믜치에게는 자기 주장을 세우는 성격이 부족하였다. 그는 할수없이 참고 와르샤와로 갔다. 그는 여기서도 방에서 나가지 않고 쏘파에 누워서 자기와 친구에게나 그리고 로씨야말을 굳이 쓰지 않으려는 하인들에게 짜증을 냈다. 그러나 건강하고 정력에 넘친 명랑한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리를 쏘다니며 자기 옛친구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며칠밤은 집에서 자지도 않았다. 어느날 알지 못할 곳에서 하루밤을 보낸 그는 아침일찌기 몹시 흥분하여 상기된 얼굴로 머리도 빗지 않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무엇인가 혼자 중얼거리면서 방구석을 이리저리 한동안 거닐더니 발을 멈추고 입을 열었다.

《우선 명예지.》

그는 몇걸음 더 걷더니 머리를 싸쥐고 슬프게 말하였다.

《그렇지, 우선 명예야! 이 바빌론 같은 도시로 오자는 생각이 처음 내 머리에 떠올랐던 바로 그 순간이 빌어먹을 순간이였어! 귀중한 친구.》 그는 의사에게 말하였다. 《날 경멸하시오. 나는 도박에서 몽땅 잃었습니다! 내게 5백루블을 꿔주시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5백루블을 세여 말없이 자기 친구에게 내밀었다. 부끄러움과 격분에 아직도 얼굴이 홍당무우처럼 된 그는 두서없이 무엇인가 필요하지도 않은 맹세를 하더니 모자를 쓰고 나가버렸다. 한 두어시간 지나서 돌아온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던지자 꺼질

듯 한숨을 쉬고나서 말하였다.

《명예를 구원했소. 갑시다, 친구! 나는 한순간도 이 저주로운 도시에 남아있고싶지 않습니다. 사기군들! 오스트리아간첩놈들!》

두 친구가 자기네 도시로 돌아왔을 때는 벌써 12월이였고 거리에는 눈이 깊이 쌓여있었다. 호보또브가 이미 안드레이 예피믜치의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그는 안드레이 예피믜치가 돌아오면 병원주택을 내여주리라고 생각하고 아직 옛집에서 살고있었다. 그가 자기의 식모라고 한 밉게 생긴 부인은 곁채의 한방에 들어있었다.

거리에서는 병원의 새 소문이 떠돌았다. 이 밉게 생긴 부인이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경비원은 용서해달라고 그 녀자앞에서 무릎을 꿇고 굽신굽신 고개를 숙인 모양이라는것이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있을 집을 구하여야 하였다.

《친구.》 우편국장이 주저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좀 지나친 물음입니다만 지금 당신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말없이 자기의 돈을 꺼내여 세여보고나서 말하였다.

《86루블입니다.》

《난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의사의 말에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당황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대체로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지요.》

《86루블이라고 말했는데요. … 이밖에 제게는 한푼도 없습니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의사를 정직하고 점잖은 사람으로 치부하고는 있었으나 그래도 그에게는 적어도 한 2만루블쯤 밑천이 있을것이라고 속짐작을 해왔다. 그는 이제야 안드레이 예피믜치가 살아나갈 방도가 없는 거지라는것을 알자 어째서인지 갑자기 울면서 자기 친구를 껴안았다.

15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벨로와야라는 가난한 녀인네 작은 집으로 이사하였다. 이 작은 집에는 부엌을 내놓고 방이 셋밖에 없었다. 창문

이 거리쪽으로 난 두 방은 의사가 차지하였고 셋째 방과 부엌에서는 다리유스까와 어린애가 셋인 녀주인이 살았다. 녀주인한테는 가끔 주정뱅이인 정부가 자러 오군 하였는데 그가 오는 밤이면 집안이 떠들썩하였고 어린애들과 다리유스까는 질겁하였다. 그가 와서 부엌에 자리를 잡고 술을 내라고 졸라댈 때면 모두 몹시 비좁아 옹색해하였다. 의사는 측은한 생각에서 울어대는 애들을 자기 방으로 데려다가 재우군 하였는데 이런 일은 그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그는 여전히 아침 여덟시면 일어나 차를 마시고나서 자기의 낡은 책들과 잡지들을 읽었다. 그에게는 이미 새책을 사들일 돈이 없었다. 오래된 책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환경이 바뀐탓인지 독서도 이제는 그를 사로잡지 못하였고 싫증이 나게 하였다. 그는 시간을 쓸데없이 보내지 않으려고 자기에게 있는 책들의 상세한 목록을 만들고 책뒤에는 표쪽을 붙였다. 그는 이런 기계적이고 자질구레한 일이 책을 읽는것보다도 더 흥미가 있어하였다. 이 단조롭고 자질구레한 일이 어느덧 그의 사색을 잠재웠고 그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시간은 빨리 지나갔다. 그는 다리유스까와 함께 부엌에서 감자를 깎든가 또는 메밀에서 흙부스레기를 골라내든가 하는것조차가 그에게는 흥미있게 느껴졌다.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교회당에 갔다. 그는 교회당안의 담벽곁에 서서 눈을 쪼프리고 찬송가를 들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대학이며 종교를 두고 생각도 했다. 그러면 그는 마음이 가라앉았고 슬퍼도 졌다. 때문에 그는 교회당에서 나오면서 례배가 너무 빨리 끝난것이 서운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완 드미뜨리치와 이야기를 하려고 두번이나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이완 드미뜨리치는 두번 다 류달리 흥분하여 성을 냈다. 그는 자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공담을 하기 싫어졌기때문에 자기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저주롭고 비속한 사람들한테서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의 대가로 단 하나의 보수 즉 독방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과연 이것까지도 거절한단 말인가? 안드레이 예피믜치가 두번다 그와 헤여지면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하자 그는 퉁명스럽게 대꾸하였다.

《제길할!》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다시 세번째로 그를 찾아가야 할지 망설이였

다. 그러나 가고싶었다.

그는 점심을 먹고나자 이 방 저 방 다니며 생각에 잠겼다가 저녁 차시간까지 쏘파의 등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누워 아무리 애써도 쫓아버릴수 없는 여러가지 생각에 골몰하였다. 그는 자기가 20년이상이나 근무하였지만 은급도 퇴직금도 주지 않는것이 심히 못마땅하였다. 물론 자기가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은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근무한 사람들은 성실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모두다 은급을 받지 않았던가. 사실 직위나 훈장이나 은급을 받는것이 도덕적자질이나 능력에 따르는것이 아니라 근무년한에 있다는것이 현대적인 공정성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자기만은 례외로 되여야 하는가? 그는 돈이 한푼도 없었다. 그는 자기옆을 지날 때도, 주인집아주머니를 볼 때도 부끄러웠다. 맥주값만 하더라도 벌써 32루블이나 빚지고있었다. 주인집아주머니에게도 역시 빚지고있었다. 다리유스까는 남모르게 낡은 옷가지와 책들을 팔았고 주인집아주머니에게는 의사선생이 곧 무척 많은 돈을 줄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는 저축해두었던 1 000루블을 려행에 써버린 자신에게 화를 냈다. 그 돈이 있다면 지금 얼마나 쓸모가 있었으랴!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것이 불안하였다. 호보또브는 앓는 동료를 때때로 찾아가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그의 피둥피둥한 얼굴과 불쾌하도록 겸손한 태도, 《동료》란 그의 말이며 그가 신은 긴 장화 등이 비위에 맞지 않았다. 더구나 비위에 거슬리는것은 그가 안드레이 예피믜치의 병을 고쳐주는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간주하고 또 사실상 고치고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였다. 그는 올 때마다 취소카리병과 대황으로 만든 알약을 가지고왔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도 역시 친구를 찾아가서 위로하는것을 자기 의무로 생각하였다. 그는 매번 안드레이 예피믜치한테 흉허물없는듯 한 태도로 드나들었고 일부터 너털웃음을 웃어가면서 그가 오늘은 혈색이 좋아졌다느니 다행히 일이 제대로 되여가고있다느니 하면서 그를 납득시키려고 하였다. 그럴수록 그는 자기 친구인 의사의 상태가 절망적이라고 결론을 짓게 되였다. 그는 지금까지 와르샤와에서 진 빚을 갚지 못하고있었기때문에 부끄럽고 마음이 쓰이여 너털웃음을 웃고 우습강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애썼다. 그의 이야기나 우스운 말

은 더 늘어나 이제는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물론 그자신에게도 더는 참을수 없는것으로 되였다.

그가 와있으면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늘 담벽쪽으로 얼굴을 돌려대고 쏘파에 누운채 이를 악물고 들었다. 그러노라면 그의 마음속에 거품이 괴였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가면 매번 그 거품이 점점 더 많이 괴여올라 마치 목구멍까지 치미는것 같았다.

그는 이런 시시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분주히 다른것을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자기자신이나 호보또브, 미하일 아베리야느치도 자연가운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조만간 죽어버릴것이라는것이였다. 만일 백만년후에 어떤 망령이 지구우를 날아지난다면 그는 다만 흙과 맨 바위만을 보게 될것이다. 문화도 도덕도 다 사라져버리고 우웡도 한대 자라지 않을것이다. 가게방주인을 보기 부끄러운것이나 너절한 호보또브, 미하일 아베리야느치의 괴로운 우정 같은것들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따위는 모두 부질없고 시시한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도 이제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가 백만년후의 지구를 상상하자 곧 빈 절벽뒤에서 긴 장화를 신은 호보또브나 또는 껄껄 웃어대는 미하일 아베리야느치가 나타났고 《친구, 와르샤와빚을 며칠안으로 꼭 갚겠소. …》하는 부끄러워하는 속삭임이 들려오는듯 하였다.

16

언젠가 한번은 안드레이 예피미치가 점심식사를 끝내고 쏘파에 누워있는데 미하일 아베리야느치가 왔다. 바로 이때에 우연히 호보또브도 취소카리병을 들고 나타났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겨우 몸을 일으키고 앉아서 두팔로 쏘파를 의지하였다.

《오늘은》 미하일 아베리야느치가 말을 꺼냈다. 《당신의 얼굴빛이 어제보다 훨씬 좋군요. 아주 건강한 사람같소! 틀림없이 건강한 사람이요!》

《이젠 나을 때가 됐지요, 친구.》 호보또브는 하품을 하며 말하였다. 《당신도 아마 이 지루한노릇에 싫증이 났겠지요.》

《다 나을테니까!》 미하일 아베리야느치가 명랑하게 말하였다.

《한 백년은 더 살게 되겠지요! 그렇구말구요!》

《백년은 모르겠소만 아직 20년은 더 살수 있습니다.》 호보또브는 위로하였다. 《일없습니다. 친구, 걱정하지 마시오. … 일부러 당신은 혼동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더 훌륭한 일을 합시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크게 웃으며 친구의 무릎을 툭 쳤다. 《우리는 더 굉장한 일을 합시다! 오는 여름에는 틀림없이 깝까즈로 내달립시다. 그 일대를 말을 타고 달려봅시다— 뚜벅! 뚜벅! 뚜벅! 그리고 깝까즈에서 돌아오면 곧 아마 결혼식을 멋있게 하게 되겠지요.》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능청맞게 눈짓을 했다. 《장가를 보내드리지요. 친구… 장가를…》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가라앉았던 거품이 목구멍으로 치밀고 갑자기 심장이 세차게 뛰는것을 느꼈다.

《그건 저속한거요!》 그는 급히 일어나 창문곁으로 다가가며 말하였다. 《당신들은 저속한 말을 하고있다는것도 느끼지 못하시오?》

그는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하려고 하였으나 마음과는 달리 불쑥 주먹을 부르쥐고 머리우로 번쩍 추켜들었다.

《날 내버려두오!》 그는 얼굴을 붉히고 온몸을 떨면서 새된 목소리로 웨쳤다. 《나가오! 둘 다 나가오! 당장!》

미하일 아베리야늬치와 호보또브는 일어나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여 바라보다가 그만 겁에 질렸다.

《둘 다 나가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다시 웨쳤다. 《우둔한 사람들같으니! 바보같은 사람들! 나한테는 우정도 임자들의 약도 소용이 없어. 우둔한것들! 저속하기란! 구역질이 난다!》

호보또브와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어쩔줄 몰라 서로 마주보다가 문까지 뒤걸음질하여 현관으로 나갔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취소카리병을 들어 그들의 뒤로 던졌다. 병은 문턱에 맞아 깨여지면서 소리를 냈다.

《물러가!》 그는 현관으로 달려나가면서 목갈린 소리로 웨쳤다. 《제길할!》

손님들이 가버린 뒤에도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열병환자처럼 몸을 떨며 쏘파에 누워 오래동안 중얼거렸다. 《우둔한것들, 바보같으니!》

그는 마음이 가라앉자 우선 가엾은 미하일 아베리야늬치가 지금 아

마도 무섭게 무안해하고 마음이 괴로울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 모든 것은 다 몸서리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언제 한번 이렇게 행동한적이 없었다. 도대체 리성과 자각은 어디 있는가? 사물의 리해와 철학적랭정성은?

의사는 치욕과 자책으로 하여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열시쯤 우편국으로 가서 국장에게 사죄하였다.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맙시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감동하여 그의 손을 꽉 틀어쥐고 한숨을 쉬면서 말하였다. 《지나간 말을 하는자는 귀신한테 잡혀가라는 말이 있지요, 류바브낀!》 그는 갑자기 우편배달원들과 손님들이 놀랄 지경으로 크게 소리쳤다. 《의자를 내와. 당신은 좀 기다리오!》 그는 살창문으로 등기우편을 들이미는 시골녀인에게 소리쳤다. 《내가 무엇을 하고있는지 보지 못하오?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맙시다.》 그는 안드레이 예피믜치에게 몸을 돌리며 다정하게 말하였다. 《앉으시오, 어서.》

그는 잠시 말없이 무릎을 쓸다가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노여운 생각은 털끝만치도 없었지요. 병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건가요. 리해합니다. 어제 당신이 발작하는 바람에 나와 의사는 놀라 당신을 두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왜 자기 병을 신중히 대하고 달라붙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구의 솔직한 말을 용서하시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조용히 말하였다. 《당신은 가장 불편한 환경에서 살고있습니다. 비좁고 불결하고 간호하는 사람도 없고 치료할 비용도 없지요.… 나와 의사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권고합니다. 우리의 충고를 들어주시오. 어서 입원하시오! 거기야 음식도 낫고 간호도 받을수 있으니 치료도 되지요. 예브게니 페도릐치는 우리끼리 말이지만 좀 주책이 없기는 하나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 완전히 믿을수 있지요. 그는 당신을 돕겠다고 내게 약속했답니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친구의 참다운 동정과 그의 두볼에서 반짝이는 눈물에 감동되였다.

《그걸 믿지 마시오!》 그는 우편국장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하였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 병의 근원은 20년동안 이 온 도시에서 단 한명의 현명한 사람을 발견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는데 있지요. 나는 병이 없습니다. 그저 헤여날 길이 없는 순환론법에 빠졌을뿐입니다. 나는 아무것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이나 다할 용의가 있습니다.》

《입원하시오, 친구.》

《나에겐 마찬가지입니다. 구뎅이에 빠진대도 좋습니다.》

《예브게니 페도릐치의 말을 듣겠다는걸 약속해주시오.》

《그렇게 하지요, 약속합니다. 하지만 되풀이합니다만 나는 순환론법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모든것이 내 친구들의 참다운 동정조차 단 한가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것뿐입니다. 나는 죽을것이고 또 그것을 의식할 용기는 가지고있지요.》

《당신은 회복될겝니다, 친구.》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짜증을 냈다. 《류달리 훌륭한 사람도 죽게 될무렵에 지금 내가 체험하는 이런것을 체험하지는 못할것입니다. 남들이 당신에게 무슨 심장이 나쁘다든가 심부전이 있다든가 하는따위의 말을 하는데 따라 당신은 치료받으려고 할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이 당신을 정신병자나 혹은 범죄자라고 한다면, 다시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에게 주의를 돌린다면 당신은 도저히 헤여날수 없는 순환론법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헤여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말려들어가게 되구요. 사람이 제 아무리 애써도 헤여나오지 못하게 되니 결국 손을 들게 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말을 주고받는 동안에 살창문곁에는 손님들이 늘어났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방해가 될가봐 일어나 작별하려고 하였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한번 더 그에게서 약속을 받고 그를 현관앞 문까지 바래주었다.

바로 그날 저녁녘에 반외투를 입고 긴 장화를 신은 호보또브가 불쑥 나타나 안드레이 예피믜치에게 마치 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말하였다.

《나는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친구,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의료상문제로 상담할게 있으니 가주지 않겠습니까?》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그가 같이 산보하면서 자기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든가 아니면 정말 그에게 돈벌이를 시키려고 온것이라고 생각하

였다. 그는 옷을 입고 호보또브와 함께 거리로 나왔다. 그는 어제일을 빌고 화해할 기회가 생긴것이 기뻐 어제일은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고 분명히 자기를 용서한것이 틀림없는 호보또브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렸다. 그는 지금까지 이 비문화적인 사람한테서 그런 세련된것은 기대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래 당신의 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드레이 예피미치가 물었다.

《병원안에 있지요. 나는 벌써부터 당신에게 한번 보여드리고싶었습니다. … 아주 흥미있는 환자입니다.》

그들은 병원마당으로 들어가 본관을 돌아서 정신병자들이 들어있는 6호병실로 갔다. 그들은 가는 동안 까닭없이 침묵을 지켰다. 병실에 들어서자 니끼따가 여전히 뛰여내려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여기 있는 한 환자의 페에서 이상한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호보또브는 안드레이 예피미치와 함께 병실에 들어서면서 속삭이듯 말하였다. 《여기서 잠간만 기다려주시오, 내 곧 올테니. 청진기를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버렸다.

17

이미 날은 어두워졌다. 이완 드미뜨리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자기 침상에 누워있었다. 마비환자는 꼼짝 않고 앉아서 조용히 울며 입술을 우물거렸다. 뚱뚱한 농군과 전 우편분류원은 자고있었다. 고요했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이완 드미뜨리치의 침상에 걸터앉아서 기다렸다. 그러나 한 반시간이 지나자 호보또브대신에 니끼따가 환자옷과 누가 입었던 속옷과 방신 등을 한아름 안고 병실로 들어왔다.

《선생님, 이걸 입으십시오.》 그는 조용히 말하였다. 《여기에 침대가 있습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그는 분명히 방금 들여다놓은 빈 침대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일없을겁니다. 인차 나을테니까요.》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곧 모든것을 깨달았다. 그는 묵묵히 니끼따가 가리킨 침대로 가서 앉았다. 그는 니끼따가 서서 기다리는것을 보자

옷을 몽땅 벗었다. 그는 부끄러웠다. 그는 병원옷을 입었다. 바지는 짧았고 웃옷은 길었다. 환자옷에서는 흔한 비린내가 났다.

《인차 낫겠지요.》 니끼따가 되뇌였다.

그는 안드레이 예피믜치의 옷을 한아름 안고 나가면서 발로 문을 닫았다.

《어쨌든 마찬가지지…》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부끄러운듯이 환자옷으로 자기 몸을 감쌌다.

그는 환자옷을 입고보니 자기가 죄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찬가지야… 연미복이나 제복이나 이 환자옷이나 다 마찬가지지.》…

시계가 어디 있더라? 옆주머니에 있던 수첩은? 담배는? 니끼따가 내 옷들을 어디로 가져갔을가? 이제는 아마 죽을 때까지 바지와 조끼, 장화 같은것들을 다시는 입거나 신지 못할것이다. 이 모든것이 어쩐지 이상하였고 이제야 비로소 리해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였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지금에야 비로소 벨로와야네의 오막살이와 6호병실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이 세상은 모든것이 부질없고 덧없다는것을 확신하였다. 그는 속이 떨리고 발이 시렸다. 그는 이제 곧 이완 드미뜨리치가 일어나 환자옷을 입은 자기 꼴을 보게 된다는 생각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일어나 왔다갔다하다가 다시금 앉았다.

그는 벌써 반시간 아니, 한시간은 앉아있었을것이다. 그는 모든것에 극도로 싫증이 났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여 여기서 하루를, 한주일을, 한해동안을 지내는가? 그는 앉아있기도 하고 왔다갔다하기도 하였으며 다시금 앉기도 하였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볼수도 있고 다시금 이 구석, 저 구석을 거닐기도 할수는 있었다. 그래 그다음에는 무엇을 한단 말인가? 역시 우상처럼 줄곧 앉아서 생각이나 해야 하는가? 아니다, 그건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누웠으나 곧 일어나서 소매로 이마의 식은땀을 훔쳤다. 얼굴에서는 온통 훈제한 물고기냄새가 났다. 그는 다시금 왔다갔다하였다.

《이건 뜻밖의 오해로군.…》 그는 의혹에 싸여 두팔을 벌리고 중얼거렸다. 《터놓고 말해야지, 이건 오해라고…》

이때에 이완 드미뜨리치가 눈을 떴다. 그는 앉아서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 침을 뱉았다. 그다음 의사를 시름없이 바라보았다. 분명히 첫 순간에는 무슨 일인지 리해하지 못한것 같았다. 그러나 곧 잠에 취한 그의 얼굴에는 적의와 조소의 기색이 떠올랐다.

《으하하, 당신마저 여기에 갇혔군그래, 선생님!》 그는 한눈을 쪼프리고 잠에 취하여 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대단히 반갑소. 당신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당신한테서 피를 빨아낼게요. 멋이 있는걸!》

《이건 참으로 엉터리없는 오해요. …》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이완 드미뜨리치의 말에 놀라 중얼거렸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되뇌였다. 《이건 엉터리없는 오해야…》

이완 드미뜨리치는 다시금 침을 뱉고 누웠다.

《빌어먹을 놈의 목숨이라구야!》 그는 중얼거렸다. 《가슴아프고 분한것은 이 목숨이야말로 고통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가극의 화려한 대만원으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다는 그것이다. 그러면 인부들이 와서 시체의 팔다리를 잡고 지하실로 나갈테지… 으하하! 그래, 좋아… 그 대신 저세상에는 우리의 명절이 있겠지. 나는 저세상에서 망령이 되여 여기 다시 나타나서 이 더러운 놈들을 질겁하게 하리라. 내 이놈들을 백발이 되게 하리라.》

모이쎄이까가 돌아와서 의사를 보더니 손을 내밀며 말하였다.

《한푼 주세요!》

18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벌써 캄캄하였다. 지평선 오른쪽에서는 차겁고 뻘건 달이 솟고있었다. 병원담장에서 한 이백메터가량 되는 멀지 않은 곳에 돌담으로 둘러싸인 높고 흰 집이 서있었다. 이것이 감옥이였다.

《바로 저게 현실이구나!》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이렇게 생각하자 무서워졌다. 그는 달도, 감옥도, 담장우에 박아놓은 못도 먼 화장터의 불길도 무서웠다. 뒤에서 꺼질듯 한 한숨소리가 들렸다. 안드레이 예피미치가 뒤돌아보니 가슴에 번쩍거리는 별과 훈장들을 단 사람이 미소를 띠우고 능청스럽게 눈짓을 하였다. 이것도 무서워졌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달이나 감옥에 별로 무서운것은 없다는것, 정신적으로 건전한 사람들도 훈장을 단다는것, 이 모든것이 세월과 함께 썩어 흙으로 변한다는것을 믿어왔다. 그러나 불현듯 그는 절망에 사로잡혀 두팔로 쇠살창을 그러쥐고 힘껏 흔들었다. 든든한 쇠살창은 휘지 않았다.

그는 공포를 피하려고 이완 드미뜨리치의 침상에 가서 앉았다.

《나는 기운이 진했소.》 그는 온몸을 떨고 식은땀을 훔치면서 중얼거렸다. 《기운이 빠졌소.》

《철학적으로 사색하시지요.》 이완 드미뜨리치가 조롱하듯 말하였다.

《허허… 그렇지… 당신은 언젠가 로씨야에는 철학이 없는데 모두가 하잘것 없는것까지도 사색한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하잘것 없는것들이 사색을 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에게 해롭겠습니까.》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마치 울고싶고 동정을 사고싶은듯 한 태도로 말하였다. 《당신은 무엇때문에 그렇게 남의 설음을 보고 좋아 웃는가요? 이 하잘것 없는 존재들도 불만이 있는데야 어떻게 사색을 안하겠소? 현명하고 교양있고 긍지가 있고 자유를 사랑하는 하느님과 같은 사람이 더럽고 변변치 않은 소도시의 의사로 되여 일생을 부항단지니 피뽑기니 계자고약이니 하는것들을 주물렀지 무슨 딴 도리가 있겠소? 속이기나 하고 마음이 좁아지고 저속해질뿐이지! 어허, 참!》

《당신은 어리석은 말을 떠벌이고있소. 의사가 싫으면 대신이 될게지.》

《아무것도 못되오, 아무것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나도 사색으로는 랭철하고 억세였고 건전했소. 그러나 생활이 한번 나를 사납게 건드리자 나는 맥이 풀리고 허탈상태에 빠졌소.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우리는 보잘것이 없소. 당신도 마찬가지요. 당신은 현명하고 점잖고 좋은 혈통을 타고났지만 생활을 시작하자 지치고 병이 났지요. … 약하구말구요!》

저녁때가 되자 무섭고 분한 생각 이외에도 또한 어떤 궁금증이 안드레이 예피미치를 끊임없이 괴롭히였다. 드디여 그는 그것이 맥주를 마시고싶고 담배를 피우고싶은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여기서 나가겠소.》 그는 말하였다. 《등잔을 가져오라고 말

하겠소. … 난 이렇게는 견딜수 없소. … 참을수 없소. …》

안드레이 예피미치가 문으로 다가가 그것을 열자 니끼따가 뛰여일어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로 가렵니까?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가 말하였다. 《주무실 시간입니다.》

《그저 잠간만, 뜰안을 거닐다 올게!》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어쩔줄 몰라 중얼거렸다.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건 금지되여있습니다, 잘 아시면서도.》

니끼따는 문을 닫고 거기에 등을 기대였다.

《그래 내가 여기서 나갔다고 하여 누구가 어떻게 된단 말인가?》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물었다. 《난 모르겠는데! 니끼따, 난 나가야겠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난 볼 일이 있어!》

《질서를 문란시키지 마시오. 좋지 않습니다!》 니끼따는 훈계하듯이 말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완 드미뜨리치가 갑자기 소리를 치며 뛰여일어났다. 《저놈이 무슨 권리가 있어서 안 내보내는거야? 저것들이 왜 우리를 여기 가두어두고있는가 말이야? 누구나 재판이 없이는 자유를 빼앗을수 없다고 법률에도 씌여있겠지! 이건 강압이야! 제멋대루야!》

《물론 제멋대룹니다!》 안드레이 예피미치가 이완 드미뜨리치의 고함소리에 용기를 얻어 말하였다. 《난 꼭 나가야겠소! 저 사람은 권리가 없소! 이 사람아, 내보내달라는데두!》

《들었니, 이 우둔한 짐승아?》 이완 드미뜨리치는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열어, 안 열면 문을 마사버리겠다! 이 백정놈아!》

《열어!》 안드레이 예피미치도 온몸을 떨면서 고함쳤다. 《나는 요구한다!》

《한마디만 더 해라!》 니끼따는 문뒤에서 대꾸하였다. 《더하라니까!》

《그럼 예브게니 페도릐치를 여기루 꼭 불러라도 오게! 내가 와달

란다고 말하게. … 잠간만이라도!》
《래일이면 의례히 오실겝니다.》
《우리를 영원히 내놓지 않을겝니다!》 이완 드미뜨리치가 말을 이었다. 《우리를 여기서 썩게 하자는게지요! 오, 주여, 과연 저세상에는 진리의 지옥이 없나이까. 그리고 이 악당들도 용서를 받게 되나이까? 어디에 정의가 있단 말인가? 문을 열어. 이 악당아,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는 갈린 목소리로 고함치고 와락 문에 달라붙었다. 《나는 내 머리를 까부시겠다! 이 살인백정놈들아!》
니끼따는 얼른 문을 열고 두팔과 무릎으로 안드레이 예피미치를 떠밀치고 팔을 번쩍 쳐들었다. 그는 주먹으로 얼굴을 갈겼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세찬 짠 물결이 자기를 머리까지 휘감아 침대에 밀어다놓는것같이 느꼈다. 정말 입안이 찝찔했다. 입에서 피가 나온것이 틀림없었다. 그는 마치 헤여나가려는듯이 두팔을 허우적거리다가 누군가의 침대를 붙잡았다. 그러자 그는 니끼따가 두번이나 자기의 등을 갈겼다는것을 느꼈다.
이완 드미뜨리치가 크게 소리쳤다. 아마 그도 맞은 모양이였다.
곧 모두가 조용해졌다. 엷은 달빛이 살창으로 새여들었다. 마루바닥에는 괴물같은 그림자가 비껴있었다. 무서웠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누운채로 숨을 죽이였다. 그는 다시 자기를 때릴것이라고 생각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틀림없이 낫을 든 사람이 그를 찌르고 가슴과 창자를 몇번인가 도려냈다. 그는 너무도 아파 베개를 깨물고 이를 악물었다. 지금 이 달빛때문에 검은 그림자로 보이는 이 사람들도 바로 이런 아픔을 해마다, 날마다 응당 겪어왔으리라는 무섭고 참을수 없는 생각이 혼돈된 그의 머리속에 번쩍 떠올랐다. 그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이러한것들을 알지도 못하였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있을수 있었을가? 그는 아픔이라는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리해하지도 못하였다. 말하자면 이것은 그의 잘못이 아닌것이다. 그러나 니끼따처럼 저렇게 완고하고 사나운 성질이 그를 목덜미에서 발꿈치까지 써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뛰여내려 힘껏 소리를 지르고싶었고 니끼따를 죽인 다음 호보또브와 경비원과 준의를 그리고 그다음에는 자기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빨리 내뛰고싶었으나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발도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가쁜숨을 쉬며 환자옷과 샤쯔를 벗어 발기발기 찢어버리였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졌다.

19

이튿날 아침 그는 머리가 아프고 귀속이 왕왕 울고 온몸에 병이 든것 같음을 느꼈다. 그는 어제 자기의 행동을 돌이켜보았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는 어제 비겁하였고 달조차 무서워하였고 지금까지 생각도 못하였던 자기의 감정과 사상을 진정으로 토로했다. 실례로 보잘것 없는것들도 불만을 느끼기때문에 사색한다는 그 말이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아무래도 좋았다.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꼼짝 않고 누워서 입을 다물고있었다.

(나한테는 아무렇게 해도 마찬가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물었을때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을테다.… 내겐 아무러나 마찬가지다.)

점심식사후에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는 차 100그람정도와 과일사탕 0.5키로그람정도를 가지고왔다. 다리유스까도 역시 와서 우둔한 얼굴에 서글픈 표정을 하고 온 한시간 침대곁에 서있었다. 호보또브도 그를 보러 왔다. 그는 취소카리병을 가지고왔고 니끼따에게는 병실에서 아무것이나 한대씩 피우게 하라고 일렀다.

저녁녘에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졸도하여 죽었다. 처음에 그는 심한 오한과 속이 후들후들 떨리는것을 느꼈다. 무엇인가 아주 불쾌한것이 온몸은 물론 손가락까지 퍼져나가면서 머리까지 뻗어 눈과 귀에도 뻗쳤다. 눈속이 퍼래졌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자기에게 마지막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다. 그는 이완 드미뜨리치와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를 비롯하여 수백만사람들이 믿고있는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런데 만일 영생이 있다면? 그러나 그는 영생을 바라지 않았다. 그도 한순간만은 그것을 생각하였다. 그가 어제 읽은 책에 있는 류달리 아름답고 우아한 사슴떼가 그의 옆을 달려갔고 그다음은 시골녀인이 등기편지를 든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미하일 아베리야늬치도 무엇인가 말하였다. 그러자 곧 모든것이 사라졌다. 안드레이 예피믜치는 영원히 자기를 잊어버렸다.

인부들이 와서 그의 팔과 다리를 붙들고 소례배당으로 날라갔다. 그는 눈을 뜬채 그곳에 누워있었다. 밤에는 달이 그를 비쳐주었다. 아침에 쎄르게이 쎄르게이치가 와서 그리스도십자가상앞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자기의 이전 상급의 눈을 감겨주었다.

다음날 안드레이 예피미치의 장례를 지냈다. 장례식에는 미하일 아베리야늬치와 다리유스까만이 참가하였다.

—1892년—

목에 걸린 안나

1

결혼식뒤에 간단한 식사조차 없었다. 신혼부부는 포도술 술잔으로 술을 한잔씩 마시고 옷을 갈아입고는 정거장으로 나갔다. 즐거운 결혼식에 따르는 무도회와 저녁식사, 음악과 춤대신 200키로메터나 되는 순례려행을 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는 이미 관등급도 있고 젊지도 않아 결혼식을 떠들썩하게 하는것은 격에 맞지 않으니 이렇게 하는편이 좋겠다고 찬성하였다. 하기는 52살의 관리가 겨우 18살난 처녀에게 장가를 드는데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쑥스러운 일이기도 하였다. 절제있는 사람인 모데쓰뜨 알렉쎄이치가 신혼려행으로 수도원을 택한것은 그가 결혼에서도 종교와 도덕을 첫자리에 놓는다는것을 자기의 젊은 안해에게 명백히 알리기 위해서라는 말들도 하였다.

신혼부부를 바래주었다. 동료들과 친척들이 큰 포도술잔들을 들고서서 만세를 웨치기 위하여 기차가 떠나기를 기다렸다. 실크햇트를 쓰고 교원제복을 입은 신부의 아버지 뾰뜨르 레온찌이치는 벌써 취하여 얼굴이 해쓱해진채 포도술잔을 들고 자꾸 차창쪽으로 몸을 뻗치면서 애원하는 어조로 말하였다.

《아뉴따, 아냐, 아냐, 한마디만!》

아냐가 차창안에서 아버지에게 몸을 기울이자 그는 딸에게 불쾌한 술냄새를 들씌우며 무엇인지 소곤거렸다. 그는 딸의 귀에 대고 무슨 뜻인지 알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고 딸의 얼굴과 가슴, 두팔에 대고 십자를 그었다. 그의 몸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중학생들인 아냐의 남동생 뻬쨔와 안드류샤는 창피해하면서 뒤에서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이였다.

《아버지, 그만해요. … 아버지, 그러지 말라요. …》

기차가 움직이자 아냐는 아버지가 비칠거리면서 술잔의 포도술을 엎

지르며 렬차를 따라 조금 달려오는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가련하고 선량하고 죄스러워하는 표정이 어리여있었다.

《만－세!》 아버지가 웨쳤다.

이제는 신혼부부만 기차안에 남게 되였다.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는 차간안을 휘둘러보고나서 선반우에 물건들을 갈라얹고는 싱글벙글 웃으며 자기의 젊은 신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몹시 뚱뚱하고 비대한데다가 대식가였다. 그는 뺨에 수염이 길게 자라고 코밑에는 수염이 없는 중키의 관리였는데 면도를 한 둥글고 쑥 내민 아래턱은 꼭 뒤발꿈치 같았다. 그의 얼굴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코밑수염이 없는것 즉 기름지고 쩨리처럼 흐물흐물한 두뺨으로 점차적으로 넘어간 산뜻하게 면도를 한 번번한 자리였다. 그의 몸가짐은 위풍이 있었고 동작이 빠르지 않아 몸집이 부드러웠다.

《지금 한가지 상기시키지 않을수 없는 일이 있소.》 그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하였다. 《5년전에 꼬쏘로또브가 성 안나훈장 제2급을 받고 사의를 표하러 갔을 때 각하께서는 〈지금 당신한테는 안나가 세개 있는셈이군. 하나는 금장에 있고 둘은 목에 매달려있고.〉 라고 하시였다오. 한가지 미리 말해둘것은 그때 꼬쏘로또브한테는 안나라고 부르는 싸움 잘하고 경솔한 안해가 돌아와있었다는거요. 앞으로 내가 안나훈장 제2급을 받게 될 때에 각하께서 나에게도 그런 말을 할 근거가 없게 해주기를 기대하오.》

그는 작은 눈으로 웃었다. 아냐는 이 사람이 두텁고 끈적끈적한 입술로 언제든지 자기 입을 맞출수 있으며 자기는 이미 그것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생각에 불안을 느끼면서 역시 웃었다. 아냐는 신랑이 뚱뚱하지만 동작이 날랜것을 보고 놀랐고 징그럽기도 하였으며 구역질이 났다.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는 일어서서 천천히 목에서 훈장을 벗긴 다음 연미복과 조끼를 벗고 실내복을 입었다.

《그렇단 말이요.》 그는 아냐의 곁에 앉으며 말하였다.

아냐는 목사나 손님들, 교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훌륭한 처녀가 글쎄 무엇때문에 이 나이많고 재미없는 사나이한테 시집가는가고 슬프게 바라보던것 같던 교회당 결혼식이 얼마나 지긋지긋하였던가를 생각하였다. 오늘 아침만 하여도 그는 모든것이 다 잘되였다고 그렇게도 환희에 넘쳐있었건만 결혼식때와 지금 이

차간안에서는 자기가 속임과 수치를 당한것같이 느껴졌다. 그는 이렇게 돈많은 사람에게 시집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돈이 없었다. 결혼식옷도 빚을 내여 마련한것이였다. 방금 아버지와 남동생들이 자기를 바래주려고 나왔을 때 그들의 얼굴표정으로 보아 집에 돈이 한푼도 없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들이 오늘 저녁을 먹을수 있을가? 그리고 래일은? 아냐는 왜서인지 아버지와 동생들이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머니의 장례식날 저녁처럼 근심스러운 얼굴들을 하고 앉아있을것처럼 생각되였다.

(아, 난 얼마나 불행해!) 아냐는 생각하였다. (난 왜 이렇게 불행할가?)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는 녀자들을 다루는데는 서툰 위풍있는 사람처럼 아냐의 허리를 어색하게 다치고 한쪽어깨를 툭툭 쳤다. 하지만 아냐는 지금 돈과 어머니와 어머니의 죽음을 생각하고있었다. 어머니가 죽자 중학교 습자와 도화교원인 아버지 뾰뜨르 레온찌이치는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집안살림은 인차 거덜이 났다. 남동생들에게는 장화와 덧신이 없었고 아버지는 치안판사한테 끌려갔고 집달리가 와서 가구들을 차압하였다. … 얼마나 수치스러웠던가! 아냐는 취한 아버지의 시중을 들고 남동생들의 긴양말들을 깁고 장마당에도 다녀야 하였다. 남들은 아냐의 아름다움과 젊음, 우아한 태도를 칭찬하였지만 그는 온 세상이 자기의 눅거리모자며 구두의 해진 곳에 잉크칠을 한것을 보는것만 같았다. 그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몸이 약하기때문에 중학교에서 언제 해고될지 몰랐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더 견디지 못하고 역시 어머니처럼 돌아갈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의 형편을 아는 녀인들이 동정하여 아냐를 위하여 좋은 대상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되여 선택된 사람이 바로 이 나이들고 못생겼지만 돈이 있는 모데쓰뜨 알렉쎄이치였다. 그는 은행에 십만루블을 저금하고있었고 부모들한테서 물려받은 토지도 있었다. 그는 절제가 있고 상관에게도 잘 보였다. 아냐에게 말한것과 같이 그는 상관한테서, 중학교 교장과 심지어 시학관에게서 뾰뜨르 레온찌이치를 해직시키지 말아달라는 글쪽지를 받는것쯤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였다. …

아냐가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있는데 갑자기 떠들썩한 소음과 함께

차창으로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기차가 중간역에 들어섰던것이다. 역구내의 사람들속에서 손풍금과 째지는듯 한 서툰 바이올린소리가 들렸고 키큰 봇나무들과 백양나무들이 있는 달빛속에 잠긴 별장들쪽에서 악기소리들이 들려왔다. 아마도 별장들에서 무도회가 열린 모양이였다. 역구내에서는 별장주인들과 이 좋은 날씨에 맑은 공기를 마시러 나온 사람들이 산보하고있었다. 여기에는 이 별장지대의 소유자인 키가 크고 몸이 뚱뚱한데다가 머리칼색이 어두워 아르메니야사람처럼 보이는 눈이 불거지고 이상한 양복을 입은 아르띄노브도 있었다. 그는 가슴의 단추를 풀어제낀 웃옷을 입고 박차가 달린 긴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의 두어깨에는 뒤깃이 달린 부인복처럼 땅에 질질 끌리는 검정만또가 덮여있었다. 그의 뒤에는 두마리의 사냥개가 긴 주둥이들을 쳐들고 따라다녔다.

아냐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어려있었으나 그는 이미 어머니도 돈도 자기의 결혼식도 다 잊어버리고 아는 중학교 학생들, 장교들과 악수를 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재잘거렸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냐는 달빛이 비치는 승강대의 계단에 서서 훌륭한 새옷을 입고 모자를 쓴 자기의 온몸이 보이게 하도록 애썼다.

《기차가 왜 섰나요?》 아냐가 물었다.

《여기는 대피역이요.》 여러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편차를 기다리는거요.》

아냐는 아르띄노브가 자기를 보고있다는것을 눈치채자 애교있게 눈을 쪼프리고 프랑스말로 크게 말하였다. 그는 자기의 목소리가 그렇게 훌륭할줄은 몰랐다. 아냐는 음악이 울리고 달빛이 수면을 비치는데다가 유명한 호색한이며 망종인 아르띄노브가 탐욕스러운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는데다가 또 모두 즐거워하기때문에 갑자기 기쁨을 느꼈다. 기차가 움직이고 아는 장교들이 작별인사로 아냐에게 거수경례를 하자 그는 이미 뒤로 물러난 숲뒤에서 취주악대가 연주하는 무도곡을 코노래로 흥얼거렸다. 아냐는 마치 중간역에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는 꼭 행복할것이라는 확신을 얻은듯 차간으로 돌아왔다.

신혼부부는 수도원에서 이틀동안 머물고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그들은 관청주택에서 살았다. 모데쓰뜨 알렉쎄이치가 출근하면 아냐

는 피아노를 탔고 너무도 심심하여 울기도 하였다. 그는 침대겸용쏘파에 누워서 장편소설들을 읽었고 류행잡지들을 뒤적거렸다. 점심식사때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는 아주 많이 먹었고 정치와 승급, 상금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사람은 일을 하여야 하며 가정생활은 만족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였다. 그는 푼돈도 저축하면 큰돈이 된다는것과 자기는 이 세상에서 종교와 도덕을 제일 첫자리에 놓는다고 말하였다. 그는 포크를 검처럼 틀어쥐고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은 응당 자기의 의무를 가져야 하오!》

아냐는 그의 말을 듣자 무서워 더 먹을수가 없었다. 그는 배가 고픈채로 식탁에서 일어서는것이 보통이였다. 점심후에 남편은 낮잠을 자면서 코를 드렁드렁 골았다. 아냐는 친정집으로 갔다.

아버지와 남동생들은 아냐가 오기 전까지 마치 그가 돈때문에 정이 없고 싫증나는데다가 몰취미한 사람에게 시집갔다고 비난이나 한것처럼 어색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냐의 사르락거리는 옷과 팔찌, 귀부인다운 차림새가 아버지와 동생들을 어색하게 만들고 모욕을 준듯 하였다. 그들은 아냐가 보자 좀 창피하여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아버지와 동생들은 이전처럼 아냐를 사랑하였으며 그가 없이 점심을 먹는데 습관되지 않았다. 아냐는 그들과 함께 앉아 남새국과 죽, 양기름에 지진 초냄새가 나는 감자를 먹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조그만 물병에 있는 술을 잔에 부어서 얼굴을 찌프리며 쭉 마셨다. 그다음 두잔을 연거퍼 더 마시였다. 눈이 크고 여윈데다가 창백한 남동생들인 뻬쨔와 안드류샤는 물병을 잡고 어쩔줄 몰라하며 말하였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이젠 됐어요, 아버지…》

아냐도 역시 걱정되여 아버지에게 더 마시지 말라고 간청하였으나 아버지는 갑자기 발끈 성이 나서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못하게 할테다!》 하고 그는 소리쳤다.

《사내놈들과 계집년을 모조리 내쫓을테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순하게 들렸다. 자식들은 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대체로 몸치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면도를 하여 창백해진 얼굴로 여위고 긴 목을 내뽑고 반시간동안이나 거울앞에 서서 머리칼을 빗질한다, 검은 웃수염을

비벼올린다 하면서 맵시를 보고 향수를 뿌렸다. 그는 넥타이를 나비 모양으로 매고나서 장갑을 끼고 실크햇트를 쓴 다음 개인교수를 하러 나갔다. 그는 명절날에는 집에서 색감으로 그림을 그리든가 혹은 쉭쉭거리고 부릉부릉 우는 소리가 나는 풍금을 타든가 하였다. 그는 그 풍금으로 미끈한 화음을 뽑아내려고 애쓰면서 풍금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가 아들들에게 성을 냈다.

《고약한 놈들! 이 망할 자식들아! 풍금을 다 망가뜨려놓았구나!》

아냐의 남편은 저녁마다 관청주택에서 함께 사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주패를 하였다. 이때마다 못생긴데다가 옷차림도 몰취미하고 식모들처럼 거친 관리의 안해들이 모여들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는 못생긴 안해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답지 못하고 저속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는 아냐와 함께 극장으로 가는적도 있었다. 그는 막간휴식시간에 안해를 자기곁에서 한발자국도 떼지 않고 팔을 낀 다음 복도와 홀을 거닐었다. 그는 누구나 다 인사를 하고는 아냐에게 《5등문관이요. … 각하가 채용하였소. …》라든가 혹은 《재산이 있고… 제집을 가지고있소. …》라고 중얼거렸다. 매점앞을 지나갈 때면 아냐는 무슨 달콤한것을 몹시 먹고싶었다. 아냐는 쵸콜레트와 사과를 넣은 삐로그를 좋아하였으나 돈이 없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청하자니 창피스러웠다. 그런데 남편은 매대앞에서 배 한알을 들고 만지작거리다가 우물쭈물 물었다.

《얼마요?》

《55꼬뻬이까입니다.》

《너무 과하군!》 하고 그는 말하고 배를 제자리에 놓았다.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매점에서 물러나는것이 게면쩍었던지 쎌레르약수를 사서는 혼자서 한병을 다 마시느라고 눈에 눈물까지 글썽해졌다. 아냐는 그가 미웠다.

남편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아냐에게 급히 말하였다.

《이 로부인에게 절을 하오!》

《난 부인이 누군지 모르는데요.》

《상관없소. 저이는 세무감독국 국장 부인이요! 어서 절을 하란 말이요.》 그는 집요하게 강요하였다.

《절한다구 머리가 떨어지진 않을거요.》 아냐는 절을 하였다. 그

렇다고 머리가 떨어지지는 않았으나 몹시 거북하였다. 아냐는 남편이 바라는대로 모든것을 하였으며 그가 자기를 정말 바보처럼 취급하는것을 보고 자신에게 화를 내였다. 아냐가 시집간것은 오직 돈 한가지만을 바란것이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시집가기 전보다 돈이 더 없었다. 그전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20꼬뻬이까짜리들을 주군 하였지만 남편은 한푼도 주지 않았다. 아냐는 남편한테서 몰래 훔치든가 혹은 달라고 할수도 없었다. 남편이 무섭고 몸서리쳐지기때문이였다. 아냐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있었던것처럼 생각되였다. 아냐는 어렸을 때 먹장구름이나 혹은 금시라도 깔아죽일듯 돌진해오는 기관차처럼 가장 인상깊고 늘 무섭게 생각된것은 중학교 교장이였다. 지금 제일 무서운것은 집에서 남편이 언제나 말밥에 올리고 또한 무엇때문인지 모두 무서워들 하는 각하였다. 그러나 좀 적게 무서워한것은 엄격하고 완고하며 코아래수염을 밀어버린 중학교 선생들과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는 모데쓰뜨 알렉쎄이치였다. 그는 얼굴생김새도 교장과 비슷하였다. 그리하여 아냐의 상상에는 이 모든 무서운것들이 하나로 합쳐져 굉장히 큰 무서운 흰 곰이 되여 아버지와 같은 약하고 위축된 사람들에게 달려드는것만 같았다. 아냐는 무엇이든지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두려워하였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냐는 또한 자기를 무례하게 귀여워하고 공포를 일으키는 포옹으로 자기를 더럽힐 때에도 구역질을 참으면서 만족을 표시하여야 하였다.

뾰뜨르 레온찌이치는 단 한번 그 어떤 아주 불유쾌한 빚을 갚기 위하여서 자기의 사위에게 50루블을 꿔달라고 부탁한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였던가!

《좋소, 내 당신에게 주겠소.》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는 잠간 생각하고나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신이 술을 계속 마시면 더는 도와주지 않겠다는것을 예고하오. 공무원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있다는것은 수치스러운것이요. 술에 대한 열정이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망쳤소. 하지만 자신을 통제하면 그들도 승급할수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당신에게 상기시키지 않을수 없소.》

그는 계속하여 《…에 따라서》, 《…한 상태에서 출발하여…》, 《방금 말한것에 비추어보아》라는 식의 길다란 상투적인 문구들을 벌려놓았다. 불쌍한 레온찌이치는 모독을 받고 술을 더 마시고싶은 강

력한 욕망을 느꼈다.

해진 장화를 신고 노닥노닥 기운 바지를 입은 남동생들이 아냐를 찾아왔을 때도 남편한테서 역시 훈시를 듣지 않으면 안되였다.

《사람이라면 자기의 의무를 가져야 해!》 모데쓰뜨 알렉쎄이치가 동생들에게 말하였다. 그는 아냐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아냐에게 반지들과 팔찌, 브로치들을 선사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이 물건들은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보관하는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안해의 옷장을 자주 열고 물건들이 모두 제대로 있는가를 검열하군 하였다.

2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가 되기 훨씬 전부터 지방신문에서는 섣달 스무아흐레날 귀족회관에서 겨울철무도회가 열릴것이라고 광고하였다. 매일 저녁 주패놀이뒤면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는 흥분하여 아냐를 불안하게 쳐다보면서 관리부인들과 속삭였고 다음에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래동안 이 구석에서 저 구석으로 왔다갔다 하였다. 마침내 그는 저녁늦게야 아냐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하였다.

《당신이 입을 무도회옷을 만들어야 하오. 알았지? 한가지 명심할 것은 마리야 그리고리예브나와 나딸리야 꾸지미니쉬나와 의논하여 하라는거요.》

그는 안해에게 100루블을 주었다. 아냐는 받았다. 그러나 무도회옷을 주문하면서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에게만 말하고 어머니가 무도회에 갈 때 어떤 옷을 입었던가를 생각해내느라고 애썼다. 어머니는 언제나 최신류행에 따라 옷을 입었으며 늘 아냐에게 관심을 돌렸다. 그는 아냐를 인형처럼 맵시있게 입혔고 프랑스말과 마주르까를 훌륭하게 추는 법을 배워주었다. (시집가기 전까지 어머니는 5년동안 가정교사로 있었다.) 아냐도 어머니처럼 낡은 옷을 가지고 새것같이 만들고 장갑을 휘발유로 닦았으며 치레거리들도 새로 빌려올줄 알았다. 그는 또한 어머니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애교있게 말하고 자세도 매력있게 가질줄 알았다. 그는 필요한 때에는 환희에 차거나 수수께끼같은 눈길로 바라다볼줄도 알았다. 아냐는 아버지한

테서 검은 머리칼과 까만 눈동자, 신경질과 맵시내기를 좋아하는 그 몸가짐을 물려받았다.

무도회로 떠나기 반시간전에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는 안해의 방에 있는 큰 거울앞에서 목에 훈장을 걸려고 후록코트를 입지 않은채 그 방으로 들어갔다. 순간 그는 안해의 아름다움과 산뜻하고 경쾌한 옷차림에 황홀해졌다. 그는 으쓱하여 수염에 빗질을 하며 말하였다.

《허, 이거 정말 굉장하구려. … 정말 굉장해! 아뉴따!》 그는 갑자기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행복하게 하였으니 오늘은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할수 있소. 당신에게 부탁하는데 각하의 부인에게 꼭 첫인사를 드리시오! 제발! 그분을 통하면 난 출세할수 있단 말이요!》

무도회로 갔다. 여기가 바로 귀족회관이다. 현관에는 문지기가 서 있었다. 옷걸이들이 있는 현관방에는 외투들과 바삐 돌아가는 하인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부채로 막는 가슴을 드러낸 부인들이 있었고 등불에 쓰는 가스와 군인들의 냄새가 풍기였다. 아냐는 남편과 팔을 끼고 층계를 올라가면서 음악소리를 들었다. 그는 수많은 등불에 비친 자기의 온몸을 굉장히 큰 거울에 비쳐보자 갑자기 달밝은 그밤 중간역에서 느꼈던 바로 그 행복의 예감이 마음속에서 잠을 깨는것 같았다. 아냐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처음으로 자기가 소녀가 아니라 부인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우정 걸음새와 몸가짐을 어머니처럼 하면서 걸어갔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가 돈많고 자유로운 몸으로 된것처럼 느꼈다. 곁에 남편이 있다는것조차도 그를 주저하게 하지 못하였다. 아냐는 회관문턱을 넘자 이미 늙은 남편이 있다는것이 조금도 자기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다. 그것은 오히려 남자들에게 황홀하고 자극적인 신비로운 매력을 준다는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때문이였다. 광실에서는 이미 관현악이 울리고 춤들이 시작되였다. 관청주택에서만 살아온 아냐는 울긋불긋한 불빛이며 음악이며 소음의 인상들에 사로잡혔다. 그는 광실을 한번 휘둘러보고는 (아, 얼마나 좋아!)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군중속에서 자기가 전에 야회들이나 놀이터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장교들, 선생들과 변호사들, 관리들, 지주들, 각하와 아르뜨이노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들이 내온 매점들과 간이매점들을 운

영하고있는 사람들, 처녀들, 가슴을 몹시 드러내놓은 아름답고 추한 상류사회의 부인들을 곧 구별할수 있었다. 견장을 단 몸집이 장대한 장교(아냐가 중학교때 쓰따로－끼예브스까야거리에서 첫인사를 나눈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의 성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마치 땅속에서 솟아난듯 나타나 아냐에게 왈쯔를 추자고 청하였다. 아냐는 남편한테서 얼른 떨어져나갔다. 그는 마치 자기는 돛배를 타고 세찬 폭풍우속으로 가고 남편은 멀리 언덕에 남아있는것같이 생각되였다.… 아냐는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가면서 음악과 소음에 도취되여 로씨야말과 프랑스말을 섞어가면서 웃고 떠들었다. 그는 남편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왈쯔와 뽈까, 까뜨릴을 열심히 추었다. 아냐가 남자들속에서 눈부시게 성공하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 다르게 될수 없었다. 아냐는 흥분하여 숨을 가쁘게 쉬면서 두손에 부채를 련달아 바꾸어쥐였다. 그는 무엇인가 마시고싶었다. 휘발유냄새가 풍기는 구겨진 연미복을 입은 뾰뜨르 레온찌이치가 붉은 얼음과자를 담은 접시를 들고 딸에게 다가왔다.

《넌 오늘 정말 황홀하구나.》 그는 환희에 넘쳐 딸을 보면서 말하였다. 《난 네가 시집간것을 지금처럼 뉘우친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 나는 네가 무엇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했는가를 알고있다만, 그러나…》 그는 작은 돈봉지를 꺼내여 떨리는 두손에 들고 말하였다. 《나는 오늘 수업료를 받았으니 너의 남편에게 빚을 갚을수 있다.》 아냐는 아버지의 손에 들린 접시를 밀어버리고 어느 남자의 손에 붙잡혀갔다. 그는 남자의 어깨너머로 아버지가 쪽무이마루에서 미끄러지듯 자기 짝패부인과 광실을 질러가는것을 얼핏 보았다.

(아버지는 취하지만 않으면 얼마나 선량한가!) 아냐는 생각하였다.

아냐는 좀전과 같이 굉장히 장대한 장교와 함께 마주루까를 추었다. 장교는 위풍있고 짐승에게 군복을 입힌것처럼 육중하게 걸었다. 그는 춤을 추면서 어깨와 가슴을 흔들거렸고 발을 간신히 옮겨놓았다. 그는 춤추기가 아주 질색이였으나 아냐는 자기의 아름다움과 드러내놓은 앞가슴으로 그를 자극하면서 그의 곁에서 나는것처럼 돌아갔다. 아냐의 눈은 흥분되고 동작은 열정적이였으나 장교는 점점 더 랭담해진듯 아냐에게 왕자처럼 은혜라도 베풀기나 하는듯이 두손을 내밀었다.

《잘한다, 잘해!…》 군중들이 부르짖었다.

그 굉장히 장대한 장교도 조금씩 몸이 풀리는것 같았다. 그는 활기를 얻고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미 황홀경에 빠져 춤동작에 열중하였고 경쾌하고 젊은이답게 움직였다. 아냐는 어깨만 들썩이며 능청스럽게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자기는 벌써 녀왕이고 상대방은 노예로 보는것 같았다. 아냐는 지금 온 광실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보며 정신없이 부러워하는것같이 생각되였다. 장교가 아냐에게 감사를 표시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갑자기 길을 내며 물러섰다. 남자들은 팔을 내리우고 어쩐지 이상하게 몸들을 폈다.… 견장에 두개의 별을 달고 연미복을 입은 각하가 아냐에게 다가왔다. 바로 그 각하가 아냐한테 온것이였다. 각하는 아냐를 똑바로 바라보며 호감을 띤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처럼 어여쁜 아가씨들을 볼 때마다 늘 이런 미소를 짓군 하였다.

《매우 반갑소, 정말 반가와…》 각하가 말을 꺼냈다. 《난 당신의 남편이 이런 보배를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감춘 죄로 류치장에 가두라고 명령하겠소. 나는 안해의 부탁으로 당신한테 왔소.》 각하는 아냐에게 한손을 내밀면서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를 도와주어야 하겠소.… 에헴, 그렇소.… 당신의 아름다움에 상금을 줘야 하겠소.… 미국에서처럼 말이요. 에헴, 그렇소.… 미국사람들 말이요.… 내 안해는 당신을 몹시 기다리고있소.》

각하는 나이지긋한 부인한테 아냐를 데리고갔다. 그 부인은 턱이 지나치게 살져 마치 입에 큰 돌을 물고있는것 같았다.

《우리를 도와줘요.》 부인이 말꼬리를 길게 뽑으며 말하였다. 《어여쁜 아가씨들은 다 자선단체에서 일하는데 오직 당신 혼자만은 어째선지 놀고있군요. 당신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요?》

부인이 자리를 내주자 아냐는 은싸모와르와 차잔들곁에 자리를 잡았다. 곧 풍청거리는 장사가 시작되였다. 아냐는 차 한잔에도 한루블이상을 받았고 장대한 장교에게 차를 석잔이나 마시게 하였다. 눈이 불거지고 천식을 앓는 부자인 아르띄노브가 다가왔다. 그는 이미 아냐가 여름에 보았을 때에 입었던 이상한 복장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연미복을 입고있었다. 그는 아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샴팡을 한잔 마시고는 100루블을 주었고 또 차를 마시고는 100루블을 냈다. 그는 그동안 천식으로 쿨럭거리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냐는 자기가 손님들의 눈길을 끈다는것과 자기의 눈길과 미소가 사람들에게 커다란 만족을 준다는것을 깊이 확신하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았다. 아냐는 자기가 음악과 춤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이 소란하고 화려하며 웃고 떠드는 생활을 위하여 존재한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는 자기를 깔아죽이려는듯 한 공포를 더는 느끼지 않았다. 아냐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며 다만 지금 자기의 성공을 기뻐할 어머니가 곁에 없는것만이 섭섭하였다.

뾰뜨르 레온찌이치는 벌써 얼굴이 해쓱해졌으나 아직 발을 제대로 가누면서 매대로 다가와 꼬냐크를 한잔 청하였다. 아냐는 그가 무슨 심상치 않은 말을 하려는줄 알고 얼굴을 붉혔으나 (아냐는 이미 자기에게 이렇게 가난하고 평범한 아버지가 있다는것이 수치스러웠다.) 아버지는 꼬냐크를 쭉 들이키고는 자기의 돈봉투에서 10루블짜리를 꺼내여 내던지고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갔다. 아냐는 잠시후에 아버지가 웬 녀인과 함께 춤을 추러 가는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좀 비틀거렸다. 아버지의 짝이 된 녀인이 창피를 느끼며 무엇이라고 떠들어댔다. 아냐는 3년전에 있은 무도회때에도 아버지가 지금처럼 비칠거리면서 소리를 지르기때문에 시경찰서 부서장이 그를 집에 데려다 눕혔던 일이 생각났다. 그 다음날 교장은 아버지를 당장 파직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추억인가!

회관안에 설치하였던 매대들에서 싸모와르의 불이 꺼지고 지친 녀자자선가들이 말없고 무뚝뚝한 중년부인에게 돈들을 바쳤을 때 아르띄노브는 자선사업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만찬을 차려놓은 광실로 아냐의 팔을 끼고 들어갔다. 그 자리에 참석한것은 20명가량밖에 되지 않았지만 몹시 떠들썩하였다. 각하가 축사를 하였다.

《이 호화로운 광실에서 오늘 자선단체의 값눅은 매대들의 번성을 위하여 한잔 들것을 제의합니다.》 한 려단장이 잔을 들자 모두 부인들과 술잔들을 맞쪼으려고 몸들을 내밀었다. 몹시 즐거웠다.

사람들이 아냐를 바래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식모들이 시장으로 나갈 때였다. 아냐는 취한데다가 기쁘고 새로운 인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너무도 피곤하여 옷을 벗고 잠자리에 눕자마자 곧 잠들었다.

오후 한시경에 하녀가 아냐를 깨워 아르띄노브씨가 방문하였다고 알렸다. 아냐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객실로 나갔다. 아르띄노브가 떠나

자 이번에는 각하자신이 자선사업에 참가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려고 왔다. 그는 아냐를 다정하게 바라보면서 입을 다시더니 아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앞으로 다시 찾아오는것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나갔다. 아냐는 자기 생활에서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그렇게도 빨리 찾아왔다는것이 못내 믿어지지 않아 놀라고 황홀한 마음으로 객실가운데 서있었다. 바로 이때 남편 모데쓰뜨 알렉쎄이치가 들어왔다.

아냐가 늘 보아오던것처럼 남편은 세력있고 당당한 사람들의 눈에 들려고 하인처럼 굽석거리는 태도로 앞에 서있었다. 아냐는 환희와 분노와 경멸을 품고 말마디마다 분명히 발음하면서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하여도 자기에게 아무 일도 없으리라는것을 확신하였다.)

《저리 가요, 이 바보!》

그후부터 아냐는 하루도 쉴새없이 들놀이며 산보, 연극공연을 보러갔다. 아냐는 매일같이 아침에야 집에 돌아와 객실에서 자군 하였는데 후에 그는 자기가 어떻게 꽃아래에서 자는가를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돈은 무척 많이 소용되였으나 아냐는 이미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그의 돈을 제 돈처럼 썼다. 그는 부탁도 요구도 하지 않고 그에게 다만 계산서나 《이 쪽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200루블을 지급할것.》이라든가 《100루블을 시급히 지불할것.》이라고 쓴 글쪽지들만 보냈다.

빠스하(부활제)날에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는 안나훈장 제2급을 받았다. 그가 사의를 표하러 가자 각하는 신문을 밀어놓고 안락의자에 몸을 깊이 잠그며 말하였다.

《당신에게는 지금 안나가 셋이 있는셈이군.》 그는 장미빛손톱을 이리저리 보면서 말하였다. 《하나는 금장에 있고 둘은 목에 있고.》

모데쓰뜨 알렉쎄이치는 웃음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조심성에서 손가락 둘을 입술에 가져다대고 말하였다.

《이제는 작은 울라지미르가 세상에 태여나는것만이 남아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각하께서 교부가 되여주시기를 부탁하는바입니다.》

그는 울라지미르훈장 제4급을 암시하는 이 기지있고 용감한 롱담을 두고 사람들이 도처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것인가부터 상상하였다. 그는 이런 말을 한마디 더 하고싶었지만 각하는 다시 신문을 들고 고개만 한번 끄덕하였다. …

아냐는 삼두마차만 타고다녔으며 아르뜨이노브와 함께 사냥을 갔고 단막극들을 보았고 만찬에도 참가하였다. 그는 자기 친정집에는 점점 더 드물게 갔다. 아버지와 남동생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식사하는데 습관이 되였다. 뾰뜨르 레온찌이치는 전보다 더 심하게 술을 마시였다. 돈이 없었고 풍금은 빚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팔아버렸다. 남동생들은 이제는 아버지를 혼자 거리에 내보내지 못하고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부축하군 하였다. 어느날 그들은 쓰따르-끼예브스까야거리로 가다가 말고삐를 느슨하게 매고 마부대신 아르뜨이노브가 모는 쌍두마차에 탄 아냐를 만났다. 뾰뜨르 레온찌이치는 실크햇트를 벗고 무엇인지 소리치려고 하였으나 뻬쨔와 안드류샤가 그의 두팔을 잡고 달래듯이 말하였다.

《그러지 말라요. 아버지… 그만둬요, 아버지…》

—1895년—

다 락 집

(어느 미술가의 이야기)

1

이것은 륙칠년전 내가 T현의 어느 한 군에 있는 젊은 지주 벨로꾸로브의 령지에서 살 때 있은 일이였다. 벨로꾸로브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허리에 주름이 있는 반외투를 입고다녔고 저녁때마다 맥주를 마셨다. 그는 자기가 아무데서도 또 누구한테서도 리해를 받지 못한다고 늘 나에게 투덜거렸다. 그는 정원이 달린 곁채에서 살았고 나는 원주들이 서있는 옛 귀족집의 엄청나게 큰 광실에서 살았는데 그안에는 넓은 쏘파(나는 여기서 자군 하였다.)와 내가 빠시얀스(주패놀이의 한 종류)를 하는 탁자외에 가구라군 하나도 없었다. 그 방에서는 지어 고요한 날씨에도 항상 낡은 아모쏘브식뻬치까에서 그 무엇이 웅웅거렸고 우뢰가 울 때는 온집이 드르릉드르릉 떨었다. 그럴 때면 집이 산산이 부서지는것만 같았다. 특히 밤에 열개나 되는 큰 창문들이 갑자기 번쩍하는 번개불에 비춰질 때는 좀 무섭기까지 하였다. 언제나 한가로운 운명을 타고난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나는 몇시간씩이나 창밖으로 하늘이며 새들, 가로수길 등을 내다보았고 우편국에서 나에게 배달하는것들을 닥치는대로 읽었고 잠을 잤다. 때때로 나는 집을 나서서 저녁늦게까지 발길이 가는대로 싸다녔다.

어느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을 헛갈려 우연히 낯선 정원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해는 이미 저물고 한창 꽃피는 호밀들이 저녁노을에 물들어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있었다. 마주선 두 담벽처럼 빼곡이 두줄로 늘어선 엄청나게 큰 늙은 전나무들이 어두컴컴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이루고있었다. 나는 껑충 담벽을 뛰여넘어 4센치메터가량 땅에 쌓인 전나무잎들을 밟으며 가로수길로 걸어갔다. 조용하

고 어두웠다. 다만 나무들의 웃초리들이 타는듯 한 금빛노을빛이 파르르 떨렸고 그물처럼 얽힌 거미줄에 무지개빛처럼 쏟아졌다. 나무가지들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였다. 나는 곧 보리수나무들을 심은 길다란 가로수길로 들어섰다. 여기도 역시 황폐하고 낡은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지난해의 나무잎이 발밑에서 구슬프게 바시락거렸고 저녁노을에 물든 나무들사이로 그 그림자들이 잦아들어있었다. 오른쪽에 있는 오랜 과수원에서는 꾀꼴새가 시들하게 가냘픈 소리로 울었다. 필경 그 새도 역시 늙은 꾀꼴새였으리라. 보리수나무길은 인차 끝났다. 나는 로대와 다락이 달린 흰칠한 집옆을 지나가게 되였다. 뜻밖에도 나의 눈앞에는 귀족의 집과 목욕하는 곳이 따로 있고 푸른 버들들을 몇그루씩 심은 넓은 못의 광경이 펼쳐졌다. 그 못의 기슭에는 마을이 있고 마을에는 넘어가는 저녁해빛을 받아 불타는듯 한 십자가가 달린 좁다랗고 높은 종루가 서있었다. 순간 다정하고 퍼그나 낯익은, 마치 내가 어릴 때 언젠가 늘 보던것만 같은 그 무엇이 나를 황홀하게 하였다.

그런데 마당에서 벌쪽을 향하여 량쪽에 조각상을 세우고 흰돌로 한 대문앞에 두 처녀가 서있었다. 그중에서 좀 나이든 처녀는 몸이 호리호리하고 여위였으나 꽤 미인이였다. 그 처녀는 밤빛머리칼을 깔끔하게 틀어얹고 입은 작고 고집이 세여보였다. 그는 엄격한 표정을 짓고 나를 보는둥마는둥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처녀는 17～18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애티나는 처녀로 역시 몸이 가냘프고 해쓱하였고 큰 입과 큰 눈을 가지고있었다. 그는 놀란듯이 나를 보며 내가 옆으로 지나가자 영어로 무엇이라고 말하고는 수집어하였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 두 귀여운 처녀의 얼굴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낯익은것처럼 생각되였다. 나는 마치 희한한 꿈이라도 꾼듯 한 느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후 어느날 대낮에 나와 벨로꾸로브가 집주위를 거닐고있는데 문득 풀잎을 스치는 소리를 내면서 스프링이 달린 마차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 마차에는 그 두 처녀들중의 한 처녀가 타고있었다. 그 처녀는 손우인 처녀였다. 그 처녀는 화재를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명단을 가지고왔다. 그 처녀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주 엄숙하고 자세하게 씨야노브촌에서 집이 몇채나 불탔으며 몇명의 남자와

녀인들과 아이들이 집없이 남게 되였다는것과 자기가 위원의 한사람으로 있는 화재민지원위원회가 무엇부터 먼저 하기로 계획하였는가를 이야기하였다. 우리들이 서명한 그 모금명단을 품에 간수한 처녀는 곧 작별인사를 하였다.

《당신은 영 우리를 잊었는가 보군요. 뾰뜨르 뻬뜨로위치.》 처녀는 벨로꾸로브에게 손을 내밀며 말하였다. 《놀러 오세요. 그리고 저 monsieur N(엔씨라는 뜻)도.》 그는 나의 성을 이렇게 불렀다. 《자기의 천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있는가를 보고싶다면 오세요.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머니와 저는 대단히 기쁘겠어요.》

나는 답례를 하였다.

처녀가 사라지자 뾰뜨르 뻬뜨로위치는 나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처녀는 훌륭한 가정출신이였고 사람들은 그를 리지야 월챠니노바라고 부른다는것이였고 그 처녀가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사는 그 령지도 못의 다른 기슭에 있는 마을과 마찬가지로 셸꼬브까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처녀의 아버지는 언젠가 모스크바에서 3등문관인 고관으로 있다가 죽었다. 월챠니노브일가는 재산이 많았으나 여름과 겨울에도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농촌에서 살았다. 리지야는 셸꼬브까마을에 있는 지방학교 녀선생으로 있으면서 한달에 25루블을 받았다. 리지야는 용돈으로는 오직 이 돈만을 썼는데 그는 자기가 번 돈으로 산다는것을 자랑하였다.

《재미있는 집이지요.》 벨로꾸로브가 말하였다. 《그들에게 한번 가봅시다. 그들은 당신을 퍽 반갑게 맞아줄거요.》

어느 명절날 점심식사후에 우리는 월챠니노브가족들이 생각나 그들을 방문하기로 하고 셸꼬브까마을로 갔다. 마침 어머니와 두 딸이 다 집에 있었다. 어머니는 한때는 미인이였겠으나 지금은 나이에 맞지 않게 살이 지고 천식증에 걸려있었다. 슬픈 표정을 하고 좀 어정쩡해진 어머니인 예까쩨리나 빠블로브나는 나에게 회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키려고 무던히 애썼다. 그는 딸한테서 내가 앞으로 셸꼬브까로 올지도 모른다는것을 알게 되자 모스크바전람회에서 보았다는 나의 풍경화 두세편을 급히 생각해내고는 새삼스럽게 내가 그 그림들에서 무엇을 그리려고 했는가를 물어보았다. 리지야 혹은 집에서 부르는대로 리다는 나보다는 벨로꾸로브와 더 많이 이야기하였다. 엄숙한 리다는 웃지도 않

고 벨로꾸로브에게 그가 왜 지방자치회일에 무관심하고 왜 지금까지 지방자치회 회의들에도 참가하지 않았느냐고 꼬치꼬치 캐여물었다.

《좋지 않아요, 뾰뜨르 뻬뜨로위치.》 리다는 나무라듯이 말하였다. 《정말 좋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옳다. 리다야, 네 말이 옳다.》 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좋지 않아요.》

《우리 군은 온통 발라긴의 수중에 들어있어요.》 리다는 말을 이었다. 《그는 군의회 회장이고 또 모든 관직들을 제 조카들과 사위들에게 나누어주고 제멋대로 놀고있어요. 이것과 싸워야 해요. 젊은이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유력한 그루빠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만 보세요, 우리 군의 젊은이들이 어떤지를. 창피해요, 뾰뜨르 뻬뜨로위치!》

녀동생 제냐는 지방자치회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고가는 사이에 묵묵히 앉아있었다. 제냐는 이런 심중한 이야기들에는 끼여들지 않았다. 이 가정에서는 그를 아직 성인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가 어렸을 때 가정교사를 미스라고 불렀던 까닭에 그를 어린애처럼 미슈시라고 불렀다. 제냐는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신기한듯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사진첩의 사진을 들여다볼 때 《이분은 아저씨고… 이인 교부님이예요.》라고 설명하여주었고 조그만 손가락으로 사진들을 일일이 짚어보였다. 그러면서 제냐는 어린아이처럼 어깨로 나를 넌지시 툭 다쳤다. 나는 그의 연약하고 아직 부풀지 못한 가슴과 가냘픈 어깨, 머리채와 허리띠로 꼭 졸라맨 가는 몸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우리들은 크로케(유희의 일종)와 정구를 하고 공원으로 산보하였으며 차를 마시고 그다음 오래동안 저녁식사를 하였다. 원주들이 서있는 엄청나게 크고 텅빈 광실을 본 나는 그 광실의 벽들에 한장의 유화도 걸려있지 않고 하녀에게는 당신이라고 깍듯이 부르는 이 아늑한 집에 있노라면 어쩐지 마음이 안정되여 즐거웠다. 나에게는 이곳이 리다와 미슈시가 있다는것만으로도 모든것이 싱싱하고 산뜻해보였고 고상하게 느껴졌다. 리다는 저녁식사때 다시금 벨로꾸로브와 더불어 지방자치회와 발라긴과 학교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리다는 생기있고 진실하며 신념을 가진 처녀였다. 리다가 비록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큰소리로 말했지만(학교에서 가르칠 때 크게 말하던것이 버릇이 되고말았는지도 모른다.) 그의

말을 듣는것은 흥미진진한 일이였다. 그대신 뾰뜨르 뻬뜨로위치는 (그는 대학생때부터 무슨 이야기든 론쟁으로 이끌어가는버릇이 있었다.) 자기를 총명하고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가깝증이 나도록 지루하게 말하였다. 그는 손세를 쓰다가 그만 소매로 쏘스그릇을 뒤집어엎어 상보우에 커다란 무늬를 만들어놓았지만 나밖에는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한듯 하였다.

우리들이 집으로 돌아올무렵에는 날이 어둡고 고요하였다.

《훌륭한 교양이란 그대가 쏘스를 상보에 엎질러놓은데 있는것이 아니라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였더라도 그대가 보지 못한것처럼 하는데 있는거지.》 벨로꾸로브가 말하고서 한숨을 내쉬였다. 《그래, 참 점잖고 유식한 가정이요. 난 좋은 사람들에게서 뒤떨어졌소. 아, 참 뒤떨어졌어! 그런데 모든것은 다 사업이지요, 다 사업이지요. 아무렴, 사업이구말구.》

그는 교양있는 농촌주인이 되자면 얼마나 많이 일해야 하는가를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친구가 얼마나 엉치가 무겁고 게으른 인간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무엇을 신중하게 말할 때면 늘 긴장하여 《에— 에—》 하고 말끝을 길게 빼였고 일하는것도 역시 말하는것처럼 항상 굼뜨게 하여 시간을 놓쳐버리고 시들시들 일하였다. 그는 내가 우편국에 보내달라고 준 편지를 몇주일동안이나 자기 호주머니에 넣어둔채로 다니는것을 보았기때문에 그의 사무능력을 도저히 믿을수 없었다.

《정말 괴롭소.》 그는 나와 함께 걸으면서 되뇌였다. 《일을 해도 아무한테서도 공명을 받지 못하는게 가장 괴로워요. 아무런 리해도 받지 못하거던요!》

2

나는 월챠니노브의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였다. 나는 늘 그 집 로대의 아래층계에 앉군 하였다. 나는 자신에 대한 불만때문에 괴로왔고 그렇게도 빨리 멋없이 흘러가버린 자기의 생활이 가엾었다. 나는 늘 이처럼 괴롭기만 한 심장을 차라리 빼버리면 어떤가 하고도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때 로대에서 말소리와 옷자락이 사락사락 스치는 소리

와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리다가 낮에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소책자들을 분배하고 자주 모자도 없이 우산만을 들고 마을로 다니고 저녁이면 지방자치회와 학교에 대하여 큰소리로 떠드는데 곧 습관이 되고말았다. 가냘프고 아름다운데다가 늘 변함없이 엄격하고 조그만 입을 야무지게 꽉 다문 이 처녀는 사무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매번 나를 톡톡 쏘아주었다.

《이건 당신에게는 흥미없는 일예요.》

나는 리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였다. 리다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내가 풍경화가인데다가 나의 그림에 인민의 요구가 담겨있지 않고 또 내가 리다가 그렇게도 굳게 믿고있는 그것에 대하여 랭담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였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되지만 바이깔호반에 갔을 때 나는 루바슈까를 입고 푸른 무명바지를 입은 부랴트처녀를 만났던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 처녀에게 그가 가지고있는 피리를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 처녀는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멸시하는 눈길로 나의 유럽사람다운 얼굴과 모자를 흘겨보았다. 그는 잠시라도 나와 이야기하는것이 싫은지 소리를 지르고는 저멀리 말을 달려가버렸다. 리다도 꼭 그와 같이 나를 다른 나라 사람처럼 멸시하였다. 리다는 겉으로는 나에 대한 자기의 염오를 결코 나타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느끼였다. 나는 곁이 나 로대의 아래층계에 앉아서 의사도 아니면서 농민들을 치료한다는것은 그들을 기만하는것이며 2 000제샤찌냐의 령지가 있으면 더 쉽게 자선가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녀동생 미슈시는 아무런 근심걱정도 없이 나처럼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였다. 그는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책을 쥐고 코가 땅에 닿을 지경으로 로대의 푹신한 안락의자에 앉아 독서하거나 혹은 책을 끼고 보리수의 가로수길에 숨어버리거나 혹은 대문을 벗어나 벌로 나가거나 하였다. 미슈시는 책에 정신이 팔려 하루종일 독서하였다. 그의 눈길이 때때로 꿋꿋해지고 현훈증을 일으키고 얼굴이 몹시 창백해진것을 보고서도 독서가 얼마나 그의 두뇌를 피로하게 만들었는지 짐작할수 있었다. 미슈시는 나를 만나면 얼굴을 약간 붉히고 책을 내려놓고는 생기를 띤 큰 눈으로 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는 나에게 가령 하인의 방에서 그림을 태웠다든가 하인이 못에서 큼

직한 고기를 잡았다든가 하는따위의 이야기들을 하였다. 미슈시는 여느때 대체로 루바슈까에 어두운 푸른색치마를 입고 다녔다. 우리들은 함께 거닐기도 하고 쨤을 만들려고 버찌를 따기도 하였으며 뽀트도 탔다. 미슈시가 버찌를 따려고 뛸 때나 또는 노를 저을 때면 넓은 팔소매를 통하여 그의 가늘고 연약한 팔이 보였다. 그는 내가 초안을 그릴 때면 나의 곁에 서서 환희를 가지고 바라보았다.

7월말의 어느 일요일아침 9시경에 나는 월챠니노브의 집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나는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공원을 걸으면서 그해 여름에 몹시 많이 돋았던 흰버섯들이 있는데를 찾아 후에 제냐와 함께 그것을 따려고 그주위에 표식을 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밝은 명절옷차림을 한 제냐가 어머니와 함께 교회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것을 보았다. 제냐는 모자가 바람에 날릴가봐 붙잡고 갔다. 나는 잠시후 그들이 로대에서 차를 마시고있는것을 보았다.

자기의 일상적인 무위도식을 변명하기 위하여 구실을 찾고있는 근심걱정없는 나에게는 이 장원의 여름철 명절아침은 언제나 몹시 매혹적이였다. 아직도 이슬에 젖은 초록빛정원이 해빛을 받아 반짝이고 행복하게 보일 때 집주변에서 계수나무꽃들과 협죽도꽃들이 향기를 풍길 때 젊은이들은 방금 교회당에서 돌아와 정원에서 차를 마신다. 그리고 모두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흥겨워하는것을 볼 때 또 이 모든 건강하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긴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을것이고 모든 생활이 이렇게 되였으면 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는 지금도 그처럼 하는 일도 없고 목적도 없이 온 하루, 온 여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리라고 마음먹고 정원을 거닐었다.

바구니를 든 제냐가 왔다. 그의 표정은 마치 정원에서 나를 만날것을 알았거나 혹은 예감이라도 했다는듯 한 그런 표정이였다. 우리들은 버섯을 따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제냐는 무엇을 물을 때마다 의례히 내 얼굴빛을 보려고 내앞으로 한발자욱 다가오군 하였다.

《어제 우리 마을에서 이상야릇한 일이 있었어요.》 제냐가 말하였다. 《절름발이로파 뻴라게야가 일년내내 앓았는데 어떤 의사나 약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어제 로파가 갑자기 씨근덕거리더니 병이 나았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나는 말하였다. 《환자나 로파들에게

서만 기적을 찾아서는 안되지요. 건강하다는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생활자체는요? 리해할수 없는 그것이 곧 이상한것이지요.》

《그럼 당신은 리해할수 없는것이 무섭지 않는가요?》

《아니요, 나는 내가 리해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대담하게 대할뿐더러 그것에 굴복하지도 않지요. 나는 그 현상들보다 더 높은 존재이니까요. 인간은 반드시 자신을 사자와 호랑이나 별보다 더 높게, 자연에 있는 모든것들보다 더 높이 인식해야 하며 지어 리해할수 없고 기적적인것으로 보이는 그것들보다도 더 높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것을 두려워하는 쥐와 같은 존재이지요.》

제냐는 미술가인 내가 매우 많은것을 알고있으며 그 어떤 모를것도 정확히 통찰할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였다. 제냐는 내가 자기를 영원하고 아름다운 경지로, 그 처녀의 생각에 의하면 내가 자기의 친구로 되도록 그 높은 세계로 자기를 이끌어주기를 바랐다. 그는 나와 더불어 신과 영원한 생명,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사상이 영원히 소멸될것이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은 나는 《그렇지요. 사람들은 영원불멸할것입니다.》라든가 《그렇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있습니다.》라고 대꾸하였다. 그러면 제냐는 다소곳이 들었고 믿었으며 증명해달라고 더 요구하지도 않았다.

우리들이 집에 이르렀을 때 제냐는 문득 발길을 멈추고 말하였다.

《우리 리다는 참 훌륭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나는 언니를 열렬히 사랑해요. 나는 언니를 위한 일이라면 어느때든지 생명이라도 바칠 각오예요. 그런데 좀 말씀하세요.》 제냐는 손가락으로 나의 소매를 툭 다쳤다. 《네, 말씀 좀 하세요. 무엇때문에 당신은 언니와 늘 말다툼하세요? 당신은 왜 성을 내세요?》

《그가 옳지 않기때문이지요.》

제냐는 아니라는듯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였다.

《참 모를 일예요!》 제냐는 중얼거렸다.

이때 리다는 어데서인가 방금 집으로 돌아온 길이였다. 맵시있고 아름답고 해빛을 받아 환해진 리다는 손에 채찍을 들고 계단옆에 서서

마름에게 무엇인가 분부하였다. 그다음 리다는 큰 목소리로 말하면서 2～3명의 환자를 진찰하였고 다음은 사무적이고 근심이 담긴 얼굴로 방마다 다니면서 이 장, 저 장의 문을 열어보다가 다락으로 나가버렸다. 오래동안 그를 찾았는데 그는 우리들이 국을 다 먹었을 때에야 식탁앞에 나타났다. 나는 이 모든 세부들을 웬일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별로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날 하루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였다. 점심후 제냐는 폭신한 안락의자에 누워 책을 읽었고 나는 로대의 아래층계에 앉아있었다. 우리들은 침묵을 지켰다. 온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였고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하였다. 무더웠고 바람은 벌써 잠잠해졌다. 이날은 영원히 계속될것만 같았다. 낮잠을 실컷 잔 예까쩨리나 빠블로브나가 부채를 들고 우리들이 있는 로대로 나왔다.

《오, 어머니.》 제냐가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낮잠을 주무시면 어머니께 해로워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다. 그들중 누가 정원으로 나가면 다른 한사람은 벌써 로대에 나와서서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얘, 제냐야!》 하고 부르거나 혹은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고 부르군 하였다. 그들은 함께 기도를 올렸고 두사람이 다 똑같이 믿고 서로 잘 리해하였다. 지어 침묵할 때도 잘 리해하였다. 예까쩨리나 빠블로브나 역시 곧 나와 친숙해지고 정을 붙였는데 내가 2～3일동안 보이지 않으면 있는지를 알아보러 우정 사람을 보내군 했다. 예까쩨리나 빠블로브나는 나의 그림초안들을 환희에 차서 보았고 미슈시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에게 말하여주었고 자기의 집안비밀까지 자주 실토하군 하였다.

예까쩨리나 빠블로브나는 자기의 맏딸을 존대하였다. 리다는 결코 어리광을 부리지 않았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만 말하였다. 말하자면 리다는 자기의 특유한 생활을 가지고있었다. 어머니와 동생에게는 리다가 해군으로 치면 늘 자기 선실에만 앉아있는 해군대장과 같은 그런 신성하고 좀 수수께끼같은 존재였다.

《우리 리다는 훌륭한 애지요.》 예까쩨리나 빠블로브나는 자주 말하였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가랑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속에서 우리는 리다에 대하여 이

야기하였다.

《그 애는 훌륭하지요.》 어머니는 놀란듯이 돌아보면서 녀성요술사와 같은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예요. 이런 사람들은 대낮에도 쌍등불을 켜가지고 찾아야 하지만 난 좀 걱정이 되기 시작한답니다. 학교, 약상자, 책 이건 모두 좋은거예요. 그렇지만 무엇때문에 그렇게 극단으로 달리겠어요? 그 애는 벌써 스물네살인걸요. 자신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할 때가 되였어요. 그 애는 책과 약상자밖에는 생활이 어떻게 지나가버리는지 보지 못해요. 시집가야 해요.》

독서로 얼굴이 해쓱해지고 머리칼이 흐트러진 제냐는 머리를 쳐들고 마치 혼자말처럼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어머니, 모두 하느님의 뜻이예요!》

그는 다시 독서에 골똘하였다.

반외투에 수를 놓은 샤쯔를 입은 벨로꾸로브가 들어왔다. 우리들은 크로케와 정구를 치고 어두워졌을 때에야 오래동안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리다는 다시금 학교와 군의 실권을 틀어쥔 발라긴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날 저녁 나는 월챠니노브네 집에서 나오면서 명절날의 기나긴 감명이 제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이 세상 모든것은 끝이 있다는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였다. 제냐가 우리를 대문까지 바래다주었다. 아마도 제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 하루를 나와 함께 보낸탓인지 나는 그가 없이는 마치 쓸쓸한것처럼 느껴졌고 사랑스러운 이 가족이 나에게 가까운것처럼 느껴졌다. 또한 나는 처음으로 온 여름동안 그림을 그리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쓸쓸하고 우울하게 사는가요?》 나는 벨로꾸로브와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에게 물었다. 《나의 생활은 적적하고 괴롭고 단조로워요. 그것은 내가 미술가이기때문이요. 나는 괴벽한 사람이지요. 나는 어려서부터 질투와 자기에 대한 불만과 불신으로 부대낄대로 부대껴왔소. 나는 항상 가난에 허덕였소. 나는 방랑객이요. 그러나 당신으로 말하면 건강하고 모범적이고 게다가 지주이며 귀족이요. 그런데 무엇때문에 그렇게 멋없게 지내오. 왜 생활의 혜택을 적게 누리는가 말이요? 당신은 왜 지금까지 가령 리다나 제냐를 사랑하지 않았소?》

《당신은 내가 다른 녀자를 사랑하고있다는것을 잊고있소.》 하고 벨로꾸로브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그가 자기의 곁방에 사는 자기의 안해 류보비 이와노브나를 두고 하는 말이였다. 나는 매일 이 몹시 뚱뚱하고 거드름 피우는 마치 살찐 암거위 비슷한 녀인이 진주를 단 로씨야민족옷에 항상 우산을 들고 공원으로 산보하는것을 보군 하였다. 하녀는 식사를 하라, 차를 마시라고 그를 뻔질나게 찾았다. 약 3년전에 이 녀인은 옆채의 한 방을 별장으로 세를 내가지고 보건대 영원히 벨로꾸로브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모양이였다. 녀인은 그보다 나이가 열살이나 우였고 그를 자기 손아귀에 틀어쥐고 흔들었다. 때문에 그는 집을 나설 때면 반드시 그 녀인에게 허가를 받군 하였다. 그 녀인은 자주 사내들처럼 엉엉 목을 놓아 울군 하였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여 만일 울기를 그치지 않으면 집을 옮기겠다고 해서야 녀인은 울음을 그치군 했다.
집에 돌아오자 벨로꾸로브는 쏘파에 앉아 얼굴을 찡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나는 꼭 사랑에 미친듯 한 고요한 흥분을 느끼면서 홀로 방안을 서성거렸다. 나는 월챠니노브네 식구들에 대하여 말하고싶었다.
《리다는 오직 자기처럼 환자와 학교에 정신이 팔린 그런 지방자치회원만을 사랑할거요.》 내가 말하였다. 《오, 그런 처녀를 위해서라면 지방자치회원으로 되다뿐이겠소. 지어 옛이야기에서처럼 쇠구두가 닳도록 다닐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미슈시는요? 미슈시는 참으로 매력이 있거던요!》
벨로꾸로브는 《에— 에—》 하고 말끝을 길게 뽑으면서 세기의 질병인 염세주의에 대하여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는 확신성있게 마치 내가 자기와 론쟁이라도 하려는것 같은 어조로 말하였다. 수백키로메터나 되는 단조롭고 황량하고 불타버린 초원의 우울함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사람이 세월없이 앉아서 중얼거릴 때처럼 더 우울해질수는 없을것이다.
《문제는 비관주의나 락천주의에 있는것이 아니요.》 나는 역증을 내며 말하였다. 《문제는 백명중에 아흔아홉사람이 자기의 두뇌가 없다는데 있소.》
벨로꾸로브는 이것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성을 발끈 내며 나가버렸다.

3

《저 말로죠모브에 공작이 왔는데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했어요.》 리다는 어데서인지 돌아오자 장갑을 벗으면서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흥미있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 현회의에서 다시 말로죠모브진료소에 대하여 문제를 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망이 적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나를 향하여 말하였다. 《용서하세요. 이런 문제는 당신에게 흥미가 없으리라는걸 나는 늘 잊군 해요.》

나는 결이 났다.

《왜 흥미가 없겠습니까?》 나는 묻고 어깨를 으쓱하였다. 《당신이야 나의 의견을 알 필요가 없겠지만 나는 당신에게 확언합니다. 이 문제는 몹시 나의 흥미를 끕니다.》

《그러세요?》

《그렇지요. 나의 생각에는 말로죠모브진료소는 전혀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요.》

나의 노여움은 리다에게로 옮겨졌다. 리다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풍경화가?》

《풍경화도 필요없지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리다는 장갑을 다 벗고 방금 우편국에서 배달된 신문을 펼쳐들었다. 잠시후에 리다는 확실히 자신을 억제하면서 조용히 말하였다.

《지난 주일에 안나가 해산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만일 진료소가 가까이 있었더라면 안나는 살았을거예요. 나는 풍경화가제씨께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신념이든지 반드시 가졌으면 해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정확한 신념을 가지고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단언합니다.》 내가 대답하려는데 리다는 마치 듣지 않으려는듯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내 생각같아서는 진료소나 학교, 도서관이나 약상자 같은것들은 지금 조건에서는 다만 예속적인 역할밖에는 놀수 없습니다. 인민은 커다란 쇠사슬에 얽매여있습니다. 당신이 이 사슬을 끊지 않는다면 다만 당신은 새 고리들을 보태여주는

역할밖에 할수 없습니다. 자, 이게 나의 신념입니다.》
리다는 힐끔 눈을 치뗘 나를 보더니 비웃듯이 생긋 웃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기본사상을 포착하려고 애쓰면서 말을 이었다.
《안나가 해산하다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것이 아니지요. 수많은 안나와 마브라와 뻴라게야가 이른아침부터 어두울 때까지 등을 굽히고 힘겨운 로동으로 고통을 겪고있지요. 일생을 기아와 앓는 자식들때문에 몸서리치며 죽음과 질병의 공포에 떨면서 일생을 보내다가 일찌기 쇠약해지고 로쇠하여 쓰레기와 악취속에서 죽어간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것입니다. 그들의 자식들도 또한 어른이 되자 같은 길을 걷게 되고 이런 식으로 수백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수억의 인간들이 동물보다도 더 나쁜 생활, 다만 끊임없는 공포속에 한쪼각의 빵을 위해서 살고있지요. 그들은 자기의 정신이나 자신이나 이와 류사한것에 대해서 생각할 짬이 없다는데 그들의 처지의 모든 두려움이 있는겝니다. 말하자면 기아와 추위와 동물적인 공포와 끝이 없을 로동이 마치 눈사태처럼 쏟아져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는 유일한것, 그것때문에 살 가치가 있는, 바로 그 정신적활동을 할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놓았지요. 당신은 병원들과 학교들을 도와주려고 그들한테로 다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들을 쇠사슬에서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당신은 그들의 생활에 새로운 편견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들을 더 예속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것을 요구하게 하지요. 그들이 발포고약값과 책값을 지방자치회에 꼭 물어야 한다는것은 제쳐놓고라도 말이지요. 이를테면 그들의 등을 더 심하게 굽히게 하는것입니다.》
《저는 당신과 론쟁하고싶지 않아요.》 리다는 보던 신문을 놓으며 말하였다. 《저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여 손을 포개고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다는것만을 당신에게 말해두겠어요. 우리들이 인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것은 옳아요. 아마 많은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유를 범하고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할수 있는것을 하고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옳아요. 문화적인 사람의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과제는 동포들을 위해 일하는것이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능력껏 일해보려고 해요. 당신의 마음엔 들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수야 없지요.》

《옳다, 리다. 네 말이 옳다.》 어머니가 딸의 말을 거들었다.
어머니는 리다가 있는데서는 늘 겁을 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혹시 자기가 쓸데없거나 격에 맞지 않는 말을 할가봐 겁을 내면서 불안하게 리다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리다의 말을 절대 반대하지 않고 그저 리다의 말이 옳다고 긍정만 하였다.
《농민들에게 배워준다는 학문이며 가엾은 교훈과 경구가 들어있는 책이며 진료소들은 마치 당신의 창문에서 비치는 빛이 저 큰 공원을 다 비치지 못하는것처럼 역시 몽매와 사망률을 줄이지도 못하지요.》 나는 계속하였다. 《당신은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의 생활에 간섭함으로써 로동에 대한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놓을뿐입니다.》
《아, 맙시사. 그렇지만 무엇이든 해야 하지 않을가요!》 리다가 분한듯이 말하였다. 그의 어조로 보아 리다는 나의 주장을 보잘것없는것으로 여기고 경멸한다는것이 뚜렷하였다.
《괴로운 육체적로동에서 사람들을 해방해야 합니다.》 나는 말하였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그들이 쉴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온 일생을 뻬치까와 구유통, 밭에서 보내지 않고 역시 령혼과 신에 대하여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정신적능력을 더 광범히 발휘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간이 정신적활동을 하는 목적은 생활의 진리와 의의를 끊임없이 찾는것이지요. 그들이 란폭하고 동물적인 로동을 하지 않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자유롭게 느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 책들과 약상자라는것이 사실 얼마나 가소로운것인가를 알게 될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진실한 사명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러한 너절한것이 아니라 종교와 과학과 예술만이 그들을 만족시킬수 있게 될것입니다.》
《로동에서 해방시킨다구요!》 리다는 차겁게 웃었다. 《과연 그게 가능할가요?》
《가능하구말구요. 그들의 로동부담을 들어봅시다. 만일 우리모두가 즉 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이 모두 례외없이 인류의 육체적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그 로동을 서로 나누는데 동의한다면 우리 매 개인은 아마 하루에 두세시간씩만 일하면 될것이요. 부자도 가난한 사

람도 우리모두가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유로워질 그런 세상을 상상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자기의 육체로동에 덜 의존하고 고통을 덜며 로동을 대신하는 기계들을 발명하고 우리들이 우리의 욕망의 량을 극도로 축소하려고 애쓰는 그런것을 상상해보십시오. 우리들은 우리의 자식들이 기아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이 안나와 마브라, 뻴라게야가 떤것처럼 자식들의 건강때문에 항상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단련하고 자식들도 단련시킨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것이고 약국과 담배공장, 술공장도 필요없게 될것이니 결국 우리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얼마나 많아지겠소! 우리들은 모두 함께 이 시간을 과학과 예술에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때때로 농부들이 함께 길을 수리하듯이 우리들도 모두 공동으로 생활의 진리와 의의를 탐구했더라면 나는 이 점을 확신합니다. 진리는 좀더 빨리 발견되였을것이고 인간은 이 변함없이 위협하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공포로부터, 지어 죽음자체로부터 해방되였을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자기 모순에 빠졌어요. 당신은 과학, 과학 하면서도 자신은 학문을 거부하고있어요.》 리다가 말하였다.

《오로지 인간이 주막집의 간판과 간혹 리해하지 못하는 책들을 읽을 가능성을 가지고있을 때의 학문, 이 정도의 학문은 우리에게 이미 류리끄시대부터 있었고 고골리의 작품에 나오는 뻬뜨루쉬까도 오래전부터 알고있었지요. 그런데 류리끄시대의것과 같은 그런 농촌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지요. 학문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정신적능력을 광범히 발휘시킬수 있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건 학교들이 아니라 종합대학들입니다.》

《당신은 의학도 부인하고있어요.》

《그렇지요. 의학이란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 아니라 자연현상들을 연구하듯 병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지요. 만일 정말 치료하는것이라면 그건 병이 아니라 병의 원인이지요. 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과도한 육체적로동을 제거해버린다면 그때는 병은 없어질것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과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흥분하여 말을 계속하였다. 《진정한 과학과 예술만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원하고 일반적인 목적을 지향합니다. 말하자

면 그것들은 생활의 진리와 의미를 탐구하며 신과 령혼을 탐구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당면한 요구나 어려운 문제, 약상자와 도서관에 관한 문제들과 결부시킨다면 그것은 생활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부담을 더 크게 할뿐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의학과 약학, 법학과 같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요. 그러나 생물학과 수학, 철학을 하는 학자들과 시인들은 전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신적 에네르기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소비되고있으니까요. … 학자들과 작가들, 미술가들에게는 할일이 많고 그들의 덕분에 생활은 나날이 편리해지고 육체적욕망은 커지고있지요. 그런데도 진리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까마득히 멀거던요.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가장 략탈적이고 더러운 백치로 남아있고 또 이 모든것은 인류의 대다수를 퇴화시키며 온갖 생활력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빚어놓는단 말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술가의 생활도 의미가 없고 그 미술가가 천재일수록 그의 역할은 더욱 괴이하고 리해하기 어려워요. 이를테면 그가 현존질서를 지지하면서 략탈적인 더러운 백치를 위안하기 위하여 일하고있다는 증거로 되기때문에 나도 일하고싶지 않습니다. 또 일하지 않을것입니다. …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이 땅이 온통 지옥에 빠질테면 빠지라지요!》

《미슈시까, 나가있어라.》 리다는 동생에게 말하였다. 분명히 나의 말이 제냐와 같이 어린 처녀에게는 해롭다고 생각한 모양이였다.

제냐는 애처롭게 언니와 어머니를 쳐다보고는 나가버렸다.

《그런 아름다운 말들은 흔히 사람들이 자기의 무관심을 변명하려고 할 때 하는거예요.》 리다가 말했다. 《병원과 학교를 부인하는것은 치료하고 가르쳐주는것보다는 한결 쉬워요.》

《옳다, 리다. 네 말이 옳다.》 어머니가 맞장구쳤다.

《당신은 일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군요. 분명히 당신은 자기들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있어요. 그러나 론쟁은 그만두자요. 우리는 결코 찬성하지 않을테니까요. 방금 당신이 그렇게도 경멸스럽게 비판한 그 모든 도서관들과 약상자들중에서 제일 못한것도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풍경화보다 더 높이 평가하니까요.》 그는 곧 어머니에게 얼굴을 돌리고 전혀 딴 어조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공작은 몹시 수척했겠지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을 때보다 무척 달라졌어요. 그분을 위

시로 보낸대요.》

리다는 나와 말하지 않으려고 자기 어머니에게 공작에 대하여 이런 저런 말을 하였다. 리다의 얼굴은 상기되였다. 리다는 자기의 흥분을 감추려고 마치 근시안처럼 탁자에 얼굴을 푹 숙이고 신문을 읽는체 하였다. 내가 있는것이 불쾌한 모양이였다. 나는 그들과 헤여져 집으로 돌아왔다.

4

마당은 쥐죽은듯 고요하였다. 못 건너편의 마을은 벌써 잠들어 한 점의 불빛도 보이지 않았고 다만 못물우에 창백한 별빛이 가물거리고 있을뿐이였다. 버드나무들이 서있는 대문가에서 제냐가 나를 바래주려고 기다리면서 꼼짝않고 서있었다.

《마을이 다 잠들었군요.》 나는 어둠속에서 제냐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고 애쓰면서 말하였다.

나는 나를 뚫어지게 쏘아보는 까맣고 가엾은 그의 눈을 보았다.
《주막집주인도 말도적놈도 편안히 자고들 있는데 점잖은 인간들인 우리들만은 서로 화를 돋구면서 말다툼을 하고있군요.》

구슬픈 8월의 밤이였다. 구슬프다는것은 벌써 가을의 향취가 풍겼기때문이였다. 달이 검붉은 구름장들사이로 길과 길 량쪽에 있는 거무스름한 호밀밭들을 희끄무레하게 비쳤다. 자주 별찌들이 흘러갔다. 제냐는 나와 함께 걸으면서 별찌들을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그 별찌들이 웬일인지 제냐를 불안하게 하였던것이다.

《전 당신이 옳은것 같이 생각되여요.》 제냐는 축축한 밤공기에 몸을 파르르 떨면서 말하였다.

《만일 사람들이 모두 함께 정신활동에 바칠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더 빨리 모든것을 깨달았을거예요.》

《옳습니다. 우리들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진실로 인간의 정신적힘을 의식했더라면 그리고 다만 고귀한 목적만을 위하여 살았더라면 결국 우리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되였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결코 없을것입니다. 인류는 퇴화할것이고 하늘이 준 재능은 흔적도 남지 않을것이니까요.》

대문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제냐는 걸음을 멈추고 성급히 나의 손을 잡았다.

《안녕히 주무세요.》 제냐는 몸을 떨면서 말하였다. 처녀의 어깨에는 얇은 웃옷이 걸쳐져있었다. 그는 추워서 몸을 옹송그렸다. 《래일 또 오세요.》

나는 그만 자신과 사람들에게 불만을 품고 성난채 혼자 남게 되리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꼈다. 그리하여 나자신도 이제는 떨어지는 별찌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조금만 더 있어주오.》 나는 말하였다. 《당신에게 빕니다.》

나는 제냐를 사랑하였다. 제냐가 나를 맞아주고 바래주었으며 나를 다정하게 또 기쁜 얼굴로 바라보았기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였던 모양이였다. 그의 창백한 얼굴이며 날씬한 목이며 섬세한 손 그리고 그의 나약함과 무위, 그의 책이며 이 모든것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아름다왔던가. 그리고 그의 구두는? 나는 제냐의 비범한 두뇌를 의심해왔다. 그런데 그의 활달한 견해가 나를 기쁘게 하였다. 아마 나를 즐겨하지 않는 엄격하고 아름다운 리다와는 다르게 사고하였기때문일지도 모른다. 제냐는 미술가인 내가 마음에 들었고 나의 재능이 그의 심장을 사로잡은 모양이였다. 나는 오직 제냐를 위하여 그림을 그리고싶은 욕망이 맹렬히 북받쳐올랐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나무들과 들판, 안개와 노을이며 놀랍고 황홀한 이 자연을 차지할 자기의 자그마한 녀왕에 대하여 공상하듯 제냐에 대하여 공상하였다. 나는 지금까지는 이 자연속에서 자신을 절망적으로 외롭고 쓸모없는것으로만 느껴왔다.

《좀 더 있어주오.》 나는 부탁하였다. 《비오.》

나는 외투를 벗어 제냐의 언 어깨에 걸쳐주었다. 제냐는 남자외투를 입는것이 남의 눈에 뜨이고 또 흉하게 보일가봐 두려운지 호호 웃고는 외투를 뿌리쳤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얼굴과 어깨, 손에 열렬히 입을 맞추었다.

《안녕히 가세요!》 제냐는 조심히 그리고 마치 밤의 정적을 깨뜨릴가봐 두려운듯이 속삭이고는 나를 꽉 포옹하였다. 《우리는 서로 비밀이 없어요. 나는 당장 어머니와 언니에게 모든걸 말할테예요.… 이건 무서운 일예요! 어머니는 별문제예요. 당신을 좋아하니까요. 그렇지만 리다가!》

제냐는 대문쪽으로 달아났다.

《잘 가세요!》 제냐가 소리쳤다.

나는 곧 그가 뛰여가는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나는 집에 가고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로 갈데도 없었다. 나는 얼마간 생각에 잠겨 멍하니 서있다가 제냐가 사는 사랑스럽고 소박한 낡은 집을 다시한번 보려고 오던 길로 되돌아섰다. 그 집의 다락에 달린 창들이 나를 바라보는것만 같았고 모든것을 알고있는것만 같았다. 로대옆을 지나 정구장가까이에 있는 늙은 느릅나무밑의 어둠속에 잠긴 긴걸상에 앉았다. 나는 집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미슈시가 있는 다락방의 창문들에는 불빛이 환히 비쳤고 다음은 푸른 불빛으로 바뀌였다. 등에 갓을 씌운 모양이였다. 그림자들이 얼른거렸다. … 나는 사랑과 정적, 자기 만족, 말하자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였다는 그 만족의 감정에 휩싸였다. 그와 동시에 바로 이 시각 몇발자국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집의 한방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나를 미워할지도 모르는 리다가 살고있다는 생각때문에 나는 거북함을 느끼였다. 나는 앉아서 그냥 기다렸다. 혹시 제냐가 나오지나 않을가 하고 나는 귀를 기울이였다. 나에게는 마치 다락방안에서 말들을 주고받는것처럼 생각되였다.

한시간쯤 지나갔다. 푸른 불빛이 꺼지고 그림자들도 보이지 않았다. 달은 벌써 집우로 높이 솟아올라 정든 정원과 좁은 길을 비쳤다. 집앞의 꽃밭에 심은 다리야와 장미꽃이 똑똑히 보였는데 모두 한가지 빛갈이였다. 꽤 추워졌다. 나는 정원에서 나와 길우에 놓인 외투를 찾아들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였다.

이튿날 점심식사후에 나는 월챠니노브네 집으로 갔다. 정원으로 향하는 유리문은 활짝 열려있었다. 나는 꽃밭 건너쪽의 마당에서나 혹은 어느 가로수길에서 제냐가 나타나든지 또는 방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면서 로대에 앉아있었다. 다음 손님방을 지나 식당으로 가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식당에서 나온 나는 긴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섰다. 복도에는 몇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중 한 문안에서 리다의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렸다.

《어데선가 까마귀에게… 하느님이…》 리다는 목청을 돋구어 길게 발음하였다. 틀림없이 무엇을 불러주는 모양이였다. 《하느

님은 한쪼각의 치즈를 보내셨습니다. … 어데선가… 까마귀에게… 누구세요?》 그는 나의 발자국소리를 듣자 별안간 소리쳤다.

《납니다.》

《네! 용서하세요. 지금 나는 나갈수 없어요. 다샤를 배워주고있으니까요.》

《예까쩨리나 빠블로브나는 정원에 계신가요?》

《아니예요. 어머니가 오늘 아침 동생을 데리고 뻰젠쓰끄현 이모한테 가셨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둘이 다 외국으로 떠날거예요. …》 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덧붙여 말했다. 《어디선가 까마귀에게… 하느님은 한쪼각의 치즈를 보내셨습니다. … 다 썼어요?》

나는 현관으로 나왔다. 나는 무심히 서서 못과 마을을 바라보았다. 리다의 목소리가 여전히 나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한쪼각의 빵을… 어디선가 까마귀에게 하느님은 한쪼각의 빵을 보내셨습니다. …》

나는 처음 이 집으로 왔던 그 길로 해서 정원을 나섰다. 다만 처음과는 반대로였다. (처음에는 마당에서 정원으로 나왔고 집옆을 지나 보리수가 늘어선 길로 갔다.) 이때 한 소년이 나를 쫓아오더니 쪽지를 내밀었다. 《저는 모든걸 언니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저더러 당신과 헤여지라고 하더군요.》 나는 계속 읽었다. 《저는 반대하여 언니를 괴롭힐수 없었어요. 하느님은 당신에게 행복을 주실거예요. 저를 용서하세요. 저와 어머니가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당신이 알아주기나 했으면.》

담벽을 가리는 어두운 버드나무길이 나섰다. 처음 왔을 때는 이곳에 호밀이 꽃피고 메추라기들이 요란스럽게 울던 그 들판에 지금은 암소들과 다리를 동여맨 말들이 싸다녔다. 언덕의 군데군데에 푸른 가을보리가 똑똑히 보였다. 나는 다시 평소의 기분으로 돌아왔다. 월챠니노브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고 또 이전대로 살기도 쓸쓸하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나는 짐을 꾸려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뻬쩨르부르그로 떠났다.

나는 다시는 월챠니노브가족을 만나지 못하였다. 얼마전에 나는 크림으로 가는 도중 차칸에서 벨로꾸로브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반외투와 수놓은 샤쯔를 입고있었다. 그리고 내가 건강이 어떤가고 묻자

그는 《당신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하고 대답하였다. 우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자기의 령지를 팔고 류보비 이와노브나의 명의로 그보다 작은 령지를 샀다. 그는 월챠니노브네 가족에 대해서 조금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리다는 여전히 셸꼬브까에서 살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준다는것이였다. 그는 자기 주위에 조금씩 마음에 드는 인품있는 사람들의 소조를 무을수 있었다. 그 사람들은 꽤 유력한 그루빠를 이루었다. 최근 지방자치회선거에서는 그때까지 군을 틀어쥐고있던 발라긴을 떼버렸다는것이였다. 벨로꾸로브는 다만 제냐에 대하여서는 그가 집에 없고 행처도 모른다는것만을 말하였다.

나는 벌써 다락집을 잊기 시작하였다. 다만 가끔 그림을 그리든지 책을 읽든지 할 때에만 문득 저도 모르게 창에 어렸던 푸른 불빛이 떠오르고 밤 들판을 걷던 나의 발자국소리와 사랑에 흐뭇해진 내가 집으로 돌아와 추워서 손을 부비던 일이 생각날뿐이였다. 그리고 드물게는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고 슬픔이 찾아들 때 그때 일들을 어렴풋이 추억하였다. 그때면 나는 웬일인지 제냐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다릴것이며 우리들은 다시 만나게 될것이라고 생각되였다. …

《미슈시여.》 그대는 어디 있는가?

—1896년—

체호브작품선(1)

저 자 체 호 브
편 집 최 운 애
편 성 김 남 숙
교 정 안 순 영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 2
인 쇄 주체100(2011)년 6월 25일
발 행 주체100(2011)년 6월 30일

ㄱ—16221ㄴ 값 175원